

신지학 대의(大義)

(원제: Inner Life)

저: 리드비터

역: 조하선

여기서 펼~ <http://blog.naver.com/eyeinhand/10125396715>

삽화 파일은 따로 첨부되어 있음.

신지학 대의 1. 목차

(이 원고는 1994년에 번역한 것이다. 당시 한국 신지학회에서 영어 신지학 문헌 번역 프로젝트를 잠시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결국 일어에서 중역된 책들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 원고는 당시 한국 신지학회로부터 의뢰를 받고 번역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무산으로 출판되지 못하자 몇 군데 출판사와 접촉했지만 대중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오래전에 번역한 것이라서 용어나 표현을 바꾸고 싶은 부분들도 있다. 완벽을 기하려면 원서와 대조하며 번역문을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부족한대로 그냥 신기로 했다. 도표는 새로 만들어서 첨부한 것이다.)

<저자 리드비터 소개>

본래 카톨릭 교회의 부제였던 리드비터(C. W. Leadbeater)는 신지학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신네트(A. P. Sinnet)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신지학회에 입문하게 된다. 신네트의 주선으로 신지학회 창설자인 블라바츠키를 만난 후 성직을 버리고 신지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마스터 쿠트후미의 지도로 쿤달리니를 작성시킨 뒤 탁월한 영능력을 바탕으로 많은 신지학 관련 서적들을 저술하였다. <차크라>를 비롯해 30여권의 책들을 남겼다. 특히 그는 후에 세계적 스승이 된 크리슈나무르티를 발견해낸 것으로 유명하다.

- 목 차 -

역자 서문

[제 1장 : 마스터들과 그들에게 가는 길]

마스터들.

그리스도의 사역.

마스터들의 사역.

마스터와 제자

진화의 길.

고대의 비의(秘儀)

[제 2장 : 종교]

로고스.

불교.

기독교.

좌.

교황.

의식.

기도.

악마

힌두교.

심령주의.

상징.

불

[제 3장 : 신지학의 자세]

상식.

형제애.

세계를 돋가.

비판.

편견.

호기심.

너 자신을 알라.

고행.

사소한 걱정.

욕망 죽이기.

내 원의 중심.

동물에 대한 의무.

자연과의 교감.

어린이에 대한 자세.

죽음의 공포.

협력.

하루같은 인생.

명상

[제 4장 : 고급계]

니르바나

삼중영(三重靈).

붓디 의식.

차원계

[제 5장 : 자아와 그 매체들]

자아와 인성.

아스트랄 대응체.

아스트랄체의 색깔:

코잘체.

욕망 엘리멘탈

잃어버린 혼들

의식의 초점.

힘 센타들.

뱀의 불.

빙의와 정신이상.

잠.

몽유병.

육체.

담배와 술

[제 6장 : 사후의 삶]

신지학도의 사후.

사자(死者)와 지상과의 관계.

사후의 상대.

동물 빙의.

개체화된 동물의 사후상태.

아스트랄 부분계.

천계의 상태.

천계에서의 카르마

[제 7장 : 아스트랄 활동]

안보이는 조력자

아스트랄 경험을 기억하기.

고차원들

[제 8장 : 멘탈체와 상념의 힘]

멘탈체.

상념의 힘.

직관과 충동

상념체.

상념과 엘리멘탈 에센스

[제 9장 : 영능]

영능.

투시.

신비의 코드(chord).

전생을 보는 원리

미래를 보는 원리

[제 10장 : 데바와 자연령]

데바의 오라(Aura).

나무의 정령

[제 11장 : 윤회]

인생의 세 가지 법칙

환생

개성

전생의 지식을 가져오기

[제 12장 : 카르마]

균형의 법칙

카르마의 메카니즘

죽음의 카르마

훈육자로서의 카르마

카르마의 다양성

동물 카르마

* 리드비터와 그의 신지학 사상에 대하여(셜리 니콜슨)

신지학 대의 2. 역자 서문

신지학(theosophy)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신성(theos)’과 ‘지혜(sophia)’가 결합된 용어로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신성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면 다 신지학이라 할 수 있다. 신지학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어졌던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지학이라 하면 보통 1875년 창설된 신지학회의 멤버들에 의해 썩어진 일련의 저작들에 나타난 신비 사상 체계를 일컫는다. 물론 그들 또한 자신들의 체계가 신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신성한 진리이며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영원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래 ‘신지학’의 어원적 의미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신지학이라 불리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인도-티벳 체계라 할 수 있다. 신지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주로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그점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신지학은 동양적 체계인 것이다.(물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서양 비교^{秘敎} 체계에 대한 설명들도 적잖이 있긴 하지만.) 본래 서양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것은 이집트 체계이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서양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비교(^{秘敎}) 체계는 이집트의 비밀 학파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아다시피 서양 문명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대와 그리이스도 고대로부터 이집트와 밀접한 사상적 교류가 있어왔다. 그렇게 수천년 동안 서양의 정신사는 하나의 원천에서 흘러 내려온 물길로 그 대지가 적셔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서양의 정신 세계에 일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서막은 신지학회의 창설과 더불어 열려진다. 신지학을 필두로 동양 사상의 물결이 서양을 휩쓸게 된 것이다.

근대에 서구의 물질 사상이 동양을 침공했다면 그 반대로 동양은 서양을 사상적으로 침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상적 침공의 선두에 신지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심오한 동양의 형이상학을 서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설명해 주었고, 그 결과 오늘날 서양에서 사용되는 신비주의 용어들 대부분이 신지학 흐름에서 파생된 용어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근대 이후 출판되는 서양의 신비 서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지학적 용어의 이해가 필수적이기까지 하다.

신지학이 이렇게 서양의 정신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데는 시대적 조류의 특성에 기인된 바 크다. 신지학회가 창설되던 19세기 말은 서구 열강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약하던 시기였다. 극에 달한 산업화와 함께 강력한 힘의 정치로 제국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인간성과 개인적 다양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숨가쁘게 지배욕만 채우며 목표를 향해 치달리던 서구는 결국 1차 세계대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파국을 맞게 된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서구의 지성들은 물질 중심의 자신들의 문화에 권태를 느끼게 되고 서양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동양에 눈을 돌리게 된다. 유럽의 몰락을 염려하던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 문화에 일대 수정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동양 사상의 유입이 불가피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동양적인 사상 체계인 신지학이 서구에 소개되기에 이르렀고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로부터

생명수처럼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오늘날 신지학은 특별히 동양 사상이라는 한정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서양의 오컬트 또는 에소테릭 체계의 일부로 확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인도, 티벳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신비로운 체계로 다가올 수 있다. 사실상 동양과 서양, 종교와 과학,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양의 체계나 서양의 체계 어느 한쪽으로 일반에 인식되는 것이 썩 내키지 않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신지학은 지역을 초월하여 고대로부터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는 영원한 지혜, 진리로서 현대에 다시 밝혀내어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인도 아디야르 신지학회 본부에서는 저녁마다 강론 시간이 있었다. 1909년 2대 회장인 애니 베산트가 미국 순방길에 나서자 리드비터가 대신 그 시간을 맡아 신지학 일반에 대해 학인들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속기로 기록되었다가 잡지에 실렸고 그들을 다시 한데 모아 출판하게 되었다. 그렇게하여 일반에 선을 보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구술로 행한 강의를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글의 전개가 단락별로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이 군데군데 있다. 그러나 하나의 주제 안에 포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 글은 학회 멤버들을 대상으로한 강의였기 때문에 신지학 용어들이 사전 설명없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신지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 그런 경우마다 역주를 달아 놓았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신지학은 매우 방대한 체계이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책만 읽어도 신지학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지학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일찍이 미우라 간죠 같은 탁월한 신지학자가 나와 많은 책들을 저술 또는 번역하여 신지학의 대중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놓은지 이미 수십년이 넘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까지 정신 강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번역본을 다시 중역(重譯)한 책들을 읽어야 한다면 이 어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신지학이 서구의 근현대 정신사상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다. 오늘날 신지학은 신비학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만 아니라 넓게 인문 과학의 한 분야로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학인들이 심도있게 세계의 정신사상을 배우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신지학의 탐구는 필수적인 일이기까지 하다. 본서를 계기로 앞으로 신지학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널리 소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역자의 소박한 바램이다.

제 1장 마스터들과 그들에게 가는 길

신지학 대의 3. 마스터들

마스터들

오컬트 학도들 중에는 -때로 심지어 오랜 세월동안 공부해온 사람들 중에도- 마스터들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마스터들을 일종의 천사나 데바 (*주1)로 생각하거나, 아무튼 우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여 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보아왔다. 그들의 위대함이란 의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까마득히 멀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자비와 도움 또한 바로 곁에 있으며 매우 실제적인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터(Master)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보자. 우리

가 마스터라고 부를 때 그는 항상 대백색형제단(Great White Brotherhood)의 일원이며 제자를 둘 수 있을 정도의 위계에 오른 자이다. 대백색형제단은 세상의 여느 단체와는 다른 조직으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백색형제단은 때로 히말라야형제단, 티벳형제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의 표현 속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산악에 위치한 사원에 거주하는 인도 성자들의 체계라는 뉘앙스가 풍긴다. 아마도 이것은 신지학회의 창설과 활동에 관계한 두 명의 마스터들이 당시에 티벳에 살았고 인도인의 육체를 지닌 분이었다는 점에 주로 근거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대부분 우리 신비학도들은 ‘신성의 길’(*주2)에 대한 네 단계의 사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네 단계를 통하여 아세카(Aseka)의 차원에 도달한 자는 이 체인기(Chain-Period) 동안 인간 앞에 주어진 과업을 달성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세계나 다른 계에 윤회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 이후 그 앞에는 7개의 길(*주3)이 열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대부분은 지구를 떠나 더 광대한 계에서 활동(대체로 태양계와 관련된 일들)하며 우리의 인식 범위를 완전히 초월한 자가 된다. 그러한 자들 중에서 제한된 인원만이 인류를 위해 직접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 그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 즉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주로 닐마나카야(Nirmanakaya)(*주4)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그들은 말하자면 이 세계와 열반(니르바나)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인류를 위한 영적 힘의 발산에 쏟고 있다. 그들은 이 힘을 소위 말하는 ‘저장소’에 쏟아 붓고 있고 마스터와 제자들은 그 에너지를 끌어내어 씀으로써 인류를 위한 자신들의 활동에 도움 받고 있다. 닐마나카야는 ‘고뇌를 택한자’라고 불린다. 이유는 그가 상기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저급계와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어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고뇌를 택한 자’라는 말은 그가 고급계에서의 사역의 기쁨, 니르바나 차원의 기쁨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돋기 위하여 저급계에 남아 있는 쪽을 선택하였다.

사실상 고급계로부터 이 세상에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맑은 공기와 눈부신 햇빛이 비추는 바깥 세상에서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감옥에 온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행위가 지하 감옥으로부터 사람들을 탈출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가 비록 거기 있다해도 비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속박과 억압이라는 모순되고 진저리나는 느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실제로 있어서는 정반대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사람 쪽이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더 큰 고뇌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일단 한 번 세상의 영적 비참함과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참담한 상태를 진정으로 보았다면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여

느 사람처럼 그렇게 그것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결코 없다. 다행히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은 우리들은 언제나 진실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분명한 자세를 갖춘 셈이다.

널마나카야의 장엄한 힘의 분출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노력이 보잘것 없다 하나, 그 작은 한 방울이 위대한 에너지의 저장소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쏟아 부을 때마다 두 배의 결과를 낳는다. 즉,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또 하나는 사랑을 보내는 우리 자신에게. 그러나 만일 그 사랑과 헌신 속에 한치의 사심도 없다면 그것은 잇따라 제3의 효과 또한 만들어낸다. 평범한 사랑과 헌신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폐곡선(閉曲線)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 곡선이 아무리 커도 그 결과는 보낸 자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진실로 비이기적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개곡선(開曲線)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그 중 일부가 발송자에게 어쩔 수 없이 반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의 가장 위대하며 고상한 힘은 로고스(LOGOS)에게 올라가고 그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저장소로 내려와 인류를 돋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약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봉사에 대한 카톨릭 사상의 배후에 놓인 진실은 바로 이 영적 힘의 저장소에 에너지를 더한다는 것이다.

육체를 보존하고 있는 아데프트(adept)(*주5)들 중에서도 훨씬 더 제한된 숫자만이 우리와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는데, 이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인류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대백색형제단’ 또는 ‘오컬트 하이어라키’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그것은 후자, 즉 인류의 진화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아데프트들의 조직의 경우이다. 그들은 소수의 고도로 진화된 성자들로서 어떤 특정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속해있다. 그들은 비록 고급계에서는 서로 계속 통신을 하고 있지만 물질계에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다른 육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특정한 시기에 어떤 국적의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그들 중 몇 분은 인도인이며 한 분은 티벳인 또 한 분은 중국인 그리고 적어도 두 분은 영국인이고 이탈리아인, 헝가리인, 시리아인이 각각 한 분씩 있으며 키프러스 출신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국적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든 것은 하이어라키(hierarchy)(*주6)를 배타적으로 어느 한 인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 하이어라키의 대수장(大首長)(*주7)에 대해서는 외경심 때문에 감히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손 안에 지구의 운명이 놓여 있으며 모든 비전(秘傳)이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는 약 1800만년 전 인류의 진화를 돋기 위해 금성으로부터 강림해온 ‘불꽃의 주님들’, ‘불안개의 자식’들 중에서 아직도 지구에 남아있는 극소수 초인중의 한 분이다. 이 위대한 존재들은 당시의 매우 저급한 인간 형상의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으로 일종의 영구적인 물질화를 통해 우리 인간과 유사한 외모의 신체를 만들었다.

불꽃의 주님들이 강림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도 우리 인간들 중에는 이 하이어라키의 특별한 고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화한 사람들이 없었다. 따라서 인류는 그들의 외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류가 진화해 감에 따라 차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위대한 불꽃의 주님들도 다른 진화 단계의 영혼들을 돋기위해 지구를 떠나갔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분만은 아직도 계속 최고의 지위에 남아있다. 그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화를 인도하고 통제하는 왕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인류와 동물, 식물, 광물, 엘리멘탈계의 진화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존재인 데바, 자연령 세계의 진화까지 조절하고 있다.

그분의 휘하에는 다양한 부문을 맡고 있는 수장(首長)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의 활동은 그분의 활동보다 훨씬 이해가 용이하다. 물론 세부사항은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넘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인종의 마누(Manu)(*주8)나 종교 미니스터(Minister) 등의 다양한 의무와 활동에 대한 개요를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다.

종교 미니스터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특정한 타입의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 이 세계에 종교들을 내보낸다. 때로 그는 자신의 하위자로 하여금 종교를 창설하도록 위임하기도 하고 때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직접 그 목적을 위해 화신하기도 한다. 동양에서 이 종교의 미니스터는 종종 보디사트바(Bodhisattva, 보살)라고 부르는데 이 보디사트바는 봉다의 경지에 거의 도달한 자를 의미한다. 과거에 이러한 종교의 미니스터였던 자가 바로 고타마 봉다이다. 봉다의 경지를 성취하였다는 것은 단지 깨달음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어떤 분명한 위대한 비전(秘傳)을 통과한 것으로서 이 단계에 오른 자는 다시는 지상에 화신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계승자에게 넘겨주고 대개는 지상과의 연결을 끊고 떠나게 된다.

그러나 주(主) 고타마는 아직도 어느 정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그가 세상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타마 봉다는 매해 한 번씩 아데프트형제단에 모습을 나타내서 축복을 내려주는데, 그 축복은 아데프트들을 통해 다시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 오늘날에도 특수한 방법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 고타마 봉다와 접촉할 수 있다. 베산트 여사(*주9)는 그녀의 최근 저작들에서 고타마 봉다가 어떻게 아리안 인종의 초기

아인종(亞人種)들의 위대한 교사로서 지상에 거듭 화신하였는지 말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고타마는 이집트 신비교의 창시자 헤르메스였으며 배화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였고 그리스 신비교의 창시자인 오르페우스이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것들만이 그의 전생의 전부가 아니다.

과거를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그밖의 다른 종교들의 창시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신지학의 초기 저작 중 일부에 그가 샹카라차라로 다시 태어났었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위대한 교사들은 아주 다른 길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씌어지게 된 배후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 블라바츠키 여사(*주10) 가 시크릿 독트린 3권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실은 어느 한 스승이 준비했던 육신을 다른 스승이 이용했던 것이다.

동양 전역에서 고타마 봉다에게 그토록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우리 인류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우 높은 봉다의 경지를 성취한 자였다는 점이다. 그 이전의 모든 봉다들은 다른 인류, 즉 우리보다 앞선 주기에 출현했던 인류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그는 진정 우리 인종의 첫 열매이자 지도자라고 불릴만 한 분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로선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어떤 특별한 일을 떠맡았다는 점이다.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준비된 누군가가 그 중요한 임무를 맡아야 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

었다. 그 당시 우리 지상 인종은 아데프트와 같은 높은 경지에 도달해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중 가장 앞선 자가 두 명 있었는데 그들은 친구이자 형제로서 발전 단계는 동일했다. 이들 두 사람은 강대한 혼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타마 붓다와 주(主) 마이트레야로 알려진 존재이다. 인류를 지극히 사랑한 고타마는 자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한 끝에 그 임무를 맡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형제인 마이트레야는 수 천년 후 고타마의 뒤를 이어 그 임무를 계승하기로 결심했다. 고대에 세계의 종교와 교육을 관장하던 자는 주 고타마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고급한 임무를 주 마이트레야에게 넘겼다. 마이트레야는 서양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불리는 데, 예수의 물질계에서의 삶의 마지막 3년 동안 그의 육체를 츄하였다. 분이다.

이 놀라운 실상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충분히 계명된 사람이라면, 마음 속에 하나의 종교를 배타적으로 신봉하거나 타인을 자기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한 종교의 창설자를 다른 종교의 창설자와 꼬치꼬치 비교하는 따위의 일들이 얼마나 쓸모 없는 짓들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특히나 앞서의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일한 학파의 제자들 또는 동일인의 두 화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원리가 그렇게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자기 시대에 맞추어, 그리고 설법을 듣는 자들의 필요에 응하여 진리의 다른 측면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 제시하는 바는 다양하지만 가르침의 근본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주 마이트레야는 현재의 임무를 맡기 전에도 여러 번 화신했었으며 그 때에도 항상 영적 교사나 고위 사제였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신지학회의 창설과 활동에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두 마스터들이 각자 700년 후에 도래하게 될 제6 근원인종에 대한 시대적, 영적 지도자의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누(Manu), 즉 시대의 지도자는 사실상 새로운 인종의 물질적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군주로서 로고스가 그에게 실현시키도록 제시한 이상(理想)이 가능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그리고 영적 교사는 새로운 인종에게 종교의 다양한 측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 후손의 교육까지도 책임지게 된다. 신지학회가 창설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그 두 마스터들 주위에 이 위대한 사역에 기꺼이 동참할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두 마스터 주위에는, 현재 그들의 제자들인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때쯤이면 그 제자들도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스터들을 도와 세계를 위해 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선택되는 영예를 우리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위대한 사역은 매우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펼쳐질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분명 각자 그 작업 중 마음이 끌리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로 자신이 특히 사랑하는 대스승을 따르게 될 것이다.

마스터들 중 어떤 분의 기질은 힘이고 또 어떤 분의 기질은 사랑과 자비라고 종종 일컬어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떤 마스터(모리야)는 많은 화신 속에서 왕으로 살았으며 이번 화신의 초기에도 역시 왕이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몸짓과 눈속에서 는 왕으로서의 위엄이 뚜렷이 발산된다. 아울러 그의 형제 마스터(쿠트후미)의 얼굴에서는 넘치는 사랑과 자비의 빛이 방사된다. 그들은 다른 광선,(*주11) 즉 다른 유형에 속해 있으며 서로 다른 길을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까지 올랐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만일 우리가 첫 번째 마스터는 두 번째 마스터보다 사랑과 자비가 덜하다거나 또는 두 번째 마스터는 첫 번째 마스터보다 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여러 마스터들도 또한 이 사역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가 그들 중 한 분과 연결될 것은 당연하다. 마스터들은(—당신이 이름을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분들조차) 그렇게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이는 사역 중에 그들의 얼굴을 계속 직접 뵙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당신은 마스터들이, 모호한 이상(理想)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비록 모든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하기는 했

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들의 참 모습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분명 인간이기는 하지만 결점이 없는 인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힘과 사랑과 자비를 방사하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공할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외경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에 서면 무서움이나 불안감 따위는 사라지며 항상 마음의 고양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마스터 앞에 선 사람은 그 위대함 때문에 겸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음 속에 일종의 강한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마스터도 인간이고 그런 그가 성취한 일이라면 자기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마스터의 면전에 서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고 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어려움들이 어째서 자기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갖다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경이감으로 그 고통을 되돌아보게 된다. 적어도 사물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 지금, 그는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느낀다. 이제 그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그 위로 태양이 항상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잊지 않게 된다. 마스터들의 강한 진동은 당신 안에 그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들만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은 넘치는 자신감과 사랑 그리고 마스터와

함께 항상 있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속에 부정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마스터가 당신의 부정적인 성질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리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마스터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용서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스터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아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많은 마스터들이 비교적 최근 시대에 역사적인 인물로 알려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 쿠트후미는 유럽에서 철학자 피타고라스로 화신했었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 사제, 사르톤이었으며 한 번은 소아시아에 있는 아케이트 신전의 대 제사장이기도 했다. 소아시아에서 그는 산을 넘어 침략해온 야만족 무리들이 주민들을 대량 학살할 때 같이 죽임을 당했다.

그 때 그는, 도망가려다 익사한 그리스 어부의 육체를 즉각 취했고 그 육신으로 페르시아를 향해 여행을 떠났다. 거기에서 그는 조로아스터교를 현대적 형태의 마즈다야즈니안 (Mazdayaznian) 종교로 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후에 그는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의 사제였고 그 이후에는 위대한 불교의 스승, 용수(나가르쥬나)로 화신했었다. 우리는 우리 그룹 멤버들의 전생을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그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항상 사제였거나 영적인 교사였다.

한편 이렇게 먼 과거를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영광을 누렸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그는 트야나의 아폴로니우스로 화신하였다. 11세기에는 인도에서 스승, 라마누자차랴로 화신했다. 라마누자차라는 힌두교에서 현신적 요소를 부활시켜 그것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스승이다.

당신들 중에는 신지학의 활동을 주로 돌보고 있는 두 분의 마스터말고 다른 마스터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스터는 우리를 위해 <길을 밝히는 빛>, <하얀 연꽃의 목가>를 구술해 주었고, 유럽에서의 활동을 돌보고 있는 다른 마스터 또한 우리를 위해 출판 활동 전반에서 아주 놀라운 책들을 써주었다. 전생에 예수였던 마스터는 특별히 기독교 교회들의 다양한 활동을 인도하고 있고 또 다른 마스터는 특히 이곳 인도에서의 활동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세계의 진화는 결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듯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의 거주자들에게 자유의지가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화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이 아데프트들의 하이어라키이다. 대백색형제단의 멤버들은 그들의 에이전트(agent)들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조언과 암시를 주면서 전쟁이 사라지고 우주적 형제애가 편만한 위대한 미래를 향해 인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카르마 문제를 고려,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도록 강제하기는 분명 쉬운 일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진정한 이익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마스터 쿠트 후미는 언젠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나는 그대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쉽게 말해줄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그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행위의 카르마는 나의 것이지 그대의 것이 아니며, 그대는 단지 즉각적으로 순종한 행위에 대한 카르마만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은 똑똑한 노예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들 자신도 언젠가는 마스터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들이 미래에 더 위대한 일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금의 소박한 일을 기꺼이 떠맡아야만 한다. 사실 언젠가는 진정 아주 중요한 기회(또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백 생에 한 번 올까말까한 일이다. 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도 놓칠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임무들을 떠맡는 버릇이 길들여져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옳은 일을 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중요한 순간에 자동적으로 옳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선행 또는 악행은 전체 세계에 대해서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오로지 무조건 이 작은 것들 중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배운다면, 대백색형제단은 보다 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 할 것이다.

진실로 우리는 마스터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려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흥미거리로서가 아니라)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진실한 모습, 즉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과 우리 인간들이 다양하듯이 그들 또한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이다. 마스터들 모두에게는 지혜와 힘과 사랑이 동등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그들이 모두 똑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 마스터들도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개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인류라는 사다리의 맨꼭대기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는 다소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해도 언젠가는 그들이 선 위치에 우리 또한 도달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스터들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방면에 걸쳐 두루 발전을 이룬 존재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한쪽 면에만 치우쳐서 발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 지적으로 뛰어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과 자비가 부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넘치는 반면 지적인 면이 부족하다. 그러나 마스터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다. 대표적인 예로 마스터 쿠트후미는 피타고라스의 빼어난 지성과 함께 사랑과 자비 또한 구족하신 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스터들의 놀라운 지성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아데프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지의 족쇄를 떨쳐버려야만 하고 무지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전지(全知)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마스터들과 직접 만나면서 알게 된 바로는, 그것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만국어에 통달하지 못한 마스터들도 있고 예술이나 음악에 조예가 없는 마스터들도 있고... 이런 식이다. 내 생각에 무지의 족쇄를 떨쳐버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마스터들 자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이든 자유로이 부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뜻으로 보아진다.

분명 마스터들은 자신의 육체적 두뇌에 모든 것을 저장해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지식이면 어떤 것이든 매우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만일 한 마스터가 자신이 모르는 언어로 편지를 쓰길 원하면, 그는 그 언어를 알고 있는 제자의 두뇌를 자유로이 활용한다. 마스터의 생각을 그 제자의 두뇌에 투사시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만일 어떤 사람이 마스터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한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멘탈계에서 화자(話者)의 이면에 있는 상념을 포착할 수 있다.

물질계에서 마스터를 만난 평범한 사람이 그를 마스터로 즉각 알아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곤한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확실히 그 사람 (아데프트)이 인상적이며 고결하고 위엄있고 신성하며 고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앞에 선 자가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데프트인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그의 코깔체를 볼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코깔체의 거대한 크기와 특별한 색상 배열 –일곱의 대 타입마다 그 배열이 다르다–을 통해 우리는 그의 발전 정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데프트들에게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 특징이 없다. 비록 그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어떤 큰 고요함과 자비가 느껴지고 얼굴에는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기쁨에 찬 평화가 서려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데프트들은 대부분 아주 미남들이다. 그들의 육체는 완전히 건강하다. 이는 그들이 완벽한 위생적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결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의 경우 여전히 소진시켜야 할 많은 카르마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은 육체의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데프트들의 경우에 이미 오래전에 모든 카르마가 소진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그 육체는 물질계상에서 자아의 영광체(아우고에이데스, Augoeides)(*주12)의 완벽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개, 마스터의 육체는 탄복할 정도로 핸섬할 뿐만 아니라 다음 화신에 입게 될 새로운 육체 또한 이전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변형시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동안 육신을 보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이유는 앞서 말한대로 완벽한 건강과, 걱정 근심이 없다는 데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스터들은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들의 육체가 상식적인 나이를 훨씬 넘어섰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있다. 나는 블라바츠키 여사가 그녀의 스승(마스터 모리야)은 지금도 60여년전 어린 시절에 처음 본 그때의 모습 그대로 하루도 더 나이를 먹지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딱 한 경우, 최근에 현 육신으로 아데프트의 위계에 오른 어떤 마스터는 그 얼굴에 연로함이 비치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과거의 카르마가 일부 남아 지금의 화신으로 넘어 온 결과인 것이다. 나는 그가 다른 육체를 선택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러한 문제는 사라

질 것이라고 본다.

아데프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말수가 적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다. 바쁜 사람은 한가하게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은 법이다. 그들의 제자인 블라바츠키 여사는, 내가 이제 까지 만나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화술가였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얘기만을 위해 얘기하는 적은 없었다. 마스터들 중 어떤 분은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는 결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할 경우 그것은 항상 용기를 북돋워 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도가 들어있다.

그는 항상 말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했는데 그려는 중에도 언뜻언뜻 날카로운 유머감각이 비치곤 했다. 그러나 그 유머 자체도 언제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으며 결코 남을 마음 상하게 하는 법 없이 항상 어려움을 가볍게 하거나 필요한 꾸지람을 부드럽게 하는 데 사용하였다. 확실히 유머감각이 없는 사람은 오컬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의 진화를 돋기 위해 육체를 간직하고 있는 아데프트들의 수는 매우 적다. 아마 전부 합쳐서 오륙십 명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제자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사역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라바츠키 여사는 아데프트라는 용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그녀는 실제로 어디에선가 비전(秘傳)을 받은 아데프트와 비전을 받지 않은 아데프트에 대해 말하고 있다.

후대의 모든 저작들에서 우리는 비전가라는 단어를 신성의 길에 이르는 네 가지 큰 단계 중 적어도 첫 단계를 통과한 자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으며, 아데프트라는 단어는 아세카 수준에 도달하여 이 체인기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진화를 성취한 자라는 의미로 엄격히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세카의 의식은 육체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니르바나계(아트마계) 상에서 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미 아데프트의 위계에 오른 자들 중에서도 위에서 말한 극소수 만이 육체를 가진 상태로 인류를 돋기 위해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어떤 특정한 상황 아래서 인간을 제자로 두고 있다. 우리가 마스터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맡은 임무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없이는 인간은 비전(秘傳)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역주

주1) 데바

빛나는 신, 천상의 존재라는 의미이다. 데바들은 많은 계급 또는

그룹으로 나뉜다. 천사, 대천사, 조형신(造形神) 등으로 불린다.

주2) 신성의 길

제1 단계; 소타파티(sotapati)

이 수준에 도달한 제자는 소타판나, 즉 ‘흐름에 들어선 자’라 불린다.(제1 비전)

이 비전을 받은 자는 다음 라운드(제5 라운드)의 중간에 있을 임계기(심판의 날)에 탈락 되는 위험을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때로 ‘구원받은 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2 단계; 사카다가미(sakadagami)

이 수준에 도달한 제자는 사카다가민, 즉 ‘한 번만 되돌아 오는 자’라 불린다. 아데프트 가 되기 위해 한 번의 화신이 더 필요하다.

이 제2 비전 단계의 제자는 깨어 있을 때는 아스트랄 의식, 명상 또는 수면 중에 있을 때는 멘탈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3 단계; 아나가미(anagami)

이 수준에 도달한 제자는 아나가민, 즉 ‘되돌아 오지 않는 자’라 불린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그 생애 동안 아르하트(아라한)의 단계에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렇게 불리는 것이다.

제3 비전의 제자는 깨어 있을 때는 멘탈 의식, 명상 또는 수면 중에는 붓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4 단계; 아르하트(arhat)

이 수준에 도달한 제자는 ‘완성자’ ‘존자(尊者)’로 불린다.

제4 비전의 제자는 언제나 봇디 의식을 갖고 있으며 수면 중이나 명상 중에는 니르바나 계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제5 단계; 아세카(aseka)

이것은 ‘배워야 할 것이 없는 자’라는 의미이다.

이 수준에 도달한 자는 아데프트로서 언제나 니르바나 의식을 갖고 있으며 육체를 벗으면 그 의식은 훨씬 더 고급한 계(界)에까지 미친다.

주3) 일곱 개의 길

제5 비전을 통해 아세카가 된 자의 앞에는 일곱 개의 길이 열리며 그 중 하나의 길을 택하게 된다.

1)인류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데프트로, 육체를 갖고 화신해 와서 하이어라키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2)닐마나카야가 되어 인류의 ‘수호벽’이 되어준다. 이때의 수호란 세계를 외부적인 악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넘치는 영적 힘을 쏟아부어주는 것까지 의미한다.

3)데바, 즉 천사의 길을 따른다.

일곱 길 중, 가장 느린 진화의 길로서, 결과적으로 가장 쉬운 코스이다.

4)로고스의 참모진으로서의 길을 따른다. 태양계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이라도 로고스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

5)다음 체인기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

6), 7)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때의 열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충만한 활동의 상태로서 너무도 찬란한 빛의 극치 세계이다. 그들은 무한한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인간의 의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영적인 진화를 위한 일을 한다.

주4) 널마나카야

산스크리트어로 널마나(nirmana)는 ‘형성된’, ‘만들어진’이라는 뜻이며 카야(kaya)는 ‘몸’, ‘옷’, ‘탈 것’ 등의 의미이다. 따라서 널마나카야의 사전적 의미는 ‘형성된 몸’ ‘화신(化身)’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전하여 ‘널마나카야(화신) 속으로 들어간 보디사트바(보살)’를 지칭하게 되었다.

닐마나카야는 육체와 아스트랄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매체들을 갖고 있는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완전한 인간이다. 그는 닐마나카야의 옷(또는 상태)을 입음으로써 세상과의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여 인류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다.

닐마나카야(nirmanakaya), 삼보가카야(sambhogakaya), 다르마카야(dharmakaya)는 이른바 ‘트리카야(삼체三體)’를 이루는데 이 중, 닐마나카야의 체(體)를 입은 자만이 가장 가까이서 인류를 도와줄 수 있다. 삼보가카야의 체를 입은 자는 인류의 고통과 슬픔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는 있지만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다르마카야의 체(또는 상태)는 너무도 순수하고 성스럽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자는 사실상 그 이하의 존재들과 접촉할 수 없다.

닐마나카야, 삼보가카야, 다르마카야는 각각 불교에서 말하는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에 해당된다.

주5) 아데프트(adept)

아데프트의 단순한 사전적 의미는 ‘달인’이다. 신비학에서는 비교(秘敎)지혜, 생명의 가르침에 정통한 자를 일컬으며, 신지학에서는 더욱 범위를 좁혀 다섯 단계의 비전을 통과한 자를 뜻한다.

주6) 하이어라키(Hierarchy)

태양계의 내부 존재계 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그룹. 이들은 자연의 지성적 힘들이며 진화 과정을 콘트롤한다. 그것은 자체로 다시 12개의 하이어라키로 나뉜다. 우리 지구에도 이 하이어라키의 하부 그룹이 있어서 인류의 진화를 돋고 있다. 사실상 하이어라기는 지구와 태양계를 넘어 우주 전체의 진화를 주재한다.

주7) 하이어라키의 대수장(大首長)

태양계 안에는 자아 의식을 지닌 일곱의 가장 높은 존재들이 있다. 쿠마라(kumara)로 불리는 이들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매개로하여 현현하듯 하나의 혹성 체계를 매개로하여 현현한다. 힌두교에서는 이들을 ‘브라마의 마음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라 부른다. 그들은 지성과 지혜의 총화인 존재들이다.

하나의 혹성 체계 안에는 다시 상기한 시스템이 반영되어 존재한다. 우리 지구에서 세계 진화의 정점에 있는 쿠마라가 바로 ‘사나트 쿠마라’이다. 그는 지구 하이어라키의 대수장으로서, 쉽게 말해 지구의 영왕(靈王)이라 할 수 있다.

주8) 마누(Manu)

인류 인종의 수장, 최초의 선조, 지배자에 해당하는 위대한 존재를 대표하는 이름.

비교(秘敎)에서 마누는 현현의 시초에 처음으로 나타난 총체적 존재로, 그로부터 모든 것이 태어났다. 마누는 사실상 현현된 어떤 혹성 체인의 영적인 생명나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마누는 제3 로고스이다. 부(父)-모(母)인 제2 로고스는 그 아들(혹성 체인에서 마누)을 통하여 현현을 산출시키는 원인자가 된다. 브라마의 낮 동안(즉, 일곱 라운드 기간) 14명의 마누들이 인종 사이클, 또는 생명 파동의 보호자로 출현한다.

주9) 베산트

애니 베산트는 신지학회 2대 회장이다. 블라바츠키의 <시크릿 독트린Secret Doctrine>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녀를 친견하고 신지학회에 입문하게 된다. 신지학의 전파와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유체 비행으로 히말라야 산 속의 마스터들을 방문하여 우주 생성과 인류 태동의 신비, 물질의 신비 구조 등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저술하기도 했다.

주10) 블라바츠키

헬레나 페트로브나 블라바츠키는 H. S. 올코트, W. Q. 저지와 함께 신지학회를 세운 창설자이다. 초대 회장은 올코트가 맡았다. 어린 시절부터 천부적인 영능을 소유하고 있던 그녀는 마스터 모리아를 만나 히말라야에서 영적인 수행을 마치고 스승의 지시로 1875년 뉴욕에서 신지학회를 창설한다. 그녀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베일벗은 이시스>와 <시크릿 독트린>이다.

주11) 광선

로고스가 현현시키는 상이한 속성들의 힘을 상징한다. 여기에는 로고스의 힘의 일곱 흐름, 즉 일곱 광선이 있다. 모든 인간들은 이들 일곱 광선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한다.

제1 광선; 의지, 결단력, 용기, 창조력, 파괴력을 떨치는 에너지.

(대표 성자는 마스터 모리야)

제2 광선; 지혜와 사랑의 에너지(마스터 쿠트 후미)

제3 광선; 계획, 정치적 지능의 향상, 실현력의 에너지(마스터 베네치안)

제4 광선; 조화미,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에너지(마스터 세라피스)

제5 광선; 과학적 연구심, 발견, 발명을 자극하는 에너지(마스터 힐라리온)

제6 광선; 비전(vision)과 높은 동경심을 자극하는 에너지(마스터 예수)

제7 광선; 초월적 마력을 부여하고 악을 구축(驅逐)하는 에너지(마스터 라코치)

주12) 영광체, 아우고에이데스

‘광채’라는 뜻이다. 산상에서 빛의 몸으로 변화된 예수처럼 인간의 육체가 영화되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영광체가 된다.

신지학 대의 4. 그리스도의 사역 * 마스터들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또는 주(主) 마이트레야라고 부르는 마스터와 그분의 과거와 미래의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주제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며 자유로이 얘기할 수 없는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른 바 세계의 내부 통치체제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종교들을 창설하고 영감을 주고 하는 등의 종교적 가르침에 헌신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정도가 당신에게 유용할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의 책임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이다. 그는 때로 자신이 직접 지상에 출현하여 위대한 종교를 세우고 또 때로는 고도의 위계에 오른 자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맡기기도 한다. 그는 모든 시대의 배후에서 열려진 모든 통로를 통해 힘이 자연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종교를 통해 동시에 일하면서 각 종교에 내재한 헌신과 자기 희생의 측면에서 유익한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다.

물론 종교들이 물질계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그 힘을 낭비한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 안에 있는 유익한 측면들이, 배후에 있는 동일한 큰 힘에 의해 동시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운동 안에 있는 좋은 측면들은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 안에 내재한 해악적 요소들은, 사람들이 좀 더 분별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옳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힘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시크릿 독트린 Secret Doctrine>의 ‘붓다의 신비’라는 장(章) 속에는 종교 부문의 수장(首長)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내용이 적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신지학회 멤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스터들 중의 한 분이 특히 이 부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미래의 사역은 수천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일부는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 확정되어 있다. 물론 다른 문제들과 관련하여 충분한 융통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마스터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수천년 전에 미리 계획을 짜놓을 수 있다는 점은 그들의 불가사의한 작업이 갖는 놀라운 특징 중 하나이다. 때로 우리들 중 고급계의 능력을 발전시킨 자들에 게는 마스터들의 놀라운 계획을 일별(一瞥)하는 것이 허락된다.

그 때 우리는 미래를 덮고 있는 베일의 끝자락을 슬쩍 들어 엿볼 수 있다. 때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즉, 우리가 먼 과거의 기록(아카시 톤코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 눈 앞에서 성취되어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보다 더 흥미롭고 전율케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들의 계획이 갖는 장엄함과 엄청난 위용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계획에 대한 고요한 위엄과 절대적인 확신이다.

국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개인들까지도 그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나 개인도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강제되지는 않는다. 특정 부분에 역할하도록 기회가 주어질 때, 만일 해당하는 국가 또는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언제나 그 갑을 메꾸어 줄 대역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누가 통로로 이용되든 적어도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한데, 그것은 바로 목적된 결과가 성취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누구를 통하여 일이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개적인 입장에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계의 전체적인 진화 측면에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1900여년 전 트야나의 아폴로니우스는 대백색형제단의 미션을 받고 세상에 나왔다. 그의 임무 중 하나는 여러 나라에 특정한 마그네틱(자기) 센타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아폴로니우스에게는 불가사의한 호부(護符)가 주어졌고 그는 그 호부들을 지정된 장소에 둘었다. 이러한 행위는 그 호부에서 발산되는 힘을 통해 그 지역을 미래에 있을 대사건의 센타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센타들 중에 일부는 이미 이용되었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센타들은 조만간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과 관련하여 이용되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미래 활동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이 이미 2천여년 전에 분명하게 계획되었으며, 심지어 당시에 그것을 위한 물질계상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단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 의심과 주저함,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평화와 충만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힘들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

마스터들의 사역

아데프트들의 활동이 분명 대단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 가지만 그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마스터들의 활동내역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육체를 갖고 있는 아데

프트의 수는 극히 적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 안에서 이 지구의 모든 진화가 돌보아지고 있다. 인류에 관하여 그들은 세계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구역들은 대륙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고 한 아데프트가 각 구역을 돌보도록 지정되어 있다.

신지학회는 대백색형제단으로부터 보내어진 미션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가 아닌 인류 전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며, 적어도 마스터들이 주로 작용하고 있는 인류 군(群)을 위한 것이다. 마스터들은 세계의 주요 인사들을 통해 세계 전체가 좀더 행복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왕이나 정치가들로 하여금 평화를 지향하도록 영향을 주며 종교 가나 교사들에게 자유의 이상을 심어주고 예술가들의 의식을 고양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활동은 주로 그들의 제자에게 맡겨지고 있고 마스터들 자신은 코잘체 안에 있는 세계 주요 인사들의 혼에 직접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꽃에 햇빛을 쪼여주는 것과 같아서 그들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하고 최상의 것들이 깨어나도록 그들의 성장을 자극한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러한 조력의 영향을 감지하고 있지만 그 원천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코잘체는 고급 멘탈계에서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것

도 의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열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사람이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여 일종의 반응능력이 생기게 되면 전체 과정은 새로운 양상을 띠며 그 속도가 훨씬 빨리 촉진된다. 심지어 저급 멘탈계에 있는 동물의 그룹 소울(Group Soul)(*주13)도 그러한 영향에 큰 도움을 받는데, 이는 햇빛처럼 힘이 전체 세계에 충만하면 그 반경 내에 있는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을 쏟아 부을 때 마스터들은 자주 강한 마그네틱즘이 흐르는 특별한 기회와 장소를 이용한다.

어떤 성자가 살았거나 죽은 곳, 또는 성자의 유품이 적절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곳 등에서 그러한 조건을 이용해 자신들의 힘이 미리 준비된 통로를 따라 방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마스터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도움과 축복이 흐르는 일정한 통로를 통해 그들의 힘을 방사한다. 인류가 현재의 위치까지 진화한 것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조력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제4 라운드는 본질적으로 욕망과 감정의 발전에 전념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제5 라운드의 특성인 지성의 발전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금성으로부터 강림한 불꽃의 주님들이 인류의 진화에 미친 커다란 영향과 그러

한 영향을 보존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을 희생시켜 온 아데프트들의 활동에 기인한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그들이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그들의 이타적인 노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과 관련된 사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득이 그런 일을 해야만 할 경우에 그것은 항상 제자들에게 위임되거나 엘리멘탈(*주14)이나 자연령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이러한 낮은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자들의 절대적인 의무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제자가 그 저급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마스터들이 전 세계를 위한 고급한 활동을 보류한 채 개인적인 사정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상의 ‘안 보이는 조력자들’의 활동은, 거기서 활동하는 데 적합한 수준의 제자들이 없다면 그렇게 간단히 수행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고급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순간 그들에게는 분명 보다 고급한 일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어째서 마스터들이 그렇게 자주 불완전한 도구(즉, 제자)를 통해 일하는지 물어온다. 그 대답은 명백하다. 마스

터들은 그 일을 직접 처리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혀 일이 처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의 저술을 통해 인류를 돋는 일에 대해 살펴볼 때, 확실히 마스터들이 그 제자들보다 훨씬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된 서술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방치된 채로 그냥 남겨질 것이다. 게다가 만일 마스터들이 손수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마스터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무지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한 카르마를 지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마스터들이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힘의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가 보기엔 그 힘은 가공할 정도이지만, 아무튼 한정된 양이며 그 힘을 인류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마스터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마스터가 그의 힘을 저급한 일 또는 개인적인 일에 소비한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역주

주13) 동물의 그룹 소울(Group Soul)

인간의 혼은 개체성이 있어서 소위 ‘자아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의 종(種)으로 단체 혼을 공유한다. 따라서 하나의 동물이 죽으면 그 체험은 종의 체험으로 축적되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본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주14) 엘리멘탈(Elemental)

신지학적인 관점에서 엘리멘탈은 진화 코스의 초기 단계에 있는 존재들로, 엘리멘트(element)의 영들을 의미한다. 편의상 광물 이전 단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지칭하는데 자주 쓰인다. 이들은 지, 수, 화, 풍의 4엘리멘트와 관련된 존재들이다. 소수의 고급한 종류나 그들의 지배자들을 제외하고, 그들은 자연의 맹목적 힘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없다. 그들은, 백마술사들이 이용하면 선의 목적을, 흑마술사들이 이용하면 악의 목적을 달성하는 매개가 된다. 자연령, 정령을 의미하기도 한다.

엘리멘탈과 유사한 단어로 엘리멘타리(Elementaries)가 있다. <신지학 용어사전>에서 블라바츠키 는 엘리멘타리를 이렇게 정의했다.

‘타락한 자들로부터 분리된 혼. 그들은 육체의 죽음 이전에 자신의 신성한 영과 떨어져 나와 불멸성을 얻기 위한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 엘리멘타리는 흔히 유령으로도 불리는데 사실은 카마 루파 (kama rupa, 욕망체)의 껍데기이다. 특히나 물질성에 찌든 인간으로부터 나온 부정적인 성향을 띤 껍데기를 의미한다. 그것들 안에는 사실상 혼이 없고 단지 부정적인 에너지들로 꽉차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국에는 분해되어 사라지게 된다. 엘리멘탈과 엘리멘타리는 학파에 따라 상기한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파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지학 대의 5. 마스터와 제자 1

마스터와 제자

대 하이어라키 아래서 육체를 갖고 세계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아데프트들의 수는 많지 않다. 게다가 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아데프트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두고 있는 이분들을 일컬어 ‘마스터’라고 명명한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마스터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제자의 일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마스터들은 인류를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생각은 일체 거두고 그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만 한다. 앞서 나는 당신에게 마스터의 힘이 인간이 보기에도 무한하다 해도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었다. 따라서 마스터는 극도로 주의하여 아무리 작은 힘도 가능한 최고의 효용을 발휘하도록 사용한다. 제자를 받아들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분명 자체로 시간과 에너지의 축적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스터는 그의 시간과 에너지의 사용을 진화의 촉진과 관련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스터는 그가 보기에 훈련에 투자한 시간과 힘이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좋은 특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동시에 길을 걷는데 계속적인 장애를 일으킬 큰 단점을 갖고 있어 그 장점들을 상쇄시켜버릴 경우, 마스터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 대신,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가라! 가서 너의 큰 단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라. 그것을 극복하면 그때 나는 너를 제자로 받아들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

아주 많은 열성적인 학인들이, 자기는 자비심과 봉사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타의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종종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다.

“나는 인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렇게 깊은데 어째서 마스터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보라. 마스터는 당신이 아직도 어떤 단점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분명 당신의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라는 회계장부의 차변에 있는 단점들보다 대변에 있는 자비심, 친절, 봉사심 등이 훨씬 더 큰 것은 사실이다. 세상에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한 당신은 어쩌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당신의 자비심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유용한 통로로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들이 제자도(弟子道)에 요구되는 요건의 전부라면 마스터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소비하느라 고급계에서 인간의 혼에 작용하는 놀라운 일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스터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스터가 생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생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로지 무엇이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최상의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제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야 하며 ‘나’라는 관념을 완전히 조복시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적 표현이나 말의 유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사적인 욕망도 가져서는 안 되며 기꺼이 자신의 삶 전체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맞추어 조율해야 한다. 우리들 중에 온 마음을 다바쳐 기꺼이 제자도를 향해 한 발자국이라도 뛰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길 원할 때 마스터는 단번에 그가 제자의 단계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할 수 있다. 만일 후보자가 필요 요건을 거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를 예비 과정에 받아들인다. 이는 마스터가 후보자를 수년 동안 예의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비과정은 대체로 7년이지만 후보자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반면 마스터가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기간은 훨씬 단축될 수 있다. 나는 예비과정이 30년까지 연장된 경우를 알고 있다. 반대로 5년으로 단축된 경우, 심지어 3년으로 단축된 경우도 알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단 5개월로 단축된 경우도 있다.

이 예비기간 동안 제자는 어떤 형태로든 마스터와 직접 통신할 수 없으며 마스터에 대해 거의 어떤 것도 듣거나 보지 못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시련이나 고난이 그 앞에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사소한 어려움들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만 주의깊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스터는 각 예비제자들의 살아있는 이미지(living image), 즉 그 사람의 아스트랄체나 멘탈체의 복사판을 만든다.

마스터는 그 상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고 그것을 예비제자와 자기적(磁氣的)으로 일치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매체들(육체와 영체들) 속에서 일어나는 상념과 감정의 변화가 그 상에 뚜렷이 재현된다. 마스터는 그 상을 매일 점검하며 미래 제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념과 감정의 정확한 기록을 별 어려움 없이 얻게 된다. 마스터는 그 기록을 통해 언제 그를 두 번째 단계인 정식 제자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마스터는 로고스의 힘을 분배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것도 단순한 무의식적 통로가 아니라 매우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협력자이다. 마스터들 자신이 자각을 갖고 있는 로고스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보다 저급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정식 제자는 마스터의 힘의 통로이다. 물론 그 역시 무의식적인 통로가 아닌 지혜로운 협력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또한 사실상 마스터의 의식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정식 제자는 언제나 마스터의 의식권 내에 있게 된다. 따라서 대체로 제자가 보거나 듣는 것은 무엇이든 마스터도 알게 된다. 마스터가 제자와 꼭 동시에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종종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자의 기억 내에 있을 때 바로 마스터의 기억 속에도 있게 되는 것이다. 제자가 느끼고 생각한 모든 것은 마스터의 아스트랄체와 멘탈체 내에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다면 후보자의 상념과 감정이 마스터가 바라는대로 될 때까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때로 제자의 마음 속에 마스터와 부조화한 상념이 이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이때 마스터는 그것을 감지하는 즉시 방벽을 세워 악파동을 자기로부터 차단시켜 버린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하던 일을 멈추어 주의를 돌려야 하고 일정한 양의 에너지의 소모가 있게 된다. 여기서 또 다시 우리는 마스터가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념에 자주 빠지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두면 마스터는 자주 부정적인 파장을 차단시키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춰야 한다. 이는 분명 마스터의 시간과 에너지에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 틀림없다. 마스터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자비나 안내심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이다. 그것들을 가능한 최선으로 이용하는 것이 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제자로서 합당한데 어째서 아직껏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지 의아해한다면 그는 하루만이라도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스터와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어떤 상념이나 감정이 내면에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마스터와 조화를 이루지 못 하는 상념을 비단 명백히 악한 상념, 불경한 상념 뿐만 아니라 쓸데 없는 상념, 비판적인 상념, 안절부절하는 상념, 심지어 자기자신에 대한 상념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우리 중에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마스터가 제자와 이렇게 놀라운 정도의 친밀 관계를 갖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제자의 매체들과의 조화와 교감이다. 인도의 스승이 그의 제자들을 육체적으로 항상 가까이 두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때문인 것이다. 아무리 특별한 행법을 하고 특별한

과정의 공부를 한다 해도 모든 경우에 있어 제자에게 미치는 유품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스승 앞에 있음으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제자의 다양한 매체들(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등)은 습관적인 수준으로 파동하고 있다. 아마 매체들 각각이 여러 가지 레벨로 진동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온갖 감정과 상념들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해야하는 최초의 가장 힘든 일은 자기로부터 사소한 흥미거리들을 제거하고 방황하는 상념을 통제하여 그 모든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모든 매체들 위에 계속적인 의지를 행사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이 힘든 작업은 혼란된 상념과 감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백 배나 더 힘이 듈다. 이 혼란된 마음으로 인해 그는 한 순간도 쉬지 못하며, 일을 하는 동안에도 힘을 집중시키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인도에서 고차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글로 들어가는 이유이며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조용히 은둔의 삶을 택하는 은자들이 있어 온 이유이다. 은자에게는 최소한 공간적인 쉼터가 있고 계속되는 모든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쉴 수 있으며 생각을 한데 모을 시간을 갖을 수 있다. 또한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도 최소화할 수 있고 자연의 고요한 영향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도인(道人)의 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스승의 매체들은 이미 고요히 안정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처럼 수없이 광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깊게 선택된 몇 개의 진동 수준으로 맥동하고 있다. 스승의 파장은 매우 강력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깨어있건 잠을 자건 끊임없이 제자의 매체들에 영향을 주며 점진적으로 그가 스승의 열쇠를 얻을 수 있도록 고양시켜 준다. 오로지 오랜 시간과 친밀한 교제만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스승과 교감할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많은 스승들은 제자에게 특별한 오컬트 행법을 가르치기 전에 우선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한 결과를 보기 원한다. 제자에게 특별한 가르침(특히 잘못 이용될 경우 제자 자신에게 큰 해를 미칠 수도 있는 경우)을 주기에 앞서서 스승들은 그가 이 가르침에 적절한 타임의 사람인지, 그 효과를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긴장이 닥쳐오더라도 잘못되지 않을 것인지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한다. 스승이 선택한 자들, 즉 스승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접촉의 기회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수천 배 더 얻을 수 있다.

마스터의 정식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제자가 마스터의 의식의 전초가 되어 그(마스터)의 능

력이 자기를 통해 분류(奔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는 마스터의 상념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그런 방법을 통해 종종 실수를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제자가 편지를 쓰거나 강연을 하고 있을 때 마스터는 잠재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 순간에 편지나 강연에 써어 질 문장이나 적절한 설명을 제자의 마음 속에 투사시켜줄 수 있다. 처음에 제자는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단지 그런 생각들이 자기 마음 속에서 자연히 생겨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스승의 상념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실제로 제자가 스승의 생각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랄계나 멘탈계에는 수 많은 다른 존재들이 있어서 우호적으로 이와 유사한 성의의 암시를 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가 이러한 암시의 출처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은 확실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스터가 그의 제자의 몸을 영매 -우리가 종종 불쾌한 것으로 평가하는-로 이용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마스터들이 애니 베산트를 통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 경우 때로 그녀의 목소리와 어투, 심지어 얼굴까지 변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모든 경우에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완벽히 유지하고 있었으며 누가 자기

를 통해 말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매 현상과는 전혀 다른 상태이다. 따라서 양자를 동일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제자의 몸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마스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극소수의 제자들의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베산트 여사의 의식은 평소와 전혀 다름 없이 두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터가 자기 입을 이용하는 동안 그녀 스스로 그것을 조절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한다. 마스터는 자신의 두뇌 속에서 문장을 형성하고 그것을 그녀의 두뇌 속으로 이전시킨다. 이런 일이 행해지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기 뇌를 수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마스터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주제에 대한 문장을 만들 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영적 통제의 최상의 형태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마스터의 영향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거의 빛을 발할 정도이다. 청중 중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제자 대신 그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어떤 실제적인 육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교령회(交靈會)에서 실제로 영매의 목소리, 태도, 심지어 얼굴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영매를 통해 말하고 있는 존재에 의해 그(영매)의 자아가 완전히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스터들이 사용하는 방법 체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정식 제자 단계를 넘어서면 마스터와 제자간의 더욱 친밀한 합일의 관계인 제3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 제자는 이른바 마스터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정식 제자와의 오랜 경험 후 마스터가 제자의 멘탈체나 아스트랄체에서 부정적인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한해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

물질계상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식 제자’와 ‘아들’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정식 제자’인 경우 비록 그가 마스터의 의식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 단절되어 질 수 있는 반면 ‘아들’은 마스터와 완전히 신성한 합일을 이루고 있어서 심지어 마스터의 힘으로도 그 관계를 철회할 수 없고 한 순간이라도 서로의 의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스터와 제자 사이의 관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예비제자’로 이 기간에 그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아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식 제자’이며 세 번째 단계는 ‘아들’이다. 분명히 이해해야만 할 것은 이러한 마스터와 제자의 관계는 비전(秘傳), 즉 도(道)의 단계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점이다.

비전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마스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가 아니라 대백색 형제단(그리고 그 수장 首長)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이다. 대학생과 교수, 대학생과 대학의 관계는 대체로 이러한 상호관계를 설명해주는 적절한 상징일 것이다.

대학은 학생에게 일정한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에는 무관심하다. 시험을 배정하고 여러 학위들을 수여하는 것은 교수가 아니라 대학이다. 교수의 임무는 학생이 시험에 대비해 적절히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한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학생은 개인적으로 원하는 적당한 써클에 들어갈 수 있으며 대학은 그것에 대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대백색형제단은 마스터와 제자 사이의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단지 마스터 자신의 사적인 문제일 뿐이다. 제자가 제1 비전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마스터는 그 사실을 환기시키고 비전(秘傳)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백색형제단은 그 사람이 비전에 적합한지의 여부만 물을 뿐 그가 어느 마스터의 제자라는 사실에는 무관심하다.

비전의 후보자는 두 분의 대백색형제단 고위 멤버(아데프트)들에 의해 추천과 후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마스터는 제자가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즉, 앞서 설명했듯이 그런 의식의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전의 테스트에 그를 추천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지학 대의 6. 마스터와 제자 2

이런 말을 듣고 있노라면 당신의 마음 속에 자연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마스터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마스터의 주의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마스터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짓이다. 왜냐하면 마스터들은 언제나 그들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못 보고 지나치지 않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25년 전 내가 마스터들과 연결되었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 당시 나는 이곳 지상에서 성자와 같은 놀라운 사람을 만났었다. 그는 마스터들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삶의 목표를 그들의 제자가 되는 것에 두고 자기를 준비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도 그는 모든 면에서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최소한 분명히 나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나았다. 나는 그가 아직 제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이런 일에 초보였고 무지하였다. 어느 날 적절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는 아주 공손하게 마스터에게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넘지시 비쳤다. 그러자 마스터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네 친구를 못 보고 지나치지 않는지 염려할 필요없다. 이제까지 누구도 놓쳐 본 적이 없다. 네 친구의 경우 아직도 소진되어야 할 어떤 카르마가 남아 있다. 그러니 현재로선 너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속죄는 끝나고 네가 바라던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영광스럽게도 자신의 의식을 나의 의식과 완전히 합일시켜 내가 미칠 수 없는 머나먼 고급계에까지 의식을 끌어올렸고 거기서 마스터들이 어떻게 세계를 살피는지 보여주었다. 세계 전체가 수많은 혼들과 함께 우리 앞에 펼쳐졌다. 대부

분의 혼들은 발전되어 있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모든 엄청난 무리들 가운데에는 언제나 마스터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만큼 까마득히 높은 위치에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밤의 암흑 속에 빛나는 등대의 불 빛처럼 빛을 발하며 무리 가운데 있었다. 마스터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알 수 있겠지. 제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우리 쪽에서는 오로지 열심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 외에 다른 할 일이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즉 신지학의 책들을 공부하거나 자아를 계발하거나 타인에 대한 봉사 등을 함으로써 자기 가 바라는 영광을 위해 스스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 속에 자신이 준비된 순간 반드시 받아들여지리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하겠다. 이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스터의 조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스터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힘을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소비한 에너지가 후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면 마스터들은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이 법칙에는 예외란 없다. 우리가 보기엔 다소 명백한 결

점이 있는 사람이 마스터의 예비제자가 되었다면 이 경우 그는 분명 표면상의 단점을 완전히 상쇄시키고도 남는 어떤 좋은 특질을 내면에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처럼 마스터들도 기나긴 인생들을 거치며 살아왔기에 그들의 삶에도 작은 카르마의 끈이 남아 있어서 때로 어떤 사람이 까마득한 과거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들(마스터)에게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잘 알려진 예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는 6천여년 전 이집트에서 권세를 누리던 귀족이었는데, 한 때 사원에 권력을 행사하여 오컬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친구가 거기에 입문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다. 그 친구는 열심히 오컬트를 배웠고 그 분야에서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고 고대 켐(이집트)에서 시작한 오컬트 공부를 이후의 인생들 속에서도 계속해나갔다. 바야흐로 이제 그 친구는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고 당시의 귀족 친구보다 까마득히 앞서 나가게 되었다.

훗날 그 아데프트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을 맡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신의 통로로 이용할 사람을 찾아 죽둘러보던 중, 6천년전 자기를 도와준 그 오랜 친구가 그 일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그는 오래된 빛을 기억해내었고,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친구에게 줌으로서 그 빛을 갚았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매우 많이 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로 아주 먼 옛날에 오늘날 신지학회 창설자들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그 때 도움을 받은 자는 오늘날 마스터가 된 분의 장남이었다. 이러한 카르마적 청구권으로 인해 그 후 이 세 사람은 마스터와 제자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 한 경우 아주 먼 과거에 애니 베산트 여사는 현재 자신의 스승인 마스터를 암살 기도로부터 구하였다.

또 한 예로 비전의 문을 막 통과한 어떤 신참자가 알고 보니 주(主) 마이트레야의 목숨을 구하였던 자인 경우도 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카르마의 고리로서 빛에 대한 완전한 청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도 먼 전생에 현재의 마스터와 아는 사이였고 그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때가 찾을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오컬트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따라서 다음 생에 이들 중 어떤 자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가면 그는 한 때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된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면으로 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어떤 이는 자기보다 앞선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어떤 이는 매우 강한 상념의 힘으로 또는 혼신으로 또는 선행의 노력 등등으로 도의 문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

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길로부터 분리된 수많은 가지들이다. 그것들은 진리의 길에 들어선 자가 자신을 특정한 부문에 적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방법들 중의 하나를 통해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 그는 분명 지혜의 마스터들의 주의를 끌게 되고 물질계에서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게 된다.

마스터들은 보통 뛰어난 제자들 중 한 둘과만 접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마스터는 보통 사람의 아스트랄 통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매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스트랄계에 대한 세계 교사의 자리를 열망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대개 스스로에 대해 아주 정직하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가르침을 갖고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므로 단순한 세속적 일들의 무가치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理想)을 인류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세계 전체가 당장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진 그들은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민감한 여성을 골라 그녀에게 당신은 놀라운 계시의 통로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자기가 어떤 위대한 존재를 대신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가르침을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통로로 선택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썩 괜찮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때로 심지어 아스트랄계의 존재가 자신의 특별한 위대성을 부인하더라도(이런 경우는 대개 없지만) 이는 존경할 만한 겸양의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비록 어떤 구체적인 신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천사로 묘사되게 된다.

그 아스트랄 존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물질계에서 살고 있을 때, 다른 자들도 여러 영매들을 통해 유사한 통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그는 그들의 말에 전혀 감명을 받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세상 일에 몰두한 채 그러한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만족스럽게 자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종종 그러한 존재들은 특별한 이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서 만일 존 스미스나 토마스 브라운이 사후 세계에서 돌아와 어떤 특별한 교리를 발표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고 거의 진리에 가깝다 해도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조지 워싱턴이나 줄리어스 시이저, 미카엘 대천사 등이 하는 말이라면 대개 거의 맹목적인 신임을 받게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뭔가 있지 않나 하는 관심을 받을 것이다.

아스트랄계상의 존재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신지학도에게 다가와 접촉할 때 그의 마음 속에 지혜의 마스터들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때로 자기가 세상에 전파코자 하는 사상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 마스터의 흉내를 내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우리 마스터들에게 악의를 품고 가능한 어떤 해를 끼치려는 자들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직접 마스터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마스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그런 일을 시도한다. 제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가 매우 사랑하는 마스터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육체에 관한한 그 모습이 너무도 완벽한 동일 형상이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육체 중에서 언제나 눈만큼은 정확히 모방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마스터의 코잘체를 모방할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에 고급계의 투시안을 계발한 사람들까지 속이지는 못한다.

우리는 <침묵의 소리>에 나오는 다음의 잠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환영의 세계에서 구루(스승)를 찾지 마라’

아스트랄계에서 스승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나 아스트랄계에서 오는 모든 통신과 조언을 듣기는 하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낯선 자의 말이나 충고도 무시하지 않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것들을 가치가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라. 당신의 양심이 말하는 바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절하라. 당신의 지성과 양심을 적용하고 시험해 보아 이치에 합당한 가르침을 따르라. 우리의 길은 결코 독단적이지 않음을 잊지 말라.

신지학회의 활동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두 분의 마스터들은 다른 두 광선을 대표하며 가르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물론 이들 외에도 또 다른 광선을 대표하는 마스터들이 있다. 모든 고급 신비 단체들에서는 예비훈련을 통해 멤버들을 정화시키지만 특별히 주어지는 가르침이나 행법은 스승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백색단 (Great White Lodge)에 속해 있는 모든 스승들은 최상의 도(道)는 오로지 신성의 길을 통하여, 그리고 욕망의 충족이 아닌 욕망의 극복을 통하여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터는 그의 제자를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어떤 자는 특별히 마스터의 일을 직접 돋고, 어떤 자는 아스트랄계상에서 저급한 혼들 또는 수면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육체를 벗어난 자들을 돋거나 가르치며, 죽어서 완전히 아스트랄계에 정

착한 자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밤에 잠이 들면 제자는 대개 영체로 스승에게 가며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지 듣는다. 특별히 해야 할 임무가 없으면 그는 자기가 맡은 일상의 야간 활동을 한다. 모든 ‘안 보이는 조력자들’에게는 물질계에서의 의사들과 꼭 마찬가지로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정해진 많은 환자들이 있다. 특별 임무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는 일상적인 순회를 돌며 환자들을 찾아가 최선을 다해 돌본다. 제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자기 시간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특별한 일이란 예를 들어 갑작스런 천재(天災)가 발생하여 아스트랄계로 공포에 질린 수많은 영혼들이 한꺼번에 던져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자로서 아스트랄 활동에 필요한 훈련들은 대부분 마스터의 오래된 제자들이 가르친다. 만일 제자가 물질계에서 어떤 특별한 체계의 영능계발이 요구되면 마스터는 그 행법을 직접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가 승인한 제자 중 한 명을 통해서 가르친다. 이 때 행법은 제자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대개 우리는 그런 특별한 행법을 시도하기에 앞서 명확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우리가 행법에 대해 듣게 될 때도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시 다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 인도에서는 평범한 영적 교사들조차 각기 자기만의 행법들을 갖고 있다.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주 이유는 그들이 속한 학파가 다르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각자 사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나름대로의 수련법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 것의 오용을 막기위해 대개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

영적 행법이 무분별하게 공표됨으로써 야기되는 해악을 확실히 증거하는 실례가 미국에서 있었다. 언젠가 미국에서 한 인도 스승이 특별한 수련법을 다룬 책을 출판하였다. 그 책의 서두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의깊은 경고의 말을 전제하고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솔하게 책에 쓰여진 수련법을 실행했던 것이다. 수년 전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수련하여서 육체적인 파멸을 초래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어떤 사람은 여러 영들에게 빙의되어 있었다. 이러한 영적 행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인도에서처럼 실제로 스승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야 스승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즉시 수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제자가 스승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곳 인도 사람들은 내가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승이 해야 하는 최초이면서 가장 큰 일은 제자의 오라(Aura)를 자신의 오라와 동조시키는 일이다. 이것으로 세상에 만연한 부정적 상태의 영향을 상쇄시키고 제자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대 고요의 세계에 사는 법을 보여주게 된다.

마스터 중 한 분이 오래 전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세계로 오라.’

물론 이것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마스터에 대해 명상하는 자는 그와의 명확한 연결을 심상하라. 그러면 일종의 광선처럼 투시적인 비전(Vision)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마스터는 항상 잠재의식적으로 그러한 광선의 부딪힘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광선을 따라 일정한 자기(磁氣) 파동을 보내준다. 그러면 그 효과는 명상이 끝난 뒤에도 오래동안 계속 남는다.

이런 명상과 집중을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구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칙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명상은 매일 같은 시간에 행해져야 하고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 나가야 한

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감에 빠져 있을수록 스승의 영향력이 작용하기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것은 우리가 스승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지학 대의 7. 진화의 길 1

진화의 길

우리가, 모든 진화는 신성으로부터 나왔고 인간은 단지 신성한 불의 불꽃으로서 언젠가 다시 신성의 불과 합일될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런 두 가지 묘한 질문을 한다.

첫째로 “우리가 결국 신의 일부분이고 태초의 신성을 갖고 있다면 왜 신은 우리를 빨출시켰는가? 태초에 완벽하고 영화로우며

전지하다는 로고스는 도대체 왜 물질 속에 현현하였는가?”

둘째로 “만일 우리가 신성한 영으로부터 나왔다면 어째서 우리는 비참함 속에 던져졌는가? 그리고 지극히 순수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인간이 어떻게 이리도 타락할 수 있는가?”

이와같이 빈번히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로고스 자신이 스스로 현현한 이유는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다는 것과 그의 계획의 일부분인 우리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애써 이해하고 그것에 자신을 맞추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신비에 대해 깊이 사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다음의 그노시스(영지주의, 靈知主義) 스승들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신은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받고 되돌릴 자가 없다면 완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은 그의 일부를 물질 속으로 내려보내 그의 영광을 한정시켰다. 자연스럽고 느린 진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우리는 그의 의지에 따라 신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의 사랑 또한 더욱 완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신의 자식들인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되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의 위대한 계획은 성취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으로부터의 발출이 왜 하필 이런 특별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로지 진화의 이유가 아닌 진화의 사실에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성의 본질로부터 발출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본질은 그것이 발출될 때 미분화(未分化) 상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의식적이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그것은 내부에 소위 말하는 의식의 잠재성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차원을 거치며 물질계로 내려오면서 신은 각 차원을 통과할 때마다 그곳의 질료로 자기를 감쌌고 마침내 진화의 가장 낮은 지점인 광물계에 들어왔으며 거기서 다시 유향하여 자신이 애초에 출발한 차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즉, 그때부터 이른 바 진짜 ‘의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이 최초로 물질계에서 의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발전과정을 충분히 막은 이후에만 아스트랄계와 멘탈계에서 차례로 의식을 갖게 된다.

분명 신은 의지로 인간을 온전히 만들었고 법칙에 순종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로보트에 지나지 않은가? 그러나 로고스가 그의 본질로부터 태어나기를 바라는 인간상은 로고스 자신과 같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면서도 마땅히 그른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 완벽한 힘에 더하여 완벽한 지혜와 사랑을 가진 그

러한 자이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여 실수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방안 말고 어떤 다른 길을 생각해낼 수 없다. 실수를 통해 인간은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해악, 슬픔, 고난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이 진화의 한 요소로서 작용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악은 단지 선의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중국의 속담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로 땅 밑에서 보기에도 하늘이 아무리 먹구름으로 덮혀 있다 해도 그 구름들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것이며 그 너머에는 그것들을 다 흩어놓을 태양이 있어 항상 힘있게 빛나고 있다. 적어도 진정한 진화를 이룬 모든 자들은 절대적으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비록 경험을 못 한 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들만큼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아직 빛을 향해 투쟁해 나가고 있는 혼들을 위해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그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우리가 비참함 속에 던져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결코 내던져진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 로고스는 그의 일부분 또는 그의 옷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힘의 파동을 분류(奔流)시켰다. 이 힘의 흐름은 잠재적으로 수많은 모나드 군(群)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모나드가 완전히 발전되었을 때 자체로 하나의 로고스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을 위해 모나드는 다양한 단계의 질료를 통해 자기를 현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개체화는 어떤 잠재된 특성이 나타나기까지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화의 과정이며 모든 우주의 대법칙들은 바로 그 과정을 촉진시키도록 이루어져 있다. 초기 단계에서 모나드의 현현은 완전히 우주 법칙들에 의해 콘트롤 되며 아직은 어떤 개체성, 즉 그 자신의 혼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 개체성을 이루어내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의지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로고스의 계획은 인간에게 이 깨어나는 의지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정도(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원시적(原始的) 개체는 진화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합당한 만큼의 자유의지를 사용한다. 이 개체에게는 앞선 진화단계에 속한 선생들이 있어서 언제나 길을 일러주고 있지만 종종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한다. 그가 의지를 그르게 사용할 때(쉽게 말해서 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의지를 사용할 때) 자연법칙의 메커니즘은 행위의 대가로 고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일이 거듭 반복됨으로서 원시적 자아는 마침내 경험을 통해 자연의 현명한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이 자신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에게는 더 광범위한 자유가 열리게 된다. 자기 앞에 열린 이 새로운 자유의 세계에서 그

는 또한 분명히 옳게도 그르게도 행동할 것이며 동일한 과정의 반복으로 항상 잘못한만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비참함이나 타락은 언제나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행사에 대한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부가 끝나는 순간 모든 악한 결과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어떠한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이며 또한 본질상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악이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뿌리깊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인이 제거될 때 결과 또한 사라지는 것이 사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존재한다고 신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신의 계획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저급한 길이 아닌 고급한 길을 따르도록 권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장 고급한 길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같다. 많은 경우에 어려운 점은 고급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모호하며 비실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는 그 가르침을 믿는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정말로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행동해야 할 때가 오면 그것이 매우 모호해지게 된다. 그 때 그들은 자기가 인생을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도 지위나 부를 탐하는 자들을 볼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물질주의자이거나 고상한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러한 태도는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라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며 비논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그는 정말로 자기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 이 아니다.

진실로 그가 종교를 믿는다면 그는 결코 다른 것들을 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돈과 권력의 가치를 믿고 있고 자기가 진실로 확신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돈과 권력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과 권력을 획득하는 데 쓰고 있고, 최소한 그렇게 하는 데 의지와 인내심을 계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고급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그는 당장에 의지와 인내심을 그것들의 계발로 돌릴 것이며 허상을 쫓는 데 열성적이던만큼 진리를 추구하는 데도 열성적일 것이다. 그 때 신지학에 대한 공부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신지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음을 진정 깨닫고 있으며 과거 돈과 지위를 좇던 열정으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단순히 모호한 관심을 갖거나 몇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는 반드시 진정으로 그것을 믿어야 하며 그것의 진실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절대적 확신을 갖는 유일한 길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스스로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이 신지학의 가르침에 대한 진실성을 지성적으로 확신하거나 논리적인 정확성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가르침의 일부분만이라도 명확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 필요하다.

선배 학인로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오늘날의 후학들만큼이나 절실히 느꼈다. 25년인가 27년 전 당시 우리가 블라바츠키 여사에게 이 가르침들의 진실성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 볼 도리는 없는지 물었다. 그때 그녀는 즉각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일 당신들이 기꺼이 어려움을 무릎쓰고 필요한 영능을 계발한다면 분명히 가르침의 진실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 길은 멀고도 험하며 도달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

릴지 아무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누구나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그것을 향해 출발한 사람이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비록 많은 경우에 그것은 이생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어떤 생에서이겠지만) 말해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무적인 말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소 실망스러운 말이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고 가르침에 따라 전심으로 살며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성취 정도는 각자 다양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 자들 중에서 어떤 결과도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음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이룬 발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분명 승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었다.

우리들은 마스터들이 말한 많은 것들을 직접 확인했다. 우선 작게는 우리 자신, 우리 육체와 아스트랄체들, 우리 가능성들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아스트랄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멘탈체의 능력을 발전시켰고 처음으로 책에 쓰인 천계(天界)(*주15)의 삶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불가피한 일이지만 처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실제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된 노력이 더 계속되었

고 마침내 우리는 코잘체의 능력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비교적 진실한 세계가 우리 앞에 진정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나서 과거의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기록들로부터 로고스의 위대한 계획이 진화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의 인도 아래 계속적인 환생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작용하고 있는지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를 그 계획 속에 동참시켜 지혜롭게 그것의 완성을 위해 함께 일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진화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급한 계들을 거쳐서 이제 까지 진화해왔음이 분명했고 우리들보다 하위에 있는 단계와 상위에 있는 단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다양한 인간 생명의 단계들은 마치 한 사다리의 계단들처럼 놓여 있었다. 그 계단들이,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위로 그리고 아래로 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계단들 위에 있는 존재들은 모두 위를 향해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볼 때 사다리의 정상에 서 있는 마스터들은 자신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며 우리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 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모든 계단마다 사람들이 있고 또한 우리보다 앞선 자들의 전진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마스터들 사이에는

연속성의 단절이란 없는 것이다.

고급계의 찬란한 빛에 눈이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마스터들보다도 훨씬 더 진화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스터들의 위로 마누, 그리스도, 봇다, 리피카(*주16), 위대한 데바, 드 얀 죠한(*주17)이 있고 거기다 우리로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위대한 존재들이 있었다. 그러나 심지어 이 까마득히 위대한 존재들조차 이처럼 연속된 사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과거 전체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길 위에 있는 휴식처들과 그 길로부터 갈라진 결길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자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 우리 또한 언젠가 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확고한 미래의 운명을 보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저항해봐도 전혀 소용이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진화는 우리를 위해 설계된 법칙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만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다.

이 특별한 세계의 주기에 우리 앞에 놓인 진화 단계를 볼 때 우리들 대부분은 결코 아직 안전하다거나 구원받았다고 말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오로지 제 1비전(秘傳)을 통과하여 대백색형제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흐름에 들어선 자’ 즉, 소타파티(Sotapatti) 또는 스스로 타판나(Srotapanna)가 되었을 때 뿐이다. 이 단계에 올라섰다는

것은 인간 진화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 가장 중요한 지점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는 특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인간으로의 진입, 즉 개체성(*주18)의 획득, 코잘체의 획득, 완전히 분리된 자아의 획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개체성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동물들의 진화 목표이다. 거기에는 로고스의 힘이 분류(奔流)될 수 있는 강한 개체 센타를 만든다는 매우 뚜렷한 목적이 있다. 이 센타가 최초로 형성되어질 때 비로소 아직 약하고 불확실하기는 해도 아기 자아(自我)가 되는 것이다. 아기 자아가 보다 강하고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을 거치며 강한 자기 중심성의 장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건축상의 발판 골조라고 볼 수 있다. 골조는 건물을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되야 한다. 추한 골조가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계속 남아 있으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개체 센타를 만든 목적은 그것을 통해 로고스의 힘이 세계에 방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이기성)이 버티고 있으면 그러한 방사는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비록 자기 중심성이 없으면 강한 개체 센타 또한 만들어지지 않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장 불쾌한 특성이 진화의 과정에 자리잡고 앉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의 역할은 끝이 났다.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러나 필요악인 이기성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 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짓이다. 사실상 이기적인 인간은 가엾게도 원시적 야만성이 살아있는 시대에 뒤진 인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시적 인간이 이기성을 제거하고 앞서가는 진화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하나이다. 필요한 것은 만물의 일체성을 깨닫는 것이다. 자아를 확장시켜감에 따라 인간은 이러한 일체성을 인식해간다. 그는 자기만을 개체로 생각하는 대신 자기가 부양하는 가족을 단위 개체로 여기기 시작하며 그 범위 안에서 차츰 비이기적이 되어간다.

최근 인간은 이러한 생각을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까지 확장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범주 안에서 비이기적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부 사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며 심지어 약탈적이기까지 하다. 이어 인간은 최소한 일정한 측면에서는 자기가 속한 국가에까지 그러한 생각을 확장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그러한 변화단계의 과정에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른 공동체와의 이해관계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利害)가 다른 공동체의 이해와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 그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애국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권, 다른 기후권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기적이다. 미래의 언젠가 사람들은 자아의 관념을 확장시켜 인류 전체를 포함시킬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이기성을 겨우 벗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보다 넓은 견해를 배우는 한편,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배운다. 첫째로 그는 자기가 육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이어 자기가 감정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 자기가 마음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점차 자기가 자아(自我), 즉 혼이라는 깨달음으로 이끌며 결국 피상적으로 분리된 혼이 실제로는 하나의 초월적인 통일체라는 깨달음에 까지 이르게 된다.

역주

주15) 천계(天界)

티벳어로는 데바찬(Devachan), 산스크리트어로는 수카바티(sukhavati)라 한다. ‘지복의 장소’, ‘신의 땅’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이다. 윤회의 과정에서 죽음과 환생 사이에 영혼이 들어가 지복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상태)이다.

주16) 리피카(Lipika)

산스크리트어로 리피카는 ‘기록자’라는 뜻이다. 오컬트적으로는 아스트랄 광(光)이라는 안보이는 우주의 타블렛에 모든 존재들의 생각, 말, 행동들을 새기는 카르마의 기록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카르마 작용의 에이전트(agent)들이다.

주17) 드얀 초한(Dhyan Chohan)

‘명상의 주님’이라는 의미이다. 우주 영, 흑성 영을 말한다. 그들은 이전 세계기(word period, 만반타라)에서 의식이 완전히 개화한 영적 존재들 중의 일단으로 현 만반타라에서 흑성의 진화를 인도하고 있다.

주18) 개체성(Individuality)

신비학에서 말하는 개체성과 인성(Personality)은 각 단어가 갖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특별하고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개체성과 인성은 각각 개성, 인격으로 번역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성이나 인격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으로 너무 흔히 쓰이는 단어라서 의미 전달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체성과 인성이 본 의미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아닌가 한다.

개체성은 인간 안에 있는 영적 지성적 부분이며 불멸하는 부분이다. 개체성은 적어도 우주의 만반타라 기간 동안 죽지 않는 인간의 뿌리, 에센스, 내면의 신이다. 이에 비해 인성은 인간의 저급

한 부분으로, 개체성이 사용하는 마스크 또는 베일이다. 인성은 비록 개체성의 반영이긴 하지만 우리를 밑으로 끌어 당기는 물질적인 성향을 지닌다. 우리가 이 인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을 때 비로소 고급 자아의 속성이 현현하게 된다.

오컬티즘에서 개체성은 고급 마나스, 봇디, 아트마의 세 고급 원리로 구성된 트리아드(Triad)이다. 달리 말해 영적 인간, 모나드의 표현으로서 신성의 잠재성이 포함된 씨앗 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성은 4중의 저급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쿼터너리(Quaternary)라 한다.

1)저급심(멘탈체) 2) 감정 또는 욕망(아스트랄체) 3) 프라나(생명 원리) 4) 에텔체

신지학 대의 8. 진화의 길 2

인간은 777번 윤회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더디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불안한 시간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그러한 불안정을 극복하고 영원한 안전을 주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된다.

비전(秘傳)에의 입문이 그것이다. 이것은 인간 진화의 두 번째 단계로서 첫 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에 들어서기 전에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연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자신의 진화를 스스로 지배해야 한다. 일체성에 대한 자각은 인간을 비이기적이 되게 하며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열망을 심어준다. 그것은 인간에게 공부에 대한 자극, 완벽한 존재가 되겠다는 소망, 행위에 대한 동기, 내면의 상념과 감정을 판단하는 기준,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관 등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는 먼저 잡초들을 뽑아내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하며, 그리고 나서 좋은 성질을 찾고 계발시켜야 한다. 처음에는 이 낯선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새로운 성격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매우 느리고 더딘 작업이다. 거기에는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는, 과거에 형성된 많은 요소들이 버티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에 그것들은 엄청난 타성을 갖고 있다.

화를 내는 악습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과거에 화를 폭발시키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는 일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하나의 강한 습관이 생기게 되면 그 방향

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되게 된다. 이것은 고유한 성질로, 아스트랄 영구원자(아스트랄 질료의 개체 단위로서 다음 화신 때에도 자아에 달라붙어 남아 있다)에 저장되게 된다. 그가 분노의 무익함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마음먹을 때 그는 수많은 전생 동안 스스로 쌓아놓은 그 힘과 맞닥뜨리게 된다. 자연히 그는 악습을 고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그가 몇 번을 실패했든지 간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분명 그의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가 쌓아놓은 힘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해도 그것은 분명 한정된 양이다. 따라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면 그만큼 상쇄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생을 통해서라도 부단히 나아갈 수 있는, 악습과 싸워나갈 수 있는 새 힘이 샘솟게 된다. 진화는 로고스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그렇게 투쟁하는 그의 배후에는 로고스 자신의 무한한 힘이 버티고 있다.

인간이 일체성의 이상을 터득하기 전에는 새로운 성격을 형성시키는 이 어렵고 지루한 작업을 해야 할 마땅한 동기가 없다. 그러나 일단 그 필요성을 깨달으면 비록 천 번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노력을 계속해나갈 뚜렷한 명분이 존재한다.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는 자는 실패의 횟수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해도 무한의 힘이 자기 편이기에 결국 승리는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생에서 생으

로 이러한 목적을 기명(記銘)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의식을 혼(자아)에까지 고양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단계에서도 그것을 영구원자(*주19)에 각인시키면 그렇게 된다. 만일 의식이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인간은 그 기억(지식)을 내면에 간직한 채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러나 그가 영구원자에만 각인한다면 그러한 기억을 실제로 탄생과 더불어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 화신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과 부딪히는 순간 그는 즉각 그것의 진실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이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고 올바른 지식을 쌓아나가면 그는 언젠가 분명코 진리의 길에서 예비제자의 문에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말한 위대한 비전(秘傳)에 입문하게 될 것이다.

비전 이후, 세 번째 진화상의 주요 포인트는 흐름의 저편 기슭에 도달하는 것, 즉 아데프트의 경지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단순한 인간 단계의 진화 수준을 벗어나 초인 단계의 진화로 들어서게 된다. 한 인간이 도의 제4 단계인 아라한(arhat)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음 흐름에 들어선 이후 평균 7회 정도 윤회해야 한다고 한다. 그 기간은 보통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윤회의 기간 동안 그들은 천계(天界)에서의 중간 휴식기를 거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천계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제자 단계의 인간들뿐이다. 확실히, 제6 근원 인종의 진화를 책임맡고 있는 마누의 밑에서 활동하거나 위대한 마스터들에 의해 인류를 위해 예비된 고귀한 임무를 맡도록 선택된 자들은 천계에서의 휴식없이 바로 지상에 많이 윤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계의 삶을 포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천계의 의식을 경험해야 한다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즉, 그것은 단순히 보상의 자발적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진화의 일부분인 천계의 삶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라한의 단계에 올라서면 그는 제1 비전에서부터 아데프트의 경지까지 이르는 길의 절반을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니르바나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10개의 큰 족쇄들(*주 20) 중에서 5개를 던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라한에게는 나머지 5개의 족쇄를 벗어버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해 다시 평균 7회의 화신이 허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7번이 법칙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소비하며 때로 굳은 의지와 인내로 보다 짧은 기간에 비전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화신 동안 인생의 초기에 구도의 길에 들어서서 용맹 정진함으로써 4개의 비전을 모두 통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만 명의 구도자들 중에 거

의 한 명도 이루어내기 힘든 일이다. 인간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봇디체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단계에 이르면 코잘체는 사라지게 되고 굳이 그것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아데프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7번의 삶은 물질계에 내려 올 필요가 없다. 다시말해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그들은 물질계로 내려온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대백색 형제단을 위해 물질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비전의 후보자가 ‘신성의 길’의 여러 단계들을 통과하고 <안 보이는 조력자Invisible Helpers>에 자세히 언급된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는 평균 14번의 인생이 소요된다. 대백색형제단 마스터들의 제자가 된 자는 항상 개인적인 자유의 길(-단지 선과 악의 카르마가 균형을 이루고 모든 욕망이 사라져 더 이상 지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의 길)이 아닌 포기의 길을 택한다. 그는 로고스의 위대한 계획을 보고 거기에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오로지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삶을 산다.

이 길에는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뇌의 길’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큰 고통이 아니라 작은 고통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게으름과 나태로 작은 고통을 피

해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내버린다면,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 길에서 그가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은 마땅히 제7 라운드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여기 제4 라운드에서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제7 라운드가 되면 우리의 모든 매체들은 훨씬 더 발달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질료들 또한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발달이 덜 된 매체들을 가지고 수백만년이나 더 진화된 매체들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니 자연 엄청난 긴장이 생긴다. 그리고 그 긴장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양의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운동 선수가 훈련을 할 때 기꺼이 감내해내는 고통과 유사한 것이다. 만일 그가 어떤 큰 경기에 나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육체를 평소보다 더 단련시켜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해도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또한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아주 기꺼이 그것들을 감내해 낸다. 만일 그가 비교적 작은 이 일시적 고통을 피하기 원한다면 경기 참가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 다른 선수들이 승리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자기가 나태했던 것에 깊히 후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포기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필요한 노력 또한 이와 유사하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길에서 벗어난 자는 나중에, 자기가 조금만

덜 게을렀다면 구제해줄 수 있었던 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양심의 가책으로 훨씬 더 괴로워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매체들이 때 이르게 적응돼갈 때 겪는 고통은 자아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급 매체들에만 가해지는 것이다. 시엽류 따위의 허물이나 각피(角皮)를 벗는 생물의 성장은 여기에 알맞는 적절한 비유이다. 이 생물들은 보호를 위해 외부에 껍질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성장할 때마다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편한 과정임이 분명하다. 성장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그러한 생물들처럼 사고의 껍질을 두르고 있다.

바야흐로 그 껍질이 비좁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왔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새롭게 성장한 것을 그 안에 담아두려고 애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껍질을 벗어야만 한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카르마나 자연의 법칙에 화를 낼 일이 아니다. 과거에 그 껍질을 만든 것이 당신이기에 이제 그것을 벗어야하는 것도 당신인 것이다. 지금 껍질을 벗는 불편을 감내하지 않으면 후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불만감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특히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이는 비단 고정된 편견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불안의 공

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만일 지금의 신앙을 버린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성적인 방어능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문제에 답할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두려워한다. 비록 고통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조만간 그는 그것을 버려야만 한다. 사실상 껍질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울 것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

제자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기에는 한치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편안한 삶이라는 말은 아니다. 제자가 해야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되다. 아주 짧은 인생들 속에 수백만 년의 진화과정(일반적인 자연과정으로는 3라운드 반에 해당)을 압축해 넣는 일이 단순히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니다. 애니 베산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제자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양질의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의 도가니이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도가니가 될 필요는 없다. 아마도 합성물이 된다는 것은 진정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말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말은 일단 사람이 로고스의 위대한 희생을 보게 되면 그것에 몸을 내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저급한 천성들을 벗어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사

소한 장점일지라도 그 일을 돋는데 쓰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제자가 해야 하는 일은 어린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실로 엄청난 긴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열성적인 구도자는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면 그보다 더 가치있는 기쁨이 없음을 안다. 비록 그 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매체들(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등)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을 거의 넘어선다 해도 말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진화했을 때, 그들은 지금 가파른 지름길을 분투하며 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많은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자연이 그의 소심한 자식들을 위해 제7 라운드의 매체들로 이루도록 예비한 것을 지금 제4 라운드의 매체 장비들로 동일한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7 라운드의 놀라운 매체들을 갖게 되면 대다수의 나약한 혼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수천 번의 화신을 거친 후 이루어진다면 지극히 평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자는 그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여 항상 기쁨과 평화와 고요 속에 살며 지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실로 스승의 노예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면의 자아에 대한 자각을 얻기 위해 매체들에 가해지는 일시적인 긴장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

신을 저급한 자아와 동일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길을 걷지 않을 때 구도자에게 더 큰 고뇌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사람들이 이 길을 고뇌의 길이라고 묘사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진짜 고뇌가 찾아오지 않는다.

“오! 사랑하는 자여! 진정 올바른 일을 행하는 자는 고뇌의 길을 걷지 않느니라.”

<바가바드 기타 40-6>

이것은 제자의 내적인 삶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 흔히 물질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 만일 그가 세상을 돋기위해 어떤 공적인 일을 한다면 고뇌의 길이라는 이름은 결코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14세기, 플란더스의 신비가 루이스 브로이크는 진리의 길에 들어선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종종 이 불행한 자들은 지상에서 좋은 것들(친구, 혈연 따위)을 빼앗기며 모든 자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성을 의심하고 업신여기며 이생에서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을 혹평한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거부되고 경멸받는다. 또 때로는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블라바츠키 여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명심하라.

“어떤 내밀한 진리를 가진 신의 사자(使者), 비전가(秘傳家)들 중에서 질투와 악과 무지의 개들로부터 십자가에 못박히고 갈갈이 찢기지 않은 자들을 역사상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잔인한 오컬트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야만인들이 짖어대는 것을 무시할 사자의 심장을 갖지 못한자, 불쌍하고 무지한 바보들을 용서할 비둘기의 혼을 갖지 못한 자는 이 신성한 학문을 포기 하라!”

<시크릿 독트린, 90>

세상이 새로운 진리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그것을 비웃는 것이다.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 화를 낸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것을 채택하며, 항상 그러한 견해를 가져왔 체한다. 그동안 그 새로운 진리의 창시자는 아마도 죽임을 당했거나 비탄에 빠진채 생을 마감하게 된다.

역주

주19) 영구원자(permanent atom)

모나드가 자신을 현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센타이다. 물질 영구원자, 아스트랄 영구원자, 멘탈 유닛, 멘탈 영구원자, 브디 영구원자, 아트마 영구원자가 있다. 모두 각각의 계(界)에서 제1 부분계에 있다. (멘탈 유닛은 저급 멘탈계의 가장 높은 부분계에 있다) 이 영구원자들은 각각 하나의 안정된 센타를 형성하며 상대적으로 영구적이라 할 수 있다. 영구원자 주위에는 다양한 껍질 또는 매체들이 만들어진다. 문자 그대로 작은 힘 센타들이다.

주20) 10개의 큰 족쇄들

1. 도(道)의 제1 단계에서 제자는 3개의 족쇄를 벗어던져야 한다.

1)사카야디티(sakkayaditthi)-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란 저급 자아와 결합해 있는 육체를 진아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타인과의 일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종, 신앙, 성별 들을 구분지우는 제한을 갖게 된다.

2)비치키차차(vichikichachha)-의혹

진화, 카르마, 윤회 등에 대한 의혹이다. 개인적 체험이나 논리적 추론에 의한 신념으로 이러한 의혹을 떨쳐버려야만 한다.

3)실라바타파라마사(silabbataparamasa)-미신

종교 의식이나 제사에 의존하는 마음이다. 이 족쇄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종교의 껌데기에 얹매어서는 안된다.

2. 도의 제3 단계에서 제자는 2개의 족쇄를 던져야 한다.

1) 카마라가(kamaraga)

감각적 즐거움(욕욕 등)에 대한 집착

2) 파티가(patigha)

노여움 또는 미움

3. 도의 제4 단계에서 제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5개의 족쇄를 떨쳐버려야만 한다.

1) 루파라가(ruparaga)

형상의 세계에 대한 욕망이다. 제자는 물질계, 아스트랄계, 천계에서 형상을 가진 삶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한다.

2) 아루파라가(aruparaga)

형상없는 세계(고급 멘탈계, 봇니계)의 삶에 대한 욕망

3) 우다치차(uddachcha)

흥분

4)마노(mano)

거만

5)아비자(avijja)

무지

신지학 대의 9. 진화의 길 3

이 길(道)의 훈련 과정 안에는 구도자의 의식이 <침묵의 소리>에 언급된 세 개의 홀(Hall)을 통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세 개의 홀이라는 용어는 <침묵의 소리>에서 세 개의 저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 세계는 무지의 세계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 물질계이다. 무지의 홀(hall)이라는 표현은 정말 사실 그대로이다. 왜냐하면 물질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사물의 껍데기뿐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계는 배움의 훌인데, 이것은 아스트랄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정말로 수습(修習)하는 장소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랄 센타들이 열리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물질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있다고 여기던 것이 사실 그렇지 않았음을 곧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의 소리>는 우리에게 이 세계의 모든 꽃들 밑에는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욕망의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욕망의 뱀이란 구도자가 아스트랄계에서 구도를 향한 고급한 욕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저급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경우를 예로 들때, 저급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스러운 사랑은 모두 극복되어야 하며 고급하고 순수하고 비이기적인 사랑이 계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급한 사랑이야말로 바로 로고스 자신의 속성이며 진리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필 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버려야 할 사랑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랑이다.

“나는 얼마나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만큼 나를 사랑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잊은 채 오로지 상대에게 베풀기만을 바라는 사랑이다.

아스트랄계는 종종 환영의 세계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물질계보다는 더 본질에 가까이 있는 세계이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 그 세계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거리감도 없고 이동 능력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대개 마치 갓난아기가 물질계의 실체에 느리게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랄계의 실체에 대해 매우 더디게 깐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길에 들어선 자들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스트랄계의 지식을 밝히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실수할 가능성도 더 높다. 아스트랄 실험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위험과 해악에 노출된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이미 그 세계에 익숙해 있는 선배들로부터 적절한 훈련을 통해 아스트랄 능력 계발에 대한 도움과 안내를 받는다.

고급계에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양한 테스트가 주어진다. 신참자에게 온갖 장면들을 보여주어 그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도록 만든다. 만일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그것들과 마주치게 되면 그는 충격을 받고 육체로 떠밀려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아스트랄계상의 유용한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도 명백한 해를 끼치게 된다. 아스트랄계에서 현혹되는 것은 단지 그 환경에 익숙치 못한 당사자의 잘못이지 아스트랄계의 잘못은 아니다.

세 번째 흘은 멘탈계, 즉 지혜의 흘이다. 구도자가 아스트랄계의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는 견습의 단계를 넘어서게 되고 멘탈계에서 비로소 실제적이고 명백한 지식을 얻기 시작한다. 다시 멘탈계를 넘어서면 불멸의 세계인 붓디계가 나오고 거기서 처음으로 만물의 일체성을 배우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대가 길 자체가 되기 전에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 그것은 유일한 길이기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성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진실로 그 길에 들어 선 것은 아니다. 지식은 단지 길과 법칙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필요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무엇을 하든 당신은 직관적으로 단순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길(道)과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 진화할 수 없다. 사실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다. 강한 인간은 종종 큰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바로 그 힘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때 큰 진화를 이루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빠른 진화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거기에 엄청난 긴장을 가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된다.

하이어라키의 계획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게임의 볼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볼모가 되어 기꺼이 협력한다면 하이어라키는 물론 우리로서도 어려움을 훨씬 덜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완성의 성취!

그러나 심지어 그것조차도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인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의식으로 로고스에 도달하여 그와 합일을 이룬다고 해도 그때 가면 우리의 로고스보다 훨씬 더 고급한 존재와 합일하는 더 큰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위대한 권능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데프트의 경지를 까마득히 넘어서 하나의 진화단계의 끝에 이르면 인간은 완전한 데 카드(10)(*주21)가 된다고 한다. 완전한 인간은 최저위 우주계의

부분계 각각에 몸을 두며, 시공(時空)밖에 있는 삼위일체 로고스가 그의 자아를 구성하고 그리하여 10을 완성한다. 그러나 이 완성의 성취는 오로지 그가 스스로 이 제계(諸界) 위에 몸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이 이를수 있다.

이 진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혼들 중에서 약1/5이 7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아세카(asekha)수준에 도달하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며 1/5은 그때쯤 아라하트(아라한)의 경지에 오를 것이고 1/5은 도(道)의 하위단계에 있을 것이다. 반면 나머지 약2/5는 이 진화과정 중, 제5 라운드의 중간, 임계(臨戒)기간(심판의 날)에 모두 탈락하게 될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진화를 완성하지 못한 자들은 다음 혹성체인(*주22)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제5 라운드에서 실패한 자들일지라도 다음 혹성체인에서 는 성공할 수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날의 아데프트들 중에 도 이전 체인에서 실패했던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전 체인의 인류에 속해 있었으나 부진하였기 때문에 진화과정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나 다음 체인인 이 진화과정의 선봉으로 온 것이다. 마치 학년말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1년 후 다시 같은 시험에 도전 할 때는 그 학급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경우처럼 말이다.

우리는 지금 단지 진화기의 중간을 막 넘어섰을 뿐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른 자들이 매우 적은 것이다. 이는 한 학급에서 반년의 학과 진도만 나간 상태에서 이미 학년말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된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한 경

우와 꼭 마찬가지이다.

인간들 중에 아데프트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소수이듯 동물들 중에도 현재 개체성을 이룬 것들은 매우 적다. 진화의 중간단계인 지금,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그 끝 단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종착시간, 즉 제7 라운드의 말에가서 성취할 자들은 목표를 향해 아주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고통 또한 적거나 없을 것이다. 구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도달하는 것은 분명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남는다.

어린 시절 들었던 찬송가 중에 이점을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생각난다. 한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한동안 그곳의 기쁨을 즐기고, 경탄하며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그는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의 광채가 다른 사람들의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참 그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용기를 내어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답했다.

“그대가 나를 믿어온 것을 아니니, 나를 통해 얻은 생명은 그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왕관에서 빛나야 할 그 모든 보석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여 저 건너편, 영광스러운 무리들을 보라.

그들의 이마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다. 그들이 내게로 이끈 영혼의 수만큼. 그렇게 그들은 지금 보석을 둘러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밝음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 자들은 세세토록 별처럼 빛날 것이다.”

상향(上向)의 몸부림을 치며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돌아오는 결과를 바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세계를 돋기 위해서. 혜엄을 치지 못하는 자들은 물위에서 흐름을 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자기를 돋는데 쓰던 힘을 타인을 돋는데 쓸 수 있게 된다. 자기의 일은 자기의 일대로 하면서 말이다.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르면 인간은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에 오른 자는 그 힘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타인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는 카르마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욕망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카르마의 법칙이 그를 더 이상 세상 속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카르마 법칙의 작용을 피한다 하더라도 진화의 법칙으로부터마저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법칙의 영향을 받아온 터이다. 가령 현 단계에서 이미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라고 할 때 그는 분명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진화한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느리지만 부단한 진화의 법칙의 전진이 그를 따라잡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때는 진화 법칙의 저항할 수 없는 압력이 그를 이기적 지복의 상태에서 강제로 끌어내 다시 한번 지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빠져나가기를 원했던 그 바퀴 위에 다시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종종, 상념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자들로부터 비전(秘傳)에서 주어진 비밀들이 어떻게 보호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비전의 비밀들이 그런 식의 위험에 노출될 일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비밀 가르침이 비전가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비전가가 그 비밀을 누설하려는 흑심을 품더라도 아무런 위험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대백색형제단의 일원이 될 만큼 형제단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들은 그의 부정한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누설하기전에 그의 기억속에서 모든 것을, 심지어 누설할 어떤 것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비전을 통해 받은 비밀 가르침 속에는 자체로 아무런 가공(可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한가지, 그것을 통해 생겨난 힘이 잘못 이용되었을 경우 무시무시할 뿐인 것이다. 프리메이슨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전가들은 항상 서로를 알고 있다. 또한 프리메이슨단(*주23)에서와 같이 비전가는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지위를 숨길수는 있어도 자기보다 상위자에게 까지 그것을 감출 수는 없다.

대백색형제단이 아무리 조력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구도자의 의식이 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결코 그에게 비전을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만일 구도자가 비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진화하였다면 그로부터 비전의 수여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구도자가 한가지 요소의 부족으로 비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그로서는 자기의 부족한 성품을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비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에 있는 비전가들이 모든 면에서 획일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그 세계가 한 구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만능이 아니라 비전에 대한 적합성이다. 이 길에는 어떤 것에 대한 천성적인 좋고 싫음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것(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으며 누구도 적합한 자에 대한 비전의 수여를 막을 수 없다.

역주

주21) 데카드(decad)

여기서 데카드(10)는 10개의 세피로트로 이루어진 생명나무를 말한다. 10을 완성하면 대우주인(大宇宙人), 아담 카드몬이 된다.

주22) 혹성체인

도표

신의 생명파(제1 엘리멘탈 에센스→제2 엘리멘탈 에센스→제3 엘리멘탈 에센스→광물→식물→동물→인간에 이르는 생명 진화의 일곱 단계)는 그 성장을 위해 일곱 개의 혹성을 필요로 한다. 지구가 속한 혹성 체인의 경우를 볼 때 세 개는 물질 혹성(지구, 화성, 수성)이고 나머지 4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물질 혹성이 다. 지금은 우리의 진화 체계 중, 제4 체인기이기 때문에 4라는 번호를 붙여 설명하기로 한다.

최초로 신의 생명파가 머무른 혹성은 4A, 두 번째는 4B, 세 번째는 4C, 네 번째는 4D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일곱 혹성들 중 4A는 최하의 질료가 저급 멘탈 질료로 되어 있다.(즉, 이 도표 혹성은 저급 멘탈 질료보다 아래의 질료로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 이상의 질료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4B는 아스트랄 혹성이며 4C는 물질 혹성으로 화성이다. 4D는

지 구, 4E는 수성이다. 즉, 4C, 4D, 4E는 물질 혹성인 것이다. 4F는 아스트랄 혹성이다. 4F는 4B와 상응하지만 4B는 하강 호(弧) 상에, -제4 체인- 4F는 상승 호(弧) 상에 있다. 4G는 저급 멘탈 질료의 혹성이다. 다시, 4A와 4G가 상응관계에 있다.

생명파는 하나의 체인기 중, 일련의 혹성에서 물질계로 하강했다 재차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체인기들 자체가 정확히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

예를 들어 제3 체인의 경우 혹성 3A와 3G는 고급 멘탈 질료이고 3B와 3F는 저급 멘탈 질료이다. 3C와 3E는 아스트랄 질료이고 3D만이 물질계 상의 혹성이다. 아주 먼 옛날 제3 체인의 3D 혹성의 유물이 바로 지금의 달이다. 이 때문에 제3 체인을 보통, ‘달 체인’이라 부른다.

먼 미래의 제5 체인은 제3 체인에 상응한다. 따라서 5A와 5G는 고급 멘탈 질료로 나루어지고 5B와 5F는 저급 멘탈 질료, 5C와 5E는 아스트랄 질료, 5D만이 물질계에 있게 된다. 다른 체인도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즉, 2A와 2G, 6A와 6G는 모두 븁디계에, 2B와 2F, 6B와 6F는 고급 멘탈계에, 2C와 2E, 6C와 6E는 저급 멘탈계, 2D와 6D는 아스트랄계에 있다. 마찬가지로 1A와 1G, 7A와 7G는 아트마계에, 1B와 1F, 7B와 7F는 븁디계에, 1C와 1E, 7C와 7E는 고급 멘탈계에, 1D와 7D는 저급 멘탈계에 있다.

1체인기는 신의 생명파가 일련의 일곱 혹성을 7회 순환하는 기간이며 그 중 1회를 1라운드라고 부른다. 생명파가 하나의 혹성에 머무르는 기간을 세계기(혹성기)라 하고 한 세계기에 일곱 근원 인종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근원 인종에는 일곱 아인종이 있게 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7아인종기는 1근원 인종기
- 2) 7근원 인종기는 1세계기(혹성기)
- 3) 7세계기(혹성기)는 1라운드기
- 4) 7라운드기는 1체인기
- 5) 7체인기는 1진화체계기
- 6) 7진화체계기는 1태양계기

현재의 생명파는 먼 옛날 A혹성에서 제1 라운드가 시작되어 제3 라운드를 마쳤고 A혹성에서부터 제4 라운드가 시작되어 생명파가 B혹성, 화성을 거쳐 지금 이렇게 지구에 와 있다. 진화체계의 절반은 제4 체인기의 제4 라운드기의 제4 혹성기의 제4 근원인종기가 된다. 현재는 제4 혹성기(지구)의 제5 근원인종기이기 때문에 인류는 전체로서 이 진화체계의 절반을 겨우 조금 넘어 있는 지점에 와 있다. 현재 인류의 위치는 제4 체인의 제4 라운드의

제4 혹성(지구)의 제5 근원 인종기에 있다.

신으로부터 발출된 생명파는 모든 자연계의 온갖 세계를 경험하며 체인기를 통과한다. 제1 체인기에서 제1 엘리멘탈계에 불어넣어진 혼이 제2 체인기에는 제2 엘리멘탈계에, 제3 체인기에는 제3 엘리멘탈계에 제4 체인기에는 광물계에, 제5 체인기에는 식물계에, 제6 체인기에는 동물계에 들어오고 제7 체인기에는 인간으로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제1 체인기에는 광물계에 있었고, 제2 체인기에는 식물, 제3 체인기에는 동물이었다가 제4 체인기에는 인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태양계는 일곱 진화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계의 각 행성들은 지구보다 높거나 낮은 체인기에 각각 속해 있다. 예를 들어 금성의 진화체계는 우리보다 앞선 제5 체인기에 있다. 금성이 지구보다 한 체인기 앞서 있기 때문에 금성의 일반적인 인류는 아데프트의 수준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지구 체인기의 초반에 금성으로부터 위대한 존재들이 찾아와 지구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다.

주23) 프리메이슨단

세상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17년 영국 런던에서의 그랜드 롯지 결성에서부터였지만 그전부터 이미, 12세기 초에 창설되어 14세기 초에 해체된 템플 기사단의 명맥을 계승하고 있

었다. 또한 더욱 고대로 소급하여 예루살렘 신전을 축조한 것이 그들이었다고 한다.

메이슨은 본래 석공 또는 건축가를 일컫는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성당이나 신전을 축조하는 건축가로 활동하며 그 속에 고대 지혜를 비장해 넣었다. 이러한 실천적 프리메이슨단은 훗날 사변적 프리메이슨단으로 변모되어 철학적, 사변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신지학 대의 10. 고대 비의 1

고대 비의(秘儀)

내가 고대 비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특별히 어떤 고대 필사본을 읽었거나 그 주제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생에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어떤 신비교단에 입문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비전(秘傳)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게된 것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 그리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그것이 비록 전생에 주어진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그 신비단체의 배후에 있는 존재들은 당시의 비밀 가르침을 이제는 세상에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비밀들을 밝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고대 신비교단에서 받은 가르침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나의 서약을 깨뜨린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르침의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터들이 공개를 허락치 않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먼저 나는 당신이 인류가 가져온 모든 종교(기독교를 포함한)들 안에 비의(秘儀)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사람들은 흔히 적어도 기독교에는 감추어진 어떤 것이 없고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자이다.

오늘날의 경우, 실제로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일반에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감추어진 비의(秘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만일 당신이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해 공부한다면 고대의 저술가들이 비의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초기 교회의 가르침에는 많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카테코메노이(katechoumenoi), 즉 교회에 곧 들어온 자, 아직 정식 멤버가 되지 못한 자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유래는 훨씬 더 일찍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신은 복음서 가운데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알려 주면서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오로지 비유로서만 가르쳤다는 구절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가 지성적인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도그마의 기초가 되었던 초자연적이며 철학적인 신비들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독교 가르침의 감추어진 일면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단지 위대한 영지주의(靈知主義, 그노시스) 작가들의 저작들을 읽기만 하면 된다. 기독교의 이런 비교(秘敎)적 측면을 제자들을 위한 내부교의로, 기독교의 오늘날 형태를 일반인들을 위한 외부교의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양자안에서 종합된 고대지혜의 완벽한 표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양자의 가르침 중 하나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이단으로 비난할 때, 이는 오로지 한쪽에 치우친 사상만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언제나 외부적인 형태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내부의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고급한 가르침 또한 갖고 있다.

우리가 고대 비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

이스의 위대한 종교들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고대 비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들은 매우 드물어서 이암블리쿠스(Iamblichus, 그 자신이 비의에 입문한 자이다), 토마스 테일러(영국인, 플라톤 철학자), P.포카르의 책이 고작이다. 그것들은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정보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크리스트 교회는 자신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아마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당한 일이었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초기 크리스트교 시대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들은 중세 수도사들의 손을 통해 전해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당시의 유일한 지식층으로서 모든 필사본들을 베끼는 것 역시 그들이었다. 그들은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유용하지 않은가에 대해 매우 분명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들만 살아 남았고 (그 부분은 특히 더 부각되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버려졌다.

특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의(秘儀)에 대한 지식의 대부분은 교부들(비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의 책에서 발견되어진다. 교부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전달하였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확실히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강하게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개신교의 사상에 대한 개요를 알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얻으려 카톨릭 사제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카톨릭 교의에 대한 정통한 해석을 원할 경우 그것을 위해 구세군한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의에 대해 우리는 이와 유사한(아니,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고대 종교의 비의를 따르는 자들과 크리스트 교회의 교부들 사이에는 수많은 신랄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의에 대하여 교부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매우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들이 고대 비의는 추잡하고 비도덕적인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동안 투시를 통하여 주의깊게 그리이스의 비의 전체를 탐구하여 왔고 내 자신이 직접 전생에 그리이스 신비교단의 비전가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의 말에 한점의 진실도 들어 있지 않다고.

축제나 바쿠스 예배의 형태가 포함된 특정한 비의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매우 혐오스러운 형태로 변질, 타락한 것은 후대의 일로서 본래의 비의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엘레우시스 비의를 모방한 것으로서 비교(秘敎)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통속적인 것이었다.

지금, 나는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이스 비의란 무엇이고 그 입문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대략적인 스케치만을 전하고자 한다. 비의는 초급비의와 고급비의로 나뉘어 있었다. 모든 그리스 사람들은 비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거기에 입문한 사람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상당한 비율이었다. 당신도 3만명의 입문자들이 일시에 모였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을 줄 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비전을 받았다는 것을 비밀로 할 필요가 없으며 외부세계도 그가 신비단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비록 비의에서 주어진 가르침들은 비밀로 지켜진다고 해도 전체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초급비의와 고급비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대충 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들 두 단계의 비의 뒤에는 항상 진정한 비밀비의가 있었다. 세 번째 단계의 비의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곧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두 단계의 비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거기에 입문하기를 원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로마 황제들이 어떤 종교적인 조직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30개 군단의 대장과는 논쟁할 수 없다는 말처럼 신비교단의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의 입문을 거절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황제들이 자기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누구든 참

수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세 번째 단계의 비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숨겨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 번째 단계에 입문할 자격이 있다 고 스승이 판단을 내린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 이 세 번째 단계의 가르침은 결코 대중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비들, 즉 초급과 고급단계의 비의들 중에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선 첫째로, 사람들은 특정한 경구(警句), 잠언(箴言)들을 배웠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장 유명한 것중의 하나는 이것이다.

‘죽음은 삶이며 삶은 죽음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시 사람들이 죽음 저편에 있는 한층 높은 생명의 형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이렇다.

‘이생에서 실체를 구하는 자는 저 세상에서도 실체를 구할 것이요, 이생에서 허상을 좇는 자는 저 세상에서도 허상을 좇을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의 대원리는, 인간의 혼은 고급계에서 물질계로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윤회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이스나 로마 종교의 외부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 것이다. 그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또는 자세한 해설을 붙여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들 속에는 그러한 사상이 표현되고 있다.

당신은 수선화를 따다가 하계(下界)로 납치된 프로세르피나 신화를 기억할 것이다. 또 나르시스 신화를 생각해 보자. 매우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그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꽃으로 변해 땅에 묶이게 되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신지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시크릿 독트린>에서 어떻게 자아가 아스트랄계와 물질계라는 물을 내려다보고 거기에 비친 모습과 사랑에 빠져서 결국 지상에 묶이게 되는지 배웠다. 수선화를 따다가 하계로 끌려간 프로세르피나는 결국 인생의 절반은 땅 위에서 또 절반은 하계에서 보내게 되었다.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절반은 육체 속에서 살고 절반은 육체를 벗어나 산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밖에도 신지학적인 해석을 통해 들으면 매우 흥미로운 신화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신비 가르침에서 미노타우로스(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는 인간의 저급한 본성을 상징한다. 미노타우로스는 마침내 테세우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테세우스는 성부(聖父)의 칼, 즉

영(spirit)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고급자아를 상징한다.

아리아드네(직관을 상징)가 준 오컬트 지식이란 실을 이용해 환영의 미로(저급계들을 상징)로 들어간 고급자이는 거기서 저급자아를 죽이고 무사히 그 속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위협이 남아 있다. 지적인 자만에 빠진 자는,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무시했던 것처럼 직관을 무시하여 자신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깨닫는데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초급비의는 아그라에(Agrae)라 불리는 작은 장소에서 행해졌고 입문자는 미스타에(Mystae)라고 불렸다. 그들의 위엄의 상징인 공식 의복은 어린 사슴가죽이었는데, 고대 상징학에서 그것은 아스트랄체를 상징한다. 가죽의 반점 무늬는 아스트랄체의 많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초급비의 입문자들의 의상으로 그것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가르침들이 주로 아스트랄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입문한 자들은 사후에 있을 인간의 아스트랄 삶에 대해 배웠다. 지상에서의 일정한 삶의 패턴이 아스트랄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등의 가르침이 실례(實例)로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그들은 그림이나 신전 내부의 거대한 조각상, 일종의 연극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현계에서 탐욕이나 감각적 욕망에 빠졌던 자들이 아스트랄계에서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배웠다.

고대의 비의에서 지도자는 아데프트나 아데프트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이미지들이나 제자의 실물상을 아스트랄 질료나 에텔 질료를 통해 직접 자신의 힘으로 물질화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의 교사들은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가르침들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경우에는 소위 ‘연극’이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르쳤는데 입문자들은 각자 다른 사람의 역할을 했고 때로는 기계로 인형들을 움직였다.

아스트랄계에 대한 것 외에, 세계 진화체계(특히 우리 태양계의 생성과정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쳤다. 그 가르침의 방법은 처음에는 성운, 혹성들을 실물상으로 직접 물질화시켜 설명했고 후대에 가서 이 물질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자 오늘날의 소위 오러리(orrry, 太陽系儀)라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 혹성들의 배열을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도록 시각화시켰다.

비의(秘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 지도자들이 현교(顯敎)의 사람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만일 당신이 고대 그리스 종교에 대해 잘 안다면 그 종교에는 어떤 내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종교는 확실히, 매우 발달되어 있다거나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대중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심지어 그 것들중 많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까지 보인다)은 사람들이 반드시 배우고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단지 몇 개의 단순하고 분명한 개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열성적인 사람들은 비의에 입문했으며 거기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이야기들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이해를 돋기 위해 두세 가지의 짧고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다. 이미 말했듯이 이 초급비의의 목적은 대부분 신비학도들에게 지상에서의 일정한 삶의 형태가 아스트랄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당신은 아마 탄탈로스의 신화를 알고 있을 것이다. 탄탈로스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아 지옥의 호수 속에 턱까지 잠기운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하면 물이 빠져 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

우리가 일단 아스트랄계의 삶을 이해한다면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알콜이나 섹스 등 어떤 감각적 욕망에 빠졌던 자가 죽어서 이 물질계를 떠나면 아스트랄계에서 바로 탄탈로스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그는 스스로 그런 끔찍한 욕망을 쌓아왔고 이제 그것에 완전히 지배당해 버렸다.

당신은 알콜 중독자들의 술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고 있다. 그 욕망은 명예나 가족에 대한 사랑, 기타 모든 선한 성질들을 삼켜버린다. 그는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그들의 옷을 팔아서라도 술을 사먹으려 듦다.

기억하라. 그런 자는 죽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음을. 그의 욕망은 아직도 언제나처럼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충족시키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육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에서 당신은 탄탈로스가 생전에 끔찍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사라지고 또 충족시키려면 사라지고 하는 고통스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티티우스(Tityus)신화를 상기하라. 그는 큰 바위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혔지만 그 순간 다시 간이 생겨나 끊임없이 고통당했다. 그것은 욕망에 굴복한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

주는 설명이자, 지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마 그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좀 더 나은 예는 시지푸스 신화일 것이다. 당신도 아다시피 그는 벌로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일을 해야 했는데 정상에 가까워지면 되굴러 떨어져 그 고역은 끝이 없었다. 이것은 인생을 이기적인 목적이나 영광,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설계하며 보냈던 야심적인 사람이 겪는 사후의 상태이다.

그러한 사람의 경우 역시 죽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생전처럼 계획을 짜고 앓아 있다. 그는 계획을 짜고 실천한다. 그리고 생각한대로 완성의 지점에 다다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과 모든 것이 단지 꿈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한다. 그가 이 모든 욕망들이 부질없는 것이며 그 야심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까지 말이다.

그러므로 시지프스는 그가 마침내 굴려 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배우게 될 때까지 쓸모없는 짓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가 그 사실을 배웠다는 것은 욕망을 극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생에 그는 그러한 욕망없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동일한 욕망에 빠질 수 있는 성격상의 취약성이 있기는 하겠지

만.

당신은 이제 저 세상에서의 끔찍스러운 상태가 오직 이 세상에서 잘못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수정하는 자연의 방법이다. 인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행위의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만든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은 또 다른 생에서 진화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것이 바로 비의의 가르침에서 특히 강조하는 핵심이다.

이제 고급비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 고급비의는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엘레우시스(Eleusis) 대신전에서 주로 거행되었다. 입문자에게는 ‘눈이 열린 자들’이란 뜻인 ‘에포프타이’(epoptai)라는 호칭이 부여되었다. 그들의 표장(標章)의 복은 이아손의 금빛 양모피(駁毛皮)로, 이는 멘탈체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투시가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 인간의 오라색 중 노란색은 지성(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의 비전에서는 전(前)단계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진다. 고급비의에서 신비학도들은 지상에서의 일정한 삶의 패턴이 멘탈계에 미치는 결과, 그리고 세계와 인간의 진화과정 전체를 심도있게 배운다. 고급비의에서도 가르침의 방법은 초급비의와 마찬가지이지만 물질계상에 멘탈계의 모습을 표현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초급비의와 고급비의 각각에는 내부학교가 있어서 준비된 자들에게 실제적인 영능계발을 가르쳤다. 저급비의에서는 아스트랄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주어진다. 그러나 스승들은 그의 제자들을 주의깊게 지켜보다가 믿을만한 자로서 영능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내부써클로 인도했고 거기서 아스트랄체의 작용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러한 제자가 고급비의에 입문하면 그는 멘탈계의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은 물론 멘탈체의 계발에 대한 내밀한 가르침을 받았다.

초급비의와 고급비의뿐만 아니라 그 내부써클의 가르침까지 받은 자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들은 그 가치가 크긴 하지만 사실상 평범한 것으로 진정한 비의에 대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비전은 그들을 지혜의 마스터들의 발밑으로 인도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백색형제단으로의 입문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제 나는 비의(秘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징들의 의미에 대

해 좀 더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소위 ‘디오니소스의 지팡이’(꼭 대기에 솔방울이 달린 지팡이)에 대해 말해 보겠다. 인도에서도 이와 꼭 같은 상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일곱 마디로 된 대나무 막대기이다. 일부 변형된 비의에서 그것은 불을 품고 있는 속이 빈 쇠막대기로 나타난다. 오컬트를 공부한 사람으면 이것들이 이 상징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디오니소스의 지팡이 또는 일곱 마디로 된 대나무 막대기는 일곱 센타가 있는 인간의 척주를 상징하며 숨겨진 불이란 ‘뱀의 불’ 즉, 쿤달리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의 지팡이는 하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자장(磁場)을 발하는 기구로, 입문자들이 사후 완전한 의식을 갖고 아스트랄 인생으로 옮겨가도록 육체로부터 아스트랄체를 이탈시키는데 사용한다. 사제는 그 기구를 자기화(磁氣化)시켜 입문자의 척주에 대고 자신의 기(氣)를 보내줌으로써 그 입문자 앞에 놓인 힘든 삶과 투쟁을 혼쳐나가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비의와 관련하여 ‘바커스의 장난감들’이라 불리는 한 세트의 물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고찰해보면 매우 특별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 바커스(로고스의 상징)가 그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티탄이 그를 붙잡아가 갈갈이 찢어버렸고 나중에 그 조각들이 합쳐져 전체가 되었다. 비록 거칠게 보이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분명 비유라는 것을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는 유일자가 다자(多者)가 되어 하강했고 그 다자가 고통과 희생을 통해 다시 합일하여 유일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 바커스의 장난감들은 무엇인가? 먼저 그는 주사위를 갖고 놀고 있었다. 그 주사위는 보통 주사위가 아니라 다섯 개의 플라톤 입체(기하학의 정다면체)이다. 그것들에는 일정한 순열이 있고 그 순열은 태양계의 상이한 계(界)들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제계(諸界)의 원자 형상이라기보다는 그 원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선들(力線, 이것을 따라 원자의 힘이 작용 한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다면체들은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인데 맨 앞에 점(點)을, 맨 끝에 구(球)를 더하면 우리 태양계의 제계(諸界; 물질계, 아스트랄계, 멘탈계, 봇디계, 아트마계, 모나드계, 아디계)의 수에 상응하는 일련의 일곱 도형을 얻을 수 있다.

고대의 철학 학원에서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의 수학은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의미로의 수학이 아니라 고급계들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상호간의 관련성, 그리고 신의 의지가 투사된 존재계의 건축 방식 등등을 포함한 광의의 수학을 말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신은 기하학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절대 진리이다. 플라톤 입체들은 인간적인 두뇌의 개념이 아닌 고급계들의 진상이다. 우리는 기하학을 공부하는데 유클리드의 책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기하를 어떤 고급한 것에 대한 길잡이 학문으로서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하고 있다. 고대 철학자들은 기하학을 깊이 연구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학문을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진실한 가르침은 망각한 채 쓸모없는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다.

바크스가 가지고 놀던 또 하나의 장난감은 팽이이다. 이 팽이는 회전하는 원자(*주24)의 상징으로서 그 그림은 <오컬트 화학>에 나와 있다. 그는 또한 공을 갖고 놀았다. 이 공은 지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지구는 현재 혹성체인 중에서 로고스의 상념이 특별히 조사(照射)되고 있는 부분이다. 바크스는 또 거울을 갖고 놀았다. 거울은 항상 아스트랄 빛을 상징해 왔다. 그 거울안에서 원형체(原形體; 고급멘탈계에 있는 형상으로서 시현(示顯)된 세계의 조형)에 대해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가 반사된 후 비로소 물질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당신은 그 장난감 하나 하나가 태양계의 진화에 필수적인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비의를 공부하기에 앞서 신비학원들은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켰는지 내가 속해 있던 피타고라스 학원을 예로 들어 설명

해 보겠다. 피타고라스 학원에서 제자들은 세 클래스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아쿠스티코이(akoustikoi, 듣는 자들) 클래스라고 불렸다. 이것은 그들이 배우는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그들의 계율 중 하나에 실제로 2년동안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만일 이 계율이 오늘날 우리 학회에 정해져 있다면 가입을 원하는 자들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그 계율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아쿠스티코이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계속 배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나는 우리 신지학회에도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럴 때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언제나 ‘신지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 신비학원의 두 번째 클래스는 마테마티코이(mathematikoi)라 불렸다. 그들은 기하학과 수(數) 그리고 음악에 대해 배웠다. 그들은 이 상이한 주제들을 상호 관련지어 색깔과 소리 사이에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었다.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한 복합적 통일체인지, 무관해 보이는 상이한 부분들로부터 어떻게 사실들을 추론, 상호 연관지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보자. 나는 방금 5개의 플라톤 입체에 대해 말했다. 음악에 조예가 다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현(弦) 길이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특정한 음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5도 음정체계를 통해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것이다.

우리는 각 음조의 진동수에 의해 서로 다른 음조 상호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수학적인 숫자로 화성현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사실은 처음에 단순한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수학자들이 그 비율을 찾아내었고 다시 실험을 통해 그것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그 독특한 음색은 화성현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수들이, 마치 플라톤 입체 각 부분들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주제의 핵심은 얼마전 어느 영국 성당의 오르가ニ스트가 기재한 <신지학 리뷰지>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음계와 다른 오늘날의 오음계 또한 수천년 전에 연구된 이 플라톤 입체의 비율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학과 음악 사이에 그다지 큰 관계가 있을 리 없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 양자가 하나의 거대한 통일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피타로拉斯 신비학원의 세 번째 클래스는 피지코이(physikoi)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물리학(즉, 외적인 현상들간의 내부적 연결관계, 세계의 창조, 형이상학 등)을 공부했으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이를 만든 창조주에 대해 배웠다.

비의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 제자들에게는 완벽한 순결의 삶이 엄격하게 요구되었다. 피타고라스 학원에서는 인생을 다섯 기간으로 분류한다. 이는 놀랍게도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예비의 길’의 다섯 단계(나의 책<안보이는 조력자>와 앤니 베산트의 <제자의 길>에 언급되어 있다)와 거의 일치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거의 모든 관습과 상징들은 이집트 비의로부터 유래되었다. 예를 들어, 라틴 십자가나 로고스의 강림과 희생 등과 관련된 모든 상징들은 이집트 비의로부터 차용(借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비록 그리스, 로마, 이집트, 칼데아의 신비들이 오래 전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세계 앞에는 내부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 본 적이 없다.

심지어 중세의 암흑시대에도 장미십자단(*주25)이나 기타 다른 신비교단들이 준비된 자들을 위해 진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오늘 날의 바쁜 물질주의 시대에도 신지학회는 참 지식의 깃발을 치켜

들고 준비된 자들을 지혜의 마스터들 빌 아래로 인도하는 문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 비밀의 봉인(封印) 아래서만 가르
쳐졌던 많은 것들이 오늘날은 그대로 공개되고 있으며 우리 신지
학회를 통해 세계에 주어지고 있다.

역사상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찾아 헤매며
배우던 지식들이 이제는 몇 권의 책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우리
에게 제공되고 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
인 진리이다.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
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24>

이러한 영예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고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만큼 큰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은혜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열려진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카르마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수천년 동안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 과거의 선배들이 온갖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며 싸워야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당신은 당신 앞에 주어진 이 기회에 좀 더 감사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 힘을 다해 이 기회를 이용하자. 그리하여 신지학에 의해 주어진 이 특별한 선물이 우리 자신에게 합당함을 보이도록 하자.

역주

주24) 원자

양성

음성

신지학에서 말하는 원자는 바로 아누(Anu)를 일컫는 것이다. 물질계는 일곱 부분계(하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를 넘어 서면 제4 에텔, 제3 에텔, 제2 에텔, 제1 에텔상태가 나온다. 이를 각 그림 각 에텔, 초에텔, 아원자, 원자라 부른다. 이 중, 제1 부분계에 있는 원자가 바로 아누이다. 이 원자(아누)를 해체시키면 아스트랄 질료 상태로 변화되어버린다. 좌측 그림은 양성의 원자 모양이며 우측 그림은 음성의 원자이다.

주25) 장미십자단

중세에 독일의 신비가 크리스천 로젠크로이츠가 창설한 비교 그룹. 프리메이슨단과 마찬가지로 고대지혜의 가르침을 비밀스럽게 세상에 전수하였다.

제 2장 종 교

신지학 대의 12. 로고스

로고스

우리는 우리 태양계의 로고스를 이성(理性)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선신(善神)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진정 선신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이 곧 로고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공평, 부정, 질투, 잔인함 따위를 로고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성질들이 신성에 내재하기를 바라는 자는 어디 다른 데로 가봐야 할 것이다.

로고스의 체계(system)에 관한한, 그는 전지(全知), 편재(遍在), 전능(全能)하며 사랑, 힘, 지혜, 영광이 무한하게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는 강대한 자, 삼위일체, 실제의 신(神)이다. 그러나 이러한 로고스도 절대자—이 절대자의 앞에서는 심지어 태양계도 한 점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로부터 나온 존재로,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 내려왔는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로고스를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태양은 물질계에 존재하는 그의 최고 현현이다. 따라서 태양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의 성질을 인식하고, 만물이 그로부터 내려온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태양은, 인간의 심장에 해당하는 로고스 체내의 일종의 힘 센타로 생각할 수 있다. 전체 태양계는 그의 물질체일 뿐이다. 로고스의 활동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있다.

로고스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지 않는게 차라리 나을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를 단순히 편재한 만물로서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내 자신도 그인 것이고, 모든 다른 사람들 역시 그이며 진실로 신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눈에 가시화된 만물은 로고스의 현현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히 광대해 보이는 이 태양계도 그에게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이 모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깥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영광과 광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사상은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범신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면서도 이미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그 자신의 우주를 초월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말이다.

“나의 한 조각으로 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노라.”

<바가바드 기타 X41>

우리와 신과의 합일에 대해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그의 몸의 세포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세포보다는 훨씬 더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과 힘이 우리를 통해 현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은 우리가 육체의 세포를 통해 생명을 얻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최하위 우주계에 현현할 때 그의 제1 면(面)은 아디계에, 제2 면(面)은 모나드계에, 제3 면(面)은 니르바나계(아트마계)에 내려왔

다. 따라서 아데프트가 진화하면서 의식을 차츰 고양시켜 나갈 때 그는 먼저 로고스의 제3면에 도달, 그것과 자신의 일체성을 깨닫고 계속 나아가 긴 경과를 거친 후 제2면, 제1면과 차례로 완전한 합일을 이루게 된다.

한 번은 내가 직접 그의 화신(化身)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저급 계들과 무관하며, 모든 일상적 경험을 완전히 초월한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 일은 잠시동안 두 개의 다른 광선(즉, 유형 type)을 완전히 혼합시키는 매우 대담 무쌍한 실험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나는 매우 고급한 차원과 잠시동안 접촉할 수 있었다.

로고스는 그의 시스템(존재의 제계, 諸界)을 훨씬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 마치 제계(諸界)를 연꽃 왕좌처럼 깔고 앉아 있다. 로고스는 인간의 신화(神化)된 존재이지만 인간보다 무한히 위대한 자이다. 우리는 그를 아우고에이데스(Augoeides)가 높이 높이 무한까지 올라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그의 화신(化身)이 영구적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차원에서만 가시화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초월적인 실재로서 그 현현을 한번 보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묘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고급한 경험과의 일시적인 조우(遭遇)에 대해 말하면 이렇다. 사람이 의식을 코질체의 가장 높은 층까지 고양시킨 후 멘탈계의 원자 질료에 완전히 집

중하면 의식 이동에 세가지 길(*주1)이 열린다.

첫 번째 길은 밑으로 멘탈계의 제2 부분계(하부계)에 가거나, 만일 그가 봇디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면 위로 봇디계의 최하위 부분계(제7부분계)에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동선은 멘탈계의 원자 부분계(제1부분계)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상, 하계의 원자 부분계에까지 이르는 지름길로서, 의식은 어떤 중간 부분계들을 거치지 않고 멘탈 원자로부터 밑으로 아스트랄 원자 또는 위로 봇디 원자로(물론 의식이 충분히 발달한 경우) 갈 수 있다.

세 번째 의식이동의 가능성은 이 최하위 우주계(*주2)안에 있는 멘탈계의 원자 부분계와 이에 상응하는 우주계의 멘탈 원자사이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통신 라인을 올려다 보는(그것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다. 우리로서는 아직 그 통신 라인을 따라 무한히 위로 올라가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번 잠시동안 그것을 올려다 볼 수는 있다. 마치 우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내가 본 것을 묘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 단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점 만은 절대부동의 확신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지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로고스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반영이 아니라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의 의식의 일부분인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 우리는 명상할 때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외운다.

“나는 그것(Self)이고 그것(Self)은 나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저 말이나 되풀이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모든 생명은 로고스로부터의 일련의 분출(*주3)에서 나왔다. 첫 번째 발출은 그의 제3 면(面)으로부터 있었고 이 분류(奔流)를 통해 기존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화학 원소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궁창의 수면 위를 지나갔다고 표현되어 있다.

다음 단계로 자연계가 확고히 성립될 때 로고스의 제2 면으로부터 두 번째 분출이 있고 그것으로 광물, 식물, 동물의 그룹 혼들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원리가 물질속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를 통해서만 우리 존재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 자체는 그의 제1 면(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이신 아버지)으로부터 온 세 번째 분출의 현현이다. 모든 항성(恒星)은 우리의 태양과 같으며 각각은 한 로고스의 부분적 표현이

다.

역주

주1) 세 가지 길

다음의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 존재계는 상이한 이름으로 불린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디계-신(성)계, 마하 파라 니르바나계, 우주 제1 에텔계

모나드계-아누파다카계, 파라 니르바나계, 우주 제2 에텔계

아트마계-영계(靈界), 니르바나계, 우주 제3 에텔계

붓디계-직관계, 우주 제4 에텔계

멘탈계-심계(心界), 마나스계, 우주 기체계

아스트랄계-감정계, 욕망계, 카마계, 우주 액체계

물질계-우주 고체계

이상의 일곱계 전체는 우주 물질계를 이룬다.

주2) 우주계

주3) 로고스로부터의 분출

존재계 7중 체계의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운동(제1 분출)은 제3 로고스(로고스의 제3면)로부터 나왔다. 이 운동이 있기 전에는 자연의 각 계(界)에 원자 상태의 질료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하위 부분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집합 또는 조합이 없었다. (제3 로고스에 의해 원시 에델인 코일론으로부터 원자가 생겨나는 과정은 지면 관계로 생략함) 이윽고 이 원시질료의 바다에 성령(holy sprit)이 내려와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단위 질료들 사이에 인력과 척력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각 계에 하위 부분계들이 형성되게 되었다.

도표상에서 이것은 맨 아래 원(로고스의 제3 면)으로부터 모든 계들을 관통하며 내려온 수직선으로 상징된다. 이 수직선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짙어지는데, 이는 신성한 영이 밑으로 하강해 감에 따라 더욱 놈밀한 질료로 감싸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낮은 형상 속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조차 그 안에는 생명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하여 활력을 받은 질료 속으로 신성한 생명의 두 번째 분출이 들어오게 된다.

이 때 로고스의 제2 면은 원시 질료가 아닌 제3 로고스의 생명으로 약동하는 질료로 형상을 취한다. 이제 그는 생명과 질료 양자(兩者)로 옷을 입은 것이다. 매우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저항할수 없는 거대한 물결은 다양한 계(界)들과 왕국들을 관통하며 쏟아져 내려온다. 그 각각에 한 혹성 체인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거대한 물결은 도표상에서 두 번째 원(로고스의 제2 면)으로부터 출발하여 타원형을 그리며 좌측면을 쓸고 내려오는 선으로 상징되어 있다. 그 선은 밑바닥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맨 아래 지점을 통과하면 그 선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 때 물질계, 아스트랄계, 저급 멘탈계를 관통해 올라가 마침내 고급 멘탈계에서 제1 로고스로부터 나온 제3 분출과 만나게 된다.

그 선(제2 로고스로부터 내려온 선)이 하강하는 상이한 단계에서 그 힘은 특별한 이름들로 불린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종종 모나드 에센스(특히 아디, 모나드, 아트마, 븁디계를 거칠 때)라 불리지만 각 계의 제1 부분계 질료로 옷을 입었을 때 불리는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강 코스에서 그것이 고급 멘탈계의 질료 속에서 활동할

때는 제1 엘리멘탈 에센스로 불린다. 그 진화 과정에서 한 체인 기를 보낸 뒤 그것은 저급 멘탈계 차원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한 체인기 동안 제2 엘린멘탈 왕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음 체인기 동안은 아스트랄 차원에 있게 되는데 거기서 그것은 제3 엘리멘탈 에센스 또는 아스트랄계의 엘리멘탈 에센스라 불린다. 멘탈계와 아스트랄계의 단계에서 그것은 인간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매체들의 구성 인자가 되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신성한 힘의 생명파가 가장 낮은 코스에 이르렀을 때 물질 속에 담기게 되는데 이 기간에 그것은 광물계를 활성화시킨다. 이 단계에서 그것은 광물 모나드라 불린다. 또 이후 진화 단계에서는 각각 식물 모나드, 동물 모나드라 불린다. 하강 코스에서 그것은 자기 주위에 다양한 계(界)의 상이한 질료들을 끌어모아 진동과 인상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길들여 줌으로써 그 질료들을 진화시킨다. 동시에 자신은 각각의 차원에 있는 이 인상들에 대해 신속한 수용력과 반응력을 얻는다.

그러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물질로 옷을 입고 신성을 향한 상향의 진화를 시작할 때 그 활동 양상은 다소 달라진다. 그 때 그것의 목적은 이 다양한 계들에서 의식을 완전히 계발하는 것이다. 매체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탈것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그 매체들은 인상들을 외부로부터 혼에 전달하는 다리의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혼이 자신을 각 계에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런 노력은 자연히 가장 낮은 질료(물질)에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 진동의 힘이 가장 약하여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광물의 의식은 에텔 질료를 완전히 통제하는 수준엔 이르지 못하지만 높은 차원에서는 아스트랄 질료를 통해 의식이 작용하기도 한다. 달리 말해, 광물에게도 미약하나마 감정이 있다는 말이다.

식물의 의식은 모든 에텔 질료를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아스트랄 질료도 광물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동물의 의식은 모든 아스트랄 질료에 다 빼쳐 있지만 저급 욕망만 완전히 경험할 수 있을 뿐 고급한 욕망을 발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비록 고급한 욕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는 저급 멘탈계의 질료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의 지성, 이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보통 인간의 의식은 고급 멘탈계까지 뺀어 있다. 이것은 코잘체 또는 자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급 멘탈계의 모든 질료를 다 사용하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진화된 인간은 그 이상의 계에까지 의식이 뺀어 있다.

인간 영혼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큰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로고스의 제1 면으로부터 나온 제3의 분출이다.

‘인간의 혼은 위(신성)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그룹 소울)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전도서3:21」

이 세 번째 생명파는 도표상에서 우측면 상단의 선으로 나타난다.

그것 자체는 붓디계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으며 거기서 제2 분출이 올라와 연결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 모나드가 진화하여 소위 인간 모나드가 되는 과정은 이렇다.

어떤 동물의 지성과 헌신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면 그것이 속한 그룹 소울의 일반 수준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지고 마침내 그 그룹 소울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때 이 제3 분출에 적합한 매체가 된다. 그러나 인간 모나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덩어리의 모나드 에센스일 뿐이다. 그것은 신성으로부터 나온 것 이기는 하지만 전지(全知)하지도 않고 개체화되어 있지도 않다.

그것이 처음 빨출되어 나온 때와 다시 귀환하게 될 때의 차이점은 성운과 태양계의 차이와 같다. 성운은 분명 아름답기는 하지

만 쓸모가 없다. 그러나 느린 진화 과정을 통해 성운으로부터 나온 태양은 세상에 생명과 빛과 열을 보내준다. 모나드 에센스는 신성한 힘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힘의 분출로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때는 무수한 아데프트들 각자 모두 로고스로 진화될 가능성을 안은 채-의 형태로 되는 것이다.

모나드 에센스의 위상에 생기는 변환점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이전 진화 단계에서 모나드 에센스는 활력을 불어 넣는 원리(본질)였다. 달리 말해 그것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모든 형상의 배후에 있는 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환점에서 그것은 활력을 불어 넣는 자가 아니라 활력을 받는 자가 된다. 즉, 동물의 그룹 소울의 일부분이었던 모나드 에센스로부터 코잘체가 형성되는 때가 그것이다.

코잘체는 살아 있는 타원형의 광체(光體)인데, 그 속에는 더욱 더 영광스러운 빛이 있어 위(제3 분출)로부터 온 생명이 내려온다. 그렇게하여 그 고급한 생명은 인간의 개체성으로서 자신을 표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신의 제3 분출의 매체가 되는 것이다.) 연결고리로서 작용하는 이 매체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불멸하는 개체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의 진화과정을 통해 유일자와 합일할 수도 없다. 결국 인간이 신성의 차원에 도달함으로써 로고스 자신이 보다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없게 되는 것이다.

요컨데 제3 로고스로부터 나온 제1 생명파는 질료의 진화, 제2 로고스로부터 나온 제2 생명파는 형상의 진화를 각각 맡으며 제1 로고스로부터 나온 제3 생명파로부터는 영이 분출된 것이다.

신지학 대의 13. 불교1

불 교

부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일개 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처는 오컬트 하이어라키의 대 임원이며 모든 구세주들 중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여러 전생을 통해 수많은 종교를 창시했던 분이다.

그는 인도의 종교에 큰 업적을 남긴 비야사(Vyasa)였고 이집트 비의(秘儀)를 창시한 헤르메스였으며 태양과 불의 숭배기원을 만든 조로아스터였고 또한 그리스의 위대한 음유시인, 오르페우

스이기도 했다. 마지막 화신(化身)에서 고타마 싯달타로 왔을 때 그는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의도가 애초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단지 이미 낡아서 본래의 형태를 많이 벗어난 힌두교의 개혁자로서 등장했다.

그 당시의 힌두교는 여러 면에서 경직되어 있었고 현재의 힌두교 보다도 훨씬 융통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오늘날의 힌두교도 그 형식과 의식(儀式)이 무척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엄격하였던 시대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

당시의 모든 사상은 원시(原始) 아리안 이주민 시대의 힌두교(그 때에 힌두교는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였다)에서 매우 많이 변질되어 있었다. 부처가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상 브라만을 제외한 어떤 자도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믿었던 것 같다. 브라만의 수는 언제나 소수이다. 심지어 지금도(20세기초) 인도의 3억 인구중에서 브라만은 천삼백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힌두교는 분명 대다수의 대중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종교가 아니었다. 당시 힌드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생을 통해 일을 해야 그 보답으로 브라만(소수 특권층)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삶과 죽음의 바퀴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쳤

다.

드디어 부처가 왔다. 그의 가르침은 신선하게 공평한 법의 문을 활짝 열었고 사람들을 구태의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단언하였다. 비록 브라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진정한 브라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존경받을 가치가 없으며 구원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또한 다른 카스트 계급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진정 브라만의 삶을 산다면 그를 브라만으로서 대우해야 하고 그에게는 모든 면에서 브라만과 동일한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고 말이다.

최종적인 구원의 희망을 매우 불투명한 미래의 저편에 놓아둔 종교 앞에 당시의 모든 대중들은 희망을 상실했고 결과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다. 또한 인생의 전부를 의식(儀式)과 명상으로 보내는 브라만의 엄격한 금욕생활은 그들의 성향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처는 대중들에게 이론바 중도의 길을 설하였다. 그는 금욕적인 삶과 종교에 절대 귀의하는 삶에 빠져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속세에 있으면서도 고귀한 삶이 가능하며 까다로운 형이상학과 이론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진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좌든 우든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은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사업에 매달리고 부와 권력의 꿈을 좇아 거기에 완전히 침잠해 버리는 속세 사람들의 삶은 진정 가치있는 것들을 도외시한 것으로 어리석고 불완전한 것이며, 배타적 이기적으로 자신을 고립 시켜 세상을 등지도록 가르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한 어리석 기는 마찬가지라고 가르쳤다.

중도(中道)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안전한 길이라고 주장한 그는 영적인 것에 절대 헌신하는 삶이 준비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최상의 길이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 또한 선하고 진실된 영적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처는 가르침의 바탕을 오로지 이성(理性)과 상식(常識)에 두었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람이 스스로 눈을 떠 자기 주위를 살피도록 가르쳤다.

그는 또한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속해 있는 대 체계는 영원한 정의의 체계이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은 선한 법칙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인간들 자신이 저급한 욕망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행복과 만족은 끊임없는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는 가르침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도식화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제들 아래 모든 것을 정리, 배열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매우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구성된 기억체계이다.

가르침의 개요는 매우 간단하여 4개의 숭고한 진리(四聖諦), 여덟 개의 올바른 길(八正道) 그리고 이것들이 암시하는 인생의 원리들(三法印)로 압축된다. 아이들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인생의 제문제를 탐구하는 최고의 현자가 평생을 공부해도 다 못 할 방대한 철학체계가 담겨있다.

12연기(nidana; 윤회에서의 12개 相)에 대한 연구나, 생각과 행위 사이에 있는 단계들을 열거해 놓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분석하였다. 사성제(四聖諦) 각각은 한 단어로 표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단어들(苦, 集, 滅, 道)은 자체 안에 방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팔정도(八正道)를 나타내는 단어들(正見, 正思,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이나 <침묵의 소리>에서 말하는 바라밀(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완전하게 이루어야 하는 덕목) 또한 마찬가지이다. 바라밀은 단순히 지혜, 힘, 사랑이다. 그러나 때로 다른 형태로 여섯이나 열개로 나타난다. 그 여섯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이며, 여기에 추가되는 네 가지는 방편, 원, 역, 지이다.

불교는 사실상 인도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뒤에 영속적인 결과가 남겨졌고 인도는 모든 곳에서 부처의 가르침의 강한 인상을 간직하고 있다. 부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피의 희생의식이 보편적었다. 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나마 피의 희생의식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은 부처가, 그런 의식은 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신들은 성스러운 삶이라는 희생을 더 바라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당시의 아카식 레코드(우주 기록)를 투시로 보면 그는 대부분 야외에서 설법을 했고 거의 항상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대중들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섞인 채 주변 땅바닥에 앉거나 나무에 기대서 있었고 무리의 바깥 둘레에서는 아이들이 뛰놀았다.

이 대스승은 낭낭하게 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설법을 듣는 자들의 주의를 한순간에 사로잡았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사랑을 받았다. 심지어 그의 말에 간혹 반대하는 자들도 그에게 매료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청중은 큰 감동을 받고 종교적 열정으로 고양되었다. 대중들은 끊임없이 갈채하며 ‘사두, 사두’를 외치고, 특별히 그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말이 나올 때면 동시에 존경의 표시로 합장한 손을 들어 올

렸다.

적어도 이런 놀라운 감화의 일부는 그의 오라(aura) 때문이었다. 그의 오라는 그 크기가 매우 크고 놀랍도록 강한 진동을 발산하고 있었다. 대중은 실제로 그의 오라권 내에 앉아 있었고 설법을 듣는 동안 그 오라와 교감하고 있었다.

그의 오라가 발하는 자기적(磁氣的) 효과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영향을 받은 대중들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 라 할지라도 그의 설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영향이 사라지면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되지만.

이 경탄할 감화력은 불교 경전에서 자주 묘사되는 현상으로 그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 중 그렇게 많은 수가 아라하트(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다. 우리가 불교 경전의 기록들 속에서 부처의 설법이 있은 후 수백명의 사람, 심지어 수천명의 사람들 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은 아주 예삿일이다.

아라한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러한 기록들을 읽노라면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이며 단순히 동양 풍의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후에 좀더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그 기록들이 실제로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가 너무도 놀라운 것이기

에 우리는 좀더 깊이 그 원인을 탐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한 생만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전생들의 활동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주(主) 고타마가 비록 그의 마지막 화신에서 제5 근원인종의 육체를 입었지만 사실상 그는 제4 근원인종의 붓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여러 아틀란티스 인종으로 수차례 태어났었고 그때마다 항상 위대한 스승으로서 왔다. 각 인생에서 그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그들의 의식은 점차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었다.

마침내 고타마가 인도에 태어났을 때 이 마지막 절정의 화신 기간동안 그는 수많은 시대, 수많은 땅에서 그가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이 동시대에 함께 태어날 수 있도록 예정해 놓았다.

따라서 그의 설법을 들었던 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완전히 준비된 자들(즉, 고도로 진화된 혼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처의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마그네티즘의 영향 아래 왔을 때 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었다. 부처의 오라가 그들의 혼에 미친 영향은 경이로울 정도로 고무적인 것이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즉시 반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수가 순식간에 고도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시크릿 독트린> 제3권에서 매우 흥미롭고 암시적인 ‘붓다의 신비’편을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는 부처가 스피럴리

(Spirillae)(*주4)의 완전한 발전을 이루어 고차원의 질료로 된 자신의 영체(靈體)들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그렇게 하여 만들어진 그의 봇디체, 코잘체, 멘탈체들은 모두 다른 마스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체들을 만들기란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육체와 함께 이 부처의 영체들을 이용하였고 (예수는 고급계에서 자신의 영체들을 입고서 그리스도의 일을 도왔다) 샹카라차라 또한 부처의 고급체들을 이용하였다. 샹카라차라가 부처의 환생이라는 잘못된 견해가 생겨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역주

주4) 스피릴리(spirillae)

원자 내에 흐르는 프라나의 통로이다. 원자 속에는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7개의 스피릴리(단수는 스피릴라)가 있다.

우리 체인(제4 체인기)의 제1 라 운드에 모나드의 생명이 영 트리아드(spiritual triad)를 따라 흘러 내려 첫 번째 일단의 스피릴리에 생명을 부여했고 이것을 통해 육 체와 관련된 프라나가 흐

른다.

제2 라운드에 마찬가지로 모나드의 생명이 두 번째 일단의 스피릴리에 생명을 부여했고 이것을 통해 그림 에텔체와 관련된 프라나가 흐른다.

제3 라운드에는 세 번째 스피릴리에 생명을 부여, 이를 통해 욕망과 고통을 지각할 수 있는 카마 프라나가 흐른다.

제4 라운드에는 네 번째 스피릴리에 생명을 부여, 이를 통해 사고을 위한 카마 마나스 프라나가 흐른다.

요기들은 보다 고급한 의식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네 번째, 다섯 번 째 스피릴리를 발전시킨다. 본문에서 부처는 일곱 개의 스피릴리 를 모두 다 계발했다고 되어 있다.

신지학 대의 14. 불교2

불교는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수의 신도들을 자랑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류의 삶에 살아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

이 유럽의 동양학자가 쓴 책을 읽고 불교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실론과 미얀마에 있을 때 나는 그 책들을 불교 승려들이 단 교의 주석서와 비교해 보았다. 동일한 지식으로 동일한 주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확실히 그들의 교의 해석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생명이 넘치고 있었다.

불교 사상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는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책은 에드вин 아놀드가 쓴 <아시아의 빛(Light of Asia)>이며 그 다음가는 책은 필딩 홀이 쓴 <어느 민족의 혼(The Soul of a People)>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아놀드가 원전을 약간 벗어나 의역을 하였고 기독교 사상을 거기에 투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아놀드가 어떤 다른 저자들보다도 훨씬 가깝게 불교도의 느낌과 자세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었다.

불교는 오늘날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로 나뉘어져 있다. 이 양자는 모두 다소 부처의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 불교는 매우 분명하고 직선적이고 평이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그것에 자

신을 동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종교의식을 꼭 포기해야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결과로 북방불교에서는 전파된 지역의 토착신앙과 의식들을 흡수하여 다른 많은 요소들이 부가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예를 들어 티벳불교에는 원시불교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하급신들과 데바, 데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남방불교는 부처의 원래 가르침에 뭘 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상실해 버렸다. 남방불교는 불교의 물질적, 공론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남방불교에서는 오로지 카르마만 생에서 생으로 전해지며 인간에게는 불변의 자아는 없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사실상 새로운 인간이며 그것은 전생의 카르마의 결과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이러한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의 여러 말들을 인용한다.

부처가 종종 인성(人性, personality)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그가 거듭 대중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음 생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말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개체성(individuality)을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인간의 개체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많은 말들을 했다.

예를 들어 디가니카야(Digha-Nikaya)의 사만나 팔라수타(Samanna-phalasutta)에 나온 한 경우를 보자. 영적 진화에 필 요한 마음의 상태와 훈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부처는 그의 심안(心眼)에 자신과 관련되었던 장면들이 차례로 지나간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을 떠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온다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갔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 있고, 앉고, 말하고, 침묵했다. 다시 그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갔고 거기서도 전처럼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동일한 나)는 거기에서 내 마을로 돌아왔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오, 수행자여,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는 그의 전생을 알 수 있다. 그는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다. 나는 어떤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떤 카스트였고,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어 떠 어떠한 길에서 기쁨과 고통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전 생(轉生)하여 어떤 다른 장소로 갔고 거기에서 나는 또한 어떠한 상태였다. 그렇게 전전하며 동일한 내가 이제 여기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자아의 윤회에 대한 부처의 교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한 같은 경전에서 수행자가 다른 사람의 전생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방법을 통해 수행자는 다른 사람이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났는지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브라마질라 수타(Brahmajala Sutta)에서 그는 혼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의 존재는 접촉, 즉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혼의 절대적 실재를 그렇게 부인하는 가르침은 다른 위대한 인도의 스승들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혼의 존재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고스 자체의 존재도 오로지 상대적으로만 사실이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주 이 개념들을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동양사상을 면밀히 공부하면 실수없이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처의 가르침은 오늘날 신지학에 의해 주어지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전들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왜곡됨으로써 피상적으로 서로 모순되어 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남방불교는 자아의 연속성에 대한 주장보다 인성(personality)의 영속성을 부인하는 쪽에 매달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마치 기독교

에서 일부 사람들이 특별한 경전을 강조하고 그것과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오해가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반(니르바나)을 소멸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심지어 옥스퍼드의 산스크리트 대학자인 막스 뮐러도 오랫동안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년까지 계속 더 깊이 연구한 끝에 그는 자신이 이점에서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가 말한 니르바나의 의미를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만 훈련된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유럽의 동양학자가 일견 오해했던 것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불교승려들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들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목표가 소멸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니르바나를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저급한 면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진정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인간이라면 그의 모든 면이 저급한 것이라고 봐도 사실상 무리가 없다. 저급한 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 인성(personality) 또한 비영구적인 것으로 언젠가 소멸될 것이다. 현수준의 우리에게 있어서 저급체나 인성이라는 용어 아래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남아있다. 언제나 존재하는 영광의 영(靈)안에는 지상의 윤회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 투쟁과 고통을 겪으며 발전시켜온 모든 성질들의 에센스가 충만하게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저급한 본성을 제거한 자는 이제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 신성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인 것이다. 비록 그것은 훨씬 더 넓은 자아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니르바나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들이 내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중에서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마 그중 가장 나은 것은 ‘전지자 안의 평화’일 것이다. 여러 해 전 내가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교리 문답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 대승원장 수만갈라가 직접 어린이들을 위해, 내게 니르바나에 대한 가장 나은 정의를 내려 주었는데 그것은 ‘일상의 상태를 아득히 초월한 평화와 지복의 상태’라는 것이었다. 확실히 그것은 소멸의 개념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니르바나의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개체자아가 소멸해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신성 안에서 개별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부처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니르바나는 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북방불교와 남방불교의 또 다른 차이점은 그들이 서로 다른 경전의 번역판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방불교는 마하야나(Mahayana, 대승)를, 남방불교는 히나야나(Hinayana, 소승)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해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는, 논란이 많은 용어에 우리가 흔히 붙이는 이른바 ‘의미의 그늘’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야나(Yana)는 ‘탈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 니르바나로 우리를 태워다 주는 배로서 담마(dhamma), 즉 법(法)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이론이 있다.

1. 그것은 단순히 법이 씌어지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볼 때 큰 수레는 산스크리트어이고 작은 수레는 팔리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나로서는 지지하기 어렵다. 사실 북방불교는 산스크리트 번역판을 이용하고 있고 남방불교의 경전은 팔리어(부처가 사용한 언어)로 되어 있다.

오늘날의 팔리 경전들은 본래의 것이 아니다. 모든 원본들은 (적어도 실론에서는) 타밀족의 침입자들에 의해 완전히 분서(焚書)되었고 지금의 팔리 경전들은 엘루(Elu)의 사본으로부터 재 번역

된 것이라고 한다.

2. 히나(Hina)에는 작다는 뜻 말고 낮은, 쉬운이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히나야나를 해석하면 자유에 이르는 낮은, 쉬운 길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그 길의 성취에는 최소한의 지식과 행위만이 요구되어진다. 반면 어원상 마하야나는 자연의 고급계에 대한 많은 전통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훨씬 더 풍부한 철학 사상이다.
3. 불교는 타종교들에 대한 무한한 관대함으로 인해 그것들 또한 자유에 이르는 길로서 받아들인다. 물론 부처가 가르친 방법이야 말로 가장 짧고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불교는 마하야나이고 히나야나는 브라만교, 조로아스터교, 자이나교, 기타 다른 종교들을 포함한 일체의 것이 된다.
4. 대승과 소승의 교의는 단순히 한 사상의 두 단계일 뿐이다. 즉, 히나야나는 스라바카스(듣는 자, 즉 초심자)에 해당하고 마하야나는 좀 더 발전된 구도자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야나(yana)라는 단어는 그 기본적인 의미인 ‘탈 것’으로가 아니라 부차적인 의미인 ‘운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마하야나는 보디사트바(보살)가 되어 만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대운송자이며 히나야나는 자신의 니르바나를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소운송자가 된다.

아디붓다(adi buddha, 본초불)와 아발로키테쉬와라(관세음보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특별히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불교의 권위자와의 토론을 통해 축적한 사상으로 볼 때 아디붓다는 위대한 초인 발전 단계의 절정으로, 이른바 모든 불사들의 추상적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아발로키테쉬와라는 북방불교에 속하는 용어로서 로고스에 해당하는 불교의 명칭으로 보인다. 유럽학자들은 그것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주님’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부정확한 정의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아발로키테쉬와라는 분명 항존하는 로고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로 태양계의 로고스를, 때로 그보다 더 높은 로고스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현현해 있는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종교의 창시자들이 보고, 알고, 이름붙인 것들을 그 후 종자들이 언제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지 이름들만 알고 있는 추종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지성적, 사랑적으로 분별하여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것들을 무

수히 쌓아 놓고 있다.

실론, 미얀마, 사이암,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남방불교는 일본, 중국, 티벳의 북방불교에 현저히 나타나는 이런 덧붙임들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미얀마에서는 사원에 부처의 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상들이 없다. 물론 부처상이 수많은 헌신자들에 의해 다른 재료로 된 것, 다른 자세를 취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실론에서는 타밀왕조 시대에 대중적 감정의 용인이나 외래정부에 대한 어떤 특별한 허용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왜냐하면 불교사원에 힌두 신들의 조각상들이 종종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것들은 항상 하단에 놓여졌으며 부처에게 시중드는 자들의 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티벳인들이 불교에 일정한 미신적 요소들을 혼합시킨 것에 대해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나라, 모든 종교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는 고지에 사는 수많은 농민들이 고대 종교를 따르고 있는데 요즘에도 로마제국 시대보다 앞선 에트루리아의 이름 아래 바커스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 카톨릭 사제들

도 이 고대종교의 존재를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남방불교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크리스트교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아침에 사원에 찾아갈 때 사람들은 승려들에게 자기들을 위해 세가지 지침과 다섯가지 계율을 외워주도록 부탁한 뒤 따라서 복창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공식적인 의식으로 불리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정한 회수만큼 영창하는 것이 아니며 그나마 그것도 어쩌다 사원에 들른 일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파리타 또는 피리트(축복을 의미함)라 불리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원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정해진 시간에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도들이 의식을 베풀만한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경사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 경우 신도들은 의식이 베풀어질 가건물을 짓고 그것을 정성껏 치장한다. 의식은 경전에서 발췌한 축시를 승려들이 두시간씩 교대로 영창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일(대개는 2주간)동안 행해진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그를 위해 이 피리트 의식이 베풀어진다. 사람들은 이 의식을 하면 그가 회복될 것이라도 믿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최면적인 의식이다. 승려들은 밧줄을 훈

채 원을 둘러앉고 손에 쥔 로프로 원을 빙 두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해진 대로 경전을 음창한다. 그러는 동안 계속 환자를 축복하는 의지를 강하게 마음속에 떠올린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의식이 집행돼 나가면서 그 뱃줄은 강하게 자기화(磁氣化)된다. 후에 이렇게 자기화된 뱃줄의 올들을 큰 물그릇에 넣고 의식이 끝난 뒤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준다. 이러한 의식과정에서 환자는 대개 뱃줄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잡고 있다.

남방불교의 승려들은 도(道)의 과정에서 발전을 이룬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다섯 가지 영능에 대해 말하고 있다.

(1) 허공과 고체를 통과하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계를 방문할 수 있는 능력.

- 이것은 바로 아스트랄체를 자유로이 다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천계는 멘탈계가 아니라 아스트랄계의 고급계를 의미하는 것이 거의 틀림 없다.

(2) 신적인 밝은 청각.

- 이것은 분명 단순한 아스트랄 투청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3) 타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동조할 수 있는 능력.

- 이것은 상념 읽기 또는 텔레파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5) 신적인 투명한 시각.

- 투시를 의미한다.

때로는 여기에 지혜에 의한 구원의 성취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는 물론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능력들과는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이런 범주에 속할 수 없다.

아난다는 부처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로 여겨지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두 경우에 보여지는 특별한 친밀성은 전생에 맺었던 관계의 결과이다.

아난다가 특별히 사랑받은 것은 분명 그가 가장 많은 진보를 이룬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부처가 열반에 든 이후, 첫 번째 대회의(제1차 결집)가 암석으로 밀폐된 동굴에서 열렸다.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그 바위를 통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난다는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떠나간 스승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슬픔이 너무도 컸던 그는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마침내 영능을 계발하여 바위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조금 늦기는 했지만 동료 제자들 사이에 끼일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높이 진화한 존재들도 여전히 그들만의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부당한 행위는 아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람에게 느끼고 있는 만큼의 애정을 미래의 어느 때엔가, 세계 전체에 대해서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가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천 배나 더 깊은 사랑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 없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의 범위 속에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우리가 우리의 스승을 향해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느끼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스승이 로고스가 될 때 우리는 그의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고 심지어 훨씬 후에 우리 자신이 로고스가 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역시 그의 일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그 스승 또한 더 위대한 시스템을 표현할 것이기에 말이다.

우리의 사랑이 비록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렬할 수는 없다 해도 사랑의 강도가 덜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움, 증오 따위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가 그의 환자가 자기 친구이든 아니든 똑같이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와 동시대에 많은 다른 영적 스승들이 세상에 나왔다. 예를 들어서 노자, 공자, 피타고拉斯 등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세계의 여러 곳에 스승들이 출현하여 영적인 힘을 엄청나게 쏟아 붓던 축복받은 시대였다.

신지학 대의 15.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

신지학 원리 안에는 본래의 진정한 크리스트교에 반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오류에 찬 일반 신학과 화합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원전에 매우 큰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현대 신학이지만 사실상 내가 보기엔 그것의 바탕은 한두 개의 텍스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신학자들은 어떤 하나의 것을 채택하고 거기에 특별한 해석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동일한 성경 내의 다른 텍스트의 명백한 의미와 직접적으로 상반되기도 한다. 물론 성경에는 모순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그만한 부피의 책이면 어떤 것이든 그 정도의 모순들은 있게 마련이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오랜 시대에 걸쳐 씌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자(記者)들 역시 각기 다른 지식이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진술들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이면 속으로 들어가서 당시의 스승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본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별력 있는 크리스트교인이라면 세계에 현존하는 다른 번역판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이성과 상식에 따라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그의 의무일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트교인들은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로마 카톨릭이든, 영국 국교회든 감리교든 택하고 있다. 크리스천교의 여러 교파들 또한 자기들의 유일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근거를 인용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

다면 어떻게 일반 평신도가 그들의 경쟁적 주장을 사이에서 진정한 정통 교파를 골라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믿으니까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조사해보고 자기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에게 한두 개의 원전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모든 원전들을 조사해 보도록 권유할 경우 그것을 마다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태도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공평하게 모든 원전들을 조사해 본다면 그는 거기서 분명 신지학의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신지학에 의해서만 그 교의들을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상이한 체계들을 보다 현명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트교의 역사를 조사하고 어떻게 크리스트 교의가 현재의 상태로 흘러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크리스트 교회에는 3개의 주요 갈래가 있었다. 먼저 지혜롭

고 교양 있는 그노시스 스승(Doctor, 또는 teacher)들이 있었다. 그들은 크리스트 교회가 당시에 존재했던 위대한 그리이스, 로마 철학 체계와 동일한 본질의 철학 체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체계가 비록 매우 포괄적이고 유려하기는 하지만 그 난해성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배우도록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철학 체계를 이름하여 그노시스, 즉 영지(靈知)라고 불렀다. 초기 교회의 정식 멤버들은 이 그노시스를 배웠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의 예비 입문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갈래는 고상한 중산층 사람들로, 그들은 전혀 철학적인 면에 애쓰지 않았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 지표로 삼는데 만족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아놓은 책들. 이 책들의 일부 단편들이 최근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 을 성스러운 경전으로 이용하였다.

그 다음 세 번째 갈래는 무식하고 거친 일반 대중들로 그들은 크리스트교의 교의(教意)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으며 오로지 앞으로 좋은 시대가 도래한다는 그리스도의 예언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크게 마음이 움직였고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연민을 보였다. 그는 그의 가르침 속에서 끊임 없이 그들을 위로하였다.

왜냐하면 힘겹게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좋은 기회를 오용하고 있는 부자보다 미래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진보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지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교의가 얼마나 쉽게 편파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각인되었는지를. 그들은 조건이 아닌 약속을 받으려 했고 미래에 대한 예언 사상이 손쉽게 그들로 하여금 강압자가 되고 부자들을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의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무리들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무지한 자들이 이른 바 크리스트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강화, 과장시켰다.

스스로를 ‘가난한 자’라고 부른 이 큰 세력은 빠른 속도로 교세가 확장되어 마침내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내몰 정도의 큰 힘을 갖게 되었다. 크리스트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되는, 자기들이 갖지 못한 이 그노시스 사상에 화가 치민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트교인들은 상식과 과학을 그들의 종교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종교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대신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수세대 동안 사람들

은 종교의 도그마를 마치 알약처럼 씹지 않고 꿀꺽 삼켜야 했으며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다.

세상에는 남달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결코 종교의 교의를 아무런 이해도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언가를 믿기에 앞서 반드시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고자 한다. 어떤 내용도, 그것을 다른 사실들과 이성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고 그것이 전체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여겨지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실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사악하고, 이들의 자세는 악마의 부추김을 받는 것이라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정반대로 이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인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인 이성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들로서 그것을 최상의 형태로, 즉 종교의 진리에 대한 탐구에 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비평가들이야말로 종교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모호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되어 왔던 종교상의 문제들을 정확히 밝혀 진술하고 있으며 무의미한 혼란 덩어리로부터 이성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일 당신들 중에 자기의 신앙을 분석, 해부하다가 혹시 그것을

저버리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 혼란에 빠진 크리스트 교인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신지학의 가르침을 권해주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지학이기 때문이다. 신지학은 그들의 오랜 신앙을 무조건 버리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신지학은, 자신의 종교를 올바로 이해했을 때만이 비로소 그 믿음은 진정한 의미를 갖고 진정한 반석이 되어줄 것을 그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세의 독단적 종교 도그마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래 가르침이 보편적 진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제시해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종교의 외형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맹목적 신앙의 껍질을 깨고 나와 이성과 직관의 날개로 보다 자유롭고 고귀한 고차원의 정신적 삶의 궤도에 올라섰다면, 신지학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 안에서 어떤 것도 상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취만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신지학을 통해 그들은 영적인 삶에 중요한 혁신의 정열을 전보다 더 불태울 수 있다. 그리고 아름답고 시적이며 영광스러운 종교적 마음 또한 훨씬 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즐겁기만 한 백일몽이 아니다. 그것은 상식의 차 가운 빛에 의해 언제라도 거칠게 깨워질 수 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히 이해한 만큼 더 완벽하고 밝게 빛나는 자연의 진리인 것이다. 기독교의 성경은 많은 문장들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신지학 대의 16. 죄 * 교황 * 의식

사람들은 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 경우 죄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적어도 기독교 설교자들이 말하는) 죄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신학적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정의하겠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신성한 법칙에 대한 반항’을 가리킨다. 즉, 행위자가 옳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 어떤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죄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인간은 고의성보다는 무지나 부주의로 인해 법칙을 깨뜨린다. 만일 한 인간이 진정으로 신의 의지를 알고 이해한다면 그는 분명 신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행위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는 신의 뜻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것의 절대적 무익성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신의 위대한 계획의 영광을 보고 나서 혼신을 다 해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암흑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잘못된 개념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죄’라는 것이 반드시 책망받고 처벌되어야 하는 사악한 행위라는 관념이다. 사실상 죄는 무지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은 오로지 계명과 교육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는 경우를 언제나 보게 되지 않느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은 사실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들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 행악으로 인해 나쁜 결과의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그는 주의하여 그 일을 피할 것이다.

불을 만지면 델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불 속에 손을 넣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한다. 후에 냉정하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말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죄는 신학적 상상의 허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한 법칙을 깨뜨리게 만드는 바로 그 ‘무지’라는 불행한 상태라고 말한다. 이 무지를 신지학의 빛으로 몰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다.

교황

충분한 준비와 용기만 있다면 교황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칙서를 통해, 신지학이나 종교적 자유주의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교황 스스로가 크리스트교에 대한 신지학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 그것이다. 카톨릭 교회는 이른바 ‘발전적 교의’를 갖고 있고 신성한 교의 해석에 대한 교황(지상에서의 신의 대리권자)의 무류성(無謬性)을 주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교황이 신지학적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담하게 공표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제시하는 사상은 분명 크리스트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바티칸 도서관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필사본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당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제까지 인간들은 그러한 계시에 준비되어 있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해석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조악하고, 거칠고 미발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종교의 외부적 겹데기만이 그들에게 유용하게 제공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루었고, 따라서 보다 풍부한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이차적, 내부적 의미가 사람들 앞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껌데기에 매달려야만 하는 단계에 아직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황이라면 실로 지혜롭고 강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모든 다른 유명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교황은, 엄청난 무리의 상념체에 둘러 싸여 있어서 그것들을 뚫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儀式)

종교적 의식을 통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종교 의식은, 그것이 무엇이건간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신성의 길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통찰하고 의식의 필요에 대한 믿음을 던져 버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 그를 니르바나로부터 뮤어 놓는 죽쇄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의식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그것이 누구에게나 필

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진화를 바라는 구도자라면 그런 것을 배제한 채 공부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종교 의식을 통한 길은 어떤 일정한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길이며, 실제로 그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떤 타입의 사람들은 언제나 의식을, 목적 대상인 신성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느낀다.

크리스트교에서 이 의식의 길은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의 영적인 힘이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성체(聖體)의 성별(聖別)은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힘이 사람들에게 분류(奔流)되도록 하는 의식이다. 종종 성별의 순간에 깊은 헌신의 감정이 솟아나며 이에 힘입어 마법적 힘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감정에 의존해 있는 것은 아니다. 헌신적인 사람들은 분명 그 힘을 더욱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에서 특별한 감수 능력을 불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지한 헌신은 미신으로 타락할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최근 이 문제들에 대해 시실리에서 조사해 본 결과, 나는 확실히 많은 미신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체로 그 지방은 그러한 의식이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나았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종교적 광신이 가져오는 많은 악폐들을 주로 보아 왔을 뿐, 그러한 영향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신지학 대의 17. 기도

기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도의 문제에 대해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고 그것들은 각기 다른 진화 단계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기구(祈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은 결코 추종자들이 자기한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로 그들의 제자들 또한 매우 큰 영적 계명을 이룬 자들이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성자들에게 보내지는 강한 상념이 그들에게 닿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그들이 어떤 진화의 길을 따라 갔느냐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그 성자들이 아직도 이 지상과의 접촉 범위 안에 남아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러한 접촉 범위 안에 있어서 기도가 그들에게 도달한다면 지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로 기도자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나 고급계에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 세상의 진화를 위한 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자기의 사소한 걱정거리에 마스터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자기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 그것은 마스터들보다 차원이 낮은 교사들이 훨씬 더 적절하게 돌보아 줄 수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여기 물질계에서만도 인간들은 현명하게 일을 해나간다. 예를 들어 대학교의 교수들이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을 돋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듯이 말이다.

어떤 종교의 성자이든 그들은 제각기 영격이 다르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진화 수준의 문제이다. 보통의 성자(단순히 선하고 성스러운 인간)는 사후에 오랜 기간 천계(저급 멘탈계)에서 산다. 그가 아스트랄계에 머무는 기간은 아주 짧다. 그러나 기도가 그에게 도달하여 그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기간 뿐이다.

만일 그 기간 동안 기도가 그에게 이룬다면 분명 그는 자기에게 기구하는 자의 청을 들어주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그의 주의를 끌 것인지는 결코 확실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환경이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마침내 천계(天界)의 긴 휴식에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지상적인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심지어 그러한 경우에도 그에게 보낸 기도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대개 인류에게 사랑의 상념을 끊임 없이 흘려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 상념은 실제로 강력한 축복의 비가 되며 그 비를 맞는 사람들은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그 성자를 열심히 생각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분명 그와 친밀한 동조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당연히 그 사랑의 상념을 보다 많이 끌어 당겨올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 성자로부터 온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해도 말이다.

만일 그 성자가 아주 진화된 존재여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환생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아스트랄계에 살든 물질계에 화신하였든 항상 지상과의 접촉 범위 안에 있게 된다. 그가 잠시 동안 육체 밖에 있을 때조차 그의 주의를 끌 만큼 기도가 강력하다면 그는 아마도 그의 힘으로 어떤 도움이든 베풀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이, 무지하지만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있다. 바가바드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우리에게 모든 진실한 기도가 (그것이 누구에게 가는지 전혀 모른다 해도) 어떻게 그(크리슈나)에게 열납되는지 말하고 있다. 크리슈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광대한 의식이 있어서 영성을 고양 코자 하는 어떤 진실한 노력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한다고 한다.

응답은 수많은 수단을 통해 작용한다. 때로는 데바를 통하여, 때로는 아스트랄계나 멘탈계에서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조력자 (인간)들을 통하여. 신은 데바나 안 보이는 조력자들의 주의를 기도자에게로 인도한다. 이렇게 신에 의해 이용되는 데바나 조력자가 기도자에게 모습을 나타내면 그들은 십중팔구 자신이 기도를 올린 그 성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를 증명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성(聖) 필립 네리로, 그때 나와 함께 있던 신참 조력자는 성 스타니슬라스 코스트카가 되었었다. 베산트 여사 역시 그가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천사로 여겨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악마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자기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고 피로써 서명까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아스트랄 엔터티(존재)가 적절한 기회를 틈타 연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이 들끓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인간을 상대로 그런 농담을 무척이나 즐기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인간의 혼을 사용할 수 없다. 설혹 그렇다 해도 그런 계약을 맺을 만큼 어리석은 자의 혼이라면 그것을 가진다 해도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터무니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인간은 불멸의 자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을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매매 거래를 할 바이어(buyer)도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바보같은 짓일 뿐이다. 세상에는 사람에게 수십 년 동안 물질적 풍요를 주고자 하는(또 줄 수 있는) 아스트랄적 엔터티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대개 그런 일을 해주는 대신 어떤 물질적인 보답(예를 들어서 아기, 염소, 닭 같은)을 바란다.

고급 자아는 (그것이 보기 드문 개별적 경우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물신(物神) 숭배이든지 간에) 이러한 계약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이 엔터티(entity)들은 인간의 자아를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수중에 들어왔다 해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그들에게 편리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달라붙기 위해 때로 그들이 타협을 요구해 오기도 한다. 그러한 계약의 체결은 엔터티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매우 강하게 지배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나 그가 일단 자신의 행동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면 즉시 그러한 빙의에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로 서약하는 따위의 유치한 의식들 또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악마의 하이어라키는 없다. 흑마술사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흑마술사들은 대개 저마다 떨어져 있다. 그는 흡사 고립된 존재처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당신은 서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이어라키를 상상 할 수 있겠는가? 대백색형제단의 모든 멤버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의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악의 개념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종종 파괴의 원리가 악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것을 재료삼아 새롭고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것일 뿐이다. 이곳 인도에는 파괴의 신, 쉬바가 있다. 그러나 누구도 쉬바를 악마로 생각하지 않는다. 쉬바는 신성의 최고 표현 중 하나이다. 생명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형상에 대한 파괴의 원리가 필요하다.

어떤 마스터의 임무는 대재앙이 발생될 시기를 조정, 배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도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악이라고 여겨져서는 안된다.

신에게 거역하여 천국에서 쫓겨난 상상(想像)상의 천사에 대한 개념은 존 밀턴(<실락원>의 저자)의 사상에 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악마의 개념은 옵기에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르다. 옵 이야기 속에서 악마는 밀턴의 사상에 나타나는 암울한 영웅과는 전혀 다른 자이다. 불교에도 또한 과거의 카르마가 인격화된 악마, 마라가 있다. 그러나 해탈의 성취에는 끊임 없는 카르마의 소진이 불가결하다.

모든 물질적인 것, 모든 차이, 한계 등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 당신의 악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다. 영과 물질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물질은 영(靈)의 반대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육체 때문에 물질을 매우 성가신 것으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계의 삶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 물질계에서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곳에서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의식과 힘을 길러준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악마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일까? 세상에는 선(善)도 많이 있다. 따라서 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흑마술사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것으로 그 결과는 때로 매우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신지학 대의 19. 힌두교

힌두교

무지한 선교사들은 인도에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힌두교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주에 한 분의 신만이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통찰하

고 있다. 그 유일신의 외부적 표현은 무수하다.

그러나 유일신으로부터의 수많은 나툼들을 신(God,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한 것들에는 차라리 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그것과 관련하여 매우 불유쾌한 느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적어도 태양계의 로고스보다 낮은 존재에 적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독교의 신이 갖는 모든 좋은 속성은 로고스에게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우주에는 로고스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우주를 훨씬 넘어서 있는 존재이다. 우리가 절대자의 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마음이 한정된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항상 대중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그대들은 저 먼 곳의 문제들로 고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에는 어떤 결론도 있을 수 없으며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유용한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의 신상(神像)들은 대개 고도로 자기화(磁氣化)되어 있어서 축제 때 그것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면 그 신상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많은 힌두 신전들 안에는 강하고 영구적인 힘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 전에 마두라시를 방문했을 때 시바 신전에서 나온 하얀 재와 파르바티 신전에서 나온 밝은 진홍색 가루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옮겨진 후에도 그 강한 자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인도는 본래 의식(儀式)과 전례(典禮)가 많은 나라이다. 그것들은 모두 종교적인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마누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많은 것이 마누 이후 시대에 덧붙여진 것이 틀림없다. 그것들 중 어떤 것은 법칙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인종의 시작에 필요한 것 이었을 뿐, 이제는 인종의 정립이 확고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이다.

그 의식이 치루어지는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대개의 경우 그것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 의식은 단순한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것을 따른다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러한 것들은 어린 혼들에게나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식들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들로부터 큰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들 중에 항상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발전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그런 구속들은 모두 떨쳐내 버린다.

인도에서 본래 모든 가장(家長)들은 가정의 사제였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해 감에 따라 그 의식과 전례들 또한 복잡해졌고 이로 인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승려 계층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할 정도로 상세하고 방대한 그 형식을 도무지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심정으로 의식을 치루는 것 같다. 그것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단지 그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유익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개중에는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전심으로 따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결국에 가서는 의식들을 모두 내던져 버리게 된다.

오늘날 승려들이 별다른 효과도 없는 케케묵은 의식들을 치루고 구태의 제문(祭文)을 이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 시대에는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승려들은 주문을 암송한다. “옴, 부르, 부바르, 스와르” 그러나 그렇게 되풀이 외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에 그 주문을 외우던 의식 집행자(승려)들은 거기에 어떤 의지를 투사해 넣어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러면 그가 영창해 나가는 동안 참석자들의 의식 또한 그의 주문 소리에 공명하여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고양되었다. 우리가 수천년 전 인도의 초기 생활들을 조사해 나가고 있을 때 이를 증명해주는 놀

라운 의식 집행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모두 칠흙 같이 캄캄한 내실(內室)에 들어가 섰다. 의식이 시작되자 집행자는 서서히 그리고 장엄하게 주문을 하나 하나 영창했다.

그러자 그의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 대부분에게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되었다. 옴(Om)의 영창은 그와 사람들 사이에 깊은 조화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부르(Bhur)가 발성되자 내실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채워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잠시 간격을 둔 뒤, 부바르(Bhorar)의 발성과 함께 대중들의 아스트랄 시각이 일시적으로 열렸다. 그리고 스와르(Swar)는 대중들의 멘탈 시각을 열어 주었고 동시에 그들 주위에 고급계의 축복과 힘이 흘렀다. 그러한 상태는 다양한 운문(韻文)들의 영창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지속되었다.

물론 이러한 효과들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고 의식이 끝나면 참석자들을 사로잡았던 고급한 의식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뇌리에 놀라운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그러한 효과를 통해 다른 유사한 경우에 그들의 내면에서 고급한 의식이 보다 빠르게, 충일하게 일어난다.

오늘날 그러한 의식이 행해지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오늘날의 승려들은 아그니(Agni)를 부르는 장엄한 만트라를 외우고 나서 미리 준비해둔 연료에 성냥으로 불을 붙인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 만트라가 영창되면 실제로 아그니가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

순례 행위의 바탕에는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어떤 성인(聖人)이 살았거나 비전(秘傳)과 같은 어떤 큰 의식이 치루어졌던 곳, 또는 성인의 유물과 관련되어 있는 곳 등에는 보통 큰 사당이 세워진다. 그러한 경우 그곳에는 강력한 마그네틱 센타의 영향이 흐르고 있어서 때로 그것이 수천년동안 지속되곤 한다.

어떤 민감한 사람이 그 장소에 다가가면 그 영향을 감지할 수 있다. 그것이 그에게 미치는 효과는 매우 유익하다. 초월적이고 강한 고진동이 흐르는 장소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진동 또한 고양시켜 주어 그것과 잠시동안 완전히 일치되도록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러한 성지(聖地)에 가서 강한 마그네틱으로 목욕을 한 순례자는 며칠동안 훨씬 고양된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효과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순례자의 감수성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순례지 중의 하나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가 있는 장소이다. 부처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비록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는 본래의 그 나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원래의 보리수나무는 중세에 쓰러졌고 지금의 나무는 거기에서 나온 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는 놀

라울 정도로 강한 마그네티즘이 남아 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수세기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신지학 대의 20. 심령주의

심령주의

심령주의자들 또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들은 모두 사후 생의 실재성과 인간(선인, 악인을 불문하고)의 영원한 진화와 궁극적 행복을 주장한다.

이 두가지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견해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나는 그들과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비록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점은 우리가 세계를 상기(上記)한 두 개의 큰 진리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킨 후에 그 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큰 공감의 여지가 있음을 항상 느끼고 있다.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증거없인 어떤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느끼는 대신 바로 심령주의자들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심령주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한 철학을 원하는 자들은 우리 쪽에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방언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분명 신지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신지학의 가르침에 기쁨을 느끼는 자들은 결코 방언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신지학과 심령주의는 비록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자,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에게 희열을 선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은 서로 언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주제에 대한 글에서 블라바츠키 여사는, 만물은 절대적인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때로 가짜가 진짜보다 더 행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녀의 의견에 찬성한다.

나는 몇 년 동안 심령술을 실험한 적이 있었다. 나는 심령학 서적들을 읽어보았지만 한 번 이상 손이 간 적은 없었다. 그 책들에 썩어진 것에는 특별한 현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많

은 가짜 유령들을 만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진짜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할 수 있다.

심령술사들의 메시지들은 별로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은 대개 크리스트교와 물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기준의 것보다는 훨씬 포용적인 가르침이다. 일부 심령주의자들은 윤회의 문제에 대한 말이 나오면 여느 종파의 신도들만큼이나 편협하고 비관용적이 된다.

많은 신비학도들은 사자(死者)들 모두가 윤회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는 습관적으로 지상에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며, 지상에서 살았을 때 알았던 사람들과 똑 같은 종류의 사람들 사이를 움직인다. 평범한 시골 구멍가게 주인이 죽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윤회사상을 말해 줄 사람과 만나게 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선입관으로 인해 새로운 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그들은 그 편견을 자기가 온 아스트랄계에 투사시킨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래왔듯이 그곳에서도 이성과 상식에 순응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실 진정으로 마음이 열린 자는 아스트랄계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전반적인 신지학적 가르침을 알게 된다. 따라서 아스트랄 통신들 중에 신지학의 단편(斷片)들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급 심령학이 있으며 그들은 결코 책으로 출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중 최고의 써클들은 엄격한 비밀주의를 지향하여 그 구성원을 완전히 한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들로 한정시킨 채 어떤 외부인도 가입시키지 않는다.

이는 마그네티즘의 변화를 우려한 조치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조건)는 매우 완벽하고 거기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 또한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다. 돈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공개 교령회에서는 참석한 대중들로부터 나오는 온통 뒤범벅된 마그네티즘의 부조화 때문에 아주 저급한 영혼들만이 나타나게 된다.

신지학 대의 21. 상징 * 불

상징

상징학은 매우 흥미로운 학문이다. 일정한 타입의 마음에 모든 것은 상징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상징들이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된다. 내 자신은 그런 타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들 중에는 해석 원리를 알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잔의 서(Book of Dzyan)>의 첫 부분에 나오는 상징들을 생각해 보자. 첫 페이지에는 하얀 원반(○)이 나온다. 이것은 아직 창조되기 이전, 미현현 상태의 우주를 상징한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하얀 원반의 중심에 점이 그려진 그림(○)이 나온다. 이것은 최초의 현현, 제1 로고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 중심점으로부터 좌우로 확장된 지름선이 그려진 원반(⊖)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영과 물질의 최초 분리 또는 이원적, 자웅동체적인 제2 로고스를 상징한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여기에 수직선이 교차돼 4분된 원반(⊕)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제3 로고스의 출현을 상징한다. 그러나 아직 비활동 상태에 있다.

다음 페이지에는 외부 원이 사라지고 그리이스 십자가만 남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는 제3 로고스가 활동할 준비가 되어 이제 막 우주의 물질계로 하강하려는 상태를 상징한다.

이 활동의 다음 단계는 다양한 심볼로 보여진다. 때로 그리이스 십자가의 네 가지(팔)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넓어져, 소위

말하는 말타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심볼의 형태로서 그리스 십자가의 네 가지의 끝에 불꽃(불타는 내면의 빛을 상징)이 그려진 것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십자가가 마치 회전하는 바퀴와 같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있다. 이때 불꽃들은 십자가가 회전하는 반대방향으로 그려진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상징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스와스티카()로서 이 심볼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보통의 라틴 십자가(+)의 상직적 의미는 기독교 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틴 십자는 고대 이집트의 비전의식(秘傳儀式)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2 로고스와 그의 물질계로의 하강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잔의 서>라는 책 자체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고도로 자기화(磁氣化)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심볼의 이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책을 보는 은혜를 입은 학인이 손으로 책장을 쥐면 놀라운 효과가 그에게 미치게 된다. 그의 심안에 해당 페이지가 상징하고자한 영상이 떠오르며 동시에 그의 귀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의 음창 소리가 들려온다. 이를 정확히 묘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내 자신이 직접 블라바츠키 여사가 필사(筆寫)한 <잔의 서>(—시크릿 독트린은 이 책의 연구를 통해 써어진 것이다)의 사본을 직접 보고 만져 보았었다. 그것은 마스터 쿠트후미의 관리하에 있는 오컬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본의 복사판이다. 원본은 샴발라에 있으며 오컬트 하이어라키의 수장(首長)이 보관하고 있다.

그 책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사실 그 책의 일부분(내 생각에 처음 여섯 개의 절節)은 심지어 우리 세계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전의 체인기들로부터 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우주 창조 과정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런 창조 행위를 위한 일종의 지침서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드잔의 서>의 사본조차도 수백만년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또 널리 알려진 심볼 중에 대조(大鳥)가 있다. 대조(大鳥)는 우주 위를 선회하며 공간의 수면 위를 나직이 덮고 진화의 길을 따라 화살처럼 나아가는 신성을 상징한다. 대조의 날개 사이에 앉는다는 것은 로고스와의 일체성을 깨닫기 위해 명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차원에 도달한 자는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동안 휴식하게 된다고 한다.

옴(Om)은 동일한 개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옴은 제5 근원인종(아리안 인종)의 성어(聖語)이다. 이에 비해 아틀란티스 인종의 성어는 타우(Tau)이다. 근원인종들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성어(聖語)들은 모두 진정으로 성스러운 이름인 한 위대한 말씀의 연속 되는 음절이다.

또 다른 심볼인 ‘하트(Heart)’는 고대 아틀란티스 종교에서 널리 쓰이던 것이었다. 골든게이트 시에 있는 대신전의 내부 지성소(至聖所)에는 제단 위에 하트 모양의 육중한 황금 궤가 놓여 있었으며 그것을 여는 방법은 대제사장만이 알고 있었다. 아틀란티스인들이 ‘세계의 심장’이라고 부른 그 황금 궤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가장 내밀한 신비였다. 그 안에는 가장 귀중한 성물(聖物)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모든 원자들이 심장처럼 고동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유사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흑점 주기와 관련지었다. 때로 우리는 그들의 책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과학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문구들을 만나게 된다. 비록 그것이 과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지구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의 표면에 매일 변위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지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심볼은 연꽃이다. 연꽃은 로고스와 관련하여 태양계를 상징하는데 사용된다. 자연의 실제적 사실을 가지고 비유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일곱 혹성 로고스(*주5)들은 위대한 개체 존재들이면서 동시에 태양 로고스의 상(相), 즉 태양 로고스의 몸에 내재한 힘 센타들이다. 이 위대한 살아있는 센타들(혹성 로고스들)은 일종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변화를 하는데, 이것은 인간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또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상응하는 고차원계의 운동이다.

이 주기적 변화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속도가 빠르며 그로 인해 매우 복잡한 일련의 효과들이 발생한다. 물질계 혹성들의 상호 운동은 일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이 대우주적 힘의 작용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각각의 힘 센타들은 태양 안에

주초점(主焦點)을 갖고 있고 태양 밖, 즉 물질 혹성에 부초점(附焦點)을 갖고 있다. 주초점과 부초점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3차 원적 용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주초점과 부초점이 동일한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한 부분만 따로 그린다면 하나의 타원이 되는데, 이때 주초점은 태양에, 부초점은 해당 혹성에 위치하게 된다. 태양계의 형성과정에서 초기의 빨갛게 단 성운이 차츰 응고하면서 이 부초점들—분배를 위한 보조 초점으로서, 말하자면 태양계의 신경절이라고 할 수 있다—이 있는 곳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며 혹성들의 위치가 결정되어 진 것이다. 태양계 안의 모든 혹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각기 이러한 타원형의 역장(力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system)의 비유로써 많은 타원형 꽃잎들을 가진 연꽃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계를 연꽃으로 비유한 데는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가 혹성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구(球)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혹성들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두뇌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 있다.

4차원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한 방향으로의 차원 확장 개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벌려 컵모양을 만든 후 종이 한 장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자. 종이의 평면에 살고 있는 2차원 존재들은 손가락 끝과 종이가 만나는 작은 원들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손 전체를 의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2차원의 존재에게 이 작은 원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차원 높은 시력을 사용하는 우리는 그 작은 원들 각각이 밑으로 연장되어 있고 손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4차원의 시력을 사용하는 인간은, 서로 분리돼 보이는 혹성들이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고급한 시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혹성들은 하나의 큰 연꽃을 구성하는 꽃잎들의 끝점이다. 그리고 그 꽃의 불타는 심장은 우리에게 태양으로 나타나는 중앙의 암술을 분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의 신봉자들이 고대의 학문과 그것의 표현 수단인 이상하고 별난 심볼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심볼들 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때로 그것은 현대의 세계가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지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적어도 신지학의 학인들 만큼은 자기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어떤 것을 무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

흔히 이런 말이 있다. ‘고급계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차원을 넘어서 있는 모든 것은 불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빛과 불은 물질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라고 이름 붙인 그것은 가연성 물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세상의 불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고급계 추상물의 반영이다. 즉, 고급계 질료의 저급한 표현인 것이다.

불타지 않는 불, 마치 물처럼 액체상태로 있는 불에 대해 마음속에 그리도록 노력해 보자. 위대한 조로아스터의 제자들이 알았던 불이 바로 그런 불이다. 그들은 제단 위에 아무런 연료 없이도 타오르는 그런 불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신성한 불임과 함께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로고스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불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고대 파르시 교도들은 그 길을 통해 로고스

에 도달하기 위해 그 불과 하나 될 때까지 의식을 고양시켰다. 그것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데바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성에 깊이 찌든 우리들 중에는 그 시련을 겪더낼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고대에 조로아스터 주위에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현재의 우리 상태로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우리의 저급한 매체들이 파괴돼 버리겠지만 새로운 인종의 모습으로서나 다른 혹성에서 우리는 다시 그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상징에 대한 낯설고 생소한 이 모든 말들이 참으로 이상하고 괴기스럽고, 불가사의한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오컬트 학도들은 앞으로의 발전과정에서 물질계의 말로는 표현 불가능한 많은 것들과 마주쳐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지학 대의 22. 상식 * 형제애

상식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모든 상황 아래서 오컬트 학도는 반드시 상식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는 많은 새로운 사상, 깜짝 놀랄 사실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새로운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균형을 잃는다면, 습득하는 지식이 많아질 수록 이득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특성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잘 균형잡힌 마음이다. 신비학은 사실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방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이성적, 상식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신비학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상식일 뿐이다.

형제애

본질적으로 인류의 형제성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단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 눈을 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형제성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연(自然)이 알아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테니까.

그들보다 더 미묘하게 위험한 자들은 바로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부지기수이다. 형제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또한 명심해야 한다. 형제성은 결코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예외적인 상황하일지라도 형제성은 최소한 연령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차이들, 힘, 지력, 능력 등의 차별성을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형제애는 관심의 공유가 아닌 이해(利害)의 공유를 의미한다. 만일 한 가정이 부유하다면 그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며, 가난하면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그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利害)의 공유가 있다. 그러나 형제들의 개별적인 관심들은 완전히 다르다.

14살짜리 소년이 6살난 동생과 무슨 관심을 공유할 수 있겠는가? 그 소년은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으며 동생보다는 친구들과 훨씬 더 공통된 점이 많다. 14세 소년의 마음은 학교 생활의 상벌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는 25살난 그의 형이 그런 것들에 무슨 마음 쓸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아무리 형제 사이라 해도 그들이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거나 좋아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할 일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가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처한 삶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모든 사람이 태어날때부터 카르마가 갖다 준 환경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직하고 무해한 방법으로 선업(善業)을 만들려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는 그곳에서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다. 아이가 어떤 특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해야할 일은 바로 그 나이에 해당하는 일들이지 결

코 형들의 일이 아니다. 각자의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사람은 배우고 섬기는 일, 연장자는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나 변함없이 같은 것은 사랑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인류라는 대가족의 이상(理想)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 각자는 형제들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간섭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의 의무를 열심히 해나감으로써 말이다.

우리 신지학회의 형제애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깊은 우애, 진정한 동체감, 결속 등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멤버들 각자가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신지학회의 마음은 마스터들이 작용할 수 있는 통로인 봇디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한 통로의 완성은 멤버들의 자세가 얼마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통로는 개체로서의 자기만을 중시하고 전체의 이익과 안위는 거의 생각지 않는 멤버들의 성향 때문에 아직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

담벽을 이루고 있는 돌들은 제각기 알맞은 위치에 쌓여져야 한다. 여기 하나 빼져 나오고 저기 하나 튀어나오고 하면 벽이 울퉁불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벽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거대한 계획의 극히 작은 일부분, 말하자면 기계의

한 부품에 불과하다. 우리가 할 일이란 스스로를 그 작은 부분에 꼭 알맞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비록 세계의 드라마에서 주역을 맡을 수는 없을 지라도 우리가 맡은 그 작은 일이 잘 이루어지고 지속됨으로써 보다 큰 전체 안에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700년 후에 우리의 두 마스터들이 제6 근원인종을 출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은 이미 그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 대작업에 필요한 특성을 발전시키는 고도의 훈련을 부과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아메리카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아리안 문명의 제6 아인종의 태동이다. 이미 이 일에 대한 준비 작업의 징표들이 보이고 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으며, 우리 역시 이 일에 해야 할 일역을 갖고 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성장 초기에 올바른 환경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한 인종의 유년기 때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리가 어린 인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역사의 이 중요한 시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시급히 인식해야 할 계획의 한 부분은 제5 아인종(튜튼인종)의 다양한 가지들의 결합이다. 우리들 중의 다수가 거기에 속해있다. 영국 식민지인, 아메리카인, 스칸디나비아인, 네덜란드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노르만으로서 고대 북유럽의 후손들, 남부의 국가에 살고 있는 고트족과 비시고트족의 후예들… 대계획의 작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일은 이 모든 인종들 상호간에 훨씬 더 가까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일은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 성취되고 있다.

바야흐로, 다른 종교들을 통합하고 보다 폭넓은 바탕 위에 순수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가 발전되어야 할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가르침이 나오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이라는 악마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 악마는 오늘날 우리의 머리 위를 유령처럼 떠돌며 세계의 최고 지성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회 실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규모의 새로운 계획과 체계적 방안의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일정 기간동안 전 지구적으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다른 방법의 시도가 다시 있어야만 할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가 자국(自國)의 이익을 위해 세계 평화를 외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튜튼 인종의 다양한 지류인 우리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국가들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무역은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나는 우리들이 서로 결속하여 평화를 주장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사실상 이것은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기에 그다지 승고한 동기는 아니다. 그러나 대 통치자들과 정치인들이 추상적 사상인 인류애의 발로로 서로의 통합을 바라게 될 때 바로 이 저급한 동기가 아직 덜 깨인 자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도록 만들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그들로부터 따뜻한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각국의 국민은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제각기 그들만의 특성(국민성)을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서로 협동하여 이 대 사역을 해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 특성들에 관대하고 친절한 관심을 가질 것이지 결코 비웃거나 신경을 자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큰 국제적 작업을 돋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일이다. 누군가 우리 앞에서 다른 나라를 헐뜯고 비웃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항상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 나라의 장점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에 논박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어떤 좋은 점을 덧붙여 줘야 할 것이다. 아마 우리의 수가 너무 적은지도 모른다.

그러나 1년만 해도 우리들 각자는 최소한 천명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도록 돋는 센터가 될 것이다. 그것이 비록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는 통합의 길을 보다 순조롭고 용이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편협한 선입관을 가지고 타 국가의 특수성을 비난하곤 한다.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우호적 감정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 이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계획을 돋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분명코 이루 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계획의 실행에 이용되는 사람들은 꼭 선한 사람들만이 아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대백색형제단은 필요한 활동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종류의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 심지어

매우 이기적이고 결점투성이인 사람들까지도.

로버트 사우디는 <탈라바>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부지중에 악인은 하늘의 정당한 뜻을 수행하고 있다.” “만물은 모두 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카르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보다 크고 넓은 체계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 말이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광신은 그것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힘을 계발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는 광신이 되지 않고는 강하게 믿을 수 없는 법이니까.

상업적 이기주의 또한 나쁜 것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배후의 존재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지와 집중의 힘을 계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 계발된 성질은 미래의 생에 아주 가치있게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선한 측면에서 그 계획을 돋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자에게 주어지고 그 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경우이든 그 일은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사람이 부족해서 일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우리로서는 가엾게도 친구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놓친 걸 딱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또는 선견지명이 부족해서 자기들의 진정한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의 어리석음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언제가 그들도 진리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미래의 다른 어느 생에서라도 말이다.

아무튼 내부적으로 모든 것은 완전하며 위대한 작업은 계속 추진 돼 나가고 있다. 세계의 진화는 결국 어떤 큰 사업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철도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철도 회사나 승객들 입장에서는 어느 인부가 어느 레일을 깔았고 어느 볼트를 조였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감독관은 일의 처리 사항을 유의하여 살필 것이다.

인부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한 자는 삶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받지 못 하기 때문이다. 감독

관은 인부가 횃김에 또는 술에 취해서 일하기를 거절하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생각한다. “마음 쓸 거 없어, 내일 돌 아오겠지.”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질이 폭발하여 일을 저버리고 떠났다. 문제는 그 일의 성취여부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할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마스터들의 일은 어떤 경우라도 성취되게 마련이다. 정의에 대항해 격렬하게 싸우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아직 일 속에 완전히 자신을 잊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서지 못 했다.

그들의 성질은 아직도 사납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 앞에 나타나면 충격을 받고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물론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그들은 이생에서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많은 인생들이 남아있다. 한편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게 될 것이다.

잊지 말라. 마스터들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비록 우리를 도와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난 곳을 마모시키고 흉한 성질들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평하는 말을 들으면 즉각 그것을 반전 시키도록 노력하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한 말을 함으로써 악한 말에 의해 깨어진 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라. 거짓 생각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측면 또는 해석을 말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비유컨데 기계가 마찰없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공동체로 통일된 전체가 되는 것이며 외부세계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계획은 위대하고, 기회는 영광스럽다. 그것을 붙잡지 않겠는가?

그러나 미래의 큰 일을 준비한다는 빌미로 일상 생활에서 주어지는 사소한 임무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편지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는 편지에 쓰기를, 자기가 신지학 지부를 가르쳐야 될 처지에 놓였고 그것은 큰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지식 수준이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답장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부에 대한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 분명,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매우 큰 은혜이기도 하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에 수많은 배고픈 영혼들이 있다. 마스터들은 친절하게도 당신에게 그들을 배불릴 통로가 되는 기회를 주었다. 당신은 가르침의 일반 원리를 머리 속에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상식은 당신이 크게 잘못돼 나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다. 나는 당신의 지극한 양심에 감탄하는 바이다.

만일 당신이 이 주요 원리들을 확고하게 학인들에게 심어준다면 당신의 가르침이 잘못돼 나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당신이 말한 바대로의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 책을 써야하고, 강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더 절실하게 그것을 느낀다.

실제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당신들은 어떤 책을 쓰기에 앞서 우선 아데프트의 경지에 도달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책들 속에 아무런 오류도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우리에게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

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기로 결심했다고. 그리고 나는 결과가 우리의 결정을 정당화 시킨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책을 쓴다면 완벽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의 책들은 지금 완벽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아다시피 그렇게 완벽한 책들을 읽기 위해서는 당신은 천년정도는 더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늘날의 신지학회의 책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건데 당신 앞에 놓인 문제는 이와 매우 흡사한 것이다. 당신 역시 당신이 전지(全知)의 단계에 오를 때까지 가르치기를 삼갈 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동안 당신의 지부는 어떻게 되겠는가?

신지학 대의 23. 세계를 돋는 일 * 비판

세계를 돋는 일

진리의 길을 걷는데 요구되는 첫 번째 자격 조건 중 하나는 집중 또는 일심이다. 심지어 세속적인 사람들도 일심 때문에 성공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자기 길에 대한 확고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인의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심의 자세를 견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곳 인도에서는 서구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좀 더 영적으로 발전된 사람들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도(道)는 항상 실재성을 갖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목표에 대해 자주 읽고,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만 완벽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급한 시대, 서두르는 시대이다. 사람들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것들을 조금씩 다 하지만 정작 철저히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고대 인도나 중세 유럽에서와 달리 하나의 큰 일에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컬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많은 면에서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일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크다. 이 말은 오컬트가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의무를 무시하게 만든

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일상의 모든 의무를 행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지켜보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컬트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첫 번째 처방이다. 그것은 우리의 귓가에 항상 들려오는 인생의 주음(主音)이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한 순간도 잊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고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에 협력코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많은 행위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효과적으로 일을 도울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자기를 그 일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훈련을 감내해야 한다. 주의 깊게 자신의 나쁜 성질들을 제거하고 좋은 특질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학회의 멤버들이 세계를 돋는 특별한 방법은 바로 신지학의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또 그렇게 할 마음도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생명수(生命水)를 주어도 사람들이 마시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문제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생명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진리를 전파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학

회의 우리가 해야할 일이요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전법(傳法)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끊임없이 그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대로 실천해야 만 한다. 다른 멤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앞에 다가온 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자신의 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빛을 나르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비 판

만일 오컬트상의 어떤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일에 신경쓰고 다른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두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이유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이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비껴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비와 관용을 배워야만 하고 항상 타인을 헐뜯으려는 미친 욕망을 잠재워야 한다. 그것은 미친 욕망이다. 현대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비판하는 마음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돌보지는 않고 타인의 일에 간섭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하면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치나 종교, 사회생활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역할은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는 선량한 국민이 되고, 정부의 일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의무는 망각한 채 정부를 가르치고자 애쓰고 있다.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기만 하면 카르마가 권리, 그들이 그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그 권리를 돌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려 들지 않는다.

오늘날 어떻게 비판하는 마음이 이렇게 대중적, 야만적이 되었는가? 다른 모든 악덕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애초의 좋은 속성, 필요한 속성이 과도하여 생겨난 것이다. 진화과정에서 우리는 제5 근원인종 중 제5 아인종(亞人種)에 도달해 있다. 그것은 가장 최근에 출현한 인종이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제5 아인종의 정신이다. 심지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그 정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각 인종은 자기들이 배워야 할 특별한 레슨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들 고유의 특성이 전개된다. 제5 인종의 특성은 종종

소위, 마나스(manas)-사물들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성의 유형-라고 불린다. 그것이 완전히 발전될 때 인간은 사물의 차이를 조용히 혼자서 성찰하게 된다. 오로지 그것(사물)들을 이해하고 최선의 것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이다.

그러나 발전의 중간단계에 있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의 차이를 찾고 있다.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대립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들을 난폭하게 짓밟기 위해서. 자기는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것은 단지 완고하고 자만심 가득한 무지한 자, 진화가 덜 된 자의 관점이다. 그런 자는 사물의 특정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올리버 크롬웰이 추밀원에 한 말을 기억하라.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간하노니, 당신들도 때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우리는 물론 비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아닌 우리 자신을 비판해야만 한다. 모든 문제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다.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 이상의 측면이 있다.

크리테인(kritein)은 판단(judge)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크리티시즘(criticism, 비판)은 만일 절대적으로 조용하고 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미친 공격이 아니라 조용하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어떤 특정 의견 또는 행동에 대한 찬반을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정도의 지성을 지닌 다른 사람이 그 문제의 다른 측면을 중시하여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만큼이나 선하고, 현명하고, 정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개신교의 광신도들 중에서 카톨릭교인을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급진파의 과격한 열성당원 중에서 (자신의 의무를 정직하게 이행하면서) 보수세력의 대지주를 자기들만큼이나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자가 몇이나 될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의 결정에 동의하는 척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가 나름대로 가치있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대 생활에서 가장 부정적인 특징 중 하나는 나쁜 것을 믿을 (그것도 열성적으로) 준비

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 애써 최악의 해석을 찾는 습관이 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도움과 지식과 영감을 주는 마스터들에 대해 향해질 때이다. 마스터의 말씀을 기억하라. “은혜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성급하게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보다는 기다리면서 문제점들에 대해 숙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태도이다.

시간을 두고 결과를 시험해 보라.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지니…” 모든 사람에 대해 최선의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그리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하도록 내버려 두라.

신지학 대의 24. 편견

편견

의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소한 의심 하나가 곧 커다란 오해로 ~~부푸는 경우를~~ 보아왔다. 의심을 하면 말하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았는 데도 그의 모든 말이 왜곡되고 어떤 불순하거나 부당한 동기의 표현이 돼버린다. 그것은 책이나 종교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소한 견해 차이가 상이한 부분만 강조됨으로써 더욱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견해가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는 인종 색깔의 편견에서도 발견된다. 우리가 지금은 백인의 몸을 갖고 있지만 갈색의 몸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의 습관은 다른 사람의 습관이었거나 습관이 될지도 모른다. 형제애는 편견을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윤회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제한과 비관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급한 삶에 대해 배우는 우리들은 이러한 편견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오랜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종적 편견, 카스트적 편견, 종교적 편견 등등. 그러나 이러한 편견들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버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들이 사물을 명징하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편견은 색깔이 있는 유리잔, 그것도 싸구려 불량품 유리잔과 같다. 그런 유리잔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비뚤어져 보일 뿐만 아니라 때로 본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까지 한다. 판단하고 분별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투명하게 보아야 한다.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에서 나쁜 저의를 찾고, 부정적인 해석을 가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이러한 습관은 진화의 길에서 매우 심각한 장애가 된다. 우리는 자신의 에고를 찢어 던져 버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편견은 멘탈체에 난 일종의 종양이다. 물론 그것을 몸의 특정부분에서 찾으려 애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상 멘탈체에 있는 울혈 지점이다. 그 부분에서 질료는 더 이상 살아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썩게 된다.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많은 지식을 얻어 멘탈체의 질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편견이 차츰 씻겨나가 녹아 버리게 될 것이다.

편견이 주는 악영향은 <침묵의 소리>에서 아리야상가 (Aryasangha)가 말한 바와 같다.

“마음은 진실을 죽이는 큰 살육자다.”

이 말을 통해 그는 우리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만을 본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낸 상념체에 의해 채색된다.

편견을 지닌 두 사람은 실제로 동일한 사실을 보고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와 꼭같은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사실들을 왜곡시키는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신지학도의 의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로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통제와 깨어있음과 엄청난 노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종교적인 면에 매우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회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여타의 종교는 모두 미신이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관념은 그 특정 종교에 바탕해 있다. 심지어 타 종교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함을 배울 때조차 자기가 그 타 종교에 선천적으로 맞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힌두교인 또한 자기가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도 비록 전생에 그 종교들 중 하나 들은 믿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람들이 무지하면 할수록 자기가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어서, 소작인들은 본능적으로 외국인을 불신한다. 영국의 많은 시골에서 예컨데 곤경에 처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치 않는 프랑스인은 분명 의심스런 눈총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가 배고파하면 따뜻한 음식을 대접받고 동정어린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과 같은 신분이라면 그들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난하고 비웃고 의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물론 무지로부터 나온다. 소작인들은 외국인과 만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지학회 내에는 제각기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인도인들은 유럽인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유럽인들 또한 인도인에 대해 그들도 자신들과 똑같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나는 보어 전쟁 기간 동안 암스테르담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록 그 당시 네덜란드에는 일반적으로 영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있었지만 네덜란드 신지학회 멤버들 중에 그러한 감정을 보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유럽 신지학 회의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우호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뿌듯한 일이다. 서로를 보며 꾸밈없이 반가워하는 모습, 서로의 일행들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

들… 만일 신지학회 멤버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형제 의식이 그들 각 나라에 퍼질 수 있다면 전쟁이라는 것은 우습게도 단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근거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신 안에 그에 대한 작지만 미운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당신과 그 사이에 얇은 벽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대단치 않은 문제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대한 작은 편견이 큰 장벽으로 자라나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어느 정도, 당신은 자기가 만든 상념체를 통해 그를 본다. 때문에 그를 정확히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비틀린 무늬가 그려진 유색 유리잔을 통해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편견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 마치 자기 자식의 행동—그것이 비록 타인에게 심각한 해가 될지라도—은 무조건 옳아 보이는 어머니의 경우처럼.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그것들은 모두 꼭같은 편견이며 진실을 죽이는 마음의 미망이다.

진실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먼저 단호하게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선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

견은 대개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슬프게도 있지도 않은 악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들과 색깔, 옷, 예절, 관습, 종교형식 등이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부적인 것일 뿐, 그 이면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곁 껍질 뒤에 있는 사람들의 감추어진 모습을 보길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종종 사람들은 껍데기만을 보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

그러나 결점은 표면에 있고 진정한 금은 종종 감추어져 있곤 한다. 발전을 열망하는 자는 반드시 타인의 가치에 눈을 떠야하며 표면적인 성질로 판단하는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악에 대항하여 선의 편에 서길 바라는 자들은 아무리 무지하고 완고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그에게 기회의 제공을 차단하지 않는다. 마스터들은 선이 어디에 나타나건 항상 그것을 취하여 이용한다. 비록 동일인 안에 선(善)만큼이나 많은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말이다. 그들은 이 선의 힘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돋는다.

예를 들어 마스터들은 심지어 살인마 안에서 헌신의 힘이 발견된

다면 그 힘을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어떤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를 도와주게 된다. 우리는 마스터들을 본받아 모든
것, 모든 사람 안에서 언제나 좋은 점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누구에게서도 단점을 찾아 그것을 강조하려 하지 말고 대신 장점
을 골라내 그것을 강조하도록 하라.

당신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라. 타인의 일에 왈가
왈부하지 말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당신의 카르
마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아니
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일을 훼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당신과 거의 같다. 이 점을 생각
하라. 당신이라면 고의적으로 그처럼 나쁜 짓을 골라 하겠는가?

신지학 대의 25. 호기심 * 너 자신을 알라

호기심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에 확고히 중심을 잡고 있어야만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하거나 그들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캐고 다닐 시간이 없다. 만일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쓴다면 세상 만사가 훨씬 더 잘 되어 나갈 것이다. 타인의 일에 일일이 신경쓰는 행위는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일종의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타인을 도와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일 뿐이다. 그 일은 자기와 별 상관도 없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질병의 징후이다. 또 다른 징후는 그가 발칙하게 얻어낸 정보를 혼자만 간직해 두지 못하고 자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퍼트리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히 사악한 짓이다.

가십(gossip)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한 가십 중 백에 아흔 아홉은 지어낸 것들이다. 그러기에 더욱 큰 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의 평판에 가해지는 손상일 뿐만 아니라 자체로 악의 일부분이다. 가십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자들은 영구적으로 어떤 나쁜 성질의 상념체

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치 쉘새없이 흐르는 물처럼 그것들을 그 희생자에게 쏟아 붓는 것이다.

만일 그의 본성안에 그들의 해로운 노력에 반응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의 내면에서 그들이 택한 나쁜 성질들이 깨어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에 하나 그들의 악의에 찬지껄임에 일부 사실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념체는 그 악을 더욱 강화시켜 주게 된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형제를 악으로 이끄는 무서운 카르마를 쌓고 있는 것이다.

신지학도들은 특별히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멤버들 중 많은 수가 영능을 계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영능을 타인의 일을 캐거나 나쁜 상념을 보내는 목적에 사용한다면 그 카르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 일은 결코 말하지 말라. 심지어 알고 있다해도 선한 결과가 생긴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말하지 말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물어 보라. ‘그것은 사실인가?, 선한 말인가? 유용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궁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침묵한 채로 그냥 있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이 규칙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면 세상의 대화중 약 90% 가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하게 될 것이다.

만물의 근원적인 일체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형제들의 슬픔을 외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형제애가 없다면 우리는 타인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항상 사랑과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우리의 의무이다. 신지학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무자비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칠고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신지학을 공부하더라도 성공하지 못 할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의 덕성을 갖지 못한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관점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도 반드시 최상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택하여 진화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타인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오로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옳게 행동하고 있는가만을 유의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기 전에 신중

히 그의 현재 길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그에게는 더 나은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 타인을 도와줄 준비를 해야한다. 그러나 결코 간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고대 그리스의 이 격언은 매우 훌륭한 조언이다. 구도자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진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기분석이 병적인 내관(內觀)으로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퇴보하지 않나 항상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보다 잘 이해한다면 전체 흐름이 꾸준히 앞으로 나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뒤로 미끄러질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급류가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 수많은 작은 물보라들이 바위 뒤에 생성된다. 그리고 그 순간 물이 소용돌이치며 일부는 역류한

다. 그러나 물보라, 소용돌이 등 물결 전체는 급류의 흐름 속에 휩쓸려 앞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흐름에 역행해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급류를 따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심지어 자신의 진화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그리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항할 수 없는 로고스의 힘이 끊임없이 그들을 상향(上向)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에 한 단계 올라서는 데만도 수백만 년 동안의 윤회와 고통과 무익함이 따른다.

진화의 메커니즘은 단순하면서도 정묘하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속성들은 각 계(界)의 저급 질료의 진동들이다. 예를 들어 아스트랄체에서 이기성, 화, 증오, 질투, 정욕, 기타 이런 류의 모든 성질들은 항상 네 저급 아스트랄 질료의 진동에 의해 표현되고, 사랑, 자비, 헌신과 같은 부류의 감정들은 세 고급 부분계 질료에 의해 표현된다. 이로부터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 아스트랄체의 각 부분계 질료는 상응하는 멘탈체의 부분계 질료와 특별한 관련을 갖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스트랄체의 네 저급 부분계 질료는 멘탈체의 네 저급 질료와 대응하고 세 고급 부분계는 코잘체와 상응하

는 것이다. 따라서 코잘체 내에는 오로지 고급한 성질들만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자신 안에 발전시킨 선한 특성은 코잘체의 변화로 영구히 기록된다. 그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한 악은 결코 진아(眞我)를 건드릴 수 없다. 단지 멘탈체에 혼란과 장애를 야기할 뿐이다. 그 악의 결과는 멘탈 영구원자와 아스트랄 영구원자에 저장된다. 따라서 그는 화신(化身)할 때마다 거듭 되풀이하여 그것과 맞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악이 자아 속에 들어와 그 일부분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둘째로 선을 향한 일정한 양의 힘이 악을 향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만들어 낸다. 만일 한 사람이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어떤 나쁜 성질에 사용할 경우, 그것은 저급하고 무거운 아스트랄 질료를 통해 표현된다. 저급 아스트랄 질료는 물질계의 질료에 비해 매우 섬세하다. 그러나 아스트랄계의 고급 질료에 비하면, 그것은 물질계의 가장 섬세한 에텔과 농밀한 납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만일 그가 정확히 동일한 양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발휘한다면 그것은 고급 부분계의 훨씬 더 섬세한 질료를 통해 움직이게 되고 적어도 100배의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만일 최저급의 것과 최고급의 것,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100배보다 훨씬 큰 효과가 생긴다. 여기에 더하여 로고스 자신이 그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끊임없이 전 체계를 상향으로 박해 가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싸이클의 전진이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효과로 선과 악의 양이 정확히 같은 사람이 환생할 경우, 그는 원 위치가 아니라 동일한

상대적 위치로 돌아와 약간이라도 전진하게 된다. 사실상 그는 자기 힘으로 노력한 것보다도 더 진보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길 원한다면 그는 악을 위해 확고히, 열심히 일해야만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뒤로 미끄러질까봐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악마가 신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고 믿었던 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는 미망의 하나이다. 실상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만일 누군가 그것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를 도울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작은 정원을 돌보는 어린이가 때때로 식물을 뽑아 뿌리가 얼마나 자라고 있나 보려고 하는 것과 꼭 같은 행위를 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한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목적만을 생각지 말고 타인을 위해 힘껏 일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진화는 스스로가 돌보고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만 한다. 과학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할 수록 그 대상에 쏟아 붓는 헌신은 작아질 것이다. 자기 분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그것은 마치 온 시간을 기계에 기름칠하고 서투르게 만지작거리며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활용

해야 한다. 그러면 그 동안 다른 능력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만일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책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다. 당신은 그 언어로 자꾸 말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거기에 빠져들고 실수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통해 당신은 마침내 유창한 언어를 구사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이른바 ‘포기’ 가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고급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는 일상적인 많은 즐거움들을 포기한다. 비록 그것들이 아직도 그를 강하게 끌고 있다해도. 그러나 머지 않아 그러한 끌림도 자연히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급한 향락에 빠질 시간조차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염려하지 않기를 배워라.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낙관적이 되어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타인을 도와 주려고 노력하라. 만족은 결코 열망과 공존하지 않는다. 낙관은 선(善)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에 의해 생겨난다. 만일 우리가 이 물질계만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질계에서의 사람들의 태도는 습관적으로 의식을 어떤 차원에 두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의식이 주로 지상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면 그는 거의 비참함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식을 보다 고급한 차원에 초점 맞추는 것이 가능하게 될 때 기쁨은

항상 그 뒤에서 빛날 것이다.

나는 부처가 인생은 고(苦)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현 상계에 관한 한 거의 완전한 진리이다. 그러나 그리이스인과 이집트인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이 저급한 인생으로부터도 많은 기쁨을 끌어내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어떤 것도 상실치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행복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자비와 사랑이 커갈수록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감정과 상념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고요히 기쁘게 남아 있을 수 있다. 마치 대양이 수많은 강물들을 받아들이면서도 항상 고요히 있는 것처럼. 구도자의 내적인 삶은 항상 고요해야 한다. 외부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깥에서 오는 온갖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찮은 이유로 낙심한다.

육체는 그러한 심적 침체의 빈번한 근원지이다. 약간의 소화불량, 순환장애 또는 과로 따위가 그것이다. 이보다 훨씬 더 상습적인 우울증은 아스트랄 엔터티(존재)로 인해 일어난다. 우울한 상태에 있는 아스트랄계의 엔터티가 당신 주위를 배회하면서 공감 요소를 찾거나 당신으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생명력을 끌어오려고 한

다. 우울함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도록 하라. 사실상 그것은 이웃에 대한 하나의 범죄와도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울함을 떨쳐버려야만 한다.

그 구름들을 떨쳐버리는데 성공하든 아니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마치 거기 없는 것처럼 계속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다. 따라서 그 마음 속으로 당신이 선택한 상념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당신의 아스트랄체 또한 당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 안으로 고급 자아에 유익한 것들을 제외한 어떤 다른 감정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우울함의 바이브레이션을 지배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그 것들한테 피난처를 제공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그것들이 당신을 침범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만일 어는 정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당신 주위에 따라 붙으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순간적으로 놀라운 영감과 의식의 고양감, 열렬한 헌신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이 바로 고급 자아가 저급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공한 순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느꼈던 그 모든 것은 항상 거기 있으며 언젠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을 이성과 믿음으로 인식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의 결점과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그 행복감을 영원히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 기도문 속에 많이 채용되었다.

“우리 비참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은 계속 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다. 그러나 비참한 죄인이 됨으로써 그 죄를 더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 비참함 속에 빠진 사람은 공공 위반 사범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이웃들에게 비참과 슬픔을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권리ς는 없다. 그러나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다 해도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슬픈 감정을 떨쳐버리고자 굳게 결심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타인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스스로 비참한 벌레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모든 말은 대개 위선이다. 교회에서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 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부르면 큰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 위선이든 아니든 확실히 넌센스이다. 상념의 영향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듯이, 자신을 진실로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이다.

반면 자신이 신성한 생명의 불꽃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희망에 차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은 본질적으로 항상 기쁜 것이기 때문이다. 회개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과거는 과거이며 어떤 후회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우리 마스터 중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이다.

“가치 있는 유일한 회개는 결심을 통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신지학 대의 26. 고행 신지학 대의

고 행

고행(asceticism)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우리 멤버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행의 진정한 의미와 유용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다.

고행이라는 말은 대개 엄격한 생활, 육체적 금욕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 말은 어원상, 그리이스의 ‘아스케테스(asketes)’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순히 자신을 운동가로 단련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그 말이 원용, 의미가 변화되면서 영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종류의 극기를 실행하는 것에 적용되게 되었다.

욕망과 욕구라는 육체적 본능은 아담의 실락 아래로 인간에 내재한 악의 강한 요새였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단식과 고행을 통해 억압되어야만 했다. 이것이 고행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다.

동양의 종교들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와 유사한 개념과 마주치게 된다. 그것은,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이상적인 선(善)의 성취 그리고 존재의 비참함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는 오로지 육체를 정복하고 학대해야만 한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신지학도라면 동서양의 이러한 이론 속에 무서운 사상의 혼란이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것이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것 말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악도 내재해 있지 않다. 그리고 물질이 꼭 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물질은 영이 신성한 것만큼이나 신성한 것이다. 그것 없이는 신성의 모든 현현이 불가능하다. 육체와 육체의 욕망들은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발전을 이

루기 전에 그것들은 반드시 내면의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오로지 그것을 통제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심한 고행을 하는 사람들,(...)육체를 이루고 있는 집합된 원소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무지하다. 나 또한 육체 속에 앉아 있나니. 인지하라, 그러한 행위들은 악한 것임을.”

<바가바드기타 x vii 5, 6>

“현혹된 미망 아래 행해지는 자기 학대적 고행은 어둠이라 할 수 있다.”

<바가바드기타 xviii 19>

진정한 선인(善人)은 반드시 항상 불편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로고스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망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생각보다 더 해괴망칙한 것은 없을 것이다. 육체를 학대하는 자들은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로고스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음을 볼 때 위에 인용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은 그러한 행위가 단순한 어리석음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유럽에서의 이 보편적 사상은 불행하게도 캘빈주의에 의해 남겨진 많은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차원을 아득히 앞서 간 마스터들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자비에 넘쳐 있다. 우리 또한 타인에 대해 자비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그들의 슬픔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아주 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의 눈에는 모든 세계가 어둡게 보이며 어떤 사람도 행복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큰 환희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세계가 밝게 보이며 어떤 사람도 불행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외부의 어떤 것도, 심지어 그 자신조차 변한 것은 없다. 변한 것은 오로지 그의 아스트랄체 뿐이다. 당신이 행복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세계는 언제나처럼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 당신을 당신의 아스트랄체와 동일시하지 말라. 개인적 감정이라는 미망의 거미줄에서 빠져 나오도록 애쓰라.

고통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웃기는 이론은, 부분적으로 분명, 욕망의 통제는 진화에 필수적이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미덕과는 전혀 무관하다. 반대로 그것은 아직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징표이다. 고통은 저급한 본성이 아직 극복되지 못 했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통제가 완전하다면 더 이상 저급한 것에 대한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어떤 고통이나 투쟁도 있을 수 없다. 완전한 통제를 이룬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며 저급한 것은 피하게 된다. 억지로 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통이란 오로지 중간 단계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것의 부재는 곧 성공의 징표인 것이다.

고통주의가 생긴 또 다른 이유는 원인과 결과의 혼란에 있다. 진정 앞서간 사람은 그 습성이 단순하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사소한 호사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무관심은 진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그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신경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그런 것들이 유치하게 보이며 더 이상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마음으로는 갈망하면서도 진보된 사람을 흉내내 어 그것들을 멀리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수준이 있다. 어린이는 인형과 돌을 가지고 장난하며 논다. 몇년 후 소년이 되었을 때, 그는 크리켓과 축구를 하며 논다. 다시 청년으로 성장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이상 흥미를 잃고 사랑과 인생의 게임을 즐기기 시작한다. 어린이가 인형과 돌들을 내버려두고 대신 크리켓을 하며 형들을 흉내낸

다고 해서 나이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 성장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치한 것들로부터 멀어져가게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가 그런 것을 멀리 하고 나이에 맞지 않는 놀이를 한다고 해서 성장이 강제될 수는 없다. 고통을 위한 고통은 거기에 아무런 미덕도 없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고통이 자연스럽게 진화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첫째는 타인을 돋기 위해 고통을 짚여졌을 때이다. 친구를 간호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예전에 빠졌던 어떤 습관(예를 들어 흡연, 음주, 육식 등)이 자신의 상승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했을 때이다. 만일 그가 진지하다면 그것을 즉각 끊을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특정한 형태의 오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비명을 지르며 찾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만일 결심이 확고하다면 그의 육체는 조만간 새로운 상태에 적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와 그의 육체 사이에 지배권을 둘러싼 전쟁이 계속되는 중간 단계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 이것은 그런 습관을 길들인 자신의 카르마로 여겨져야 한다. 고통을 통하여 카르마의 대

가가 지불되었을 때 승리는 그의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상태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할 때 나쁜 습관을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 마약 중독이 그 한 예이다. 공포스러운 마약에 희생된 자는 대개 그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중단으로 생기는 긴장으로 인해 육체가 견뎌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점진적인 양의 감소를 통해 고쳐 나가야 할 습관 중에 또 하나 동정을 살만한 경우로 육식의 습관이 있다. 의사들에 의하면 고기의 소화는 주로 위(胃)에서 이루어지고 야채의 소화 작용은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이 매우 약한 사람은 여러 소화 기관들을 일정한 시간동안 필요한 변화와 활동에 조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지의 계속적인 압박을 통해 육체는 곧 새로운 질서에 항복하여 적응하게 될 것이다.

고통이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세 번째 경우는 필요한 때 육체가 자신에게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육체로 하여금 싫어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할 때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심지어 그럴 때에도 그것의 가치는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육체의 순종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인생의 많은 사소한 질병들로부터 무관심하기를 배울 수 있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의 단련과 육체를 복종시키는 훈련에서는 반드시 유익한 것들만을 시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타 요기가 팔을 기진맥진할 때까지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버티는 동안 확실히 의지력이 계발된다. 그러나 엄청난 의지력을 얻는 대신 그는 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의지력은 다른 방법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 조바심, 자존심, 성욕 등을 정복하는 노력을 통해서도 영구적으로 유용한(영구적 장애가 아니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고행에 마음이 깊이 끌리는 사람들은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순수, 정진, 극기, 무해(無害)를 일컬어 육체의 고행이라 하고 조용하며 진실 되고 즐겁고 유익하게 말하는 것을 일컬어 말의 고행이라 하며, 정신적 행복, 균형, 침묵, 자기 통제, 순수한 본성을 일컬어 마음의 고행이라 한다.”

<바가바드 기타 xvii 14, 15, 16>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정신적 행복이 마음의 고행의 첫 요소, 완벽한 자기 통제의 첫 징표로 묘사되고 있음에 주의하라. 행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다.

질병, 우울, 좌절은 언제나 실패와 나약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슬픔과 잘못에 대해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전염원으로 만들고 있다. 기쁨이 아닌 우울함을 그의 형제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기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행을 원하는 자는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충고대로 정신적 고행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개인적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이건 타인을 위해 자신과 그것들을 잊도록 다짐하고 이웃들에게 행복을 방사하도록 하라. 이 행복은 신지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통해 나온다. 신지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브라만은 지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신지학 대의 27. 사소한 걱정들 * 욕망 죽이기

사소한 걱정들

현대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일반 사람은 물론이고 진보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악덕을 갖고 있다. 일반인의 아스트랄체를 보는 투시가의 마음은 슬프다.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의 삽화 XXIII(역주: 별도 첨부된 그림 참조)은 발전된 인간이 갖는 바람직한 아스트랄체상을 보여준다. 그것은 멘탈체의 색깔의 반영으로서 이성이 명령하는 것만을 느끼도록 마음이 통제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현 진화 단계에서 그것이 너무 지나친 기대라면, 삽화 X(그림 참조)는 비교적 안정되었을 때의 일반적 아스트랄체를 대표하는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해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성질들을 나타내는 많은 색깔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의 책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측면이다. 이 삽화는 일반적인 아스트랄체가 비교적 비활동적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생물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의 해악 중 하나로, 대부분 사람들의 아스트랄체가 거의 안정되어 있지 못함을 들 수 있다. 물론 아스트랄 질료가 언제나 진동 상태에 있음을 사실이다. 우리가 삽화에서 보는 각 색깔은

다른 진동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는 일정한 순서와 수준이 있어야 한다. 진화된 사람은 다섯의 진동율을 가진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적어도 아홉의 진동율을 갖고 있으며 거기 더 많은 그늘들이 섞여 있다.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나쁘다. 아홉 진동율의 동시적 바이브레이션이 이미 충분히 나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스트랄체 속에서 50 또는 100개의 진동율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아스트랄체는 몇 개의 분명한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은 정상적 비율로 진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아스트랄체는 그 표면이 깨어지고 수많은 작은 소용돌이와 역류가 생겨 이 모든 것이 서로 미친 듯한 혼란 속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들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감정들, 걱정들의 결과이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전체 인생이 사소한 감정들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좋든 나쁘든 정말로 큰 감정은 아스트랄체 전체를 휩쓴다. 그리고 그때는 전체가 하나의 진동율을 일으킨다. 그러나 작은 감정들은 상당한 시간동안 존속하는 작은 소용돌이들, 즉 국부적 혼란의 센터들을 만든다. 한 번에 50가지로 진동하는 아스트랄체는 풍경을 망쳐 놓는 얼룩이며 이웃에 폐를 끼치는 존재와 같다. 그

것은 매우 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심각한 마비 상태로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는 육체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비가 전염성을 갖고 있는 마비라고 가정해야 하겠다. 따라서 그러한 마비 증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불가피하게 그것을 재생케 만든다. 왜냐하면 이 무서운 파괴적 혼란은 그것에 접근하는 모든 민감한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스트랄체를 오염시키고 불안, 염려 등의 고통스러운 느낌을 전염시킨다.

그러한 해로운 영향의 작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조악한 아스트랄체의 소유자를 만날 때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많은 경우 확실한 이유도 없이 웬지 모르게 심한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즉각적으로 인식을 하든 못 하든 해로운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 자신을 이러한 마비 상태로 방치하는 사람은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아스트랄 혼란은 에텔체를 통하여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온갖 종류의 신경성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수많은 신경성 문제들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의 직접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만일 환자가 마음을 평화롭게 갖고 그의 모든 매체들을 고요하게

하면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강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아스트랄체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불안에 잘 저항해 나간다 해도 아스트랄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파괴적이다. 아스트랄체 전체에 퍼져 있는 이들 작은 염증 센타들은 육체의 종기에 해당하며 살짝만 건드려도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약한 지점을 통해 생명의 피가 고갈돼 나가 버리고 외부의 작인(作因)으로 패혈증(敗血症)이 유발되기도 한다.

아스트랄체가 이처럼 혼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한테 부딪쳐 오는 나쁜 영향에 저항할 수 없고 좋은 영향으로부터도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의 에너지는 이 열려진 종기를 통해 누수되며 그와 동시에 온갖 종류의 질병의 원인 요소들이 그 곳으로 침입해 들어오게 된다. 그는 전체적으로 그의 아스트랄체를 이용하지도 통제하지도 못 한다. 그의 아스트랄체는 깨지고 수많은 분리된 센타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가 아스트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스트랄체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소한 걱정, 근심은 그것들로 하여금 아스트랄체 위에 그들의 제국을 세우고 마침내 악마의 군단이 되어 그를 지배하고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이미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이다. 즉,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앞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사소한 개인적 문제들이 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이성적으로 자신을 위무해야 할 것이고 다음 생, 아니 20년 후에 돌이켜 보았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보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것은 전혀 중요치 않다는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의 모든 사소한 문젯거리들로부터 빠져나와 그것들에 마음 쓰기를 거부해야 한다. 처음에는 약간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성화된 악습을 극복하는데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이 계속해서 중얼거림을 보게 된다.

“존스 부인이 나에 대해 험담했어. 아마 지금도 나를 험담하고 있을 거야. 아마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믿겠지? 그러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나는 존스 부인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겠어. 그 불쌍한 부인이 그렇게 나쁜 카르마를 짓다니 안 됐지 뭐. 그녀가 뭐라 하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어. 그런 어리석은 뒷공론에 대해 생각하며 낭비할 시간이 어딨어?”

미래에 대한 나쁜 예감이 끝없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지도 모른다.

“아마 내년에 자리를 잃을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밥벌이를 하지? 어쩌면 파산할지도 몰라.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확고히 이렇게 되받아쳐야 한다.

“아마도 그럴지 모르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냐?
당장 닥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나는 미리 모든 일을 준비해 두겠어. 그리곤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어.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어?”

또 다른 일반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걱
정의 형태는 누군가 뭐라고 말하거나 행동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
해 화를 내는 어리석음이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하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 중
요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 해도 열
중에 아홉은 결코 의도적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그런 문제로 괴로워해야 하
는가? 설령 그 말이 고의적으로 무례하고 악의에 찬 경우라 할지
라도 그 때문에 기분 나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만
일 그의 말에 악의가 있었다면 그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하면 신성한 정의의 법칙 아래 그는 반드시 그 바보짓의 대가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설사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해도 진정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감정을 해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 때문에 평정을 잃어야 하는가? 만일 그 말에 대해 듣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기분 상하게 한 것은 분명 그의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우리가 들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이 한 말에 대해 신경 쓴다면 아스트랄체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한테 있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아스트랄체에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아스트랄체를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아갈 정도의 고요함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지만 백에 한 명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 사실 오컬트 학도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결코 어떤 상황 하에서도 기분 상해 하는 개인적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개인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를 잊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어떤 것에도 괘념치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닌) 타인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을 하고 있다면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음과 같은 병적 상태들은 비교적 덜 개인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비난받을 여지도 적은 것들이다. 그러나 진화에 이롭지 못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사업이나 가정의 하찮은 문제들로 안절부절하는 버릇이다. 그것은 항상 분별심, 통찰력의 부족 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가사(家事)와 사업이 질서 정연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모든 일이 시간에 맞춰 정확히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는 길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지 끊임없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모든 사람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불행한 사람은 단호히 그것에 맞서 싸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는 언제나 마찰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원천으로서 세상에서 거의 쓸모없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증상은 개인적인 일로 걱정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

다. 그의 경우 아스트랄체에 종기 와동(渦動, 소용돌이)은 비교적 적지만 만성적인 떨림이 있다. 즉, 전체 아스트랄체가 동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불안을 전달하여 그들의 기쁨을 파괴한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기를 배워야 한다.

감정의 혼란은 이성적 존재에게 합당치 않으며 신성의 불꽃인 그가 욕망 엘리멘탈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이미 이 비참한 아스트랄 혼란 상태가 육체적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의 노정에서 그것은 단순히 해롭다는 정도를 넘어서 지극히 치명적이다.

구도의 길에서 첫째로 배워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완벽한 자기 통제와 근심하지 않기이다.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아스트랄체의 질료가 표면에 있는 와동 속으로 재빨리 쓸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실히 지워버리고 우리의 진아가 바라는 안정된 감정의 리듬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신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언제나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방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스트랄체에 쓸데없는 와동이 생길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을 로고스에 대한 봉사와 세계의 진화를 돋는데 헌신한다면 사사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며 보낼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진화코자 하고 사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급한 것을 버리고 고급한 것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속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로고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를 통해 화합을 전달해야만 한다.

욕망 죽이기

우리는 종종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급하고 거친 욕망(산스크리트어로 카마 kama라 한다)은 어느 정도의 발전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그러나 영어가 의미하는 바의 욕망이라고 할 때 우리들 모두는 아직도 어떤 욕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 동안 그것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스터들에게 봉사코자 하고 그들의 제자가 되고자 하며 인류를 돋고자 하는 강한 바램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 또한 욕망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필요한 것은 저급한 욕망을 죽이고 고급한 것을 향해 상승하는 것이다. 우리는 욕망을 순화시켜 열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후에 그것은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진화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바램마저 버려야 함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진화는 항상 우리에게 가능한 만큼의 속도로 진행돼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 자신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욕망은 결심으로 변형된다.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한 회한이 없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 대가로 최선의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망하고 바라는데 낭비하지 말라. 대신 그렇게 되도록 의지하라.

우리는 월형체(lunar form, 月型体), 즉 아스트랄체를 죽여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이 말은 아스트랄체를 파괴시키라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타인에 대한 자비도 이해심도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월형체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순수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비이기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야망은 욕망의 보편적 형태

이다. 그러나 그것 안에는 항상 자기에 대한 생각이 들어 있다.

아데프트는 결코 야심적이지 않다. 그의 의지는 로고스의 의지와 일치하며 진화를 위해 의지의 힘을 행사한다. 우리는 모두 로고스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로고스의 의지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자신만의 분리된 노선으로 욕망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뿐이다. 부처는 우리 인생의 계율을 짧은 4행의 시구로 훌륭히 요약하였다.

모든 악행을 그치고
만족하기를 배우며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라
이것이 부처들의 종교이니라.

역주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삽화 XXiii
진보된 인간의 아스트랄체이다.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삽화 x

일반인의 아스트랄체이다.

신지학 대의 28. 내 원의 중심

내 원의 중심

구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근원적이며, 따라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중심성이다. 내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때 이는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골적이며 추한 이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런 이기성은 오래 전에 극복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성을 뒤에 놓고 온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여전히 그 와 유사한 악덕 주위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너무 미묘하고 뿌리깊은 것이라 그들은 그것이 악덕인 줄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고 정직하게 자기를 분석해 본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상념이 자기 중심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많은 공상 드라마를 지어낸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항상 주인공이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작은 무대에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따라 다니고 있다.

만일 그가 중심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는 당장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며 그 순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 질투를 느낀다. 그러한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고 자기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잠시도 그런 급진적 변화의 가능성과 마주할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자기 중심적 태도는 진화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그것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한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다.

사랑은 보통사람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사랑은 강한 손으로 그를 사로잡아 당분간 그의 마음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적어도 한동안, 이른바 사랑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 연인이 그의 원에서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닌 그녀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는 그녀를 여신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녀는 우아함과 미(美)의 화신이다. 그는 그녀 안에서 신성을 본다. 그러나 평상시에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들 모두 안에는 신성이 잠재해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열정은 사라지고 그는 또 다른 대상을 향해 그것을 옮겨 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있으며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오컬트 학도는 그것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삶이라는 원의 중심에서 자신을 내치고 그 자리에 대신 마스터를 앉혀야 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맞출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익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마스터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마스터는 오로

지 인류의 진화를 돋기 위해서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진화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적, 본능적으로 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어느 마스터의 말씀을 인용해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잊고 오로지 타인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한다. 심지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거나 미묘한 형태로 옛날의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만 한다.

그동안, 선하고 열성적인 신지학회의 사역자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 왔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신지학회의 일과 동일시하여 자기의 사상이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마치 무슨 적 대하듯이 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고 자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은 배반자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중심성이 교묘히 슬그머니 다시 옛날의 그 자리로 기어 돌아온 것이다. 따라서 다시 그것을 물리치는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

다.

제자가 바라야 하는 유일한 힘은 그가 사람들의 눈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원의 중심 자리에 그가 있을 때도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마스터가 원의 중심 자리에 있게 되면, 그는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할 것이다. 일은 일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의 일은 마치 다른 누군가의 일처럼 생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기를 배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일의 성취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제자는 자신의 일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부당하게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위선적으로 자기 일의 가치를 하락시켜서도 안 된다.

예술에 대한 러스킨의 다음과 같은 말을 제자는 조용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든 당신의 일이든 또는 그 밖의 누구의 것인 든 아무려나 좋은 것이다.”

신지학회의 사역자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가 세상의 여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너무 빨리 자랑스러워하는 위험이다. 신지학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는 어떤 나쁜 점도 없다. 그러나 나는 우리 멤버들 중 일부가 자신이 신지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신지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따라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을 수도 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것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름에도 말이다.

아데프트는 모든 가능한 길을 따라 자신을 완전히 발전시킨 완벽한 인간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많은 것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아직 신지학의 지식을 습득하지 못했거나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원의 중심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원의 중심으로 다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당신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의 상징으로서 내가 앞서 혹성들의 궤도와 영향에 대한 오컬트적 관점에 대해 설명한 것을 상기하라. 각 혹성은 한 태원에서의 부초점이며 주초점은 태양 안에 있다.

당신은 그 부초점과 같아서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며 궤도를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은 주초점의 한 반영에 불과하고 당신 의식은 태양 안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을 감싸고 있는 마스터는 위대한 하이어라키의 일원으로서 로고스의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라는 원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원에 있어서도 자기가 중심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를 겸양해 대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거라고 멋대로 추측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강박관념이 되고 있다. 그들은 타인들도 자신한테 완전히 몰입해 있고 타인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렇듯, 사람들은 스스로 전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자꾸 만들 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물을 제 정신을 가지고 이 성적으로 통찰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사람들이 걸핏하면 좌절하는 것도 그 자신이 원의 중심에 자리잡 고 있기 때문이다. 좌절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 찾아오는 것이다. 만일 마스터가 우리 원의 중심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마스터에게 헌신하고 있 다면 우리에겐 절망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러한 경 향에 빠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일할 수 있기를 너무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는 베산트 여사가 그녀의 자서전 속에서 언급 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해야 할 일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된다.

“그래, 그건 좋은 일이지. 누군가 해야만 될 일이야. 그런데 왜 하필 내가 해야지?”

대신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해선 안 될 이유가 없 지 않은가?”

진화해 감에 따라 우리의 원은 차츰 넓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이 무한으로 확장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의미로 다시 그 원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원의 잠재된 중심인 로고스와 합일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지학 대의 29. 동물에 대한 의무

동물에 대한 의무

신지학도로서 당신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보다 저급한 생명체들에 대한 의무 또한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신은 인간보다 한 단계 낮은 형제들인 동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마치 높은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이해로서 대하려고 노력하듯이 말이다.

당신이 어린이를 돋기 원한다면 사물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동물의 진화를 돋고자 한다면 동물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 대해 우리의 일은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며 황금시대, 모든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을 돋고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가축을 훈련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 일이 고통을 동반하거나 지나친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길들여져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의 진화가 신의 뜻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을 가르치고자 노력할 때에도 좋은 성질의 것을 주입시켜야지 나쁜 것을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많은 동물들을 곁에 가까이 두고 기르고 있다. 개, 고양이, 말, 기타 본래 야생 동물이었던 것까지 우리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동물들의 사나운 성질을 길들여 보다 높고 지혜로운 생명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들 속에 헌신과 사랑과 지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돋는 것이 그들의 진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척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동물들 안에 있는 야수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화상의 주목적은 바로 그 야수성의 제거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개에게 사냥 훈련을 시키면 그 개 안에 있는 야수성을 강화시켜 주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그는 그 동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타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훈련을 통해 개의 지성을 발전시키는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더 큰 해악을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개를 자기 재산 보호에 쓸 목적으로 포악하게 길들이는 사람 또한 꼭 마찬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을 거칠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도 어쩌면 그 동물의 지성을 발전시켜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동물은 잔혹 행위를 피하기 위해 더 영악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진화되었건, 거기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공포, 증오 따위의 성질 계발이 수반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 그 동물이 진화하여 인간의 차원으로 올라 올 때 그는 끔찍한 장애를 갖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된다.

그는 희망차고 헌신적이며,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인간성—사람들이 그 동물에게 본연의 의무로 대했다면 갖게 되었을지도 모를— 대신 그 안에 각인된 공포, 증오 따위의 끔찍한 성질을 갖게 된 다.

우리는 또한 동물보다 더 저급한 형태의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갖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어디에나 엘리멘탈 에센스가 둘러싸고 있다. 엘리멘탈 에센스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는 열정, 감정, 느낌 등 우리의 상념과 행위에 의해 진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특별히 고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고급한 이상을 실행해 나가고, 우리의 모든 상념과 감정이 가능한 최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바로 엘리멘탈 에센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셈이다.

엘리멘탈 에센스는 인간의 상념에 영향받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한 상념을 발하면 우리의 고급 성질들이 그들에게 도달하여 작동되고 활력이 불어넣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아 고양되어 질 것이다.

모든 진화 과정을 통해 저급한 존재의 발전에 고급한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이 동물계의 생명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개체성을 불어넣게 된다.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동물 종(種)의 형성이 상당 부분 인간의 손에 넘겨져 있었다. 많은 동물 종(種)들이 애초에 의도된 것과는 다소 다르게 형성된 것은 인간들이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다.

서로를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육식동물이 존재하게 된 것도 많은 부분, 인간들의 실수에 그 책임이 있다. 물론 인간이 모든 육식동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레무리아 시대에 거대한 파충류들이 있었다. 인간은 그들의 진화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 파충류들로부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포유류를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이 때 사람들에게는 그 종(種)을 개선시킬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세계가 잘못되어 나간만큼의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다. 만일 그 당시, 인간들이 의무를 온전히 수행했더라면 육식 포유류의 존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동물들을 잔인하게 대해 왔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동물계 전체의 일반적인 감정은 공포와 적의이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끔찍한 카르마를 지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사람들에게 여러 질병이나 정신이상이라는 형태의 무서운 고통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파충류는 사람이 먼저 화나게 하거나 놀라게 하지 않는 한 해치는 일이 거의 없다. 모든 야생 동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외적으로 인간을 먹이로 생각하는 극소수의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다른 먹이를 구할 수 있으면 결코 인간을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방어나 타인의 방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생명체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지학도들이, 고기나 생선을 먹기 위해 또는 바다표범 기죽이나 새의 깃털로 옷을 해 입기 위해 살생하는 죄에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실크는 누에의 대량 도살을 통해 얻어진다. 그러나 나는 요즘 누에를 죽이지 않고도 얻어내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신지학 대의 30. 자연 * 아이들 * 죽음에 대한 공포

자연과의 교감

당신은 결코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지 말라. 최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어긋나가고 있고 물질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오늘날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무식했던 선조들보다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훨씬 부족하다. 유용성, 실용성을 추구하는 외부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 인해 우리는 내부적인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인간은 이 오해의 중간 단계를 거쳐 다시 자연과의 교감 속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던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실험을 거의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우리는 불손하게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여, 자연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파고들고 있다. 우리는 이 과도기에 얻은

정밀한 성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면서도 자연과의 교감 정신 또한 회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교감을 통해서, 과학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학자적인 태도조차 버려야 할 때도 있다. 보통, 아이들은 성인들을 딴 나라에서 온 이상하고 제멋대로 하는 존재로 여긴다. 이 모든 것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탐구와 관련지를 때도 꼭 마찬가지이다.

자연령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들을 지나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인간의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꽃이나 기타 다른 식물들은 맹목적으로 환희와 우정을 느낀다.

에머슨은 그가 집에 돌아오면 정원에 있던 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다시 그를 만나고 느낄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다. 나무와 동물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때면 ‘행운의 손’에 대해 얘기한다. 이것은 나무들이 어떤 사람한테서는 잘 자라지만 다른 사람한테서는 자라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로고스의 목적과 교감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 모든 것의 성장을 돋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로고스의 의지가 자연에 삼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은 단번에 그것을 느낀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화에 역행하면 자연은 마치 민감한 어린이처럼 움츠려 우리를 피하게 된다.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세는 어떠한가? 기억하라. 아이들은 신성한 생명의 불꽃인 자아(自我)들이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이 신성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 사랑의 분류(奔流),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언어를 초월한 인내와 자비심! 이렇게 그들을 위할 때 느끼는 신뢰의 영예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항상 기억하라, 당신은 그들보다 어른이고 그들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님을. 혼으로서는 모두가 똑같은 나이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에게 이기적이고 잔인한 독재자여서는 안 되며 항상 도움을 주는 친구여야 한다. 어린이를 만날 때 당신은 새 옷을 입은 한 영혼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완벽한 친절을 베풀어야 하며 그들 안에 있는 최상의 것을 끌어내도록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새 옷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진정한 선(善)은 모든 것에 대한 선을 의미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따라서 선은 타인에 대한 노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여 얻어진 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다.

죽음에 대한 공포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죽음의 공포는 엄연한 실재로 존재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특히나 그들은 사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욱 고통받고 있다. 자연히 이것

은 지옥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과 사후의 상태라는 것이 단지 현생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위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보다 더 위대한 진정한 삶의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진화란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임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진화의 힘에 역행하여 넘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국 진화의 힘은 그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 힘에 저항한다면 그에게는 상처와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서 공포가 일시에 사라져 버린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해도 그것은 사실상 일시적인 부재(不在)에 불과한 것이다. 고급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자(死者)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비록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때로 그들을 잃었다고 착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를 잃었다는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아스트랄체를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육체를 떠난 순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물질계에 있던 때와 꼭 마찬가지로 그들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어느 신지학 저자가 말했듯이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될 영혼같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영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자신의 실수나 무지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구원될 일이란 없다. 몸은 옷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이 닳으면 우리는 그것을 던져 버리는 것이다.

신지학 대의 31. 협력 * 하루 같은 인생

협력

진화의 일정한 단계에서 인류가 스스로를 인도해 나가야 하는 것은 로고스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모든 미래의

부처, 마누, 아데프트들은 우리 인류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고 금 성으로부터 온 주님들은 다른 세계로 떠나갈 것이다. 따라서 로 고스는 사실상 우리들 모두, 당신과 나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99개의 단점과 1개의 장점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의 장점이 신지학의 활동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장점인들 필요치 않겠는가?) 분명 그것을 이용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동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그들이 하지 못 하는 일을 가지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비록 결점이 장점보다 더 클지라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서 자기에게도 그와 꼭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만큼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단지 최선을 다하면 그만인 것이다.

한 마스터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은 정확히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아는 사람과 알지 못 하는 사람. 아는 자들은 빛을 보고 그것을 향해 선 자로서 어떤 종교를 믿든, 빛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이제 그들은 자기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빛을 향해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 앞에는 희망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깊이 동정하고, 기꺼이 돋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결코 죄악의 경우가 아님을 알고 있다.

진정으로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고급 이상에도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다. 그들은 싸워 나가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도 관심도 없기에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인류의 고아’인 것이다.

하루 같은 인생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떤 하나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누구도 어떤 주제의 끝에까지 도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의식과 사관을 좁혀 편협하고 왜곡된 성장을 초래하고 모든 것을 그 틀을 통해서만 보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매우 길게 여기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

실 큰 삶 속에서의 하루에 불과하다. 당신이 하루 동안 진정 위대한 일을 끝마치기란 불가능하다.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날이 필요하다. 하루 일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띠는 결과가 생기는 것 이 아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의 일은 큰 과업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라 하여 하루하루를 게을리 보낸다면 결코 성취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신지학이 인생의 후반에 찾아와 그것을 진지하게 실천하거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 버렸다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다음 생에 더 나은 기회가 오리라는 희망을 지난채 조용히 이 삶을 마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다음 번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카르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 신지학적 환경 속에서 태어날 지 여부를 모른다.

결국 그러한 탄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당신 앞에 놓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대한 인과법칙의 작

용 중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의 기회를 받아들이면 그 결과로 다시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현재 신지학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 앞에 놓인 이 찬스를 무시한다면 다음 화신에서 다시 그러한 찬스가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만일 누군가 열심히 일하면서 신지학의 사상들을 가능한 철저히 자신의 영(靈) 속에 깊이 각인시켜 놓는다면 그것은 자아 속에 착실히 쌓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우 강한 매력이 심어져 다음 생에 비록 상세한 기억은 없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보는 순간 곧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신지학의 진리에 대해 듣는 순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노력을 통해 무엇을 성취했건,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해도,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유익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지금 떠난 곳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매체(영체)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무반응하며, 유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분명 보다 유연한 매체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노력도 헛되이 잃어버리는 법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기나긴 상승의 길로 들어서는데, 타인을 돋는 영광스런 일을 시작하는데 결코 너무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는

법이다.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오늘이 다 저 물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그리고 실망하여 다가올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길을 밝히는 빛>에는 ‘삶의 욕망을 죽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종종 오해를 받고 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라. 당신은 삶을 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을 욕망해야 하는가? 그것은 누구도 결코 당신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경구가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물질적 상태에 대한 욕망을 죽이라는 뜻인 것이다.

신지학 대의 32. 명상

명상

내 생각에 우리 멤버들은 종종 명상과 관련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같다. 그들은 명상이 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때로 그들은 명상을 마치고 난 뒤에 어떤 행복감이나 의식의 고양감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실패하였고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상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무디고 무겁고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명상을 하고 나서 어떤 것도 실제적으로 확실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나무란다. 그들은 종종 내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느꼈던 환희를 다시 느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온다.

명상과 관련된 이같은 경험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당신은 기독교 성자들이 소위 무기력한 ‘영적인 가뭄’의 시기에 느끼는 고통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낀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경치 좋은 언덕을 보면서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나 하늘은 둔한 회색 빛으로 엄청난 구름장이 수마일 두께로 무겁게 깔려 있다. 며칠 동안 태양을 보지 못했다. 그

러나 우리는 비록 햇빛을 볼 수 없더라고 태양이 저기 있음을 알고 있다. 며칠 지나면 구름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계에 필요한 것은 태양의 존재 자체이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태양을 보고 햇빛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여야 하는 것이 생명계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만일 내가 우리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말 속에 내포된 참뜻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갑지 않은 위안으로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명상의 몇 가지 목적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우리가 아무리 깊이 세상사에 빠져 있다 해도 적어도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은 고급한 이상에 대한 상념에 바치도록 지키는 것. 둘째, 우리 자신을 마스터와 로고스에게 보다 가까이 이끌고 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힘을 받아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익 되게 하는 것. 셋째, 우리의 고급 매체들을 훈련시켜 그것들로 하여금 최고의 진동에 반응하여 항상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당신은, 명상의 목적들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항상 성취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명상이 효과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다.

명상은 마치 어린아이가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과 같다. 때로 그는 피아노 치기를 즐기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자주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생각은 언제면 연습이 빨리 끝나나 하는 것이다.

아이는 매일의 그 시간을 통해 손가락을 피아노에 익숙케 하고 언젠가 음악으로부터 얻게 될 벅찬 환희, 지금으로선 꿈도 못 꿀 그런 큰 기쁨의 시간을 좀 더 가까이 당겨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그 아이가 연습을 즐기든 싫증을 내든 피아노를 계속 치기만 하면 그 목표에 다가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명상도 이와 같다. 따라서 명상 중에 행복과 고양감을 느끼든 그렇지 못 하든 양자 모두가 마치 육체를 위한 물리 운동처럼 고급 매체들에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유익한 명상’을 했을 때 그것은 더할나위 없이 기쁜 일이다. 그러나 유익해 보이는 명상과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명상 사이의 차이점은 그것이 기분에 미치는 효과에 있는 것일 뿐, 우리의 진화에 미치는 진정한

효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둔한 느낌의 원인이 항상 우리 자신의 잘못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과로나 신경의 긴장 같은 순전히 육체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때로 주변의 아스트랄적, 멘탈적 영향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에 지배된다는 것은 우리의 카르마이다. 따라서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책임인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기소침하거나 자신을 나무라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명상의 효과에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혹성의 영향이다. 이것에 대해 내 자신이 아는 바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문제들에 숙고하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의 길을 내가 바라는 대로 밀고 나가려 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언젠가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점성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목성이 달과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시기에 에텔 대기가 확장되어 명상을 보다 쉽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점성가는 그에게 천궁도를 주었고 그는 3, 4주 동안 매일 자신의 명상 상태를 관찰한 뒤 그것과 대조해 보았다. 마침내 그는 결과가 점성가가 말한 혹성의 영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

하였다. 한편 특정한 위치에 있는 토성은 에텔 대기를 수축시켜 명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며 이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념은 우주의 주재자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상념이 우리에 대한 주재자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우주 주권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하고 비철학적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람은 확실히 자신을 그에게 열어 놓음으로써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당신이 태양을 향해 문을 열어 놓으면 방의 상태는 태양의 힘에 의해 많이 변화된다. 그러나 당신이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태양을 변화시킬 수는 결코 없다. 신을 향해 당신 혼의 창문을 열어라.

명상하는 동안 사람들은 모든 것 안에 있는 지고의 자아, 지고의 자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지고의 자아가 형상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의식을 다양한 피조물들, 즉 파리, 개미, 나무 등과 일치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나무나 벌레의 내부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로고스의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보고 느껴 보는 것이다. 우리는 나무나 개미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이 실험이 끝났을 때 의식을 거기에서 철수시키지 못할 위험성은 전혀 없다. 나무나 개미의 형상 속에 우리의 의식이 갇혀지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의식을 확장시켜 어떤 형상의 생명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처음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은 대개 동물들의 행위의 제한성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된다. 그는 동물이 분명한 이유를 갖고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동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동물의 행위 동기와 의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는 저급한 유형의 인간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 없이는 그들을 온전히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근저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며 발전 과정에서 종종 엄습하는 암흑과 고독을 씻어 낼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개개의 단편(斷片)이 어디에 있든, 어떤 경험을 통해 지나가고 있든 크게 마음쓰지 않게 된다.

우리가 느끼는 고독이 무엇이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거기 마스터가 항상 도움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한 형상에 매달려서는 안 되며 로고스의 의지를 수행해 나가는 것 이외에 어떠한 동기도 가져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고독감으로 인해 마스터를 잊거나 그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따르기로 선택한 마스터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의구심을 갖거나 그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마스터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선택했다면 그와 그의 가르침을 신뢰해야만 한다.

마음을 통제함에 있어서 당신은 먼저 감각을 외부의 소리와 광경으로부터 철수시켜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오는 상념과 감정의 파동에 무감각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일단 외부 감각의 차단에 성공하면 이후엔 내면으로부터 혼란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마음의 활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많은 초심자들의 명상은 대개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으로 이어진다.

<침묵의 소리>는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마음은 실상을 죽이는 자이다. 제자여 그 살해자를 죽이라.”

물론 당신의 마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마음 없이는 살 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은 마음을 지배해야만 한다. 마음은 당신의 것이지 당신이 아니다.

마음의 방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제자는 자기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결국 모든 보호막이란 목발에 불과하다. 의지를 발전시켜라. 그러면 그런 껍데기들을 벗어 던져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아스트랄체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을 속이려고 애쓴다. 당신으로 하여금 그 욕망이 당신의 것임을 믿게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당신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의지가 발전되는 정도에는 한계가 없다. 육체의 힘을 증진시키는 데는 어느 범위 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의지의 힘을 키우는 데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우리는 싫증나는 사람들과 함께 싫증나는 일상의 의무를 하루 또 하루, 한 해 또 한 해 계속해 나가는 용기보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극적인 순교를 맞이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전자는 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계발하는 노력을 한답시고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때로 어떤 사람은 신지학의 일을 하기 위해 집과 친구들을 떠나 온갖 고난과 궁핍을 맞이하는 의지력을 보여준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아내와 가족을 떠나온 사람, 자기만을 의지하고 있는 부모를 두고 떠나온 하나뿐인 아들은 분명 자신의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아무리 고상한 동기가 있다 해도 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결연한 명상의 효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매체들을 고급한 질료로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종종 웅대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그것은 붓디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서 아스트랄체에 반사된 것이다. 그러한 영향하에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큰 자기 희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히 고착되고 균형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멘탈체와 코잘체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장중한 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곡돼 우리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기분만으로는 결코 완벽한 균형, 견실함을 성취할 수 없다. 고차원의 느낌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이 보다 강력하게 다가오면 더욱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지혜와 안정을 얻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동력뿐만 아니라 통제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붓디(buddhi)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지혜이다. 그것을 성취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 것이 다 삼켜 버린다.

계명에는 전혀 다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강렬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고급 자아로부터 오는 계명을 얻길 바랄 수도 있다. 즉, 자아가 자신의 계(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길 원하는 것이다.

셋째로 고차원적인 발전을 이룬 사람은 마스터나 데바들과 접촉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 사람의 결론이 자신의 상념체들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첫 번째 경우뿐이며 고급 자아나 마스터, 데바는 그것들

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모든 존재들은 아무 문제없이 실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나 취득된 정보는 육체 두뇌에 전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두뇌에 도달하자마자 그것은 우리의 편견에 의해 채색되기 시작한다.

명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하루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편견을 쌓아 왔다면 명상의 시간에도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편견을 인내심을 갖고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 또한 우리의 길만큼이나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온화하고 관대한 자세를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명상이라는 특별한 시간에도 연장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새로운 관념이나 착상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는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장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좋은 측면 또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의 파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념의 통제가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다. 상념이 통제되고 의지가 강화되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으로 당신은 살아 있는 자나 죽은 자, 병든 자나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생명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당신이 매일 일정한 시간(자신의 발전을 위한 명상 시간 이외)에 그러한 상념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은 어느 정도 그룹 명상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의 상념이 잠시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될 것이고 그러한 결연한 노력이 힘과 위로를 방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힘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되면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게 된다.

아스트랄 시력과 청력의 계발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개 그 자체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여긴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초상(超常) 능력들이 공부와 비이기적 활동의 결과로서 스스로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그러한 힘들은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인격이 충분히 발달되기 전에 찾아오면 위험 할 수도 있다. 초월적 능력의 발현을 촉진시키길 원하는 자들에게 나는 <죽음의 저편>의 마지막 장(章)에 설명한 과정을 추천하

는 바이다.

집의 여건이 허용한다면 명상만을 위한 별도의 방을 특별히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모임의 사람들이 열성적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런 방에서 그룹 미팅을 갖는 것도 해롭지 않다. 그러나 어떤 토론이나 언쟁의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근심에 쌩여 있을 때 명상 룸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나는 고민에 빠져 있어. 그러니 들어가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자. ‘이제 명상룸에 들어 갈 꺼야. 그러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 4장 고급계

신지학 대의 33. 니르바나

니르바나

궁극적인 완성 단계에서 모든 개체 혼들은 대령大靈 속으로 녹아 들어 통합된다고 종종 말해진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고급한 진화 단계에 오른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개체성이 유지된다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우리 신지학도들은 때때로 이 두 견해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경험, 두뇌 속에 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관념으로도 영광스러운 니르바나의 실제와 그것을 넘어선 차원들을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러한 초월적인 영광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것조차 적절한 말로 묘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개체 혼들이 대 영혼 속으로 용해된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한다. 모든 모나드는 근원적으로 신성 삼위일체의 한 불꽃이다. 따라서 모나드는 이미 자신이 구성 요소로 있는 그것 속에 용해될 리가 없다.

이보다는, 진화해 감에 따라 그 스파크가 성장하여 화염이 된다는 것이 분명 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설명일 것이다. 즉, 모나드는 신성과의 합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 성장하고 로고스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더욱 많이 현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의식의 고급 차원 심지어 흔히 말하는 니르바나에 이르기까지 결코 개체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위하는 힘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니르바나에 이르기 오래 전에 ‘분리’의 관념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에드워 아놀드는 그러한 지복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이슬 방울이 빛나는 바다에 떨어지다.”

실제로 이 가장 경이로운 체험을 한 자들은 역설적으로 그 느낌이 정확히 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에 훨씬 가까운 표현은 차라리, ‘대양이 물방울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다!’일 것이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고, 원주는 어디에도 없는, 바다처럼 확장되는 그런 의식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실재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의식은 전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통하여 신성한 힘과 지혜와 사랑이 빛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별성이라는 것은 미망이며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개념 속에 내포된 가장 숭고한 속성은 아데프트의 경지와 그것을 아득히 넘어서 대 흑성 영(Planetary Spirits)(*주1)의 세계에까지 유지된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미약한 상상력이 미치지 못 하는 위대한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들도 분명 개체적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이 고차원 계와 연결되었던 체험의 관념적 일단이나마 전달해 보고자 한다. 한 마스터가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를 그의 고급 오라에 감싸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니르바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해준 적이 있었다.

전체 우주가 살아 있는 빛의 거대한 분류(奔流)로 충만하여 이루 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넘치는 생명과 표현 불가능한 강렬한(천상의 지복보다 수만 배나 되는) 축복이 있었다. 처음에 우리는 축복 이외에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고 강렬한 빛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차츰 우리는 심지어 이 눈부신 밝음 속에도 더 밝은 지점들인, 빛으로 만들어진(거기엔 빛밖에 없기 때문에) 핵(核)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핵들을 통하여 광휘의 빛이

새어나와 다른 계나 저급 계들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성질을 띠게 되었다.

만일 이러한 특성이 없다면 다른 계에서는 그 광휘를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점차 우리는 이들 부속 태양들이 대 초인들 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흑성 영, 대천사, 카르마의 신, 붓다, 그리스도, 마스터들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빛과 생명이 저급 계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서서히 이 엄청난 실재에 익숙해져 감에 따라 우리는 보다 하위의 관점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 또한 우주체계 안의 한 초점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보다 훨씬 낮은 차원으로 빛과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빛과 생명의 일부분이며 그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보고,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보다 불행한 타인들에게 반사할 수 있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빛나고 있다. 그것은 유일한 실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로 또는 어리석은 행위로 자기를 차단시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마치 태양이 빛과 생명으로 온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이 동굴이나 지하에 숨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하지만 비유컨대 동굴이나 지하실의 입구에 적절히 놓여진 거울이 있다면 그것으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어느 정도만이라도 빛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빛을 볼 때 그것을 직접 빛을 인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반사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말로도 그러한 체험을 제대로 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체험의 인식 주체인 마음이 오래 전에 사라져야만 그러한 차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차원에서도 영(靈)을 위한 어떤 종류의 외피(sheath)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원자처럼 보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전체 세계로 보인다. 니르바나계상에 있는 각 존재는 의식의 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Position)을 가진다. 즉, 로고스의 생명의 흐름에 내재한 초점으로, 각기 떨어진 공간에 거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마치 전체 세계인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그는 어디든 초점 맞출 수 있고 이 힘의 흐름이 멈추는 곳, 그 순간에 소위 외피를 입게 된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분명히 느낀다. 아니 훨씬 그 이상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남들과 구분할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을 거의 본능적으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자기가 전에 보았던 모습과 닮아서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의식을 그분들 중의 한 분에게 초점 맞추면 그는 두 차원 하위계(고급 멘탈계)의 아우고에이데스(Augoeides)를 통해 그 존재의 형상을 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지학 대의 34. 삼중영

삼중영(三重靈)

모나드들은 분명 모두 로고스 안의 힘 센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모나드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모나드는 자아나 인성(이것들은 모나드의 하위 표현이다)과 거의 접촉하고 있지 못하다.

모나드는 처음부터 진화의 목적과 일반 추세를 알고 있다. 그러나 자아 속에서 표현된 그 자신의 일부분이 아주 고도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모나드는 이곳 지상의 삶의 세부 사항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모나드는 다른 모나드들을 알지 못하고 주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의식 없이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축복 속에서 쉬고 있다.

그러나 진화가 계속돼나감에 따라 저급계의 일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들을 자기가 완전히 담당 한다. 이 단계에서 그는 자신과 다른 모나드들을 모두 알며, 우리 안에 있는 모나드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침묵의 소리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 침묵의 소리는 각 단계마다 다르다. 지금 이렇게 저급 의식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자아의 소리이다. 우리가 자아와의 일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은 영(靈, 아트마)의 소리이다. 우리가 영에 도달할 때 그것은 모나드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아득한 미래에 우리가 모나드와의 일체성을 깨달을 때 그것은 로고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우리는 저급한 것을 복종시켜 그 위로 넘어서 일어서야 하며 그때야 비로소 보다 고급한 계(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모나드는 자연의 제2 단계, 즉 모나드계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모나드가 제 3계인 니르바나계(아트마계)로 하강하면 그것은 삼중영(Triple Spirit)으로 현현하게 된다. 이 삼중영은 로고스가 존재의 제계(諸界)에 자신을 현현시킬 때 그의 반영(더 정확히 말하면 로고스의 표현)이다.

로고스가 최고급계(아디계)에 최초로 시현될 때 그것 역시 삼중(*주2)이다. 로고스의 제1 면은 최고급계에만 현현하고 하위계에는 현현하지 않는다. 로고스의 제 2면은 제 2계(모나드계)에 내려오고 그 곳의 질료로 외피를 둘러 자신을 완전히 분리, 표현한다. 로고스의 제3 면은 제 3계(아트마계)의 상부에 내려와 그곳의 질료로 감싼다.

이 셋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안의 삼자(三者)이다. 아타나시우스 교의는 우리에게 삼자를 혼동하지도 실체를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위 안의 유일신, 유일신 안의 삼위, 즉 삼위일체 신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마음 속에서 각 계(界)에 분리 표현된 삼자의 활동과 기능을 혼동하지 말고 실체의 궁극적 통일성 또한 잊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 실체는 이 삼자가 하나로 있는 차원인 최고급계에서 모든 것의 배후에 살고 있다.

이제 이 과정의 반복이 정확히 인간의 경우에도 일어난다. 진실로 인간은 신의 상(像)을 쫓아 만들어진 것이다. 제 3계인 아트마계에 있는 영(靈)은 삼중이다. 그 세 가지 현현 중 최초의 것

(아트마)은 아트마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두 번째 현현은 한 단계 하강하여 제 4계인 봇디계에서 그 곳의 질료로 옷을 입는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붓디’라는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현현은 두 단계 하강, 멘탈계의 최고급 차원의 질료로 외피를 두른다. 그것을 우리는 ‘마나스’라고 부른다.

아트마-붓디-마나스, 이 삼자는 코잘체 안에 현현하며 우리가 일컫는 자아가 된다. 자아는 마나스만이 아니라 영적인 삼위일체임을 잊지 말라. 우리의 현 진화 단계에서 자아는 멘탈계의 고급 차원에 있는 코잘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가 상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의 의식은 봇디계에 중심을 두게 될 것이며 후에 아데프트의 경지에 오르면 그것은 니르바나계(아트마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고급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마나스가 상실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아가 봇디계까지 상승했을 때 그는 멘탈계의 마나스를, 이제까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봇디계에 항상 존재해 온 마나스의 표현 속으로 당겨온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아가 니르바나계로 상승할 때도 마나스와 봇디는 그 안에 언제나처럼 완전히 존재하며, 그리하여 이제 삼중영이 그의 계(界)에서 삼면(三面) 모두 표현되게 된다. 따라서 영(아트마)은 실제로 칠중(七重)이다. 왜냐하면 그의 계인 아트마 계에서 세 겹, 봇디계에서 두 겹, 멘탈계에서 한 겹 그리고 종합된 통일체(Unity)까지 하여 일곱 겹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자아가 보다 상향으로 진화해 간다 해도 하위의 특성(본질, definiteness)은 유지하고 있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오라 알(auric egg)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마 이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개념을 신비로 감싸 버렸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삼중영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런 개념에 대한 암시를 주려고 애썼다. 그녀는 아스트랄계가 봇디계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물질계는 니르바나계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척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그녀는 물질계의 인간에게는 세 개의 체, 즉 탈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분명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녀는 인간의 물질체를 육체와 에텔체, 둘로 나누고 거기에는 제3의 원리로서 그것들을 통해 흐르는 생명력(vitality)을 추가해 넣었다. 그러나 생명력은 모든 계에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물질계상에서처럼 아스트랄계와 멘탈계상에도 이 추가 원리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런 다소 독특한 배열을 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실제로 언급은 않았지만 암암리에 삼중영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에 있지 않나 한다. 베산트 여사의 말에 따르면 블라바츠키 여사가 신성한 오라 앞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니르바나계 질료의 외피 안에 있는 4개의 영구 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신지학 대의 35. 봇디 의식

봇디 의식

이기적인 인간은 봇디계에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봇디계의 에센스 자체가 자비와 완벽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확실히 이기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사람은 저급계들을 정복하기 전까

지는 봇디체를 발달시킬 수 없다. 아스트랄계와 봇디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면에서 전자는 후자의 반영이다. 그러나 중간 단계의 매체들을 발달시키지 않고 직접 아스트랄 의식에서 봇디 의식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봇디계의 최고급 차원에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모든 이에 대해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느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언제나 완전히 꼭 같이 느낀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심지어 부처도 제자 중에서 아난다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리스도도 요한을 남달리 사랑했다.

언젠가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만큼이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현재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고한 유형의 사랑으로 발전해 있을 것이다.

봇디의식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 속에 투영시켜 그들이 느끼는 것을 정확히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그들

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떠한 악인한테도 거부감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당신의 일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약한 부분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그 약한 부분에 힘을 쏟아 부어 줌으로써 그를 돋기를 바랄 것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단지 타인의 약점에 대해 얘기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와 같은 자세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파워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자아가 모든 경험을 통과해 나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봇디 차원으로 올라서면 다른 사람들, 심지어 진화와 반대의 길에 섰던 자들의 경험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만일 타인의 고통을 느끼길 원치 않을 경우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껴 보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을 돋길 원하기 때문이다.

봇디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 감싸 안을 수 있다.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해도 그것은 그의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아마도 우리 또한 인간 진화 과정에서 저급한 단계의 경험들을 대부분 겪어 왔을 것이다.

아데프트는 분명 타인의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데프트는 그 사람이 현재의 고통을 통해 가치 있는 선한 성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에게 친절이 아닌 해악이 됨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본다. 그의 자비는 우리의 자비보다 더 깊다. 따라서 그는 유용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신지학 대의 36. 차원계

차원계

여러 계들을 도표로 나타낼 때 우리는 대개 그것들을 마치 책장의 선반들처럼 층층이 놓여 있는 것으로 그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림 그대로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계들은 상호간에 삼투되어 있고 항상 이곳,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장의 선반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질계의 상태로부터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다. 우리는 고체를 편

의상 우리 발 밑에만 존재하는 물질의 최저층으로 생각하자. 물론 무수한 고체 입자들이 우리 머리 위 공중에 떠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상의 액체 질료(주로, 물)는 고체 질료의 표면 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엄청난 양의 물이 지하에 침투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의 형태로 공중에 떠올라 있기도 하다. 아무튼 방대한 양의 물이 대양, 호수, 강 등의 형태로 고체 위에 놓여 있다. 지구의 기체 질료는 물의 표면이나 딱딱한 지표면 위에 있고 액체나 고체보다 공간상에 훨씬 더 많이 뻗어 있다.

이처럼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이곳 우리가 사는 지상의 표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구름의 형태로 있는 물은 일반적인 먼지 보다 훨씬 더 높이 지상 위로 뻗어 있다. 그리고 공기는 비록 액체나 고체에 삼투해 있기도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확장돼 있다.

이것은 고급계 질료의 배열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아스트랄계는 지구의 아스트랄체라 할 수 있다. 아스트랄계는 우리 주위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발 밑의 고체 흙에 삼투해 있고 또한 머리의 아득히 높은 곳까지 뻗어 있다.

우리는 아스트랄계를 아스트랄 질료로 된 거대한 공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구는 그 가운데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육체가 아스트랄 질료로 가득한 난형체(卵形体, ovid form)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 아스트랄 질료의 가장 농밀한 집합이 육체의 주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경우에도 물질체의 범위 내에 아스트랄 질료의 대부분이 몰려 있다.

그러나 지구의 아스트랄계는 거의 달 궤도의 중간 거리까지 미치고 있어서 달이 근지점(近地點)에 올 때면 지구와 달의 아스트랄계는 서로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원지점(遠地點)에 있을 때는 접촉하지 못한다. 바로 이 때문에 어느 일정한 달에는 달과의 아스트랄 통신이 가능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불가능하게 된다. 나는 어떤 사자(死者)가 달에 가서 돌아올 수 없게 된 경우를 알고 있다. 그것은 아스트랄 질료의 연속성 문제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주의 조수(潮水)가 지구와 달 사이에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는 달이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여 아스트랄 교합이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지구의 멘탈계는 아스트랄계가 지구에 대해 갖는 크기와 동일한 비례의 크기를 갖고 있다. 멘탈계는 거대한 구(球)로서 지구의 물질계, 아스트랄계와 동심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 양자에 삼투되어 있다. 그러나 아스트랄계보다 중심으로부터 훨씬 더 멀리까지 확장돼 있다. 따라서 선반의 형태로 제계(諸界)의 도표를 그린 것도 일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아스트랄 질료와 멘탈 질료로 이루어진 외피(外皮)가 있고 그 외부에는 다시 멘탈 질료로만 이루어진 외피가 있다.

지구의 봇디계가 미치는 범위는 엄청나게 커져서 우리 체인(chain)의 다른 혹성들의 봇디계와 서로 접촉한다. 그러므로 전체 체인에는 하나의 봇디체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봇디 차원에서는 이 혹성을 상호간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니르바나계에 이르면 그 질료는 다른 체인들을 포함 시킬 정도로 아주 멀리까지(전체 태양계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진정 정확히 전달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단지 3차원까지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차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식을 한 차원, 한 차원 높여 갈 때마다 각 단계는 우리 앞에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이해의 가능성 을 열어 준다. 이 때문에 물질적인 삶으로부터 다른 계들로 통과 한 자들의 위치를 정확히 묘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의 일부는 이승의 친구들 또는 익숙한 장소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의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대다수의 아스트랄계 거주자들은 비교적 지상의 표면과 가까운 곳에서 삶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 속으로 물러나 의식이 고급한 질료와 접촉하게 되면 지표면으로부터 솟아올라 요란 유동(disturbing currents)이 적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 전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됨을 알게 된다.

천계로 간 일반 사람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유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차원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아직도 우리들 중에는 천계의 주민들이 지상의 특정 구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령가들이 말하는 소위 서머랜드(summer-land)는 우리 머리 위로 수마일 가량 뻗어 있다. 거기에는 동일 인종과 동일 종교의 사람들이 생전처럼 사후에도 함께 모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머랜드들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것들의 각각에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바다에 표류하는 물체처럼 아스트랄계에서 자신의 차원에 있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의지에 따라 부침(浮沈)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는 자기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아스트랄 질료는 물질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아스트랄 질료와 물질은 동일한 일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아스트랄계의 제 6부분계는 부분적으로 지표면과 일치하며 가장 낮은 제 7부분계는 지구 내부를 어느 정도 관통하고 있다.

지구의 내부 상태를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광대한 동굴들이 지구 내부에 존재하고 그곳에 종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진화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 중, 지

상의 어떤 인종보다도 저급한 수준의 한 종족에 대해서 <알키온의 생애들> 내용 가운데 알키온의 17번째 인생에 어느 정도 묘사되어 있다. 그들 중 어떤 인종은 우리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도 전혀 같지 않다.

지구의 중심에 다가갈수록 물질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존재한다. 그곳의 물질은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금속보다도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상태이면서도 물처럼 빠르게 유동한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의 내부에도 어떤 다른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질료는 일반적인 생명체가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농밀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진화 노선을 가진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지구 중심의 엄청난 압력은 제3 로고스가 새로운 원소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된다. 사실 지구의 중심 부분은 그의 실험실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그의 인도 아래 특별한 데바와 자연령 무리가 놀라운 이중 나선상(double spiral form)을 따라 작용하며 궁극적인 물질 원자들을 결합, 분리, 조정, 재배열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지점으로부터 지구는 태양의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원소들은 지표를 통과하지 않고 지구의 중심에 나타난다.

그러나 우주의 고차원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더 높아지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지구의 내부를 조사해 가는 동안 우리는 극과 극을 관통하는 중앙 수갱(豎坑)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동심층(同心層)들을 관통하여 작용하는 어떤 힘들이 있기는 하였다.

물질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랄 질료 중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은 일반적인 아스트랄 생명체가 이용하기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아스트랄 질료 또한 일반 학인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형태의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

대기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 에텔 압력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내(耐)에텔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압력이 아스트랄계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가장 평범한 예가 사람이 수면이나 죽음의 과정을 통해 육체를 떠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스트랄체가 육체에서 이탈된다 해도 그 육체가 아스트랄 대응체 없이 남겨진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때 주변 아스트랄 질료의 압력—이것은 사실상 아스트랄계에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은 즉각적으로 다른 아스트랄 질료를 빈 공간에 밀어 넣는다. 마치 우리가 대류를 만들어 방으로부터 공기를 배출시키고 주변 대기로부터 다른 공기를 동시에 유입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삼투해 온 아스트랄 질료는 그 육체와 정확히 일치한다. 모든 물질은 상응하는 밀도의 아스트랄 질료를 끌어당긴다. 따라서 고체에는 고체 아스트랄 질료(편의상 명명한다면), 즉 최저급 아스트랄 부분계(제7 부분계)의 질료가, 액체에는 아스트랄 액체(제6 부분계의 질료)가, 기체에는 아스트랄 기체(제5 부분계의 질료)가 각각 삼투되어 있다.

물이 들어 있는 유리잔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유리잔(고체)에는 최저급 아스트랄 부분계(제 7부분계)의 질료가, 잔 속의 물(액체)에는 제6 부분계의 질료가, 잔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기체)에는 제5 부분계의 질료가 삼투되어 있다. 우리는 또한 이 모든 것들(컵, 물, 공기)이 에텔 질료에 의해 삼투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의 아스트랄 대응체도 에텔 질료에 상응하는 다른 종류의 다양한 아스트랄 질료에 의해 삼투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로부터 아스트랄체가 이탈되었을 때, 모두 세 종류의 아스트랄 질료가 쇄도해 온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고체, 액체, 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육체에는 에텔 질료 또한 내재해 있다.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고급 부분계의 아스트랄 질료가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진짜 아스트랄체가 빠져나간 동안 일시적으로 형성된 아스트랄 대응체는 그 배열에 관한 한 정확한 복사판이다. 그러나 아스트

랄 대응체는 육체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로서 이용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때그때 편의상, 요구되는 종류의 아스트랄 질료로 구성된 것이다. 즉, 단순히 우연한 원자들의 집합으로, 진짜 아스트랄체가 돌아오면 아스트랄 대응체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밀려나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주변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만일 주변 환경이 나쁘면 수면 중 아스트랄체가 이탈되었을 때 매우 불쾌한 아스트랄 질료가 우리 육체를 채울 것이고 후에 의식이 돌아오면 부정적인 반작용을 야기하는 영향을 남기기 때문이다. 아무튼 육체를 이탈하여 나왔을 때의 아스트랄 질료의 순간적인 유입은 아스트랄 압력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최후에 죽어서 육체를 떠나면 그 육체는 더 이상 매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며 단지 시체에 불과하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육체가 아니라 단지 육체의 형상을 한, 분해되고 있는 물질의 집합체일 뿐이다. 우리가 시체를 더 이상 진정한 육체로 부르지 않듯이 그것에 삼투해 있는 아스트랄 질료 또한 그 단어가 갖는 일상적 의미의 진정한 대응체라고 부를 수 없다.

불완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다. 엔진의 실린더에 증기가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증기를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추진력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엔진을 가동하지 않을 때도 실린더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공기가 증기와 동일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진정한 엔진의 추진력은 아니다.

아스트랄 고체는 결코 고체가 아니며 단지 상대적으로만 고체일 뿐이다. 알다시피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아스트랄 질료를 물로 상징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갖는 유동성, 투과성 때문이다. 사실 물질계상의 고체의 대응체는 언제나 최저급 아스트랄 부분계의 질료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편의상 아스트랄 고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이 3차원적 고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아스트랄 질료의 입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체 입자보다 훨씬 더 밀도가 낮다.

따라서 최고 밀도의 아스트랄체 두 개가 서로 관통하는 것이 기체가 공중에 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일 것이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사람이 절벽을 뛰어 넘는다는 식의 관념은 없으며 단지 그 위를 떠간다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다. 당신이 지상에 서 있다면 당신의 아스트랄체의 일부분은 발 밑 땅속까지 관통해 있다. 그러나 당신은 아스트랄체를 통해 어떤 딱딱한 느낌이나 움직이는 힘의 어떤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아스트랄계에서는 물질계의 촉감과 같은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어떤 것의 표면을 건드려서 그 촉감의 딱딱함과 부드러움, 거칠고 매끄러움, 뜨겁고 차가움 따위를 느낄 수 없다. 하지만 대신 그것을 관통하여 어떤 다른 진동 수준을 의식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기쁨, 불쾌감, 흥분, 실망감 등을 느낀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일상적인 촉감과 같은 어떤 감각을 느끼는데 그것은 단지 기억을 상기시킴에 있어 두뇌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수단(즉, 촉감)을 채택한 것일 뿐이다.

모든 차원계의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이 아스트랄계에 미치는 효과는 물질계에서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아스트랄계의 빛은 산광(散光)으로서 분명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아스트랄 질료는 그 자체로 발광성을 가진다. 아스트랄체는 채색된 체(體)라기보다는 살아 있는 불로 된 체(體)이다. 그것은 또한 투명하며 그림자가 없다. 아스트랄계는 결코 어둡지 않다. 구름이 태양을 막고 있어도 아스트랄계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밤에도 마찬가지이다.

‘안 보이는 조력자’가 만일 산을 장애물로 인식한다면 그는 그것

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아님을 배우는 것이 소위, ‘지상의 테스트’의 한 목표로서 치밀하게 마련되어 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우리식 개념의 사고(事故)라는 것이 존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스트랄체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육체와는 달리 파괴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상에서의 폭발이 일시적인 파괴를 가져오기는 한다. 마치 물질계에서의 화약의 폭발처럼 말이다. 그러나 아스트랄 파편들은 신속하게 재합성된다. 아스트랄계의 사람들은 상호간에 관통하여 지나갈 수 있으며(또 그렇게 지나간다) 아스트랄 고착 물들을 통과할 수 있다.

아스트랄계의 질료는 매우 유동적이며 밀도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충돌과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교착되어 있는 두 아스트랄 물체는 상호간에 눈에 띄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교착 현상이 얼마 동안 지속되게 되면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바로 곁에 앉아 예배를 보거나 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하면 서로 간에 큰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상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의지는 갖고 있으나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휩쓰는 많은 유동(currents)들이 있다. 물질계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아스트랄체의 질료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사후에 그러한 유동을 막기 위해 의지를 행사하지 않으면 조악한 질료로 된 외피에 감싸인 동심원 껍질들 속에 고착되어 버린다.

만일 아스트랄계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껍질에 갇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아스트랄체가 재배열, 고착화되어 버린 사람들은 하나의 차원에 묶여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미 이렇게 고착화되었다면 그러한 상태를 깨뜨리고 아스트랄계 전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아스트랄계에서 안 보이는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리된 차원은 없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이다. 대기나 기후 조건은 아스트랄계나 멘탈계에서의 활동에 아무런 실제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큰 도시에서 활동할 때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것은 도시에 있는 엄청난 양의 상념체들 때문이다. 어떤 영능자들은 최적의 활동을 위해 화씨 80도의 기온을 필요로 하며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더 낮은 기온이 아니면 잘 활동하지 못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오컬트 활동은 어디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장소는 다른 장소보다 훨씬 용이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기후는 매우 건조하고 대기에 전

기가 많아 투시력의 계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곳 아디야르에는 환경으로 인한 상념체의 저항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념이 거의 모두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상념을 보내 주고 있는 사람들 쪽의 저항이 언제나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기성의 껍질들을 자기 주위에 만들어 왔다. 그래서 심지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퀘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제 5장 자아와 그의 매체들

신지학 대의 37. 자아와 인성

자아와 인성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고급 자아(higher self)와 저급 자아(lower self)의 문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멤버들이 많

이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오로지 하나의 의식만이 있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분명 두 개의 자아(의식)를 느끼기 때문이다. 학인들이 이 둘 사이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자아(Ego, 고급 자아, 혼, Soul)가 육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인지 어떤지 또는 자아와 자아 사이에는 독자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아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저급 자아와 고급 자아의 문제는 오래된 것이다. 여러 매체들의 제한에 의해 외관상의 차이가 야기될 뿐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하나의 의식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긴 분명 어려운 일이다.

전체 의식은 고급 멘탈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아직 그것은 오로지 부분적으로만 희미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고급 멘탈계 상의 의식이 활동적일수록 언제나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의 진화에 유익한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저급 질료 속으로 하강시켰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온 부분은 저급 질료 안에서 활동하는 동안 상위의 더 광대한 자아와의 연결성을 망각한 채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분리된 존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이로 인해 때로는 그 단편이 전체에 반(反)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신비 학도는 결코 여기에 속지 않으며 날카롭게 깨어 있는 단편의 의식을 통하여 배후의 진정한 의식에 다시 도달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자아는 육체를 통해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표현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아가 육체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니다.

자아를 한 입방체로, 물질계를 평평한 판자로 가정해보자. 만일 입방체를 판자 위에 얹으면 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오로지 그 위에 닿은 입방체의 한 면만 나타난다. 이는 분명 입방체의 극히 일부분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입방체의 여러 면이 판자 위에 연속적으로 얹어지면 매우 특이한 모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입방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는 전충성(填充性)을 가져야 함에도, 2차원 평면에서 그런 것은 결코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입방체가 평면과 접촉되어 있을 때 그 부분만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보통 사람의 의식에 대한 거의 정확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의식의 현현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이 전체로서의 입방체에 이미 고유하게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어떤 자아를, 고급 멘탈계에서 다른 자아와 구분할 수 있

는 독자성을 떤 하나의 의식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미 어느 정도 진화된 인간의 경우에 한해서일 뿐이다. 자아가 하나의 의식적 존재가 되는 것은 그가 그룹 소울(group-soul)로부터 분리되어 별개의 존재로서 출발하는 때부터다. 그러나 그 때의 의식은 매우 불명확한 본성을 갖고 있다.

종종 자아가 우리들의 두뇌에 각인해 놓은 인상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다. 아침에 잠에서 바로 깨어난 순간이 그것이다. 잠과 깨어 있음 사이의 중간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그것은 축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에 우리는 주변의 어떤 대상들을 의식하지 못하며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

때로, 몸의 뒤판임이 이 지복의 순간을 깨뜨리고 우리를 일상의 상태로 다시 내던져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에 가능한 오래동안 미동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상태, 즉 존재에 대한 자각 그리고 강렬한 지복에 대한 자각의 상태는 고급 멘탈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아의 상태와 매우 흡사하다.

보통 사람의 자아는 천계(天界, 저급멘탈계)에서의 한 삶의 끝과 다음 화신의 시작 사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급 멘탈계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 앞에 섬광처럼 과거와 미래가 지나간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전생의 모습과 다음 생의 모습을 엿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완전한 깨어 있음의 순간을 그는 이제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보다 완벽한 현현, 보다 철저한 활기와 생생함을 느끼기를 소망하게 되며 그러한 욕구가 그를 다시 지상에 태어나도록 충동질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인생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완전한 의식에 대한 소망이다.

이 완전한 의식은 존재계로부터 오는 모든 진동에 감응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그것을 통해 그는 완벽한 교감을 성취할 수 있다. 자아가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고급 멘탈계의 힘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이 통과해 버린다. 왜냐하면 그는 이 지극히 순수한 진동에 감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자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비교적 조악하지만 강력한 진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거친 진동은 자아 자신의 계인 고급 멘탈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 때문에 자아는 저급한 차원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식은 먼저 가장 저급하고 농밀한 체를 입고 있을 때만 그에게 온다. 그래서 비록 물질계가 고급 멘탈계보다 훨씬 저급하고 활동범위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자아는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더 생생한 활력을 느낀다.

의식이 그 범위를 확장시켜 감에 따라 자아는 점진적으로 한 단계 더 고급한 질료(즉 아스트랄 질료)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후 단계에서, 아스트랄계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저급 멘탈계의 질료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시작한다. 그의 최종 목적은 고급 멘탈계에 있는 코잘체 속에서 현재의 물질계에서처럼 완전히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을 향한 이 의식의 발전 단계들을 단순히 각 매체들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 법을 익혀 아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아스트랄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생각을 할 때마다 멘탈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각 매체들을, 의식이 완전히 표현될 수 있는 독립된 체(體)로서 활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사람이 그의 아스트랄체에서 완전히 의식적일 때 그는 이미 상당한 진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가 아스트랄 의식과 육체 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게 될 때 그에게는 더 이상 밤과 낮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생을 연속성의 단절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다. 또한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끊어지지 않는 의식을 밤과 낮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과 아스트랄계에서의 삶의 끝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를 통과하고 나면 더 큰 발전 단계인 천계(天界)의 의식이 그에게 열린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매번 화신해 오는 동안 기억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 멘탈계에 있는 자아의 차원으로 고양되어 완전한 의식을 성취하면 그로부터 그는 항상 모든 인생들을 기억할 수 있으며 진화의 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여러 저급체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의 발전 단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단계 사이의 베일이 찢어지는 것은 매우 빠른 과정으로 일어나며 때로는 아주 순간적이다.

아스트랄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우연히 어떤 사건이나 질병에 의해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특수한 수련을 함으로써 현계와 아스트랄계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때부터 그의 아스트랄 의식은 연속성을 유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육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 또한 완벽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오래 전부터 완벽한 의식이 아스트랄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야만 한다. 비록 물질계의 삶에서 는 그것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다 해도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스트랄체와 멘탈체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려 기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환희를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멘탈체를 매체로 이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로 유추해 보건대, 우리 물질계의 삶 안에서 자아가 전하는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위해서는 고급 멘탈계에서 자아가 완전히 의식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들 중에는 그 내면의 자아가 이미 각성되었거나, 앞서 언급한 단순한 지복의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자아)의 주변과 다른 자아들을 의식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시점에서 자아는 인생을 인도하고 자신의 계(고급 멘탈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서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에도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매우 작은 일부분만을 저급 자아(인성, personality)속으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발출된 단편은 자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급 자아의 일반적인 활동과는 다른 선상의 관심거리들에 끊임없이 얹히게 된다. 따라서 자아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인성의 저급한 삶의 형태에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단계에 도달한 자아는 대개 한 마스터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로 자아가 자기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처음 느끼는 사건이 바로 마스터와의 접촉인 경우가 많다. 마스터의 영향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 그를 자기화(磁氣化)시키고 그의 진동을 마스터의 진동과 조화롭게 한다. 이를 통해 그의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촉진된다. 그것은 마치 꽃 위에 쏟아지는 햇빛처럼 그에게 조사(照射)되고 그 영향을 받아 빠른 속도

로 진화한다.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발전 속도가 거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더디지만 마스터가 관심을 갖고 그를 계발시키고 그의 의지를 고무시켜 진화 과정에 참여할 때 그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스터가 자아에 부어 주는 신성한 영향의 흐름 중에서 인성(저급 자아)에 전해질 수 있는 양은 자아와 인성 사이의 연결 정도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마다 큰 차이가 난다. 인간의 삶은 무한한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에 영적인 힘이 조사되었다 해도 인성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그 힘 중 일부만이다. 자아가 자신의 일부를 빨출시켰지만 그것을 자기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 자아와 인성은 매우 다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내부에 있는 자아는 인성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빨출되어 나온 자신의 목적조차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인성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자아의 작은 단편은 자기 중심적인 방식과 판단을 키워 나간다.

인성(Personality)은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그것은 자아(Self)에

게 전달된다. 그러나 이 진정한 발전에 수반하여 그는 대개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많은 것을 모은다. 그는 지식을 얻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편견(이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을 얻는다. 그가 아데프트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편견들—지식의 편견, 지식의 부재에 대한 편견, 감정과 행동의 편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는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자신의 선입견이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 전진해 간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깨뜨려 버려야 할 많은 제한들이 남아 있다.

얼마만큼의 영적인 힘이 인성으로 전해지는가에 대해서는 오로지 투시를 이용한 특별한 경우에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이 얼마이든 반드시 어느 정도는 항상 흘러 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저급한 것은 고급한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마치 손이 팔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인성이 자아로부터 영적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성은 그것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얻게 된다. 그것은 또한 특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스터는 종종 자아 안에 있는 특성에 작용한다. 이 특성은 인성 안에서는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것이 실제로 현현되는 것은 매우 적다. 인성의 여러 경험들 중 오로지 자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만이 영적, 영구적 자아에 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로지 인성이 반응할 수 있는 충동만이 저급 자아의 해당 차원에서 표현될 수 있다.

고급 자아는 악을 배제하고 저급 자아는 선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경우 우리가 선과 악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직관을 통해 이런 영향의 작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날에 우리는 인성의 어떤 특성이 아무런 외부적 원인도 없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종종 어떤 고급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즉 자아 내의 해당 특성에 가해지는 자극에 있다. 때때로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 원인 또한 대개 그러한 자아의 자극이다. 또는 아마도 그 순간 자아는 저급 자아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명상 속에 있을 때 자아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아로 하여금 우리의 저급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도록 끌어내리지 말고, 오히려 위로 상승하여 자아의 고급한 활동에 연결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기억하라, 명상은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아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 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올바른 명상은 언제나 고급 자아의 영향을 끌어온다. 비록 명상시 우리의 마음이 매우 둔하고 열정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의 효과는 언제나 발생한다.

만일 자아가 완전히 발전되면 그는 자신의 계(고급 멘탈계)에서 명상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의 명상이 인성의 명상과 동시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고도로 발달된 자아는 우선 의식을 붓디계로 고양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서 상위의 다양한 단계들을 통과해 가게 된다. 이때 저급 자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자아는 저급 자아가 명상할 때 자신의 일부분을 내려보낼 것이다. 비록 저급 자아의 명상이 고급 자아의 명상과 같지는 않지만. 때로 이 과정에서 자아가 인성에게 에너지를 내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저급 자아에게는 다소 무디고 어두운 감정이 일어난다.

인성이 마스터의 노력에 의해 얼마나 영향받는가 하는 것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에 달려 있다. 당신의 자아와 인성 사이의 연결 강도 그리고 마스터가 자아에 행하고 있는 특별한 작용이 그것이다.

이 지상의 삶에서 명상을 한다거나 영적인 주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자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적인 문제들에 진지하지 못한 일반 사람은 간신히 한 가닥의 실로 고급 자아와 저급 자아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경우 인성만이 모든 것이며

자아는 그에게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자아는 엄연히 고급 멘탈계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는 마치 달걀 속에서 자라고 있는 병아리와 같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 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아는 아주 생생하게 의식적으로 된다. 그는 자신의 껍질을 깨뜨려 활기차고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계속 전진해 나아감에 따라 우리는 개인적 의식을 자아와 합일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의 의식만을 갖게 될 것이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고급 자아의 의식을 소유하여 현상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자아와 인성 사이에 상당한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있다. 인성 안에 현현된 자아의 단편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매우 실제적인 타입의 자아는 훨씬 더 발달된 사람의 자아보다 물질계 상에 더 많이 현현한다. 왜냐하면 고도로 진화된 사람의 자아는 그 에너지가 물질계보다는 코잘이나 봇디 차원에 거의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발달된 자아의 경우를 볼 때 당신은 때때로 그가 몸에 대해 다소 몰인정함을 발견한다. 아다시피 자아는 인성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취한다. 나는 흔히 자아가 참지 못하고 자신 속으

로 철수해 버리는 경우들을 자주 보아 왔다. 그러나 이때 한편으로는 자아와 인성 사이에 언제나 하나의 흐름—보통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이 남겨지게 된다.

보통 사람에게 그러한 연결은 매우 미약하다. 물론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나 보다 발전된 단계에서 자아와 인성은 채널을 따라 끊임없이 통신한다. 자아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대부분을 철수시켜 뒤에 자신의 매우 빈약한 표현만을 남겨 둘 수 있다. 따라서 저급 자아와 고급 자아 사이의 관계는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발전 단계마다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자아의 활동에 대해 말하자면, 자아는 자신의 계에서 사물에 대해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자아들을 돋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종류의 활동이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자아에게 보다 많은 힘이 필요로 한 경우가 때로 있다. 그러면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인성(저급 자아)을 돌보는 걸 잊게 된다. 마치 아무리 선한 사람도 때로 특별한 일에 정신이 없다 보면 기르고 있는 말이나 개에 대해 잊어버리게 되는 것과 꼭 같이 말이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성은 큰 실수로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써 자아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킨다. 때로 당신은 자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일(예를 들어 수많은 청중에게 강의하는 따위의 일)을 한 후에 에너지를

상실하고 무력감을 느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잠시 동안 자아는 그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힘을 초과하여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일이 끝나고 난 뒤 가엾은 인성에게 탈진감을 남기며 철수해 가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무력감은 다른 원인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저급한 아스트랄계의 엔터티(entity)나 어떤 비인간적 존재로부터 오는 경우 등. 그리고 기쁨 또한 항상 자아의 영향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인간은 힘의 유입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환희는 어쩌면 조화로운 자연령들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자아와 인성 사이의 채널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거의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난관에 빠지는 상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때 필요할 경우 자아의 힘이 그것을 다시 타파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자아와 인성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흐름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명상은, 성실히 행해졌을 때 그러한 채널을 열어 주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 당신은 인성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자아를 향해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모든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인생과 인생의 중간 기간에 자신의 전생과 미래상을 일별한다. 이것은 잠시 동안 자아를 일깨우지만 그 후 그는 다시 잠 속에 빠져든다. 물질계 인생 동안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관조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잠과 같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진화된 사람에게 있어 자아는 완전히 깨어 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아는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유익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계(고급 멘탈계)에서 생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많은 경우 그것은 꿈꾸는 듯한 상태에 있다.

자아의 목적은 모든 계에서(심지어 물질계에서도) 완전히 활동적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자아가 주로 사랑을 통해 자신을 현현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당신의 자아는 사랑이라는 특성이 인성에 의해 표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일 이 세상에서 매사에 강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아는 즉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인성에 내려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 안에서 정확히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주의하여 자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재빨리 이용할 것이다. 자아가 충분히 발달했다면 그는 고급 멘탈계에 있는 다른 자아들을 도울 수 있다. 보통 사람의 자아는 다소 식물과 같은 의식(또는 생명)을 갖고 있어서 단지 다른 자아들을 알아볼 뿐이다.

인성은 자아와 합일되지 않는 한 그(자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인성은 마스터를 알아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자아는 마스터를 알아본다.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공부,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공부는 자아를 일깨운다. 순수한 비이기적 헌신은 고급계에 속해 있으며 자아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인성의 경험들 자체가 자아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에센스만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자아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그것들의 에센스만을 원한다. 자아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육체로 내려와야만 한다. 특히 천계(天界)에서의 삶 동안 자아는 인성의 경험들을 소화시키는데 깊이 전념한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작업은 어느 때고 항상 진행되고 있다.

신지학을 공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은 자아가 감응할 수 있는 진동을 고급계로 올려 보냄으로써 그의 관심을 부르기 시작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아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고도의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은 최고 아

스트랄 부분계에 속하는데 그것들은 멘탈계의 상응하는 질료에 반사하여 코잘체와 접촉된다.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로지 비이기적 상념들만이다. 모든 저급한 상념들은 영구 원자에 영향을 미칠 뿐 자아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코잘체 안에는 저급 상념에 상응하는 갭(gap, 간극)들이 있어서 저급 상념이 코잘체에 반영될 때 나쁜 색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갭으로써 나타난다. 즉, 저급한 이기성은 코잘체 안에 사랑 또는 자비의 부재(不在)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다가 좋은 성질이 계발될 때 그 갭은 메꾸어진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사람의 코잘체를 봄으로써 그에게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자아가 원하는 성질을 계발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그가 내려와서 도와줄 것이다. <길을 비추는 빛>에 씌어 있는 것처럼, 자아를 지켜보라 그리고 기다리라. 당신을 통해 그가 싸우도록 하라. 그러나 동시에 당신이 그 자아임을 결코 잊지 말라. 당신이 곧 그인 것이다. 저급한 당신이 고급한 당신에게 순종케 하라. 아무리 여러 번 쓰러졌다 해도 크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지어 실패조차 어느 정도 성공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다음에 문제에 부딪칠 때 그만큼 더 현명해지기에 말이다.

우리는 지금 모든 일에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다. 비록 궁극적으로는 분명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신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일 뿐임을 결코 잊지 말라.

신지학 대의 38. 아스트랄 대응체

아스트랄 대응체(Counterparts)

자아가 화신하여 내려올 때 그는 자기 둘레에 아스트랄 질료를 끌어당긴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분명한 아스트랄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이 아스트랄 질료는 코잘체의 형상과 아주 흡사한 달걀 모양의 형상(난형체 卵形體)을 취한다.

그러나 단계가 더욱 하강하여 외부적으로 물질적 화신(化身)이 될 때 그 아스트랄 질료의 중간에 작은 육체가 형성되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그 위에 강력한 인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미 커다란 난형체 상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던 대부분의 아스트랄 질료가 그 육체의 주위에 집중된다. 육체가 성장하여 감에 따라 아스트랄 질료도 변화되며 그렇게하여 마침내 사람의 아스트랄체의 모습이 드러난다. 아스트랄체는 99%가 육체 주위에 압착되어 있고 나머지 1%만 난형체를 채우고 있다.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의 삽화(*주1)에서는 육체의 윤곽을 단순히 연필로만 스케치하여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그렇게 희미하게 처리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책에서 내가 특별히 원했던 것은 난형체의 색깔들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고 저급체로부터 고급체까지 진동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체에 대한 아스트랄 대응체는 매우 농밀하고 명확하다. 따라서 아주 분명하게 주변 난형체와 구분할 수 있다. 아스트랄 질료는 육체와 정확히 동일한 형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아스트랄 질료를 끌어 당겨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아스트랄계의 최하위 부분계를 물질계의 고체에 상응하는 것이라 말한다 해도 그 조직은 완전히 상이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스트랄 질료와 그 대응 물질 사이의 관계는 액체와 고체 사이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스트랄체의 모든 입자들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스트랄체가 육체의 감각 기관들과 같은 분화된 기관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스트랄체에는 신체 중 눈의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간상체(桿狀體)와 콘(cones)에 대응하는 정확한 아스트랄 대응체가 있다. 그러나 아스트랄체에서 그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입자들은 일초나 이초 후면 팔이나 발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육체의 눈에 상응하는 아스트랄 대응체를 통해서는 아스트랄계를 볼 수 없다.

사실상 아스트랄적 인식 방법에 ‘본다’라든가 ‘듣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보통 분화된 감각 기관의 작용을 뜻하는 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아스트랄체의 모든 입자는 진동을 받아들이고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아스트랄 의식을 가졌을 때, 그는 자기가 앞면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

육체에 대한 아스트랄체의 정확한 대응(일치)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일 뿐 결코 여러 신체 기관들의 기능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계속되는 인력은 아스트랄 질료에 일종의 습 또는 타성을 만들고 그로 인해 밤에(또는 사후에) 육체의 인격으로부터 일시적으로(또는 영구적으로) 물러나 있는 동안에도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게 된다.

심지어 오랜 아스트랄계의 삶을 거쳐오면서도 아스트랄체는 그때

까지 생전의 육체와 같은 외형이 거의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의 그렇다는 것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념은 아스트랄 질료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신속하게 조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에 습관적으로 자신을 죽을 당시 보다 짧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스트랄체가 차츰 어느 정도 짧은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한다.

“만일 사람의 팔이나, 나무의 가지, 또는 의자의 다리가 절단된다면 각 경우에 아스트랄 대응체 또한 없어지는가?”

“만일 아스트랄 대응체가 부서지면 해당 물건 또한 파손되는가? 만일 내 아스트랄체의 손으로 의자의 아스트랄 대응체를 부수면 의자는 실제로 부서지는가?”

위의 세 가지 경우는 전혀 유사한 것이 아니다. 나무나 인간이나 모두 내부에 생명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스트랄체를 하나의 응집하는 통일체로 만든다. 아스트랄 질료는 물질체의 입자들에 의해 강하게 끌어 당겨지고 그것에 맞게 조형된다. 그러나 물질체의 일부분이 제거된다 해도 살아 있는 아스트랄 질료의 응집력은 비교적 강한 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팔이나 나뭇가지의 아스트랄 대응체는 물질체의 절단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스트랄 대응체는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원래의 형상을 유지한다. 물론 오래지 않아 사라지게 되지만.

의자나 그릇과 같은 무생물체의 경우에는 응집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개별적 생명이 없다. 결과적으로 물질체가 파손되면 아스트랄 대응체 또한 박리된다. 그러나 아스트랄 대응체를 먼저 부술 수는 없다. 달리 말해 파괴 행위는 물질계에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아스트랄 손을 이용하여 순수한 아스트랄 물체를 이동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물질계 물체의 아스트랄 대응체를 움직일 수는 없다. 정 원한다면 손을 물질화시켜 그 물건을 이동시키면 된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아스트랄 대응체가 움직일 것이다. 마치 방에 장미가 있으면 향기가 자연 방 안에 퍼지듯 아스트랄 대응체는 물체가 있는 한 존재한다. 아스트랄 대응체를 이동시킨다고 해서 물체가 따라 움직인다는 가정은 장미 향기를 이동시켜서 장미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아스트랄체의 입자는 물질체의 입자와 마찬가지로 변화된다. 그러나 다행히 음식을 요리하고 먹고 소화시키는 조악하고 지루한 과정은 아스트랄계에서는 필요치 않다. 떨어져 나간 입자들은 주변 대기에 있는 다른 입자들에 의해 대체된다.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진짜 물질적 욕망은 아스트랄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각을 만족시키려는 대식가의 욕망, 알콜 흡수에 따르는 흥분을 추구하는 술꾼의 욕망, 이런 것들은 모두 아스트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욕망은 아스트랄계에 여전히 존속하면서 큰 고통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로지 육체를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들로서 이미 그런 육체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아스트랄체는 피로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다. 평범한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아스트랄계에서 일정 기간 계속 활동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나는 빨리 윤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특별한 상태를 위해 아스트랄계에서 25년 동안 기다린 한 사람의 경우를 알고 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내내 다른 사람들을 돋는 일을 하며 보냈다. 그는 마스터들의 제자에 의해 열리는 클래스에 가끔 참가하는 것 외에는 휴식 시간조차 갖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조금의 피로감도 느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곤이 무엇인지조차 잊어 버렸다.

일상 생활에서 과도하거나, 오래 지속된 감정은 쉽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적인 표현이므로 우리는 아스트랄체의 피로가

가능하리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로에 지배되는 것은 단지 육체 기관일 뿐이다.

이 물질계에서 우리 안에 현현하고 있는 모든 것은 육체 기관을 거쳐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곤에 지배되는 것은 단순히 육체 기관일 뿐이다. 소위 말하는 정신적 피로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음 안에는 피곤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로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육체 두뇌의 피로인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두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력을 아스트랄 차원 너머로 들어올릴 수 없는 자는 타인의 오라를 볼 때 오로지 아스트랄 질료만을 보게 된다. 그는 이 아스트랄 질료가 육체를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에 삼투되어 있고 외부의 오라가 있는 곳보다 육체의 주위에 훨씬 더 농밀하게 집합되어 있음을 본다. 그 이유는 육체 세포들의 대응체로서,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 대량의 농밀한 아스트랄 질료가 육체의 인력에 끌어당겨지기 때문이다.

수면 중에 아스트랄체가 육체로부터 이탈되었을 때도 아스트랄 대응체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때 어떤 사람이 투시로 보면 전파 마찬가지로 육체를 닮은 체(體)가 오라에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체는 이제 단순히 아스트랄 질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안개 사이에는 큰 밀도의 차이가 있어서

확연히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록 그것 자체도 단지 보다 더 농밀한 안개일 뿐이긴 하지만.

발달된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사이에는 외형상 아스트랄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발달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도 비록 흐리고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내부 형태의 윤곽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난형체는 단지 형상 없는 안개나 화환에 불과하여 사실상 그 외形의 정형성이나 내구성이 전혀 없고 거의 그 이름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이다.

보다 발달된 인간은 오라나 그 안에 있는 형태 모두에서 그것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내부 형태는 훨씬 더 뚜렷하고 분명하여 거의 육체 형상의 재현에 가깝다. 그리고 그의 난형체는 뚜렷한 달걀 형태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아스트랄계에서 그 주위에 항상 소용돌이치고 있는 다양한 흐름들 한 가운데서도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아스트랄체의 조직이 사후에 크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난형체 안에 있는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변화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내부 형상은 다소 희미해지고 보다 영적으로 변화된다.

신지학 대의 39. 아스트랄체의 색깔 * 코잘체

아스트랄체의 색깔

아스트랄체가 일정한 색깔을 띤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진동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진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멘탈체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코잘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저급계의 인생에서 계발시킨 고급한 특성들은 점차 영구적인 코잘체 속에 축적되며 결국은 혼 자체의 특성이 된다.

아스트랄체의 색깔들은 어느 정도 혼합된다. 예를 들어 애정(장밋빛)이 종교적 헌신(청색)과 섞이면 예쁜 보라색을 띤다. 코잘체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한 상념과 느낌뿐이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일부로서 영구적으로 코잘체 내에 저장되게 된다. 다른 종류의 상념, 감정은 저급체들에 남아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속적이지 못하다. 상념체의 크기는 감정의 강도를 보여준다.

코잘체

코잘체는 아무리 많은 수의 육체에도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 이는 마치 아무리 직선이 많아도 그것들이 면이 될 수 없고 면이 아무리 많아도 입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아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며 그의 여러 매체들에 내려왔다. 첫째는 코잘체가 더 많은 진동에 감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코잘체의 크기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잘체 내에서 거의 의식적이지 못하다. 그런 자아들의 경우 그 현(絃)들을 직접 통겨 연주할 수는 없고 밑으로부터 상음(上音)의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코잘체는 고급 멘탈계(멘탈계의 상위에 있는 세 개의 부분계)의 질료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탈계의 제3 부분계(즉, 코잘체의 제일 저급한 부분)의 질료로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은 심지어 이보다 더 저급한 질료만이 대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진리의 길 위에 섰을 때 멘탈계의 제2 부분계(하부계)가 열린다. 아데프트는 의식이 물질계에 있는 상태에서도 전체 코잘체를 이용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 지 대략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그의 코잘체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그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인간들이 모두 똑같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개체성을 획득하는 즉시 최소 크기의 코잘체를 갖게 되며 그때부터 그 크기와 색깔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신지학 대의 40. 욕망 엘리멘탈

욕망 엘리멘탈

아스트랄체의 많은 질료는 전체 아스트랄 덩어리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나온 엘리멘탈 에센스(역주2)에 의해 활성화되어 아스트랄계 상의 사람의 표현이 된다. 이 엘리멘탈 에센스는 지성적 에센스는 아니지만 살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신네트가 초기 지성(dawning intelligence)-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힘-이라고 부른 일종의 본능을 갖고 있다. 엘리멘탈 에센스는 맹목적,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달성하고 자기 진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다.

엘리멘탈 에센스의 입장에서 진화라고 하면 물질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목표는 광물 모나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삶의 목적은 물질계에 가까이 접근하여 가능한 많은 조악한 진동과 접촉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에 대해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전체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과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악마가 아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혐오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신처럼 신성한 생명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의 관심은 당신의 관심과는 정 반대이다. 사람들이 위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반면 그것은 밑으로 진화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신의 분리된 생명을 지속시키길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연결됨으로써만이 그런 생명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느낀다.

그것은 당신의 어떤 저급심(저급 마나스)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그 마음을 지배하여 당신에게 자기의 관심과 당신의 관심이 하나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감각들을 점점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엘리멘탈 에센스가 그 목적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저급 멘탈 질료와 교착한다면 그때 당신은 그것(욕망 엘리멘탈)을 철수시킬 수 없다. 그 결과 저급심 질료 일부가 사후의 생에서 완전히 상실된다. 당

신의 저급심과 교착코자 함으로써 당신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욕망 엘리멘탈은 거기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엘리멘탈이 당신의 저급심과 교착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엘리멘탈 에센스가 더 많은 멘탈 질료와 교착하면 할수록 자기의 아스트랄 생명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의 아스트랄 생명은 당신이 천계로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지속된다.

신지학적인 용어로 그것은 그림자(shade)로 알려져 왔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속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진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당신의 진화에 대한 책임도 없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자신(욕망 엘리멘탈)의 목적으로 돌아서도록 노력할 뿐인 것이다. 만일 엘리멘탈 에센스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 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자신들의 정당한 진화를 방해하려고 노력하는 악마나 유혹자로 보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스트랄체가 조악한 질료와 파장을 맞추어 진동하도록 용납하지 않으면 그 조악한 질료는 차츰 아스트랄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아스트랄체) 조직은 보다 섬세하게 되어 욕망 엘리멘탈의 활동성이 저하될 것이다.

욕망 엘리멘탈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저급한 것들을 욕망 하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피조물(욕망

엘리멘탈)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과 격렬히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욕망을 툭툭 털어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저급한 것들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당신은 그 엘리멘탈의 기호와 욕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전생에 그것을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 특별한 아스트랄 질료와 엘리멘탈 에센스의 집합이 그때에 존재했었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번 생에 당신이 태어날 때 새롭게 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 아스트랄 삶의 말기에 당신의 아스트랄체를 구성하던 질료에 대한 정확한 복사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것이 아니다. 당신은 전 삶을 통해 항상 반드시 이점을 명심해야 함은 물론 사후의 삶에서는 더욱 더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이 욕망 엘리멘탈이 당신을 속이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그 엘리멘탈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받길 거부함으로써 그것의 진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당신이 저급한 욕망들을 통제하고 자신을 확고히 세운다면 당신은 그 엘리멘탈을 위해 더 나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것의 저급한 부분들을 퇴락시키고 고급한 면들을 진화시켜 주고 있는 셈이다. 저급한 종류의 진동은 동물이 인간보다 더 잘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에센스의 고급한 유형을 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인간 이외에는 없다.

죽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경우, 사후(死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의 딴 세상에서 깨어났을 때 대개는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태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분명 그중 일부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그 경우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엘리멘탈은 두려워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자신(욕망 엘리멘탈)의 분리된 생명 또한 부지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엘리멘탈은 사자(死者)가 아스트랄계의 삶을 조만간 마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감각의 매개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그것은 인간의 아스트랄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책을 강구한다. 그것은 분명 아스트랄 물리학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이 틀림없다.

엘리멘탈 에센스는 가장 조악한 질료가 가장 오래 응집할 수 있으며 마찰에 잘 견딘다는 사실을 알고는 질료를 원형으로 배열하고 그 바깥 면에는 가장 거친 질료를 둘러싼다. 이렇게 욕망 엘리멘탈이 사후에 만들어 내는 재배열은 육체의 아스트랄 대응체 표면을 덮는다.

엘리멘탈의 이러한 작용은 말하자면 아스트랄 질료로 된 상자 안

에 당신을 감금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당신이 오로지 가장 저급하고 거친 계(界)의 사물만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 당신은 그렇게 감금당하는데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욕망 엘리멘탈은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 주려 노력한다. ‘만일 내가 이 저급한 질료 속에 확고히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나는 표류하다가 구름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지 몰라.’

엘리멘탈은 이 배열로부터 벗어나려고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걸 포기하게끔 그런 공포의 감정을 불어넣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꿋꿋한 의지로 그것에 맞선다면 즉시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즉 아스트랄체의 입자들은 살아 있는 육체에 있는 것처럼 모두 혼화(混和)를 유지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신은 모든 부분계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이다.

욕망 엘리멘탈과의 마지막 투쟁은 아스트랄 삶의 결산기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때 자이는 우리의 인생 시초에 화신 속에 내려보낸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가 투자한 원금은 물론 이자(그 삶을 통해 얻은 경험과 발전시킨 성질들)까지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는 자기가 만들고 먹여 살린 이 욕망 엘리멘탈의 단호한 저항에 부딪친다. 욕망 엘리멘탈은 비록 지성적 존재는 아니지만 자기 보존이라는 강한 본능을 갖고 있어서 자신을 위협하는 소멸의 명령에 사력을 다해 저항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욕망 엘리멘탈의 이런 저항은 어느 정도 먹혀든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기능은, 살면서 저급한 욕망에 지배되고 그 욕망을 위해 봉사하도록 오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저급심은 욕망과 강하게 교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투쟁의 결과 자아가 아스트랄체와 완전히 떨어진 뒤에도 멘탈 질료와 심지어 코잘 질료의 일부까지 거기(아스트랄 체)에 남아 있게 된다.

사람이 사는 동안 완전히 그의 저급 욕망을 정복하여, 저급심을 그것(저급 욕망)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을 때 사실상 거기에 투쟁은 사라진다. 그리고 자아는 원금과 이자 모두 충분히 상환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지 못 할 때 거기에 정반대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상의 삶에서나 사후의 생에서 이 욕망 엘리멘탈을 통제하는 것이다.

당신은 발전 중인 신(神)임을 기억하라. 우주의 모든 힘과 능력은 당신의 것이다. 결과는 확실하다. 법칙의 편에 서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될 것이다. 욕망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는 분명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하는 동안 당신은 침착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많은 끔찍한 것들을 본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모든 감정들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는다면 쉽게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곳 지상에서 사람들은 종종 일시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하며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냉정한 학교 선생이 자신의 잔인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아이들을 때린다. 그러나 아스트랄계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극악성이 즉각 명백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끔찍한 카르마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스트랄계에서 당신은 심지어 불친절한 말 한 마디에 따른 결과들조차 보게 된다. 무섭고 격렬한 욕망은 종종 저급한 부류의 존재들을 끌어들인다. 그들은 상념체 속으로 들어와 그 진동들을 즐긴다. 그렇게 하여 생명을 얻은 상념체들은 수년 동안 존속하며 심지어 폴터가이스트 현상, 가구 따위가 덜컹 거리는 등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현상, 을 일으키기도 한다.

역주 2

엘리멘탈 에센스

광물 현현 이전 단계에 있는 아스트랄 또는 멘탈 질료의 생명. 그것은 물질 속으로 내려와 광물, 식물, 동물체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욕망 엘리멘탈은 아스트랄 차원의 엘리멘탈 에센스를 말하는 것이고 멘탈 차원의 엘리멘탈 에센스에 대해서는 제8장 상념과 엘리멘탈 에센스 편에 나와 있다.

신지학 대의 41. 잃어버린 혼들 1

잃어버린 혼들 1

우리는 신지학의 지식을 통해 ‘영원한 형벌’이라는 기독교 교리의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깨어나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쉴 수 있다. 기독교인들 중 무지한 자들은 아직도 그런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문구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신지학도들은 알고 있다. 모든 개체는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완성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발견으로 환희에 차 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상태에서는 혼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서를 듣고는 그 기쁨이 한풀 꺾여 버리게 된다. 그리고 신성한 법칙의 지배가 진정 보편적인 것인지, 또는 인간이 어떻게 로고스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로고스의 의지는 어떤 인간의 의지보다도 무한히 강하다. 따라서 그 어떤 사악한 솜씨로도 그를 이기기란 불가능하다.

사실 로고스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행사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일 뿐이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한다면 그 범위는 급속히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힘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그의 의지를 악하게 사용한다면 그만큼 운신의 폭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때도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사실상 무한히 풀려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한한 성장의 잠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다. 이것은 법칙의 비형평성 때문이 아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의 의지를 로고스의 의지와 동일한 방향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즉 진화의 조류를 따라 헤엄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그 조류를 거슬러 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혼들’이라는 말은 사실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거기에

는 오해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일반적으로 ‘혼(Soul)’이라는 단어는 매우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 ’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보다 섬세하고 영구적인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혼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곧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잃어버린 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표현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학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제5 라운드의 중간에 이 진화 체계로부터 탈락할 자들.

이 탈락은 분명 우주의 한 시기(영원이 아니라)에 있어서의 유죄 선고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리스도는 귀먹은 자들에게 닥칠 진정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때 유죄 선고는 단지 그들이 현재로서는 더 고급한 진화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없다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비난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 기회를 저버린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다.

신지학은 우리들에게, 인류는 모두 형제들이지만 모두 똑같은 것

은 아니라고 가르친다.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들은 다양한 시기에 인간의 진화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어떤 자는 다른 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혼이다. 그들은 발전의 사다리에서 각기 다른 발판 위에 서 있다. 나이가 많은 혼들은 자연 어린 혼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운다. 그러므로 그들 사이의 거리는 계속 벌어질 것이고 결국 어떤 자들한테 필요한 상태가 다른 자들에게는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 되어 버리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학교 클래스의 학생들을 예로 드는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유이다. 한 클래스의 담임 선생은 일년 동안 학생들이 기말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의무가 있다. 그는 학습량을 분할한다. 첫째 달은 이 정도, 둘째 달은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물론 처음에는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이끌어 간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이와 능력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어떤 학생은 빨리 배워 평균보다 앞서가고 어떤 학생은 지지부진하다. 거기다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그의 클래스로 들어온다. 그들 중 어떤 아이들은 그 수준에 거의 쫓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반년의 과정이 지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다.

이와 같은 일이 제4 라운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그 이후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계로부터 인간계로 오는 통로의 문이 닫혔다. 말하자면 그들은 미래에 속한 자들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이전 체인의 잔류자로 뒤쳐지기

는 했지만 현 인류보다는 앞선 소수의 사람들이 아데프트의 위계를 성취하는 경우와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있어 제7 라운드의 말에나 가능한 개별화의 단계를 성취한 동물들이 소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혹성 체인에서 이 예외적인 존재들이 원시 인간의 체를 입을 기회가 주어지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시 후 그 선생은 자기 학생들 중 누가 시험에 통과할지, 어떤 학생들이 의심스러운지, 어떤 학생들이 분명 낙방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다. 이때 담임 선생이 낙방할 게 틀림없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는 이제, 이 클래스의 더 높은 과정이 너희들에게는 부적절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험 기간에 맞추어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기란 불가능하다. 고등 과정을 가르치기에는 너희들에게 적당치 않다. 너희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걸 배운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급의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즉시 하급반으로 옮겨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거기서 아직 완전히 배우지 못한 기초 공부를 충분히 하라. 그리고 난 뒤 다음 해 새 학기에 다시 이 클래스에 들어오라. 그러면 그때는 분명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제5 라운드의 중간에 정확히 행해질 것이다. 남은

시간 안에 규정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은 저급 학년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리고 교실 문이 다시 열리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우리가 속한 이 특정한 진화의 작은 물결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인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학기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다음 학기의 사람들이라 해도 이제까지 해 온 일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도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고급 학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린 자들이다. 그러나 저급 학년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그들은 반년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음 번에는 보다 빠르고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진한 학생들을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린 사람들에게 실패에 대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단호한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있으나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될 또 다른 부류가 있다. 이들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너무 게을러서 부진한 학생에 해당한다. 그들의 운명 또한 전술한 사람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분명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비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이 부류의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카르마의 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훈계의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이다. 그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지만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우주와 동조하기를 거부하여 만반타라(역주3) 생명 주기의 무수한 세월 동안 멸하는 쓸모 없는 게으름뱅이들’ (시크릿 독트린 iii 526)이라고 삼엄하게 말한 것 또한 바로 그들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이 멸함은 단지 이 만반타라 생명 주기로부터만임에 주의하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단지 지연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히 소멸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진화의 코스에서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이다. 그러나 지연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그런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어리거나 게으르거나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패했다면 분명 앞으로 수많은 생을, 음울하고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목적지까지 애써 나아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앞서 진보한 인종들이 도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이러한 고통

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대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못 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례나 이와 상응하는 다른 종교의 의식들은 형제애의 봉사에 삶을 바치는 것을 상징한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리하여 자신을 올바른 방향에 세운 자들은 분명 제5 라운드의 심판의 저주를 피하여 안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찾지도,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지도 않는 자들은 결단코 그 저주 속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저주는 단지 이 진화 주기로부터 배제되어 다음 이어지는 생명파 속에 던져짐을 의미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혼들’이라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린 바이지만 로고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기된다 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신지학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영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악에 대항하여 선의 편에 서 있고, 이타적으로 일해 나가고 있는 한 그들의 믿음이나 종교가 무

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역주3

만반타라

만반타라는 ‘두 마누의 사이’라는 뜻이다. 마누는 혼현(창조)의 시작 때 나타나는 존재들의 총칭이다. 만반타라는 뿌리 마누와 씨앗 마누 사이 기간의 활동기이다. 만반타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흑성 활동기(일곱 인종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만반타라와는 반대로 소멸기, 휴식기는 프랄라야라 불린다.

신지학 대의 42. 잃어버린 혼들 2

잃어버린 혼들 2

인성이 매우 크게 강화되는 경우, 자아는 인성으로부터 거의 단절되게 된다. (즉, 혼의 상실) 이런 경우는 자기의 욕망 속에서만 사는 자들과 자기의 마음 속에서만 사는 자들의 두 부류가 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종종 저급계의 질료 속으로 내려온 자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많은 학도들은 이것이 단지 수사(修辭)적인 비유가 아니라 매우 명백하고 실제적인 면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아는 코잘체 안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멘탈체와 아스트랄체를 덧입는다는 것은 사실상 코잘체의 질료 일부분과 하위의 멘탈, 아스트랄 질료와 교착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하강 현상을 자아가 하는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이 경우에도 자아는 자기가 출자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 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즉, 자기가 투자한 것을 잃을 가능성, 때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투자한 것 전부를 잃을 가능성-실제로는 완전파산이 아니라 유효 자본의 상실이지만-이 있는 것이다.

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아는 코잘체 안에 세 가지 차원(멘탈계의 제1, 제2, 제3 부분계)의 질료를 갖고 있

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3 부분계를 넘어선 계(제1, 제2부분계)에서는 아직 활동이 없다. 심지어 제3 부분계에서조차 대개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활동한다. 따라서 코잘 질료 중 가장 저급한 유형(제3 부분계의 질료)의 일부만이 하급 차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것도 그 중 작은 단편(斷片)만이 멘탈, 아스트랄 질료와 교착된다.

이렇게 하강된 것에 대한 자아의 통제는 매우 약하고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자아는 아직도 반은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체가 성장함에 따라 자아의 아스트랄체, 멘탈체도 발전된다. 이때 아스트랄체, 멘탈체와 교착된 코잘 질료는 그것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활기찬 진동으로 각성되게 된다. 즉, 그 매체들과 완전히 교착된 이 단편 중의 단편은 그것들에 생명과 활력과 개체 의식을 주고, 이번에는 차례로 그것들이 교착된 코잘 질료에 강한 반작용을 일으켜 생명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 예리한 자각은 자아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아니, 자아가 하강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아를 다시 밑으로 화신해 오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날카로운 의식에 대한 갈망-이것을 트리쉬나라 부른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단편은 여러 경험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머지 자아보다 훨씬 더 깨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 결과, 그것은 종종 지나치게 강화되어 자신을 전체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동

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연결을 망각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입고 활동해야만 하는 질료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게다가 저급계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교착되지는 않은 나머지 부분들-고급 멘탈계에 있는 자아의 큰 덩어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의 작용에 저항하기도 한다.

위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멘탈계의 제3 부분계에 깨어 있는 자아의 부분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자. 그것. 전체 중에서 얼마나 작은 단편에 불과한지 항상 기억하라. 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 Ⓐ 멘탈계의 제3 부분계에 남아 있는 것
- Ⓑ 저급계에 내려오기는 했지만 저급 질료와 교착되지 않은 것
- Ⓒ 저급 질료와 완전히 교착되어 그것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수용하는 것

이것들은 하강해 온 비율에 따라 배열되었다.

Ⓐ는 진정한 자아의 매우 작은 일부분이며 Ⓛ는 Ⓜ의 작은 일부분이고 Ⓝ는 Ⓛ의 작은 일부분이다. Ⓛ는 Ⓜ와 Ⓝ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역할한다. 우리는 Ⓜ를 몸으로, Ⓛ를 밖으로 뻗은 팔로, Ⓝ를 움켜쥐는 손, 즉 질료 속에 담궈지는 손가락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하게 균형 잡힌 구성을 이루고 있다. 따

라서 그것은 여러 가지 영향에 민감하다.

손④는, 몸①에 의해 언제나 완벽하게 조정된 상태로 팔②를 통해 교착된 질료를 움켜쥐고 이끈다. 바람직한 환경이라면 더 많은 힘과 질료가 ③로부터 ⑤를 통해 ⑥으로 흘러 들어가며, 결과적으로 그 통제는 점점 더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⑦는 힘에 있어서는 물론 부피도 커져 간다. ⑧를 통한 통신이 막힘 없이 열려 있고 ⑨가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⑩의 힘과 크기가 성장하면 할수록 바람직한 일이다.

⑪의 교착 행위에 의해 그 안의 코잘 질료가 각성되어 날카롭게 활동하게 되고 다양한 진동에 정확히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런 교착이 없다면 이런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⑫를 통해 ⑬에 전달되어짐으로써 자아는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과정이 위에서처럼 언제나 활동 계획에 따라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⑭의 통제가 미약할 경우 종종 ⑮가 완전히 저급 질료에 뮤여 사실상 자신을 그 질료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의 고급한 본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전체 자아로 착각하게 된다.

만일 저급 멘탈 질료에 빠졌다면 그는 물질계에서 완전히 물질적

인 사람이 된다. 그는 어쩌면 매우 지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따라서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해 완고하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사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무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성향 때문에 그의 삶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아무런 진보도 이루지 못한다.

만일 아스트랄 질료에 빠져 있다면 그는 물질계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생각한다. 자신이 강하게 욕구하는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그는 매우 잔인해진다. 다시 말해 매우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다.

멘탈 질료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만 살듯 위의 사람은 자신의 욕망 속에서만 산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우리의 문헌 속에서 ‘잃어버린 혼들’이라 일컬어져 왔다. 물론 다시 찾을 길 없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블라바초키 여사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악덕으로 인해 자신의 고급 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직 육체 속에 있는 동안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에게는 아직도 본성을 회복하고 물질 성향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깊은 참회나, 떠나온 자아에게 한번 간절히 호소하거나, 무엇보다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면 그의 고급 자아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연결의 끈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크릿 독트린, iii 527)

이런 케이스들은 ④가 자기 주장만 내세워 ④를 ③한테 다시 밀쳐 버린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팔이 가늘어지고 급기야 마비되어 그 힘이 위축된 반면 손은 자기만 내세워 멋대로 경련적인 발작을 하는 것과 같다. 뇌의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③과 ④사이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손목 절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는 동안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인성의 생존에 꼭 필요한 만큼의 통신 정도는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블라바츠키 여사에 따르면 그런 경우는 완전히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만일 충분히 강하게 노력하여 자아가 ④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면(-이때 ④도 대부분 이미 회복된다) 비록 최후의 순간일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그 마비된 팔을 통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삶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심각한 자아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친다고 해서 금방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부류의 사람이 본성을 회복할 수 있으라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인간들에게는 발전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 법칙상 자아를 상실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음을 살펴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행위들은, 멘탈계 상의 이기적인 상념이든, 아스트랄계 상의 이기적인 감정이든, 언제나 그 계(界)들의 저급 부분계 질료의 진동이다. 반면 모든 선하고 이타적인 상념과 감정들은 고급 부분계 질료의 진동이다. 이 때 정묘한 질료일수록 훨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힘이 선한 상념과 감정에 쓰여질 때가 거친 질료에 쓰여질 때보다 백 배 정도의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통 사람은 전혀 진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감정 중 90%는 자기 중심적이고 나머지 10%는 영적이고 이타적이라면 그는 이미 이타적인 쪽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그 비율에 정확히 상응하는 만큼만 결과가 나온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뒤로 아홉 발자국 물러나게 된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몇 생 지나지 않아 우리가 진화해 온 동물계로 다시 전락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선을 향한 10%의 힘은 악을 향한 90%의 힘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에서 생으로 상당한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1%의 선만 보여줘도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진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차가 정확히 같아서 진보도 퇴보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히 악한 삶을 살아 왔음에 틀림없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심지어 사실상 퇴보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가 얼마나 극악한 삶을 지속해 왔을까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는 항상 주위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그 자비로운 법칙 덕분에 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앞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그런 사람들조차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잃는 것은 진화 그 자체가 아니라 진화를 위한 시간과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과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만큼 고통을 더 많이 겪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잠시 앞서의 투자의 비유를 다시 들어 그들이 과연 무엇을 잃고 무엇에 실패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자.

자이는 때가 되면 이윤을 위해 저급 질료에 투자한 것, 즉 우리가 ④라고 불렀던 주식을 회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가 질과 양 모두에서 높아졌기를 기대한다.

④의 질은 전보다 나아져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각성되었고, 더 다양한 진동 영역에 정확히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힘은 ④가 ③에게 언젠가 재흡수 될 때 그 ③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④ 안에 그렇게 강한 파동을 일으키는 저장 에너지도 ③의 질료 전체에 배분되면 하나의 물결밖에 만들지 못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매체들이 악한 상념과 감정들에 반응하고 그것들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진동들 하에서 흥분하여 교착된 코잘 질료④에 혼란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 질료④가 ③나 ④에 그런 진동을 재생시키거나 전달시키기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정한 음고(音高)에 조율된 바이올린 현이 그 밑의 음조를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급 멘탈계의 질료는 그보다 낮은 계(界)의 진동과 공명할 수 없다.

④는 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양에 있어서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코잘체도 그 질료를 끊임없이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육체의 근육과 꼭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특별한 운동을 하면 그 부분은 크기와 힘이 커지게 된다.

모든 지상의 삶은 자아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질과 양의 발전을 위해 주의깊게 만들어진 기회이다. 따라서 그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다시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지체될 뿐이고 고통이 따를 뿐이다. 아마 그때는 추가로 발생

된 나쁜 카르마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자아가 각 화신에서 기대하는 증가분에 대비(對比)해서, 우리는 이전 단계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정한 손실분을 벌충해야만 하는 것이다.

저급 질료와의 교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 교착은 가능한 매우 밀접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모든 입자들을 회복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나 그것이 아스트랄체와 연결되었다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아스트랄체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시간이 도래했을 때 아스트랄계에 남겨지는 것은 단순히 분해되고 있는 아스트랄 질료의 껍질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착된 자아가 남아 있는 그림자인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코잘 질료가 상실된다 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극도로 나쁜 삶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잃어버린 양은 성장에 의해 얻어진 양보다 훨씬 적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완전히 자신의 상념과 욕망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질과 양, 어느 것도 발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진동들이 코잘체에 저장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그 교착이 매우 강하다면 분리가 일어날 때 분명 상당한 양의 코잘 질료의 손실이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팔과 손의 비유로 인해 자칫 ④와 ⑤가 영원히 자아의 부

속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동안 그것들(나타)은 ⑨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화신의 최후 순간에 그것들은 ⑨에게로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의 결과들이 ⑨ 전체에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자아가 다시 화신 속에 내려올 때가 되었을 때 옛날의 그 나와 타에게 다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그에게 흡수돼 그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양동이에 부어진 한 컵의 물이 양동이 속의 물과 하나가 되어 다시 분리해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이때 컵의 물에 물감이 있다면 그 색깔이 양동이 물 전체에 희미하게 번질 것이다. 여기서 물감은 경험에 의해 계발된 성질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한 방식에 대해 자아는 이미 익숙해 있다. 그가 동물의 그룹 소울로부터 개체성을 획득하여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자아가 되기 전부터 말이다. 그 방법은 그룹 소울이 취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룹 소울은 동시에 많은 측수들을 내려보냄에 비해 자아는 오직 한번에 하나씩만을 발출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윤회할 때마다 새로운 화신 속에 있는 인성은 달라진다. 비록 그 뒤에 있는 자아는 언제나 같지만 말이다.

신지학 대의 43. 잃어버린 혼들 3

잃어버린 혼들 3

다행히, 그렇게 내려온 자아의 단편을 인성이 포획하여 실제로 박살내 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자아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우리가 고찰하게 될 것은 ④가 차츰 ④를 흡수하여 그것을 ③로부터 단절시켜 버리는 경우이다. 이런 일은, 작정하고 악행(예를 들어 흑마술)을 지속적으로 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

앞서의 비유로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팔을 잘라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며 자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유효 자본금을 거의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다행히 자아가 완전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④와 ④는 모두 ③의 작은 일부분 일 뿐이고 ③의 뒤, 그러니까 멘탈계의 제1, 제2 부분계 상에 아직도 계발되지 않은 자아의 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누가 아무리 어리석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자신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의식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는 한 코잘체의 그 고급한 부분을 활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료를 입은 주요 목적은 진화 체계 속에서 발생되는 것 이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 힘은 우리를 유일자를 향해 상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을 자연과 의식적으로 협력하는데 기꺼이 바친다면 그 보상으로 이 유일자의 실재에 대한 인식이 차츰 증가해 갈 것이다.

반면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일하지 않고 자연과 맞선다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하던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다음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분리를 위해 애써 왔다. 따라서 그러한 분리 상태를 얻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태에 놓 이게 된다. 그러나 우주 공간 속에 완전히 홀로 분리되는 체험은 인간에게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기성은 흑마술사들의 전형이다. 상기한 끔찍한 운명을 맞이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런 수준의 존재들이

다. 그들은 다양하며, 그 혐오스러움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크게 두 부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 이 두 부류의 존재들은 모두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흑마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목적은 서로 다르다.

첫 번째 부류는 비교적 일반적이고 덜 무서운 유형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어떤 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자연히, 그것만을 위해 매달린 삶의 결과로 욕망체 속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만일 그가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이타의 마음과 사랑의 감정, 그리고 모든 고급한 자극의 불꽃들을 죽이는데 성공한다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욕망의 괴물이 될 것이다.

그런 자가 죽으면 아스트랄계의 최저급 부분계로 가게 된다. 그보다 더 높은 부분계로 가기란 불가능하다. 그의 마음 전체는 완전히 욕망에 장악되어 있다. 따라서 설혹 투쟁을 하더라도 그의 자아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며 종내는 자신이 너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뿐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무관심하게 방치한 탓으로 그 자아는 당분간 진화의 흐름, 로고스의 강력한 생명의 흐름으로부터 단절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윤회하여 돌아올 수 있을 때 까지 그 생명의 바깥에서 아비치(avichi) (역주4)의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다시 환생했을 때에도 그가 전에 알던 사람들 사이에 끼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전 수준의 몸과 마음에 화신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가능케 할 유효 자본이 그에게는 남아 있지 않다.

지금 그는 훨씬 덜 진화된 타입의 매체들을 갖는데 만족해야만 한다. 결국 그는 진화의 코스에서 아주 멀리 처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많은 발판을 디뎌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현 상태의 세계에서 그에게 맞는 저급한 타입의 인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이 진화 체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일종의 생명이 정지된 상태로 다음 시작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한편 단절된 인성은 어떻게 될까? 그것은 더 이상 진화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도 책임감도 전혀 없는 완전히 악한 생명으로 가득한 채 남아 있다. 그것 앞에 놓인 운명은 이른바 ‘제8 스피어(sphere)’(역주5)라는 끔찍한 환경에서 분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능한 오래 물질계 상에 모종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흡혈 행위는 그 존재를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일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것은 어떤 적당한 몸을 골라 그 주인을 내쫓고 장악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때 선택되는 몸은 대개 어린 아이의 몸이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몸을 취하면 보다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자아가 아직

몸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쉽게 자리를 뺏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발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탈한 몸의 힘도 곧 소진될 것이다. 처음 빼앗은 육체의 수명이 다한 후 두 번째 육체 강탈이 성공한 사례에 대한 기록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피조물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악마로, 우리가 속한 진화 체계 안에는 그런 존재가 영구히 거쳐할 장소가 없다. 따라서 자연히 그것은 이 진화 체계에서 축출되어 저항할 수 없는 법칙의 힘에 의해 ‘제8 스피어’라 불리는 아스트랄 분뇨 통에 던져지게 된다. 그곳이 제8 스피어라 불려지는 이유는 그곳에 던져진 것은 일곱 존재계의 권역 밖에 놓여 그 진화 체계 속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나간 시대로부터 쌓여 온 모든 더럽고 구역질나는 쓰레기들에 둘러싸여,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들끓는 이 괴물은 천천히 썩어 간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그것의 멘탈 질료와 코잘 질료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때도 자기가 단절되어 나온 자아와 다시 재결합될 수는 없다. 그 질료들은 해당하는 계(界)의 다른 질료들 사이에 섞이고, 차츰 새로운 조합물로 되어 유용한 용도에 쓰이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존재들은 매우 드물고 알려진 바도 거의 없거니와, 천성적으로 그들과 유사한 결함을 지닌 타임의 사람들만을 장악할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보다 품위 있는 외양을 한 흑마술사들이다. 그러나 사실상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더 파워풀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관능에 몰두하지 않고, 더 정제된 그러나 파렴치하기는 마찬가지인 이기적 목표를 갖고 있다. 그의 목적은 보다 강력한 오컬트 파워를 얻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야망을 도모하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런 힘을 얻기 위해 그는 육체적 욕망에 관한 한 매우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놓밀한 아스트랄 입자들을 깊겨 죽이는 것이다. 마치 대백색형제단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비록 그가 마음속에 비교적 덜 물질적인 욕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에너지의 중심은 완전히 자신의 인성 속에 자리잡혀 있다. 따라서 아스트랄 삶이 끝나고 분리될 시간이 왔을 때 자아는 자신이 투자한 것을 한 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결국 그 사람의 경우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가 훨씬 더 오래 동안 인성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자아가 그(인성)의 경험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그 인성의 운명은 각양 각색이다. 비교적 얇은 그의 아스트랄 껍질은 아스트랄계 상에 무한정 그를 붙들어 둘 만큼 강한 힘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코스인 천계와 완전히

단절된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고급한 상념들을 발현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응보로 천계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가 한 노력이라고는 자연적 진화에 맞서고, 자신을 전체와 분리시키고, 그것에 대항해 싸운 것뿐이다. 인성에 관한 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인성)은 태양계의 빛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다. 남겨진 것이라고는 우주 속에 홀로 있다는 절대 고립감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 상실된 인성은 사실상 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자아와 운명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아의 경우에 그러한 경험은 오직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비록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고립기가 끝나면 그는 환생하여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성은 그 끝에 가면 분해되어 버린다. 이는 자신을 근원과 단절시킨 자가 맞이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기한 경우들이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고, 고의적이며 장기간 지속되는 악행이 아닌 한 결코 위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나는 베산트 여사로부터 또 다른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가능성성이 없는 일로, 나는 그런 실례를 본 적이 결코 없다. 그것은 ④가 ⑤를 흡수하여 자신을 위해 세워진 ③에 대항,

그걸 박살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중증의 분리성, 이기성의 질병이 ②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② 역시 괴물 같은 악의 성장에 흡수될 것이고 멘탈계의 제1, 제2 부분계에 있는 계발되지 않은 자아로부터 찢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성뿐만 아니라 그 코잘체까지 경화되어 상실케 될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혼의 상실에 대한 네 번째 유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그것은 팔 ④의 절단(3의 경우)이 아니라 몸② 전체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자아는 인간 종족으로는 환생할 수 없다. 비록 자아라 할지라도 동물 생명의 심연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체인기 전체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멘탈계의 제1, 제2부분계에 있는 자아의 계발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모나드의 매체로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진보가 더딘 수많은 자아들은 보다 고급한 진화의 긴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제5 라운드의 중간에 탈락하여 다음 파동의 물마루를 타고 갈 것임을 알고 있다. 지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심각한 위험과 비애와 상실을 담보로 하여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흑마술에 손대는 어리석은 자들 역시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자신에게 짐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혼’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명칭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신성이라는 불의 한 불꽃이고, 따라서 어떤 상황 아래서도 결코 잃어버리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고스의 의지는 인간이 진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지몽매하여 한 동안 그에게 저항한다 할 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그를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인내심을 갖고 내일을 기다려 줄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결국 그의 의지는 성취되고야 말 것이다.

역주

주4) 아비치(avichi)

생명의 파동, 운동이 없는 상태로 악을 소진시키는 장소(정확히 말하면 상태)이다.

주5) 제8 스피어(Eighth Sphere)

여기서 ‘스피어’는 천체, 혹성, 권역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제8 스피어는 ‘죽음의 혹성(Planet of Death)’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의 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락한 자가 가게 되는 정죄의 장소라는 점에서 아비치처럼 ‘상태’가 아닌 일정한 ‘장소’인 것만은 확실하다. 우리 존재계는 흔히 일곱 권역 또는 차원으로 나뉜다. 본문의 설명에서처럼 제8 스피어는 이 일곱 권역의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제8 스피어라 불리는 것이다.

이것은 껍데기들의 세계, 그림자들의 세계로, 카발라 식으로 말하면 암흑 나무의 세계, 클리포트의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지학 대의 44. 의식의 초점

의식의 초점

인간의 의식은 한번에 하나의 매체(영체)에만 초점 맞출 수 있다. 물론 여러 매체(영체)들을 통해 동시에 의식할 수 있지만 그때 초점은 흐려지게 된다. 당신 얼굴 앞에 손가락을 하나 들어올려 보라. 눈의 초점을 맞춰 그 손가락을 보라. 그러면 그것은 완벽하게 보일 것이다. 이때 그와 동시에 손가락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벽과 가구들 또한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확히 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눈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벽과 가구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눈의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때도 손가락은 계속 보인다. 그러나 흐릿하게 밖에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손가락이 눈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위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랄 의식과 멘탈 의식을 갖춘 사람이 평소 생활 속에서 물질 의식에 초점 맞추어 있을 경우 타인의 육체와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육체는 명확히 볼 수 있지만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는 다소 흐릿하게

밖에 볼 수 없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초점을 변화시켜 상대의 아스트랄체를 또렷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육체와 멘탈체는 흐릿하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멘탈 시력과 기타 고급계의 시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아스트랄계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물질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 수 있고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아스트랄계 상의 존재가 듣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다. 어떤 사건으로 누군가 질러 댄 물리적인 소리는 아스트랄계에 분명한 효과를 만든다.

물론 그것을 효과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어떤 소리에 강한 느낌 또는 감정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아스트랄계 상에 강한 효과를 만들며 정확히 같은 느낌을 거기에 전달 한다. 어떤 사건이 터져 사람들이 고통이나 공포를 느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의 격발은 아스트랄계 상에 큰 불처럼 활활 타오른다. 따라서 근처에 있던 아스트랄 존재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안 보이는 조력자 (Invisible Helpers)>에 바로 이런 케이스가 소개되어 있다. 시릴이 절벽에서 떨어진 한 소년을 구조가 올 때 까지 보살피고 위로해 준 이야기가 그것이다.(주6)

역주

주6)

<안보이는 조력자>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안보이는 조력자들의 활동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므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신는다.

A(역자가 요약의 편의상 붙인 이름)와 시릴은 고대 이집트에서 서로 매우 다정한 형제 사이였지만 현재 화신에서는 많은 연령 차이로 태어났다. A는 중년을 넘어 섰고 시릴은 아직 어린 아이였다. 그들은 모두 완전한 아스트랄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아스트랄체로 타인을 돋는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함께 한 분의 마스터 아래서 일하였다.

어느 이른 아침 그들은 봉사 활동을 위해 어떤 곳으로 가고 있었다. 물론 아스트랄체로.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통과 경악의 비명 소리가 들려 왔다. 그들은 한 순간에 그 장소로 가서 살펴보았다. 10살이 조금 넘은 한 소년이 절벽에서 떨어져 있었다. 중상이었다.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출혈이 심했다. 응급 처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A는 시릴을 물현(육체화)시켰다. 시릴은 그 때까지는 물현하는 법을 몰랐다. 시릴은 즉시 반쯤 의식을 잊

은 소년의 다리를 묶는 등 응급 조치를하여 지혈시켰다.

A는 시릴로 하여금 그를 돌보게 하고는 그 소년의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A는 그녀의 마음 속에 아들한테 뭔가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었고 마침내 아이를 찾아나서게끔 하는데 성공했다. 그녀가 일단 집을 나서자 A는 그녀를 사고 장소로 유도하여 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A는 계속 의지로 자신을 시릴과 연결하였다.

만일 한 순간이라도 시릴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소년의 눈 앞에서 천사(시릴)가 홀연히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어머니가 언덕 있는 곳에 도착하자 시릴의 육체를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시릴을 본 터였다.

그날 마을에는 천사 이야기가 큰 화제로 떠올랐다. 그날 밤 A가 다시 그곳을 찾아 갔을 때 소년은 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다른 두 명의 이웃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들 말하고 있었다.

뭔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아이를 찾으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다른 데 헤매지 않고 곧장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바위에 기댄 채 아이가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 매우 아름다운 천사가 앉아 아들을 돌봐 주고 있었다는 것, 그 어린 천사는 새하얀 옷을 입었고 장미빛 뺨에 사랑스런 다갈색의 눈이었다는 것, 그 천사는 성스러운 표

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보냈으나 다음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등.

또 그녀는 아들이 말한 내용도 이웃 사람들에게 되풀이하여 말해 주었다. 자기(소년)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귀여운 아기 천사가 내려온 일.(소년은 시릴을 천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인적이 전혀 없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천사한테 어째서 날개가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었다.) 바위에 자기를 기대게 해주고 다리를 묶어주며 ‘겁내지마. 누가 엄마를 부르러 갔으니 금방 올거야.’라고 위로해주며 입맞춰 준 일, 보드랍고 따뜻한 작은 손으로 자기 손을 꼭 쥐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 덕에 엄마가 올 때까지 부상당한 것도 거의 잊을 정도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곧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 미소를 짓고 손을 굳게 쥐어준 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것 등이었다.

그 날 이후 그 마을에는 신앙이 부활하였다. 목사는 이 사건이야 말로 기독교의 진리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도 그 사건 후 그 소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 그 아이는 덤벙대는 말썽꾸러기였지만 지금은 자기의 천사가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도 안되고 화를 내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언젠가 다시 그 천사와 만나는 것이고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 천사가 자기를 맞으려 올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신지학 대의 45. 힘 센타 1

힘 센타 1

우리 매체(영체)들 각각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 (바퀴라는 의미)라 부르는 특별한 힘 센타(주7)들이 있다. 이 센타들은 하나의 매체로부터 또 다른 매체로 힘이 흐르는 연결 초점이다.

우리는 이 센타들을 에텔체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에텔체의 표면에 접시 같은 함몰 부분 또는 소용돌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들은 종종 일정한 육체 기관에 대응하는 것으로 말해지곤 한다. 그러나 에텔 힘 센타는 육체 내부가 아니라 에텔체의 표면, 즉 피부로부터 1/4인치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컬트 능력 계발에 주로 사용되는 센타는 7개이다. 그것들이 위치한 육체 대응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척추의 기저부 ②배꼽 ③췌장 ④심장 ⑤목 ⑥양미간 ⑦정수리

몸 안에는 이 밖에도 다른 힘 센타들이 있다. 그러나 백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언급한 소위 저급 센타라는 다른 세 개의 힘 센타들에 대해 상기하라. 어떤 학파에서는 이 저급 센타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들과 관련하여 너무도 심각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센타들을 일깨우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상기한 일곱 센타들은 종종 일곱 색깔, 일곱 음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힌두 서적들에는 일정한 알파벳 문자, 일정한 생명력의 형태들을 그것과 결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예술적으로 연꽃 형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 연꽃들 하나 하나에 일정한 수의 꽃잎들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에텔 질료의 소용돌이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열려진 입구들 안으로, 선회하는 원반의 면과 직각 방향으로 아스트랄계로부터 로고스의 힘들 중의 하나인 이른바 원초적 힘이 분출해 들어온다.

그 힘은 본질상 칠중(七重)이다. 그리고 그 칠중의 힘은 모든 센타들 속에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중 하나만이 각각의 센타 속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힘의 유입을 통해 육체는 신성한 생명을 공급받는다. 따라서 그것 없이는 육체가 생존할 수 없

다. 사실상 원초적인 힘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이 센타들은 육체의 존재에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 안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입자들이 비교적 느린 선회 운동을 하여 간신히 원초적 힘에 필요한 소용돌이만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살아 있는 빛으로 맥동치며 빛을 발하며 엄청난 힘을 통과시킨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그 자아가 활동하는데 다양한 별도의 능력과 잠재력을 열어 주게 된다. 외부로부터 센타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원초적 힘은 그 센타의 표면에 파상적인 회전운동을 하는 이차적인 힘을 만든다.

이는 마치 유도 코일 속에 넣어진 막대 자석이 코일 주위에 수평으로 흐르는 전자파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온 원초적 힘 자체는 에텔 센타의 표면에 직선들을 그리며 방사된다.(주8) 이 경우 소용돌이의 중심은 바퀴의 축, 직선으로 방사된 원초적 힘은 바큇살과 같다. 이 바큇살의 수는 각각의 힘 센타들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연꽃으로 표현될 때 꽃잎의 수가 된다.

접시(센타)의 주위를 도는 이차적 힘들은 각기 나름의 파장(진폭)을 갖고 있다. 이것은 특정한 색깔의 빛이 독특한 파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빛처럼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큰 폭으로 파동치며(여러 사이즈가 있다) 운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에는 극미한 파장들이 무수히 들어 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비율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그 파동의 수는 바큇살의 수와 같다. 따라서 이차적 힘은 직선으로 방사된 원초적 힘(즉 바큇살들)에 대해 위, 아래로 움직이며 마치 바구니 짜듯 운동한다. 그 힘들이 소용돌이치며 돌 때 파동들은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 낸다. 힌두의 서적들에는 꽃잎처럼 묘사했지만 그 보다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파형의 유리 접시를 더 닮았다.(주9)

이 파동(또는 꽃잎)들은 마치 진주처럼 아른거리는 무지개 효과를 낸다. 하지만 각각은 자기만의 주요 색깔을 띠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센타들은 육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활동하고 있으며 그 색깔 또한 다소 흐릿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센타들이 각성되어 완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칼라들은 눈부실 정도의 광채를 발한다. 뿐만 아니라 센타들 자체도 대략 직경 2인치의 상태에서 차차 접시 크기만큼 커지며 소형 태양처럼 광휘를 발한다.

척주의 기저부에 있는 첫 번째 센타는 4개의 살을 방사하는 원초적인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 파동은 원(센타)이 4등분된 것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처럼 보인

다. 이 때문에 십자가는 종종 이 센타를 상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때로 불타는 십자가는 미저골에 거하고 있는 ‘뱀의 불(쿤달리니)’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완벽히 각성되어 활동할 때 이 센타는 붉은 오렌지색을 띤다. 그 색깔은 비장 센타로부터 이곳으로 송출되어 내려오는 생명력의 타입과 매우 비슷하다. 사실상 각 센타들의 색깔은 비장 센타로부터 그곳(각 센타)으로 송출돼 오는 생명력의 색깔과 유사한 상응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배꼽 또는 태양신경총에 있는 두 번째 센타는 원초적 힘이 10개의 방사선으로 나뉘어 수용된다. 따라서 그것은 10개의 파동(또는 꽃잎)으로 분리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진동한다. 이 센타는 다양한 종류의 느낌, 감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 주요 색깔은 붉은 색 계열의 다양한 색깔들이 이상하게 혼합된 것으로 그 속에는 다량의 녹색 또한 포함되어 있다.

비장에 있는 세 번째 센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생명력(프라나)을 세분하여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명력은 여기서 6개의 직사광선으로 분출되어 나가며 일곱 번째 것은 바퀴의 축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따라서 이 센타는 6개의 파동(꽃잎)을 가지며 다른 것들에 비해 특히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빛을 강하게 발한다.
(주10)

가슴에 있는 네 번째 센타는 빛나는 황금색이다. 4개의 방사선이 각각 세 부분으로 나뉘어 총 12개의 파동이 된다. 따라서 원초적 힘은 12개의 살(파동)을 만든다.

목에 있는 다섯 번째 센타는 16개의 살을 갖고 있고, 따라서 16 개의 명확한 구분이 생긴다. 이 센타에는 청색이 많이 들어 있지 만 전체적으로는 은색으로 빛난다. 흡사 물결 위에 비친 달빛을 연상시킨다.

미간에 있는 여섯 번째 센타의 외양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한 부분은 주로 장미색을 띤다. 여기에는 노란색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부분은 주로 청자색을 띤다. 힌두 서적들에서 이 센타가 두 개의 꽃잎으로 묘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두 부분의 파동을 세어 보면 각각 48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센타의 원초적 힘이 방사선 숫자인, 총 96개의 파동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센타는 정수리에 있다. 이 센타가 각성되어 완전히 활동하게 되면 모든 센타들 중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한다. 그때 이 센타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색채 효과를 내면서 상상

을 초월한 속도로 진동한다.

그것은 힌두 서적들에서 천 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으로 묘사되는 데 실제로 그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센타의 원초적 힘의 방사선 수는 960개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 센타는 여타 센타와 다른 또 한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중심 부분에 일종의 부속 소용돌이가 있는 것이다. 그 부속 소용돌이는 황금색을 띤 백광으로 빛나며 독자적으로 12개의 파동을 가져 부수적인 활동을 한다.

나는 힘 센타의 꽃잎들이 하나의 도덕적 성질을 상징하며 그 속성을 계발함으로써 그 중심이 활동하게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것을 확신시켜 줄 만한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정확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나로선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센타의 모습은 아주 분명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힘들(즉 원초적 힘과 이차적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느 한 센타의 꽃잎들은 그 힘들이 각성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활동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그것들의 발달은 도덕성과는 무관한 것 같다. 나는 이 센타들 중 일부가 완전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도덕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룬 자들은 아니었다. 한편 매우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자들도 모든 센타들이 아직 완전히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건대 센타의 각성과 도덕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주

주7) 힘 센타

리드비터의 저서 <차크라>에 나오는 인체의 일곱 힘 센타 삽화

주8-10) 차크라

위 그림은 리드비터의 저서 <차크라>에 나오는 일곱 차크라의 개별 삽화이다.

리드비터는 전통적인 힌두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도표에 나온 순서대로 대응시키면 아래와 같다.

물라다라 차크라.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마니퓨라 차크라
아나하타 차크라. 비슈나 차크라. 아즈나 차크라

사하스라라 차크라

신지학 대의 46. 힘 센타 2

힘 센타 2

이 힘 센타들은 육체의 활력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그 기능은 센타들이 각성되어야만 완전히 활동하게 된다. 상기한 에텔 센타들은 각각 아스트랄 센타와 대응하고 있다. 물론 아스트랄 센타는 에텔 센타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에텔 센타는 항상 에텔체의 표면에 존재하지만 아스트랄 센타는 거의 아스트랄체 내부에 존재한다.

하나의 에텔 센타가 완전히 각성되면, 그것은 상응하는 아스트랄 센타의 속성을 물질 의식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에텔 센타가 활동할 때 발생하는 효과들을 말하기 전에 아스트랄 센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 아스

트랄 센타들은 우리 현 인종의 모든 문화인들의 아스트랄체 속에서 이미 완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센타들이 깨어날 때 아스트랄체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척추의 기저부에 있는 첫 번째 센타는 ‘뱀의 불’-<침묵의 소리>에서는 ‘세계의 어머니’로 불린다—이라는 신비한 힘의 거처이다. 이 힘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잠깐 그것이 아스트랄 센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힘은 모든 계(界)들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힘의 활동에 의해 나머지 센타들이 깨어나게 된다. 우리는 애초에 아스트랄체가 거의 비활동적인 덩어리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식도 거의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명한 힘도 없고 주변 세계에 대해 명확히 알지도 못한다. (즉 원초 상태의 관점으로 돌아가 살피는 것이다)

그 때 아스트랄 차원에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뱀의 불’의 힘이 각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깨어난 힘은 배꼽에 상응하는 두 번째 센타로 이동하여 그것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면 아스트랄체 속에 모든 종류의 영향에 대한 감수성, 즉 느낌의 힘을 일깨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거나 들어서 얻게 되는 명확한 인식 능력은 없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육체의 비장에 상응하는 세 번째 센타로 이동한다.

그러면 아스트랄체 전체가 활력을 얻게 되고 아스트랄계를 자유

로이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나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상대에 대해 아직은 희미한 관념밖에 갖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센타가 깨어났을 때 그는 다른 아스트랄 존재들의 진동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다. 따라서 즉각 그들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목에 상응하는 다섯 번째 센타가 각성되면 그는 아스트랄계 상의 청력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질계에서 청각이라고 부르는 효과가 아스트랄 의식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미간에 상응하는 여섯 번째 센타의 발전은 위와 비슷하게 아스트랄 시각을 얻게 한다. 즉 아스트랄 대상물들에 대해 모호하게 그 존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분명한 형태와 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정수리에 상응하는 일곱 번째 센타의 각성으로 그의 아스트랄 생활이 완전해지고 완벽한 아스트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일곱 번째 센타와 관련하여, 우리가 속한 유형에 따라 한 가지 특별한 차이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센타에 상응하는 아스트랄 소용돌이들은 뇌하수체에서 모인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뇌하수체는 사실상 물질계와 고급계 들 사이의 유일한 직접적 연결 고리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 그들은 여섯 번째 센타는 뇌하수체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센타의 소용돌이가 송파선이라 불리는 퇴화된 기관에 합치될 때까지 일곱 번째 센타를

굽힌다. 이렇게하여 이 유형의 사람들의 송파선이 활성화 될 경우, 그것은 어렵지 않게 중간에 있는 아스트랄계를 통해 직접 고급계와 통신할 수 있는 연결선이 된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그녀의 책에서 송파선의 각성을 그렇게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상기한 방식으로 이 센타들은 어느 정도 아스트랄체의 감각 기관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없다면 감각 기관이라는 표현은 분명 오해의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해의 편의상 아스트랄 시력, 아스트랄 청력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지만 그 표현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물질계 상의 시력이나 청력으로 얻게 되는 정보에 상응하는 특성의 아스트랄 정보가 의식에 전달될 때 아스트랄체로 그 진동들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어떤 분화된 아스트랄 기관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랄체의 모든 부분의 질료는 시청각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스트랄체로 활동할 때 우리는 상하 사방에 있는 대상들을 머리를 돌리지 않아도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다. 아스트랄계의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은 아스트랄 눈이나 귀를 통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스트랄 센타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스트랄 감각의 능력은 그 센터들의 활성화 정도에 달려 있다. 즉 그 각각의 센타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진동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아스트랄체 전

체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아스트랄체의 입자들은 마치 끓는 물의 입자들처럼 끊임없이 유동하며 빙빙 돌기 때문에 차례로 각 센타들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각 센타는 다시 모든 입자를 안에 특정 유형의 진동에 대한 감수 능력을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모든 아스트랄 감각들은 아스트랄체의 모든 부분 안에서 똑같이 작용한다. 그러나 이 아스트랄 감각들이 완전히 각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그것들의 활동에 대해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이 모든 아스트랄 각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물질계 상에 있는 인간의 의식은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육체가 아스트랄 센타의 각성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스트랄 센타의 각성 방법과 동일한 과정이 에텔 센타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뱀의 불’의 각성을 통해서인 것이다.

물질계에서 이 ‘뱀의 불’은 에텔 질료의 옷을 입고 척추의 기저부에 상응하는 에텔 센타에 잠자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단호하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첫 번째 센타가 완전히 활성화되면 즉시 ‘뱀의 불’이 깨어나게 된다. 일단 그것이 각성되면 다른 에텔 센타들은 그 놀라운 힘에 의해 차례로 활성화되게 된다. 이때 그 효과로 아스트랄 센타의 각성을 통해 생겨난 힘들이 육체 의식에 현현하게 된다. 즉, 특정한 에텔 센타가 깨어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아스트

랄 센타의 힘이 물질 의식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배꼽 에텔 센타가 활성화된 사람은 육체 속에서 모든 종류의 아스트랄 영향들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것들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희미하게 느끼게 되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어떤 곳(장소)은 불쾌하게 느껴지게 된다.

세 번째 비장 에텔 센타가 각성되면 그는 자신의 아스트랄 여행을 희미하게 (때로는 극히 단편적인 것들만)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타가 우연히 조금 자극 받으면 그 효과로 종종 공중을 날아다니는 행복한 느낌을 어렵잖이 기억하게 된다.

네 번째 심장 에텔 센타가 각성되면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육감으로 알아차리게 된다. 때로는 상대방의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느끼기도 한다. 다섯 번째 목 센타가 활성화되면 많은 암시적인 소리들을 듣게 된다. 음악소리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유쾌하지 못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 센타가 완전히 활동하면 에텔계와 아스트랄계에 대해 투청 능력을 갖게 된다.

여섯 번째 미간 센타가 활성화되면 어떤 장소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영을 보게 된다. 각성의 초기 단계에는 희미한 풍경이나 색깔의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단계에 이르면 투시 능력이 생기게 된다.

미간 센타는 다른 형태의 투시와도 관련되어 있다. 극미한 물질을 확대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그것을 위해 미간 센타로부터 에텔 질료로 이루어진 작고 유연한 튜브가 투사된다. 그 튜브는, 끝에 하나의 눈이 달린 현미경 뱀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상기한 형태의 투시에 사용되는 특별한 기관이다. 그 끝에 있는 눈은 확대, 축소가 가능하여 조사 대상의 크기에 따라 배율을 조절할 수 있다.

고대의 책들 속에는 의지로 자신을 아주 거대하게 또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를 조사하고자 하면 그 기관을 원자 크기에 맞춰 조절하면 된다. 미간 에텔 센타로부터 투사된 이 작은 뱀은 이집트 파라오의 머리 장식 위에 상징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이집트의 최고위 사제는 그런 오컬트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곱 번째 에텔 센타가 각성되어지면 그 센타를 통해 완전한 의

식을 지닌 채 아스트랄계로의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런 사람의 의식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뱀의 불’이 일정한 순서-그 순서는 사람의 타입마다 다르다-대로 이 모든 에텔 센타들을 통과하면 수면 중의 일시적 분리(육체와 아스트랄 체 사이의)와 죽음을 통한 영구적 분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사람의 의식은 아스트랄계의 삶이 끝나 천계로 들어가기 직전 까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에텔 센타가 완전히 각성되기 전에도 우리는 종종 아스트랄계를 힐끗 들여다볼 수 있다. 특별히 강한 진동이 한두 개의 센타들을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면 ‘뱀의 불’이 전혀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간적으로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뱀의 불’이 부분적으로 각성되어 있을 때도 일시적인 투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이 불은 힘의 일곱 층(또는 단계) 안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을 일깨웠다 해도 단지 하나의 층에서만 성공한 것이다. 그때, 그는 일을 끝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몇 번이고 다시 반복 해야 한다. 깊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불의 표면뿐만 아니라 심장 깊숙히 자극되어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말이다.

신지학 대의 47. 뱀의 불 1

뱀의 불 1

주지하다시피, 쿤달리니라 불리는 이 ‘뱀의 불’은 물질계에 현현한 로고스의 힘들 중 하나이다. 열과 빛과 운동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기 또한 그중 하나이다. 또 다른 로고스의 힘은 생명력이다. 이것은 종종 프라나라고도 불린다. 물질계에 현현한 이 세 가지 힘은 로고스로부터 흐르는 세 줄기 강물과 같아서 상호간에 변환시킬 수 없다. 프라나와 같이 뱀의 불도 모든 계(界)에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에텔 질료 안에 표현되어 있는 힘이다. 따라서 그것은 에텔 전기나 에텔 프라나로 변환시킬 수 없으며 이들에 의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람의 몸 속에 125만 볼트의 전기가 주입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가 벽을 향해 팔을 뻗자 엄청난 불꽃이 그의 손가락으로부터 방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화상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힘의 과시도 ‘뱀의 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

<침묵의 소리>에서 이 힘은 ‘불의 힘’ ‘세계의 어머니’라 불린다.

그것이 이렇게 이상한 이름들로 불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힘이 몸을 관통하여 흐를 때 그것은 사실상 액체 불과 같다. 그리고 그 통로는 또아리 튼 뱀과 같이 나선형을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유는 그 힘을 통해 우리의 여러 매체(영체)들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고급계들이 우리 앞에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육체에서 그 힘의 거주처는 척추의 기저부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힘은 각성되지 않은 채 그곳에 누워 있다. 심지어는 평생 동안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한 도덕적 발전을 이루고, 강한 의지로 그걸 통제할 수 있고 상념이 순수하여 아무 탈없이 그 각성을 맞이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수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상 훨씬 더 낫다. 그 힘에 대해 정통한 스승으로부터의 확실한 가르침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위험은 매우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 위험 중 하나는 순전히 육체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힘이 움직이게 되면 종종 심한 육체적 통증을 일으킨다. 쉽게 조직이 찢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육체 이외에 다른 상위의 매체들까지 영구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 힘이 때 이르게 각성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해악은, 그것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강하여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욕망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자극은 사람이 그것에 저항하는 게 전혀 불가능할 만큼 강렬한 것이다. 마치 수영을 하다 상어를 만난 것처럼 그 힘의 작용 앞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장악되기 때문에 색정광이나 극악 무도한 자가 된다. 그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들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교통해서는 안 되는 낮은 진화 단계의 존재와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그런 끔찍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생 이상의 윤회가 요구된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풍설로 생각하고 행여나 그런 일을 할까봐 일부러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이미 그런 끔찍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과의 카운셀링을 통해 눈으로 직접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아 왔다. 세상에는 이 힘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흑마술 학파가 있다. 그들은 앞서 블라바츠키 여사가 말한 그 저급 센타들을 활성화시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신성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 센타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악의 위험은 아닐지라도 ‘뱀의 불’이 때

이르게 계발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다른 많은 해악적 요소들이 숨어 있다. 그 힘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강화시킨다. 그것도 좋은 측면보다는 저급하고 악한 성질에 보다 쉽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야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멘탈체 내에서 매우 쉽게 각성되고 곧 비정상적일 만큼 부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지성의 힘을 크게 강화시킬지는 모르지만 아울러 상상을 초월한 악마적 자만심을 불러오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저항할 수 없는 초상적인 어떤 힘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짓이 아니다. 분명, 어떤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 힘을 일깨우려고 시도할 리는 없다. 따라서 만일 우연히 그 힘이 깨어나면 그 즉시 그런 문제들에 정통한 사람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

나는 특히 이 힘을 각성시키는 방법이나 센타 통과 순서 등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삼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은 마스터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결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스터는 그의 제자가 다양한 단계의 각성 실험을 거치는 동안 그 과정을 주목 지켜봐 줄 수 있다.

매우 엄숙하게 경고하건대, 모든 학인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승이 없다면 이 엄청난 힘을 각성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말라. 나는 무지에 기인하거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보아 왔다. 그 힘은 놀라운 실재

이며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가지고 놀거나, 가볍게 조작해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확한 이해 없이 그걸 실험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이다.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 나오는 이 구절은 진정 옳은 말이다.

‘그것은 요기에게는 자유를 갖다 주지만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속박을 가져온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학인들은 종종 자연의 법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자신의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섭리가 중재하여 자신을 그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솔하게 폭발을 일으킨 당사자가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만일 학인들이, 오컬티즘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한 것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대법칙들의 작용에는 누구누구는 봐 준다는 식의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실험들을 해보길 원한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특별한 영능 계발이나 고도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마스터가 ‘당신은 준비되었소’라고 말할 때까지 끈기 있게 자신의 성격을 개선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학회를 위한 어떤 유용한 일에 바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성경의 이 말씀은 분명 진실이지 싶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의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 ‘뱀의 불’이 자연 발생적으로 깨어나 희미한 빛을 발하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도 있다. 그 힘이 저절로 움직일 때는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아직 그 통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힘은 사실상 엄청난 양의 에텔 찌꺼기들을 불태우면서 그 길을 청소한다. 이 과정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힘이 저절로 각성되거나 우연히 깨어나게 될 때 대개의 경우 나선형 코스(-오컬티스트들은 이 통로를 따라 그 힘을 인도하도록 훈련받는다)를 따르지 않고 척추 내부를 관통해 치밀어 올라

가려 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의지로 그것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대개의 경우 그렇다—에도 놀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아마 머리를 관통해 올라가서는 주변 대기 중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때 약간 힘이 빠지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해가 없다. 최악의 경우라도 일시적인 의식 상실이 있을 뿐이니 염려할 필요는 없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은 쿤달리니의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방향을 바꾸어 내려오거나 내부로 향하는 데 있다.

신지학 대의 48. 뱀의 불 2

뱀의 불 2

오컬트 능력의 발전과 관련한 쿤달리니의 주요 기능은, 앞서 설명한 대로, 에텔체 내의 힘 센타들을 활성화시켜 육체와 아스트랄체 사이의 연결문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있다.

<침묵의 소리>에는 ‘뱀의 불’이 미간 센타에 도달하여 그 센타를 완전히 활성화시키면 ‘스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써어 있다. 이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급 자아의 목소리’이다.

이 서술의 논거는 뇌하수체가 활동하는 단계가 되면 아스트랄체와 완전히 연결돼 그것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오는 모든 통신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모든 고급한 힘 센타들을 일깨워 다양한 아스트랄 부분계들로부터 오는 일체의 영향들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처음 칙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현생에서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인도인들은 그렇게 성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들의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천성적으로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뱀의 불’에 대한 정복은 각 화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러나 매체들이 매번 새롭길 해도 그것이 한번 성취된 후에는 되풀이 하기가 쉽다. 우리는, 그 힘이 활동할 때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고급 자아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급 자아를 보게 된다. 게다가 고급 자아와의 연결에도 많은 단계들이 있다. 인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아의 영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나드의 힘을 의미한다. 또 모나드에게 있어서 그것은 로고스의 의식적 표현을 의미하게 된다.

‘뱀의 불’과 관련하여 여기서 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25년 전 내가 인도에 체류한 초기만 해도 나는 그 불을 일깨우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영적으로 타고난 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최소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스터들 중의 한 분이 내게 그 힘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었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마스터는 나를 죽 지켜보았다. 만일 위험한 일이 발생되면 막아줄 수 있도록 말이다.(주11)

나는 인도의 사두들이 제자에게 그 힘을 일깨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그 과정 동안 제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본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자로부터 특별히 추천 받지 않는 한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그 힘의 각성법에 대해 내게 조언을 구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했던대로 하도록 충고해 준다. 즉, 신지학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일반적인 명상 행법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능 계발을 지도, 감독해 줄 마스터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이다.

우리는 그런 발전이 이생에서 이루어질지, 다음 생에서 이루어질지조차 신경써서는 안 되며 그 문제를 인성의 관점에서가 아닌 자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스터들은 항상 도움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누구도 미처 못보고 지나치는 경우는 결코 없고 적절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지도를 해준다는 사실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 힘을 계발하는데 어떤 나이 제한은 없다. 완벽한 건강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은 필수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건강한 육체만이 그에 따르는 긴장-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을 견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스트랄 센타와 에텔 센타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양 센타 사이에는 미묘하게 그것들을 관통할 수 있는 망이 존재한다. 이 망은 특별한 형태의 생명력이 상당량 압축된 단 한 층의 물질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적으로 아스트랄체로부터 육체로 내려오는 신성한 생명은 이 망을 매우 쉽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다른 힘들은 철저히 차단된다.

이 망은 아스트랄계와 물질계 사이의 통신이 때 이르게 열리는 것—이 경우 해악만이 초래된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이 부여한 보호 장치이다. 평상시 수면 중에 있었던 일을 분명히 회상해내지 못하거나, 죽을 때 순간적인 무의식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다 이 망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비로운 보호 장치 덕분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아스트랄 엔터티(존재)의 영향과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 존재들과 부딪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망이 없다면 그는 언제고 자신의 매체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아스트랄계의 어떤 존재에게 빙의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망이 손상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망이 손상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손상을 막는데 최

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것의 손상은 우연한 사건이나 나쁜 습관에 의해 일어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무시무시한 공포등과 같이 아스트랄체에 가해지는 어떤 큰 쇼크는 이 섬세한 조직을 찢어 놓는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실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포가 정신이상을 초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양태가 있다. 이것은 그 중 하나이다. 엄청난 분노의 폭발 또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그것에는 극도로 난폭한 감정이 수반돼 아스트랄체에 일종의 폭발을 일으킨다.

이 보호망의 점진적 손상을 초래하는 것은 다음 두 종류의 잘못된 행위이다.

첫째는 알코올 또는 마약의 상용이다. 그리고 둘째는 영능 계발을 한답시고 자연이 닫아 놓은 문을 억지로 열려는 노력이다.

마약, 알코올, 담배 등에는 체내에서 분해 증발되어 아스트랄체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차나 커피에도 이런 물질이 들어 있지만 극소량이기 때문에 대개 장기간의 남용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 영향이 나타난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힘 센타들을 통해 정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쇄도해 간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 성분들은 섬세한 망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결국에는 그것을 파괴시킨다.

이런 손상이나 파괴는 사람의 타입이나 에텔체, 아스트랄체의 성분 비율에 따라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일어난다. 첫째는 그 휘발성 물질이 사실상 망을 연소시킴으로써 온갖 종류의 무질서한 힘과 악영향들이 침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두 번째는 이 휘발성 성분이 체내에 흐르는 과정에서 원자에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그 진동이 큰 장애를 받아 불규칙적이 된다. 그러면 원자는 어떤 특별한 유형의 힘과 결합, 자극받아 망을 통과하는 일반적인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로 망에는 일종의 경화 현상이 일어나 하나의 계(界)에서 또 다른 계(界)로 극도의 편향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계로부터 오는 것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도 손상이 따르는 상기한 두 유형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손상된 사람은 정신착란, 빙의, 정신이상 등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은 두 번째 유형의 손상이다. 우리는 이 경우 대체로 일종의 인간성 둔감 현상을 보게 된다. 극단적인 물질주의, 야만성, 거친 감정, 자기 통제력의 상실 등의 결과가 그것이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제정신일 때는 부인과 자식들을 사랑할 지 모르지만 한 번 술을 마시게 되면 가족을 위해 뺑을 사야 할 돈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써버린다. 사랑이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두 번째 유형은 담배의 노예가 돼버린 자들에게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은 흡연이 옆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우리는 분명 그의 고급한 의식이 이미 심각하게 무뎌져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계(界)에서 다른 계로 통과하는 모든 인상들은 가장 높은 부분계(하부계)를 통해 온다. 그러나 이 둔화 과정이 시작되면 제1 부분계의 질료뿐만 아니라 곧 제2, 제3 부분계의 질료들에까지 전염되게 된다. 이 경우 아스트랄계와 에텔계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일한 통신은 저급 부분계(-여기에는 오직 불쾌하고 악한 영향들만이 존재한다)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난폭한 진동으로 응답을 강요할 때뿐이다.

비록 자연이 이 에тель 센타들을 지키는 예방책들을 마련해 두고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것들을 굳게 닫아두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열 수 있다. 여기서 ‘연다’는 말은 그 문(센타)들을 지금 상태보다 더 넓게 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인받은 채널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가

져올 수 있도록 자신을 계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한 듯하다.

일반 사람의 의식은 아직 육체 속에서든 아스트랄체 속에서든 제 1 부분계의 순수한 질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물질계와 아스트랄계 사이의 의식적 통신이 불가능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통신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육체와 아스트랄체를 그것들의 가장 순수한 질료가 완전히 활성화 될 때까지 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 사이의 모든 통신이 그 길을 따라 지날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망은 가장 양호하고 왕성한 활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더 이상 완벽한 통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급 부분계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본래의 목적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성품이 발전될 때까지 영능의 계발을 유보하는 이유이다. 이는 힘 센타들에 대한 공부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 자연스러운 진화야말로 진정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모든 이익을 얻고 모든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길이야말로 마스터들이 과거에 걸어온 길이며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다.

역주

주11)

리드비터는 마스터 쿠트 후미로부터 직접 쿤달리니를 각성시키는 특별한 행법을 가르침 받았다. 마스터는 자신의 직접적인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그 행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시켰다.

그 과정을 마치는 데,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할 경우 평균 40일이 걸리지만 리드비터의 경우는 42일이 걸렸다. 그리고 최후의 돌파과정을 마스터가 도와주었다. 리드비터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가 더 소요될 것이었지만 마스터가 당장 그를 어떤 일에 쓰길 원했기 때문에 개입한 것이었다.

그 이후 그는 육체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거나 상관 없이 아스트랄 의식과 기억을 계속 지니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그는 마스터 듀알컬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멘탈 시력 등의 보다 고차원적인 영능 계발 훈련을 받았다.

신지학 대의 49. 빙의와 정신이상

빙의와 정신이상

우리는 빙의와 정신이상을 분명히 구별해야만 한다. 정신이상은 자아와 그 매체(영체)들 사이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를, 빙의는 어떤 다른 엔터티(entity, 존재)에 의해 몸에서 자아가 내쫓긴 상태를 말한다. 오로지 ‘나약한 자아’만이 빙의로 희생된다.

‘나약한 자아’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자신의 영체들에 단단히 고착되지 않은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성인들보다 훨씬 쉽게 빙의되는데, 그 이유는 어린 시절에는 자아가 그의 영체들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들도 그 내부에 바람직하지 못한 엔터티들을 끌어 들여 쉽게 빙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어린아이의 경우 그 몸을 취하려고 하는 엔터티는 먼저 그 아이의 몸을 형성시키는 의무를 지고 있는 조형 엘리멘탈, 아스트랄 존재 또는 에텔 존재와 마주치게 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아이의 몸에서 이탈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7세 이후, 어린이 속에 있던 조형 엘리멘탈이 철수하였을 때 만일 자아가 매우 약한 상태라면 빙의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경우는 드물다.

빙의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종종 어떤 사자(死者)는 물질계와 접촉하기 위해 다시 오기를 강하게 열망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주 저급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는 그러한 강한 물질적 욕망으로 자신이 훔칠 수 있는 어떤 영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한편, 빙의는 때로 명백하게 의도된 복수의 행위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복수의 대상이 언제나 피빙의자인 것은 아니다. 내가 아는 사례 중에 한 사람은 고의로 자신의 원수가 귀여워하는 딸에게 빙의 하여 조종하려고 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이보다 더 부정적인 사례 또한 알고 있다.

때로 빙의한 엔터티가 꼭 인간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자연령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빙의가 되었다면 그 희생자는 반드시 단호하게 그것에 저항해야만 한다.

한편 정신이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이를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 두뇌의 모든 세포와 입자들은 그에 상응, 삼투하고 있는 아스트랄 질료를 갖고 있다. 이 아스트랄 질료의 배후에(아니, 그 안에)는 더욱 섬세한 멘탈 질료가 있다.

물론 뇌는 삼차원적인 덩어리이지만 설명의 편의상 그것이 하나의 입자만큼의 두께로 표면 위에 펴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에 속해 있는 아스트랄과 멘탈 질료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층을 이루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즉, 물질층 위에 아스트랄층이 아스트랄층 위에 멘탈층이 이루어 졌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밀도가 다른 질료가 각각 서로 대응을 이루며 세 개의 층을 이루게 된다.

이제는 각 물질 입자가 작은 튜브에 의해 각기 대응하는 아스트랄 입자와 연결되고 아스트랄 입자 또한 대응하는 멘탈 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멘탈 입자가 그와 대응하는 코잘체 속의 입자와 연결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모든 튜브들이 완전히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는 한, 자아와 두뇌 사이에는 통신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튜브 세트 중 어느 하나가 구부러지거나 막히거나 부분적으로 망가지게 되면 통신이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방해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신이상은 크게 4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될 수 있다.

1. 단순히 육체적 두뇌의 결함에 기인하여 정신이상이 된 경우
강한 외부적 충격을 받은 어떤 사건이나, 두뇌를 압박하는 종양,
뇌조직의 점진적인 연화(Softening) 등에 기인하여 두뇌에 결함
이 발생함으로써 정신이상이 초래된 경우이다.

2. 두뇌의 에텔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두뇌의 에텔체에 이상이 생겨 그 입자가 물질 두뇌 입자와 완벽
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고급체들로부터 오는 진동을 적절히 통과
시키지 못하여 정신이상이 초래된 경우이다.

3. 두뇌의 아스트랄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말하자면 두뇌의 튜브가 구부러져 그 입자들과 그에 상응하는 상
하의 매체 입자들 사이에 정확한 부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
우이다.

4. 멘탈체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교란되어 있는 경우

그 결과 자아의 가르침이나 소망의 전달이 불가능하여 정신이상
이 초래된다.

정신이상자가 이 네 가지 부류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매우 중
요한 차이를 낸다.

첫째와 둘째 타입에 속한 자는 수면 중에 육체를 떠날 때나 죽은

뒤에는 정상적인 의식을 갖는다. 자아는 오로지 깨어 있는 동안만 (또는 삶의 기간 동안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세 번째 탑입에 속한 자는 그가 천계(멘탈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복할 수 없으며 네 번째 탑입에 속한 자는 코잘체 속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부류에게 있어서는 화신(化身)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행히 정신이상의 90%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

신지학 대의 50. 빙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

빙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

질문 : 육체를 떠난 인간이 타인의 몸에 빙의할 경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대답 : 피빙의자는 그렇게 빙의되는 것을 단순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절해야만 한다. 가장 친절한 최선의 방법은 사자(死者)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다. 즉,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째서 이런 시도를 집요하게 하는지 그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십중팔구 그는 자신의 새로운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영혼일 것이다. 빙의를 통해 그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삶(물질계의 삶)에 다시 접촉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문제점들을 그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는 마음이 행복해져서 그의 잘못된 집착을 놓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 그 죽은 불쌍한 존재가 마음속에 뭔가(-다 이루지 못한 특별한 의무나 부당한 행위 등)을 간직 하고 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그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이성에 따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 모든 설득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이 천부권의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만일 몸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지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빙의도 일어날 수 없다.

빙의가 일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원인은 희생자 자신이 그러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빠지도록 스스로 굴복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가 취해야 할 첫 단계는 그러한 굴복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들을 자신이 직 접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결심하면서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

신에 대해 이렇게 확고한 마음으로 재무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지혜로운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누구도 희생자를 대신해 의지력을 행사해 줄 수 없는 것이다. 타인이 도와줄 때 제령의 방법은 당연히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 지게 된다.

질문 : 나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나쁜 생각을 주입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엔터티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해왔다. 그들은 항상 나로 하여금 폭음하게 하고 엄청난 양의 고기를 먹도록 충동질해댄다.

열심히 기도해 보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으며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답 : 당신은 정말로 그 동안 큰 고통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괴로움 받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 용기를 갖고 굳건히 서라.

이 엔터티들의 파워가 당신에게 행사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 할 때뿐이다. 당신의 의지는 그들 모두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다. 만일 당신이 용기를 갖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맞선다면 그들은 당신한테 항복할 것이 틀림없다. 당신은 당신의 신체를 사용할 천부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조용히 떠날 것을 주장하라. 혐오스러운 자들이 당신 집에 침입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엔터티들은 아스트랄계에 있는데 당신이 왜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가?

만일 한 게으른 부랑자가 어떤 사람의 집에 마구잡이로 들어간다면 집주인은 결코 무릎을 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분명 그 부랑자를 발로 차서 내쫓을 것이다. 당신도 이 아스트랄계의 부랑자들을 바로 그와 같이 취급해야만 한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조언을 할 때 당신은 분명 내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악마들의 끔찍한 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태도이다. 그들에게 귀기울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들은 남을 괴롭히기를 즐기는 비열한 악당들이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나약한 당신을 괴롭혀 왔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맞서 정당한 분노를 내는 순간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것이다.

물론 그들은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당신이 매우 오랫동안 그들

의 행위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철같은 결의로 그들과 맞서라.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쳐라.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신성한 불의 불꽃이다. 내 안에 있는 신의 힘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건대 어서 떠나라!’

결코 한 순간도 실패나 양보의 생각을 갖지 말라. 신이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신은 결코 실패를 모른다.

그들이 고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저급하고 거친 엔터티들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은 육식과 술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그런 악한 존재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며 당신이 그들과 저항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질문 : 만일 분노의 폭발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를 일시적으로 상실해 있는 동안 빙의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육체를 떠나 있을 때도 빙의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대답 : 양자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잡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이다. 수면시, 비록 자아가 몸을 떠나기는 하지만 항상 육체와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육체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 자아는 재빨리 그 속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가 쉽게 돌아올 수 없는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 그런 때에 일종의 일시적 빙의가 가능하며 몽유병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예는 비교적 드문 특별한 현상이다.

한편, 극단적인 분노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에 대한 위반 행위이다. 이 경우 그것은 통제를 벗어난 아스트랄적 현상이다. 즉, 욕망 엘리멘탈이 자기 주인을 배반한 것으로 멘탈체를 통하여 행사되는 자아의 지배권을 부수고 도망친 것이다.

법적인 소유권자가 없어진 아스트랄체는 키를 놓친 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 가까이 있는 존재가 그 키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그것을 다시 원래 대로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지학 대의 51. 잠 * 몽유병

잠

잠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상세한 생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에게 잠이 필요한 것은 그 매체들의 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항상 이해해 왔다. 아스트랄체는 내가 아는 한, 그 자신의 계(界)인 아스트랄계에서는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계에서 그것은 육체 두뇌의 입자들을 이동시키는 중노동을 해야 하고 이 지루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상당한 시간 동안 두뇌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 몸은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 소비의 속도는 몸 속으로 들어오는 생명력의 양보다 조금 더 빠르다. 이것이 육체가 지치게 되는 이유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 근육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미세한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육체 기관은 항상 이 변화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작용이 100%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모든

상념 또는 행동과 함께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손실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효과의 축적으로 육체는 더 이상의 사고 작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피로를 느끼게 된다. 어떤 경우 아주 잠시 동안의 수면만으로도 상실된 힘을 다시 회복하여 기계(몸)를 다시 가동시킬 수 있기도 하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질문하곤 한다. 물을 것도 없이 자연의 법칙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은 결코 좋을 것이 없다. 오늘날의 비자연적 생활이 초래한 심각한 해악 중 하나는 밤낮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만일 사람이 혼자서 살고, 자신의 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단번에 최상의 자연적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술한 왜곡과 부자연성으로 가득 찬 소위 거대 문명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수면 시기)에 대해 개인적인 기호를 따르기란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일반적인 관습에 맞추어야만 하겠다.

잠의 양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을 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전체를 필요로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그 보다 적은 양의 수면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이런 일상의 자세한

부분들은 각자 자신의 환경에 맞춰 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꿈을 콘트롤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물어온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진행되는 동안 대개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꿈을 상당한 정도 통제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상념이 높고 순수하다면 꿈 또한 순수하고 맑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막 잠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상념이 고상하고 맑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꿈의 성질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순수하지 못한 상념은 그 사람 주위에 불순한 영향을 끌어당기며 천하고 혐오스러운 엔터티들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된다. 일단 그렇게 이끌려 온 그들은 이번에는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아스트랄체에 영향을 미쳐 온갖 세속적 욕망을 일깨움으로써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혼란시킨다.

한편 고상하고 성스러운 것에 집중된 마음 상태로 잠 속에 들어가면 다른 이들의 고급한 상념에 의해 만들어진 엘리멘탈을 주위에 끌어오게 된다. 그 결과 그는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된 그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고급한 곳으로부터 오는 인상에는 열리고 저급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에 는 닫히게 된다.

평범한 일상사에 대한 꿈은 자아의 아스트랄 활동을 방해하지 못 한다. 왜냐하면 그 꿈은 모두 육체 두뇌 속에서 발생하고 있고 자아는 항상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스트랄체로 밖에 있으면서 물질 삶에 대한 일들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시간 동안은 당연히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과 두뇌의 단순한 일상적 꿈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물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양자를 구분하여 기억해 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다. 불순한 상념만 아니라면 두뇌가 무엇을 했는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꿈 중에서 정확히 어떤 것이 아스트랄계 상의 활동이었는지 알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몽유병

몽유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까지 몽유 현상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몽유병에 대한 자료들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대체로 몇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아가 멘탈체와 아스트랄체의 중개 없이 보다 직접적으로 육체에 작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수면 상태에서 평소 자신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그것이다. 다른 사례로는, 육체에 내재한 흐린 의식이 그 사람 자신의 통제 없이 작용하면서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잠자기 전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을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한밤중에 일어나 불을 키는 하인이나 잠자고 있는 말에 마구를 다는 여관의 말구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 케이스에 속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사례로, 어떤 외부의 영(육체를 갖고 있는 영이든 그렇지 않은 영이든 상관없이)이 잠자고 있는 사람의 몸을 장악하여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은 소위 ‘영매’라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영매의 섬세한 매체들이 평소보다 헐겁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용이한 분리가 가능하다.

이외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즉 매체들이 평소보다 더 꽉 밀착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때 그 사람이 아스트랄체로 어떤 근처 장소를 가고자 할 때 육체 또한 자연히 동반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아스트랄체와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또한, 동유병은 인간의 다양한 의식 층들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이러한 문제는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신지학 대의 52. 육체 * 담배와 술

육체

육체의 불사(不死)란 불가능하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생장소멸은 물질 우주의 법칙이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같은 육체를 계속 유지하길 원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 소년이 평생 동안 같은 옷을 입지 않는 것과 같다.

진화의 과정과 함께 인간의 영체들은 보다 순수하고 고결해진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증가해 가는 수용 능력에 맞추어 영체들은 조율된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동일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우리의 진화를 방해하게 된다. 이는 강철같이 딱딱하고 꽉 끼는 옷을 입은 아이가 그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육체를 주의 깊게 돌보고 힘써 가꾸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이다. 몸을 잘 돌보도록 하라. 마치 당신의 귀한 말을 돌보듯이. 육체에 충분한 휴식과 음식을 주고 청결하게 유

지하라. 육체는 오로지 일정한 양만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아주 강한 육체는 쉬지 않고 100마일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천 마일을 걸을 수는 없다.

명상 중에는 몸을 편한 자세로 두고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라. 몸이 편치 않다면 몸을 잊어버릴 수가 없으며 그것에 자꾸 신경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술과 육식을 피하는 한, 다른 것들은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야채들은 다른 것보다 조악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양파, 버섯, 양배추(역주) 등이 그런 것이다. 쌀은 매우 순수한 식품이다. 그러나 밀, 보리, 귀리 등은 동일한 양에 더 많은 영양을 함유하고 있다. 내 생각에 달걀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음식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먹을 수 있다.

채식이 육식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채식은 진정한 영양소를 보다 많이 공급해 주며 질병을 예방하고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저급한 본능을 자극하지도 않는다. 채식은 인간의 고급한 특성의 계발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마스터들은 육체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건강의 법칙과 항상 조화를 이루어 살며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닮으려고 애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무한정 보존하려는 노력은 좌도를 따르는 자들의 전형이다.

그런 자들이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들은 때로 흡혈을 통해 타인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며 어떤 때는 타인의 수명을 자신들에게 이전시키기도 한다. 그러한 길을 선택한 자들은 결코 진화의 노정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설령 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낚은 코드를 던대고 누빈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헌 웃은 헌 웃인 것이다.

담배와 술

흡연 습관이 육체와 아스트랄체, 멘탈체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흡연은 사람의 몸 속에 매우 불순한 입자들을 침투시키며 후각적으로도 자주 느낄 수 있는 물질을 내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스트랄적으로 흡연은 불순물을 생성시킬 뿐만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 담배가 신경을 가라앉힌다고 흔히 말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당연히 오컬트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의 바이브레이션이 약화되거나 아스트랄체가 불결한 독성의 입자들에 짓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모든 바이브레이션에 즉각 감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한 자기 통제로 그런 욕구가 천방지축 날뛰게 두지 말고 지성적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의지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순한 말처럼 훈련시켜야 한다. 이러한 훈련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급한 본성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체들을 발전시키길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두말할 것 없이 나쁜 것이다. 담배는 또한 물질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소위 신사라는 사람들조차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한다. 이 해로운 습관이 그들의 나약한 마음을 지배하는 힘은 너무도 강해서 그것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무섭고 광적인 이기성 속에서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것이다.

흡연 습관은 또한 사후(死後) 아스트랄체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습관에 젖었던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차단되어 고급 바이브레이션이 그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제멋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일부 학인들이 상기한 견해에 반대할 때 항상 들먹이는 것이 바로 신지학회의 위대한 창설자, 블라바츠키 여사도 흡연을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앞서 말한 것들이 변경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관찰한 후 확신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블라바츠키 여사는 모든 점에서 여느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경우는 특별히 따로 놓아야 한다. 우리도 그녀처럼 흉내내려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나는 종종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스승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나의 경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을 따라 하지 말고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라’

또한 그녀는 언젠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이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의 바이브레이션을 가라앉혀야만 한다. 내가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흡연이 물질계와 사후, 아스트랄계에서 미치는 영향들은 앞서 상술한 바와 같다. 하찮은 탐닉을 위해 그런 대가를 치룰 가치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술 또한 담배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랄체와 멘탈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음주는 또한 매우 저급한 엔터티들을 끌어들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때로 다른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어떤 매우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육식 등.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 하여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술, 담배, 고기 같은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결코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을 특정 종류의 약물에 익숙케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중독 되어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이 된다. 아편이나 헤로인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습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이다. 그 사람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습에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들이 해로

운지 이로운지,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조차 거의 관심이 없다.

어떤 이는 내게 주류의 판매 제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어 왔다. 모든 문명국가에서는 유독물의 시판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오로지 의사 면허장이 있는 자들에게만 공급이 허용되고 있다. 알코올의 유해성은 다른 유독물만큼이나 해롭다. 따라서 그것의 시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 못지 않게 엄격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통제 능력을 길러 나가야만 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규제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당신은 분명,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길모퉁이마다 마음을 혹하게 하는 값비싼 물건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유혹에 저항할 만큼 의지력을 길렀는지 몰래 지켜보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술의 소비에 대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승인된 물건을 길거리에 유혹하듯 전시해 놓고 이 독약을 상용케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면허장까지 부여하고 있다.

만일 인류의 의식이 고도로 진화하여 다른 나약한 형제들을 배려 할 정도가 된다면 그들을 백안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전을 기꺼이 돋는 자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병자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그들 자신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금해서까지)이 옳다고 느낀다면 알코올 중독 또한 동일선 상에서 보고 그 희생자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역주

양배추

원서에 cabbage라고 돼 있어서 번역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으로 양배추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역자 생 각에는 리드비터가 양상추(head lettuce, 통상추)를 양배추라고 한 게 아닐까 추측해 본다. 상추에는 졸음이 오게 하는 특별한 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후에 맑은 정신으로 명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6장 사후의 삶

신지학 대의 53. 신지학도의 사후(死後) * 사자(死者)와 이승과의 관계

신지학도의 사후

신지학회의 멤버가 사후에 육체와 영원히 이별하고 아스트랄계에 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시장조사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 위치는 어디이며 앞에 놓인 삶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그는 자기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실 우리 학회의 멤버들은 사후에 대부분 이렇게 항상 하고 있다.

사후에 아스트랄계에 들어간 멤버는 우선 자신이 거기에 처음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개 그는 이미 생전 육체의 수면 중 아스트랄계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 따라서 그 세계는 이미 그에게 익숙한 곳이다. 대개의 경우 멤버들은 사후에 본능적으로 바로 베산트 회장에게 간다. 아마도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진정 올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녀보다 나은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역주)

아스트랄계의 삶은 너무도 다양해서 어떤 일반적 률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확실한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잘 못될 리는 없다는 점이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수많은 배움의 기회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곳에 갓 들어온 사람은 그런 기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시간 안배가 가능할지 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아스트랄계는 신지학도들의 편의에 따라 변경되는 곳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마주쳐야만 한다. 물질계에서 우리는 길을 걷다가 언제든 술 취한 사람과 마주칠 수 있다. 신지학도라고 해서 그런 일을 피할 수는 없다.

이점에서 아스트랄계는 물질계와 다르지 않다. 아스트랄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에 대해 배운 바 있는 우리 멤버들은 우연히 마주치게 될 그런 불쾌한 존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일반인 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다.

사실상 일반인과 영능자 사이의 사후 상태에는 별 차이가 없다. 아스트랄계에 좀 더 익숙한 영능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영능을 가졌다는 것

은 물질계상의 의식을 보다 높은 존재계로 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능자와 일반인 사이의 차이는 바로 물질 때체(육체)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육체와 분리된 이상 그러한 차이는 더 이상 존재치 않게 되는 것이다.

사자(死者)와 이승과의 관계

사자는 그가 두고 온 가족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아스트랄체의 기능을 한다면 당신은 사자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자가 이승의 모든 사건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그의 친구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꼭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기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알고 있으며 그 밖의 사랑, 증오, 질투, 시기와 같은 감정들을 즉시 알아챈다.

아스트랄체에는 육체의 눈, 코, 입에 대한 정확한 대응부가 있다. 그러나 아스트랄 인간이 그의 눈, 코, 입을 통해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스트랄체의 모든 질료는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빠르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육체에 특정한 말초신경들이 분화되어 있듯이 그렇게 아스트랄 입자들이 분화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아스트랄체의 감각은 어떤 분화된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체(體)의 모든 입자들을 통해

작용한다. 그러므로 아스트랄 시각을 통해 사자는 앞면만이 아니라 주위 전체를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의 팔(아스트랄 대응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아스트랄 손이 서로 겹칠 때 어떤 촉감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손을 물질화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물현된 손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통의 손과 같은 감촉이 느껴진다. 이런 일은 교령회에서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아스트랄계에는 사자가 물질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거나 쫓아가는 것이 가능한 세 개의 부분계(하부계)가 있다. 물론 그런 행위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아스트랄계의 최하위 부분계에서 사자는 물질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본서에서 언급하듯, 불유쾌한 장소에 그런 존재가 출몰하는 경우가 예외적이지만 있다.

다음 부분계에서 사자는 물질계와 매우 밀접한 접촉을 가지며 이 승과 관련된 매우 많은 것들을 의식한다. 물론 그가 보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아스트랄 대응 부분이다.

다음의 두 상위 부분계를 통해 올라가면서도 그는 물질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그 이상의 부분계에서 물질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는 오로지 영매를 통해 통신하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며 최고급 부분계에서는 그나마 그것조차 매우 어렵게 된다.

아스트랄계에서 물질계의 사건을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는 그 사람의 영능의 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성격, 기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대개 자신의 본성적 목적관에 따라 삶을 살며 아스트랄 의식에 깨어나기 전에 이 모든 저급한 단계들을 일소해 버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뒤에 남기고 온 특정인에 대한 큰 염려 때문에 다시 이 지상과 접촉을 갖기도 한다.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저급 부분계의 질료를 많이 갖고 있고 그로 인해 훨씬 더 물질계에서 진행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특히 영적 열망이나 고급한 지성이 없이 오로지 물질계에 대한 상념으로만 꽉 찬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이 저급한 성향은 사용하면 할수록 커진다.

처음에는 지상의 일을 의식하지 않고 잘 지내던 사자도 차츰 그 곳에 관심을 갖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개 남겨진 사람들의 이기적인 슬픔의 표현 때문에 일어난다. 남겨진 자들이 지나치게 애곡함으로써 그는 이승과 접촉코자 하는 마음을 갖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우 지상을 내다보는 그의 능력은 한동안 증가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는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그 고통은 순전히 본인 스스로 변칙적 행위를 한 데 기인한 것이다. 사후의 정상적인 진화 체계 속에서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물질계를 시원히 보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라면, 지상의 우리 역시 물질계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인간은 물질계의 고체, 액체 부분만 볼 수 있으며 훨씬 더 광대한 기체와 에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자는 물질을 보지 못하며 물질의 아스트랄 부분계에 속한 아스트랄 대응 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육체를 갖고 살아 있는 동안 에텔 시력, 아스트랄 시력을 계발한 자뿐이다.

죽음의 문을 넘어선 이가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언제나 분명하게 물질체의 아스트랄 대응부를 인식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가 대상물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개 상당한 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행하려는 시도는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이기 쉽다. 이는 유령이 나오는 집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오고 물건이 약간 움직이는 등의 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사물에 대한 인식력은 대개 경험과 지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자가 생전에 해당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인식력

은 완전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내게 편지로 질문을 해 왔다. 그 내용은 사자도 극장에서 연극의 아스트랄 부분을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극장이 만원이라도 그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분명 만원 상태의 극장 또한 아스트랄 대응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자도 거기서 연극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극은 사자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처럼 배우의 복장이나 연기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단지 흉내 뿐인 배우의 감정은 아스트랄계에 어떤 인상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아스트랄체는 얼마든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중첩이 가능하다. 당신이 열차나 전차 속에서 어떤 사람의 곁에 앉을 때 당신의 아스트랄체와 그 사람의 아스트랄체는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 그런 투과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아스트랄 입자들은 물질 입자보다 매우 큰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스트랄 입자들은 그 진동율에 관한 한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기와 화로 가득 찬 불순한 상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아주 가까이 앉아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만원이 된 극장 안으로 사자는 매우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사람들이 바닥이나 계단까지 모두 앉아 있을 때에는 아마도 공중

을 여기 저기 떠다닐 것이다.

사자 중에서 자살을 한 사람은 배움을 다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도망쳐 나온 것과 같다. 그는 제멋대로 우주 법칙의 작용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한 죄를 범했다. 자연에 대한 그런 큰 불복종의 결과는 언제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행위는 분명히 다음 생 또는 그 이상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자살자가 처하게 되는 상태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죽은자의 그것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갑작스럽게 아스트랄계에 오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미처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은 무의식의 상태로 던져지며, 대개는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영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아스트랄계의 최저급 부분계를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자살자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많은 불쾌하고 끔찍한 상태를 고통스럽게 의식하게 된다.

그는 자기 스스로 초래한 모습과 감정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살자도 어떤 특별한 사람(신비가)으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 받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인내와 희망의 활력을 얻게 되기도 한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실수이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형체를 단죄할 수 없을 것이다.

자살은 사례마다 각각 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별적인 경우마다 적용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정의의 법칙 안에서 정당하게 판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후 아스트랄계의 삶의 상태를 고찰하는 데는 고려해야만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특정 아스트랄 부분계의 체류 시간과 그곳에서의 의식의 명료도가 그것이다. 사후 특정한 부분계에 머무는 시간은 그가 지상에서의 삶 동안 스스로 쌓아 놓은 해당 부분계의 질료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의식의 명료도는 언제나 그와 같은 법칙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보자.

전생으로부터 가장 저급한 부분계의 성향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다행히 현생에서 그런 성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가정하자. 물론 그의 노력이 단번에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급한 입자들이 고급한 입자들로 대체되는 현상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꾸준히 진전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절반도 이루지 못 한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경우 분명 그의 아스트랄체 내에는 최저급 부분계의 질료가

상당히 잔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는 아스트랄계의 해당계(최저급계)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이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아스트랄 질료의 차원에 상응하는 부분계에서 그 질료가 분해될 때까지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에서의 의식적 노력의 결과 저급한 습이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해 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그는 무의식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는 사실상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며 결국 많은 불쾌한 것들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서 어떤 부분계에 가고 그곳에서의 의식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사후 존재 상태는,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후 상태를 결정짓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횡사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바램. 서양의 오래 된 기도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스트랄계에서의 그의 위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는 못 하지만 적어도 그 상태를 더 진전시키지는 못 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령이나 어떤 만성병으로 인한 점진적인 죽음은 대체로 언제나 상당한 양의 아스트랄 입자의 의해 또는 분해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후 그가 아스트랄계에서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는 이미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과정의 일부가 지상에서 대신 행해진 후이다.

엄청난 정신적 공포나 혼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아스트랄계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데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 드물기는 해도 실제로 사후에까지 그러한 공포와 혼란이 지속되는 사례들도 알려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일반적 욕망은 단순히 미신만은 아니며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진실한 신비학도에게 있어서는 물질계에서 아스트랄계로의 이동이 빠르든 느리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가능한 많은 진보를 이루려고 노력해 왔고 어떠한 상태에 처하든 그의 진화를 향한 목적 의식은 항상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고로 인한 죽음은 아스트랄계의 저급계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비록 관점에 따라 그 체류 기간을 연장시킨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성적인 질병의 고통을 통해 저급계의 입자들을 태워 버릴 기회가 그에겐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경우 그들의 비교적 짧고 순수한 이승의 삶 동안 아스

트랄계의 저급한 성향을 키울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험상으로도 그들이 아스트랄계의 최저급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사고로 죽었건, 질병으로 죽었건 그들의 아스트랄계에서의 삶은 상대적으로 짧다. 그들의 천계에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천계에서의 삶이 아스트랄계에서의 삶보다 훨씬 길기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짧은 아스트랄계와 천계에서의 삶을 마친 뒤 우주법칙의 힘이 작용하는 순간 그들은 빠르게 재화신하게 된다.

보통 물질계에서 시신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는 이미 아스트랄계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경우일 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일상적인 삶을 넘어서면 어떤 끔찍한 흑마술 의식(儀式)이 존재하고 그 의식은 저승에 있는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체에 가해지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는 그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에 기인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후, 인간의 아스트랄계에서의 삶의 기간은 주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물질계에서의 삶의 질과 사후의 마음 자세가 그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 질료를 통해 끊임없이 아스트랄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욕망, 감정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그의 상념과 삶의 세부적 양태-절제 또는 방탕, 청결 또는 불결, 음식과 음료 등이 있다.

만일 잘못된 길로 빠져 그러한 삶이 지속된다면 그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저급계의 진동에 감응하는 거칠고 조악한 아스트랄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후, 아스트랄체가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저급계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고상하고 조심스런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신의 아스트랄체를 섬세한 질료로 만들어간 사람은 사후 불편과 고통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매우 빠른 진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스트랄계의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번째 큰 요인인 ‘사후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종종 망각하는 것 같다.

사후에 취해야 할 바람직한 마음 자세는 진화의 노정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자는 진정한 자아의 세계를 향해 내면으로 끊임없이 철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상념을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철수시키고 천계에서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문제들에 좀 더 주의를 집중시키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 아스트랄체의

분해는 더욱 촉진되고 저급계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지체하는 일 반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상념을 위로 돌리려고 하지 않고 반대로 두고 온 물질계와의 접촉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그들을 돋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차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지상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그들은 죽어서까지도 필사적으로 그것들에 매달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사자는 이승의 것들을 붙들고 있기가 점차 어려워짐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점진적 정화 또는 영화(靈化)의 과정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사적으로 그것에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힘은 그의 저항력에 비해 너무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흐름에 쓸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자들은 상향의 길의 매 단계마다 그것에 저항하며 싸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들을 많이 겪어야 할뿐만 아니라 진화 또한 매우 지체되게 된다.

우주적 의지에 반하는 이 무지하고 비참한 저항의 과정에서 사자는 이승에 대한 유일한 연결 통로인 자신의 시체에 매달리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시체는 그 자신을 진흙 속에 확고히 붙박아 두는 닻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완전히 부패할

때까지 말이다.

화장은 이런 문제로부터 사자를 구해 준다. 화장을 통해 육체가 소각되어 버리면 문자 그대로 그의 배가 불타 버린 것이 되고, 따라서 지상에 머무르려는 마음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시체를 매장하거나 미라로 만드는 행위는 사자로 하여금 이승에 머물고자 하는 본능적 유혹을 초래하며 만일 그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부추기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

진보된 자아는 자신의 시체가 화장되든, 매장되든 미라로 보존되든 상관없이 결코 아스트랄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의 아스트랄체는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빠른 분해 과정을 거친다. 화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 시신과의 부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시적 재결합에 대한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고 둘째는 흑마술의 목적으로 그 시체가 이용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주

애니 베산트

이 책이 출판될 당시에 신지학회 회장 애니 베산트는 살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학회 멤버들이 죽으면 애니 베산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항상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물질계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아스트랄계를 포함한 영계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의 사후까지도 책임을 진다. 갓 죽은 자는 사후의 세계에 익숙치 않다. 환생 전까지 그 앞에는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그중에는 위험하거나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 진정한 스승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제자가 무사히 환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지학 대의 54. 사후의 상태

사후의 상태

나는 종종, 보통 사람들이 아스트랄계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과 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을 학인들로부터 받는다. 그것은 사자의 활동적인 상태가 과연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 하는 점과 사자의 자아의 진화 수준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진되지 않은 일정한 양의 욕망을 기질 속에 지닌 채 죽는다. 그리고 그 힘은 무의식 상태로 침잠하기 전에 소진되어야 한다. 만일 그의 활동이라는 것이 오로지 저급한 욕망에 속한 것뿐이라면 가능한 빨리 무의식 상태로 빠지게 내버려두는 것이 분명 그에게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유형의 카르마를 새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반면 만일 그가 아스트랄계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된 사람이라면, 특히 이승에서 수면 중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해 왔던 사람이라면, 그가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도 아스트랄계에서의 체류 기간을 일부러 늘리면서까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마스터의 제자들의 인도하에 활동하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조언을 따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방면에 경험이 풍부하고 폭 넓은 지식으로 타인을 안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에서의 삶은 의지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나 물질계에서의 삶이 그렇듯, 이 경우에도 항상 카르마. 우리 자신의 과거의 행위.에 의해 제한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의지력, 창의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물질계에서처럼 아스트랄계에서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환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며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 결국 인간은 시간이 걸릴 뿐,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다시 자신의 의지로 점차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랄계에서도 사람은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갖고 노력하지 않는 한 자신의 악성향을 없애지 못 한다. 이승을 떠났지만 사자 안에 남아 있는 강하고 집요한 욕망들은 그 충족을 위해 육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 욕망들은 자주 날카롭고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것을 충족시키기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차츰 위축, 박리되다가 결국 소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스트랄체의 질료도 서서히 와해, 분해되며 자아의 반무의식적 노력을 통해 사자의 의식은 점차 아스트랄계로부터 철수된다. 이렇게하여 차츰 천계로 가는 발목을 잡아온 요소들이 제거된다. 그러나 최악의 난관은 일반적으로 사자가 자신을 붙잡

고 있는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 하는 데 있다.

만일 그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는 분명 위에서 언급한 과정들을 매우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저급한 욕망들을 죽이고 빨리 자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연의 일임을 한다면 그는 열성적으로 그 일에 매달릴 것이고 무지하게 욕망에 끙끙대며 그것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가장 조악한 아스트랄 입자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일 (- 그 감각이 그가 그토록 갈망하는 물질계의 그것과 가장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안 보이는 조력자’들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자들에게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일이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비학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지식만으로도, 사람들이 비할 수 없는 가치를 누리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사람이 죽어서 처음 아스트랄계에 가게 되면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한다. 설령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는 물질계와 아스트랄계가 어떻게 다른지 즉각 이해할 수가 없다. 물질계에서 사람은 의식주의 노예이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 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 지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노예 상태로부터 풀려난 사자도 오래 동안 자신이 진정 자유로운 상태인지 믿지 못 한다. 그 결과 많은 경우 그는 이미 풀려 나온 족쇄를 스스로 계속 차고 있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죽음의 문을 통과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공(架空)의 음식을 장만하고 앓아서 먹고 있거나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서머랜드(Summerland)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는 혼자서 돌을 하나 하나 쌓으며 집을 만들고 있었다. 물론 그 돌들도 일일이 모두 그가 상념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돌 하나 만드는 노력으로 집 전체를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돌이 무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지상의 상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깊이 탐구해 나가게 되었다.

서머랜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경치에 둘러싸여 지낸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표 위에 있는 아스트

랄 제6 부분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산, 나무, 호수 등의 아스트랄 대웅 부분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별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스트랄 고급 부분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경치를 만들어 놓고 살게 된다.

여러 경전에 묘사된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예이다. 따라서 그곳에서 우리는 보석이 열리는 나무, 불과 혼합된 유리 바다, 수많은 눈이 박힌 괴물, 백 개의 머리와 팔이 달린 신 등, 경전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어색하고 서투르게 재생시켜 놓은 작품들과 계속 마주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시간에 전혀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는 지상 삶에서의 무지와 편견의 결과이다. 신비학을 공부하여 고급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유쾌한 특징 중 하나는 물질계의 삶에서 인간들을 비참하게 해 온 이 모든 것들. 의식주, 금전 등등.로부터 벗어난 절대적인 자유와 휴식이다. 사자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가 원하는 것, 선택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타인을 돋는 데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있는 것이다.

신지학 대의 55. 동물 빙의 * 개체화된 동물

동물 빙의

사후에, 자아가 물질계에 환생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때로 그 코스를 벗어나 자신과 밀접한 친화력을 갖는 특정 동물의 그룹 소울(Group Soul)에 이끌려 아스트랄 차원에서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관념에 대해 우리는 익숙하다. 이와 같은 친화성은 종종 한 혼을 사후, 해당 동물의 체에 연결시켜 아스트랄계에 묶어 놓기도 한다. 때로는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의 결과 특정 동물과 카르마적으로 연결되어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베산트 여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래의 글은 한 인도 신문에 게재된 원고로, 신지학 선집 권 15, 231쪽에 다시 수록되었다.)

‘인간의 자아는 동물로 환생(reincarnation)하지 않는다. 환생이란 자아에 속해 있고, 자아의 통제를 받는 육체 속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와 동물체와의 연결은 형벌이지 환생이 아니다.

이 경우 인간의 자아는 동물체의 원 주인인 동물 혼을 쫓아낼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달라붙은 입장인 그는 동물체를 콘트롤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런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자아가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적 속성 또한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체에서 벗어난 뒤에도 인간보다 저급한 일련의 단계를 다시 거치면서 진화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를 얻는 즉시 인간의 형체를 취하게 되고 이전까지의 진화는 유효하게 남아 있다.

실상은 이렇다. 자아가 사악한 욕망 또는 기타 원인으로 특정한 타입의 동물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고 그 결과 그의 아스트랄체는 상응하는 동물적 특징을 보이며 상념이나 욕망이 형상으로 가시화 되는 아스트랄계에서 동물 형상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후에 그 혼은 지상의 삶에서 강하게 인상 지워진 특성과 유사한 동물의 아스트랄체 속에 구체화된다. 이런 일은 사후 처음 아스트랄계에 갔을 때 이루어 질 수도, 혼이 재육화를 위해 돌아오는 도중 다시 아스트랄계에 머물 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성격이 유사한 동물의 아스트랄체와 자기적 친화에 의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동물의 아스트랄체를 통해 죄수처럼 동물체에 속박되게 되며 물질계에 내려온다고 해도 인간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 결과 그는 동물의 몸 속에 묶여 진정 형벌적인 노예의 상태를 겪어야 한다. 그는 아스트랄계에서는 의식적이며 인간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속박된 동물체를 콘트롤할 수 없으며 물질계에서는

그 동물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한다. 동물의 기관은 인간의 자아가 자기 표현을 하는데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단지 매체가 아닌 감옥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다. 게다가 그 동물의 혼은 그 체를 벗어나 있지 않으며 자신의 몸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자이자 지배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스리 상카라챠라는 매우 분명하게 이 형벌적 감금과, 돌이나 나무 또는 동물 등이 된다고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한 감옥 생활은 환생이 아니며 그렇게 부르는 것 또한 적당치 않다. 따라서 나는 언제나 인간의 자아는 동물로 환생할 수 없으며 동물이 될 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타락한 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힌두 샤스트라스의 단편적 진술 속에 암시되어 있다.

자아가 완전한 감옥살이를 할만큼 형편없이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아스트랄체가 강하게 동물화 된 경우가 있다. 이때 그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동물적 특징이 육체에 두드러지게 반영된다. 따라서 일견 혐오스러운 돼지상, 개상의 얼굴로 보인다. 짐승같은 악행 때문에 인간은 대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형벌을 스스로 초래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뿐만 씨를 거둔다. 이것은 변함없이 항상 작용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서 진화 과정에서 한동안 자기표현이 박탈

될 때 당사자는 매우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사실상 감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이른바 백치나 미치광이처럼 뇌에 이상이 있는 인간의 육체에 연결된 자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물론 정신박약이나 광증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종류가 다른 악행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아를 표현할 수 없는 몸에 구속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상기한 내용은 어떤 특별한 상황하에서 인간은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민간 신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책들 속에서 흔히 한 생명의 3단계라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삶처럼 말해지고 있다. 즉, 인간이 물질계에서 죽으면 그는 즉시 아스트랄계에 태어난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단지 본격적인 아스트랄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같은 식으로 사자가 천계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스트랄계에서의 죽음이며 동시에 고급계에서의 재 탄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동물로 태어난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일탈된 비정상적인 경우들 중의 하나를 말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신지학 문헌에서 그러한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최근 우리는 위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이 예는 사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훨씬 더 나쁜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동물과의 연결을 고의적으로 피한 경우이다. 고대인들은 이런 유형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사람이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전통설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이 죽으면 그의 에텔체는 육체로부터 분리되며 잠시 후(대개는 몇 시간 이내) 아스트랄체가 에텔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때부터 아스트랄계의 삶이 시작된다. 정상적인 경우 아스트랄체가 에텔체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까지 그는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자각했을 때 그곳이 바로 아스트랄계이다. 그러나 물질적 존재 상태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사자들도 있는데 이 경우 그들의 아스트랄체는 에텔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에TEL 질료에 둘러싸인 채 깨어나게 된다.

에텔체는 단지 육체의 일부분일 뿐으로 자체에 의식의 전달 매체는 없다. 즉 에텔체는 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체(體)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 가엾은 사자들은 매우 불쾌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말하자면 아스트랄계와 물질계의 사이에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에

텔 질료의 껍질로 인해 아스트랄계로부터 단절되어진다. 그와 동시에 지상 세계와의 접촉을 가능케 해주는 육체 감각 기관 또한 상실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아연함과 고독과 공포를 느끼며 음울하고 두꺼운 안개 속을 여기저기 떠다니게 된다.

그들은 아스트랄계의 사람과도, 물질계의 사람과도 소통이 불가능하며 때때로 자신들과 같은 불행한 상태에 빠져 표류하고 있는 자들만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나마 그들과 만나서 통신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들의 목적 없는 배회를 멈추게 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빛 한줄기 없는 암흑 속에 빠져 하염없이 쓸려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따금 에텔 베일이 찢어져 그 틈새로 아스트랄 저급 계의 장면을 힐끗 목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용기를 복돋워 줄 만한 것이 거의 못되며 실제로는 지옥을 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로는 잠시 동안 눈에 익은 지상의 사물을 흐릿하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개 강한 상념적 이미지와 우연히 조우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안개가 걷히는 경우는 드물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문이 닫힐 때 그 어둠은 더 한층 그를 절망케 할뿐이다. 시종 그 불쌍한 혼은, 만일 자신이 물질에 대한 광적인 집착만 놓아 버린다면 그 즉시 일상적인 아스트랄계의 삶 속으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심지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비참한 절반의 의식마저 상실될 지 모른다는 느낌, 감정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는 의식의 완전한 소멸, 무의 바다에 빠지느니 차라리 안개로 가득 찬 이 무시무시한 잿빛 세계에 매달리는 쪽을 택한다. 때로는 이승에서의 무지한 종교적 가르침을 상기하고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대개 그는 엄청난 고통, 절망, 고독감에 시달린다.

스스로 자초한 이 곤경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멤버들 중에는 특별히 이러한 고통 상태에 빠진 혼들을 찾아내는 데 헌신하고 있는 ‘안 보이는 조력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가엾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 이밖에 사자들 중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일종의 아스트랄 빈민 구조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한 일을 한다. 때로 그러한 노력들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신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삶을 떨쳐 버릴 만큼 용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에텔 껍질은 자연히 떨어져 나간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자연의 정상적인 코스는 여지없이 진행되어 나간다. 때로 그들 중에는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에텔 질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집

착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것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그들은 존재의 소멸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 앞에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아스트랄계)가 열리며 압도적이며 유쾌한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아스트랄계로 빠져나가는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고통에 몸부림치며 물질계와 어느 정도 접촉할 수 있는 비자연적 방법을 발견해내는 불행한 자들이 있다. 영매를 통한 방법이 그것이다. 그들은 영매를 통해 쉽게 그러한 접촉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영매의 ‘영 안내자(수호자)’가 엄격하게 그들의 접촉을 막는다.

‘영 안내자’가 그들의 범접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포와 급박함에 휩싸인 그들은 때로 매우 파렴치하게도 그 영매에게 빙의하려고 하고 그 결과 영매를 미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은 전혀 쓸모 없는 짓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제거해야만 하는 물질성을 더욱 강화시킨 꼴이 되고 고통을 더 연장시킨 것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 그들은 영매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대개 민감한 어떤 젊은 여성-을 장악하려고 애쓰기도 한다. 그러한 시도는 그녀가 잘

못된 상념과 욕망에 빠져 그녀의 자아가 매체들에 허약하게 고착되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자아와 매체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할 경우는 그 불쌍한 혼들이 아무리 광적으로 노력해도 빙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물인 경우는 자아를 갖고 있지 않다. 비록 자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룹 소울(Group Soul)의 단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룹 소울의 단편과 동물 매체들과의 연결은 결코 자아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쉽게 말해 ‘동물의 혼’은 인간의 혼보다 훨씬 쉽게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때로 회색 지대에서 배회하고 있는 인간의 혼은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광적인 상태에서 한 동물의 몸에 빙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만일 동물의 혼을 축출하는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면 일부만이라도 지배하려고 애쓴다. 본래의 주인과 그 집을 어느 정도라도 나누어 갖는 것이다.

아무튼 동물의 몸에 빙의한 그는 그 동물을 통해 다시 물질계와 접촉하게 된다. 그는 동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특이한 체험을 하며 동물이 받는 특별한 고통을 느낀다. 사실상 그는 의식에 관한 한 당분간 동물인 셈이다.

신지학회 영국 지부의 한 나이 지긋하고 존경받는 멤버의 말에 따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 특별한 조언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 방문자는 부유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가난하여 주어지는 일거리면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큰 공설 도살장에서 백정 노릇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저히 그 역겨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기축을 도살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어떤 가슴 찢어지는 듯한 고뇌의 비명 소리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발 살려 주시오! 나를 치지 마시오! 나는 이 짐승 속에 있는 인간이오. 나는 그 고통을 느낀다오.’

그는 신지학회가 이런 초상적이고 불가사의한 문제들을 다룬다는 사실을 듣고 조언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다. 분명 그 방문객은 어느 정도 투청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적어도 동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엾은 존재들의 상념을 캐취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상념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비명 소리로 상징화되었을 것이다. 그가 도살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 사례는 육식을 하는 사람, 동물을 죽이는 것을 스포츠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특히 생체해부학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차마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거기에 기생하는 인간(동물에 빙의한 인간)에게 가하는 것이다.

지상의 많은 종족들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상기한 내용은 이런 믿음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질성에 찌든 자들이 어떤 동물과 자신을 교착시키는 큰 실수를 저지르면, 그는 나중에 아무리 원해도 마음대로 그 동물체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는 오직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것도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만 그 몸을 벗을 수가 있다. 대개는 그 동물이 죽을 때만 비로소 그도 해방된다. 그러나 그렇다해도 그에게는 아직도 떼내 버려야 할 아스트랄 질료들이 얹혀서 남아 있게 된다. 때로는, 동물이 죽은 뒤 거기에 기생했던 혼이 같은 종류의 동물체나 또는 다른 동물체에 다시 달라붙으려는 절망적인 노력을 하기도 한다.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빙의된 동료를 기피하거나 두려워한다. 사

실상 빙의된 동물도 자기한테 달라붙은 낯선 존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 등으로 인해 분노와 공포를 느끼며 절반은 미치게 된다. 이러한 빙의 현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동물은 대개 소, 양, 돼지 등 비교적 지능 발달이 낮은 것들이다. 이에 비해 개, 고양이, 말같이 보다 지능이 발달된 동물들은 쉽게 빙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어느 한 카톨릭 사제가 고양이에게 달라붙은 특이한 경우를 보았었다. 그리고 판다푸르 원숭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보통 빙의한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짐승들을 압도하려는 노력에는 대개 엄청난 힘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동물 빙의와 유사한 현상으로 고대에는 끔찍한 흡혈귀들이 있었다. 제4 근원인종 시대에 물질적인 삶에 광적으로 집착한 사람들은 때로 잔인하게 타인의 생피를 뺏아먹음으로써 육체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제5 근본인종 시대에는 다행히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즉 물질지상주의자)이 이번에는 동물 빙의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흡혈귀만큼 극단적으로 잔인하고 역겨운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매우 나쁜 짓임에는 틀림없다. 아무튼 가장 저급한 최악의 면(面)에서도 세상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다 하겠다.

나는 동물 빙의 중에서도 특이한 두 가지 사례를 알고 있다. 하

나는 어떤 사악한 사자(死者)가 특별한 악행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임시 어떤 동물의 봄을 장악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동양의 한 마법사가 자기 신앙을 모욕한 데 대한 복수 행위로, 최면을 이용해 그 사람을 사후에 어떤 동물에 연결시켜버린 경우이다.

후자는 오직 그 희생자 안에 그 마법사가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이 있거나 그러한 카르마가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정상적인 경우 상기한 두 가지 사례는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인간에 대해서든 동물에 대해서든 모든 빙의는 악한 행위이며 그 자신에게도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빙의는 그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자연적인 과정인 아스트랄계로의 전진이 그만큼 지연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바람직하지 못한 카르마를 짓게 될은 물론이다. 이러한 회색 인생은 사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불쾌한 일들이 그렇듯 오직 사후 세계의 실상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신지학의 지식을 보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하겠다는 의무감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게 된다. 그(신지학의 지식) 속에 만인을 위한 생명과 행복과 발전이 있음이 더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개체화된 동물

개체화된 동물이 죽으면 그 동물은 아스트랄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린다. 아스트랄계에서 그 동물은 대개 이승의 자기가 살던 집 근처에 있거나 특별히 친했던 사람이나 보호자와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즐긴다. 물론 그들(사람)은 죽은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말이다.

그 동물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지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가 지나면 ‘수면 의식’(dozing consciousness)이라 불리는 훨씬 더 행복한 상태가 기다리고 있다. 이 기간은 미래 언젠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까지 지속된다.

그 동안 내내 그는 마치 천계에 있는 인간과 유사한—비록 다소 저급한 차원이기는 하지만—상태에 있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주변 환경을 만든다.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분위기로.

그 중에는 분명 지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진화상에 이제 막 들어선 동물이나 인간을 초월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나 모두 천계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스러운 차원이다.

신지학 대의 56. 구역화 된 계층

구역화된 계층

아스트랄계는 일정한 부분계(하부계)들로 구역화되어 있다. 이 모든 단계의 아스트랄 질료들은 이곳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수면 중에 아스트랄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모든 아스트랄 질료와 동시에 접촉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전해 오는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내가 수면 중에 아스트랄체를 이용할 때 타인(다른 살아 있는 사람)의 아스트랄체를 본다면 모든 부분계 질료를 포함한 전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자(死者)의 경우에는 욕망 엘리멘탈의 작용에 의한 아스트랄체 질료의 재배열이 있게 되며 대체로 오직 한 유형의 아스트랄 질료만이 인상 수용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스트랄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시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각이란 용어는 특정한 진동을 수용하는 분화된 기관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스트랄적 인식은 전혀 다른 시스템에 따른다. 종종 아스트랄체는 그 어떤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얘기된다. 다시 말해 아스트랄체의 모든 입자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인상을 받고 그것을 내부의 의식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입자들이 다 모든 인상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스트랄체에 존재하고 있는 저급 부분계의 질료를 통해서만 동종의 아스트랄 질료를 인식하게 된다. 아스트랄체의 모든 입자들은 끓는 액체 입자들처럼 그 내부에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계의 질료들이 아스트랄체의 표면상에 현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부분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보통 사람은 사후에 실제적인 목적상 오직 한 종류의 아스트랄 질료만을 최외부에 갖는다. 이때 그 껍질은 동심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가 아스트랄계를 보는 시각은 매우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만일 가장 저급한 질료로 된 껍질 속에 간힌 사자가 살아 있는 사람의 아스트랄체를 보면 그는 오로지 동종의 저급 질료로 된 부분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자각할 방법이 없는 그로서는 타인의 아스트랄체 전부를 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타인에 대해 개성이 없고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자는 사실 온갖 종류의 고급한 영향과 아름다운 상념체들에 둘러 싸여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의 아스트랄체 입자들은 고유의 진동 수준에만 반응할 수 있을 뿐 그 수준을 넘어선 진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저급한 아스트랄 질료는 물질계의 고체와 상응한다. 따라서 어떤 고체의 아스트랄 대응체는 가장 저급한 아스트랄계(제7부분계)의 질료로 구성되어 있다. 마루, 벽, 가구 등의 아스트랄 대응체는 모두 이 가장 저급한 아스트랄 질료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방 죽은 사람은 대개 이 대응체들을 생생히 보게 될 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념체의 대양(大洋)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의식이 계속 내면으로 철수되면서 이 가장 조악한 질료로 된 껍질은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와 함께 보다 고급한 질료가 드러나 외부로부터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작용하는 표피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가 느끼기에는 물체들의 아스트랄 대응체는 점차 흐려져 가는 반면 상념체들은 점점 더 분명해져 오게 된다. 따라서

공간 속을 전혀 이동하지 않더라도 그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만일 이 변화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 그가 당신을 본다면 그는 당신의 성격이 매우 좋아졌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한 특성의 고급 진동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한 부분계로부터 다른 부분계로 옮겨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아스트랄계의 한 부분에 대한 시력을 상실하고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한 시력이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계에서 또 다른 존재계로 진화한다. 상기한 현상은, 차원은 낮지만(부분계에서 부분계로의 발전) 결국 마찬가지로 의식의 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스트랄계와 멘탈계는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이 물질 두뇌 속에 초점 맞춰져 있는한,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죽으면 의식은 아스트랄체로 이전되고 그와 동시에 물질계에 대한 시력을 상실하고 아스트랄계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트랄체 또한 잊고 멘탈체 속에서 살게 되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멘탈계를 의식하게 된다. 물론 그 순간 물질계와 아스트랄계에 대한 시력은 모두 상실하게 된다.

물질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련을 통해 실제로 물질, 아스트랄, 멘탈 의식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아스트랄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욕망 엘리멘탈에 저항하여 아스트랄체 입자들의 유동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화 수준에 있어야만 한다.

아스트랄계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신지학도는 우선 첫째로 욕망 엘리멘탈에 의한 아스트랄체의 재배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죽음 뒤에 따르는 일시적 무의식 상태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자를 돋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들(안 보이는 조력자들)이 당장에 욕망 엘리멘탈의 배열을 깨뜨리고 아스트랄체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아스트랄계의 한 부분계만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그의 아스트랄 삶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에 있게 되며 그는 한 부분계에 묶여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천계에서의 삶의 상태

천계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큰 난점은 인간을 인성(저급 자아)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에 있다. 만일 두 친구가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면 우리는 그 유대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마 수천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 왔고 사랑을 해왔기에 지금 지상에서 친구 사이로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현재 일상적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을 알지는 못한다. 그들은 모두 무거운 옷을 세 벌이나 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속에 자신들의 진정한 자아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 두 사람 중 누군가 먼저 죽었을 때 그는 아스트랄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승의 친구가 잠자고 있는 동안 그와 생생한 만남을 가지게 된다. 심지어 그는 친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수면을 취하는 동안 그 친구는 세 벌의 옷 중 가장 무거운 옷(육체)을 벗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자는 아직도 친구의 저급 자아와만 관계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친구가 이승의 삶에서 어떤 큰 슬픔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아스트랄계에 반영될 것이고 사자는 그 사실

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수면 중의 삶이나 깨어 있는 동안의 삶은 하나이다.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양자에 대한 연속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

사자가 만나고 있는 지상의 친구의 아스트랄체는 인성의 아스트랄체이다. 따라서 그는 친구의 저급 자아(인성)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훤히 알게 된다. 그러나 천계에 올라가면 이 모든 상황은 바뀌어진다. 천계에서 사자는 멘탈체를 활용하게 된다. 이때 그 멘탈체는 과거 지상의 삶에서 이용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사자는 이승의 친구가 삶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멘탈체를 만나지 못하며 사자 자신이 상념으로 친구의 멘탈체-친구의 진정한 멘탈체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를 만든다. 하지만 그 멘탈체에 혼을 불어넣는 것은 고급 멘탈계의 코잘체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의 자아이다.

이것은 이승의 친구가 멘탈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만 친구의 인성과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한 사람의 혼이 둘 이상의 육체에 불어넣어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이 천계에서의 삶 속에서 멘탈계에 만들어 놓은 그(지상의 친구)의 상념체인 경우에는 그 수가 얼마든 동시에 거기에 혼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는 여러 개의 육체가 한 사람의 화신일 수 있다고 일부 사람들
이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한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당신은 생자(生者)의 저급 자아가 겪는 어떤 슬
픔이나 어려움—이것은 필시 그의 멘탈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 그의 자아가 또 하나의 멘탈체로 이용하고 있는 다른 상념체
(타인이 천계에 만들어 놓은 생자의 멘탈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 별개의 멘탈체가 그의 슬픔과 고통을 안다고 해도 그것
을 코잘체의 입장에서 본다. 즉, 그것을 슬픔이나 고통으로 보지
않고 단지 어떤 카르마의 작용이나 하나의 공부로서만 본다. 이
러한 관점에서 그 멘탈체는 전혀 미혹됨이 없다. 왜냐하면 자아
의 관점에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혹되는 것은 우리 인성의 시각일 뿐이다. 슬픔이나 어려움은 실
제에 있어서는 상승을 위한 계단인 것이다.

두 친구는 천계에서 훨씬 더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된다. 왜냐하
면 각자는 이제 오직 하나의 옷(멘탈체)만을 걸치고 있기 때문이
다. 만일 사자가 물질계에서의 삶 동안 친구의 한 면만을 알아
왔다으면 그 친구(사자의 친구)가 천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면을 통해서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면(속
성)을 전보다 훨씬 더 완벽히 만족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까지

저급계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는 완벽한 표현이다.

천계에서 사자는 고통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 생을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계에 있을 때는 분명치 않았던 많은 것들을 그는 이제 이해한다. 그리고 현재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넘치는 환희 속에서 그런 슬픔 따위는 마치 꿈처럼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천계의 사자들과 통신할 수 있는지 묻곤 한다. 만일 ‘우리’라는 말이 인성(저급 자아)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천계의 사자와 대화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천계의 존재들과 통신하고 있다. 단지 이 저급 자아의 베일 속에 갇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가 죽었다. 그녀는 딸을 무척 사랑하였다. 그런데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죽어서 천계에 간 이후 신지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때 어머니는 딸이 아직도 카톨릭 신자라고 단순히 믿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내가 이미 언급하였듯, 있을 수 있는 제한의 한 예이다.

만일 어머니가 딸의 상념을 본다면 자연 거기에는 어머니가 이해 할 수 없는 점들이 있을 것이다. 신지학 공부를 통해 딸의 마음

속에 새로운 개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급 멘탈계에 있는 딸의 자아는 인성이 배운 바에 의해 유익을 얻는다. 따라서 딸의 자아는 차츰 어머니의 관념을 확장시키고 완전케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언제나 어머니가 익숙해 있는 방향을 따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견해 차이에 대한 느낌이나 종교적 주제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지금 나는 평범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코잘체 속에서 이미 완벽한 의식을 갖고 있는 진보된 사람의 경우라면 그는 천계의 친구가 만들어 놓은 상념체(그의 또 하나의 멘탈체)속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투사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면 그것을 직접적, 의식적으로 천계의 친구에게 전달할 것이다. 마스터들은 이런 방법으로 천계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작용하여 그들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킨다.

천계에서의 상태는 본인의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유사한 타입의 사람이 둘 있다면 그들 중에서 보다 영적인 사람이 자연 더 오래 천계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그 힘은 각 사람의 진화의 필요에 따라 빨리 또는 천천히 사용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에서, 특별히 마스터들을 돋는 일에 헌신해 왔던 자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소 다르다. 우리의 마스터들은 이미 수천년 전에 인류를 돋는 일에 헌신하는 봉사자, 조

력자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조직을 형성시켰다. 마스터들은 그들을 일종의 선구자 군단으로 이용하여 인류를 돋는데 필요한 특별한 활동을 하도록 보낸다.

<시오소피스트, Theosophist>지에 실린 「알키오네의 생애들」을 읽은 사람은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러한 조직의 일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속되는 윤회 과정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여러 다른 장소에 함께 거듭 태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애초에 백 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게 됨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 중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적 힘을 발휘할 것이고 카르마에 따라 자연 다른 환경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들을 불식시키고 전체로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봉사에 헌신한다는 단 하나의 위대한 명분이다.

그렇다고 하여 여기에 어떤 불공평한 점은 없다. 왜냐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칙상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카르마로부터 벗어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인류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자들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어떤 장해도 없이 고급한 활동을 자유로이 하려면 전생의 카르마가 빠르게 소진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또 그들의 사역의 본질상 이제까지 생에서 생으로 유보되어온 카르마가 이생에서 어떤 엄청난 재난을 통해 일시에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천계의 삶을 거치지 않게 하는 어떤 특별한 외부 작용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각자에 알맞는 정상적인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삶을 산다. 그 기간의 차이는 멘탈체가 빌하는 빛의 광도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의식의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특히 봉사의 정신을 가질수록 대개는 천계에서의 삶동안 카르마를 생성시킨다. 심지어 그는 카르마가 진행되어 갈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신지학의 열쇠>에서 블라바츠키 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다. ‘물질주의자는 어떤 천계의 삶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을 때 그러한 상태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녀가 여기서 말한 ‘물질주의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진다. 왜냐하면 동서(同書)에서 그녀는 ‘물질주의자’가 사후에 의식적인 삶을 누리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에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물질주의자라는 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분명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멤버 중 한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유물론자가 있었는데 얼마 전 이 멤버가 그 유물론자를 아스트랄계의 최고급 부분계에서 만났다. 거기서 그는 책에 둘러싸인 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다.

우리 멤버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는 지상에 있을 때 자신이 주장했던 이론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사실들에 의해 잘못이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 인정했다. 그러나 그의 불가지론적인 성향은 여전히 강해서 멤버가 그에게 훨씬 더 고급한 영적 상태인 천계의 존재에 대해 말해 주어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사람의 성질 속에는 천계에서만 그 완전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후의 삶을 전혀 믿지 않았음에도 그는 아스트랄계의 삶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유물론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내면에 있는 고급한 힘이 멘탈계에 미치는 정당한 작용을 방해하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자연은 인간들이 그 법칙에 무지하다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의 삶에서 매일 보고 있다. 만일 아기가 불이 뜨거운 줄 모르고 거기에 손을 댄다고 해서 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자연의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자는 오직 사후에 자신이 잘못 생각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이다.

블라바츠키 여사가 말하고 있는 물질주의는 아마 보통의 불가지론 보다 훨씬 더 조악하고 공격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달리 말해 너무도 유물적이어서 천계에서 소진시켜야 할 어떤 특성도 갖고 있지 않은 극단적인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예를 아직 관찰해 본 적이 없다.

신지학 대의 58. 천계의 삶에서의 카르마

천계의 삶에서의 카르마

신지학을 연구하던 초기에 우리는 물질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들을 거의 항상 원인이 아닌 결과의 극장으로 보도록 배웠다. 그것은 아마 인간이 물질계에서 카르마를 만들어 내고 아스트랄계와 멘탈계에서는 그것을 소진시키는데 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아스트랄계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카르마도 만들 수 없다. 세월이 흘러 우리들이 직접 아스트랄 상태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아스트랄계에서의 다양한 활

동을 통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리는 영적인 발전을 이룬 사람은 물질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후 아스트랄계의 삶 동안에도 모든 면에서 활동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죽음 이전이나 이후나 꼭 같이 타인의 발전(또는 자신의 발전)을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항상 물질계에서나 아스트랄계에서나 중대한 카르마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사후 상태에 대한 이 수정된 견해는 점차 신지학 문헌들 속에 반영되었고 이제는 모든 신지학도들에 의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고 나서도 오래동안 학인들은, 적어도 천계에서만큼은 사자는 이전 존재 단계에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즐기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 왔다. 대체로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천계의 거주자는 그런 의식의 향유 과정에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떤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는 하다.

의식을 코잘체의 차원까지 고양시킨 사람은 이미 자아와 인성을 통합시킨 자이다. 그러므로 자연 그런 사람에게 일반인의 경우를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물질계에서 사는 동안에도 자아의 의식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육체적 죽음에

도 영향받지 않는다.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죽음, 즉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벗을 때조차도 그렇다. 그에게 있어서 이 연속된 화신체계(육체-아스트랄체-멘탈체)의 전 과정은 단지 하나의 긴 삶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른바 한 화신은 그의 삶 중에서 하루에 해당한다. 진화 과정 전체를 통하여 그의 의식은 완전히 활동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한 시기, 시기마다 꼭같이 카르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시점에서 그가 처한 상태는 그가 과거에 만들어 낸 원인의 결과이다. 결국 그는 매 순간 상념과 의지의 행사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차원에 도달한 인간은 드물다. 그러나 비록 수준은 조금 못 미치지만 이와 유사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모든 인간은 아스트랄계와 저급 멘탈계에서의 삶을 통과한 뒤 일 순간 고급 자아의 의식에 섬광처럼 깨어나게 된다. 이때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며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미래의 삶 또한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대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고, 어떤 특별한 발전을 이루게 될 지 알게 된다. 자아는 이 일별 현상의 가치에 대해 매우 서서히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결

국 그는 이 일별 현상이 지속되는 진화의 단계에까지 차츰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문제를 훨씬 더 충분히 숙고할 수 있게 되고 그 앞에 놓인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도 있다.

그의 의식은 차츰 성장하여 멘탈계의 고급 차원에서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그는 곧 자신이 무수한 자아들 중의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그는 다른 자아들 사이에서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그들과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카르마-저급계에서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카르마-를 만들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카르마의 영향이 큰 것은, 고급 멘탈계에서의 상념들이 물질계에서의 제한된 상념보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은 저급 자아와 고급 자아의 통일에서 오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러한 위업을 성취했을 때 인간의 의식은 항상 혼 속에 머물고, 그 혼으로부터 의식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합일을 이루어 내지 못한 사람의 경우 혼의 의식은 저급 매체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때만 활동하며 다시 환생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가 한 저급체를 취한 순간 그의 의식은 오로지 그 매체를 통해서만 현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가 갖는 완벽한 의식은 별도로 하고, 의식에는 고찰할 만한 여러 발전 단계들이 존재한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물질계를 넘어선 곳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어쩌면 그의 아스트랄체는 발달되어 있어서 하나의 매체로서 충분히 이용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아마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아스트랄계상에서 한 경험들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성질을 띤다. 때로 그것들 중 하나를 생생히 기억할 때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체로 육체의 수면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백과 같다.

이것을 넘어선 다음 단계에서 그는 아스트랄체를 이용하는 습관을 점차 길들여 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트랄계에서 무엇을 했는지 일부 기억해 낼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의 종국에 가서는 그에게 아스트랄 의식이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명상을 통한 분명한 노력의 결과로서만 온다.

아스트랄 의식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인간의 의식은 낮과 밤동안 연속성을 갖게 됨은 물론 아스트랄 삶을 끝맺을 때까지 의식이 유지된다. 아스트랄 의식이 열린 자들은 육체가 죽을 때 대개 수반되는 의식의 단절 현상 또한 피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멘탈체 의식의 발전이다. 멘탈체의 의식이 어느 정

도 발전하면 각 인성은 육체의 탄생으로부터 천계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 해도 그것은 인성의 의식일 뿐이지 자아의 의식은 아니다. 완벽한 합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아직도 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상기한 단계들 중의 어느 하나에 도달한 사람들은 분명 그들의 의식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카르마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스트랄 의식과 물질 의식조차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한 일 반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확실한 것은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아스트랄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그는 카르마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그가 비록 맹목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애정을 느낀다고 하자. 그런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모호하지만 선의의 상념으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다시 돌아오는 반작용(이 경우, 좋은 반작용) 또한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보낸 감정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라면 그것이 그에게 낳는 결과 또한 고통스러울 것임은 자명하다.

사후에 그가 아스트랄계에 완전히 거주하게 될 때 그의 의식은

육체 수면 동안의 그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다. 그만큼 타인들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카르마를 지을 가능성 또한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그가 아스트랄계의 삶을 마치고 천계에 들어서면 자신을 위한 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는 물질계에서 사는 동안 멘탈체 안에 특정 방향의 활동만을 자극해 왔다. 이제 완전히 멘탈체로만 살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치 탑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주위 세계와 차단된 채 지상에서 자신이 열어 온 멘탈체의 창문들을 통해서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창문들을 통하여 멘탈계의 강력한 힘이 그에게 작용한다. 그는 그것들에 반응하며 생생한 환희의 삶을 살아간다. 비록 특정한 방향에 국한된 삶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렇게 멘탈계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지복으로 충만해 있어,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한다. 사실상 그는 일정한 제한 속에 갇혀 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제한 속에 자신이 소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는 주위에 친구들의 이미지를 둘러싸 놓고 그 이미지들을 통해 사실상 물질계나 아스트랄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카르마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이 제한은 오로지 멘탈계의 관점에서만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일정한 노선을 따라 카르마를 지을 가능성은 물질계에서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방면의 사랑이나 헌신을 발현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이미 결정해 놓은 노선을 따라 행하는 그의 사랑과 헌신은 육체의 무거운 틀 속에서 작용할 때보다 분명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무의식적인 보통 사람은 천계의 삶 동안 별개의 세 결과를 만든다.

사랑의 감정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특정한 친구들에게 강한 사랑을 느낀다. 아마도 그는 사후에도 그 친구들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속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그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그가 천계에서 자신의 주위에 친구들의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친구의 자아로부터 강한 반응을 끌어오는 효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그가 천계에서 친구의 자아—그가 만들어 놓은 상념체를 통해 현현하는—에 쏟는 사랑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친구의 자아의 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그 친구에게 사랑을 일깨운다. 결국 이러한 지고한 성질의 힘이 수백년간의 천계의

삶 동안 꾸준히 작용함으로써 친구의 진화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른 자아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확실히 카르마를 발생시킨다. 비록 자신이 카르마의 기계를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했다 해도 말이다.

때로는 살아 있는 친구에 대해 가해지는 그러한 힘의 작용이 물질계에 살고 있는 친구의 인성에 나타날 수 있다. 천계에 있는 사자의 행위는 상념체를 통하여 친구의 자아에게 가한 것이지만 지상에서 살고 있는 친구의 인성은 동일한 자아의 현현이기에, 만일 자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가 이 저급계에 있는 인성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어째서 천계에서의 사자의 상념은 살아 있는 사람의 상념처럼 친구에게 직접 작용하지 않을까?’

‘어째서 그의 멘탈체로부터 발산되는 진동은 친구의 멘탈체에 직접 가닿을 수 없는 것일까?’

‘어째서 사자는 공간을 여행하여 친구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일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만일 그가 멘탈계의 이곳

저곳을 자유로이 의식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아마도 위에서와 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천계에서 그는 특별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 한다. 천계에서 그는 여타 세계(하위계는 물론이고 멘탈계의 다른 지역도 포함하여)와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의 상념의 껍질 속에 살고 있다.

만일 그의 상념이 보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념 또한 똑같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자가 그의 친구에 대해 만든 상념체는 그 자신의 껍질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작용시킨 힘이 친구의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친구의 자아가 그 상념체 속에 투사하여 들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의 자아를 통해 그 힘은 이곳 세상에 있는 친구의 인성에까지 어느 정도 발현될 수 있다.

멘탈계상에 있는 사자의 껍질은 마치 달걀 껍질과 흡사하다.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껍질 속으로 어떤 것을 투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차원으로부터 그것을 넣는 것이다. 즉, 껍질의 입자들 사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진동이 섬세한 어떤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멘탈 껍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말해 멘탈 껍질은 그 어떤 멘탈 질료의 진동으로도 투과되지 못 한다. 그러나 자아에 속한 섬세한 진동은 아무런 장애 없이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멘탈계의 상념체를 상위계에서는 자유로이 작용시킬 수 있지만 하위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념체는 일종의 인공적 멘탈체라고 볼 수 있다. 사자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만든 상념체에 대해 지상에 살고 있는 친구의 인성은 알지 못 한다. 그러나 그의 자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쁨에 넘쳐 그 상념체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된다. 그의 자아는 이것이 자신을 현현할 또 하나의 기회, 진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진실한 친구가 많은 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타인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속성을 계발시킨 카르마이다.

사자가 다른 개체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의 마음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로, 타인에게 사랑을 방사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의 친구들로부터 또 다른 사랑의 방사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그의 이웃들의 멘탈 대기를 개선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멘탈 대기가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은 세계와 인류의 진화를 위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계의 모든 거주자들—인간, 동물, 식물

데바 등 을 자극하여 이들 다양한 생명체 하나 하나에 항상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측면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 <상념체>를 읽은 사람은 이 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비이기적인 헌신의 상념에 반응하여 로고스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힘의 분류(奔流)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러한 반응은 헌신의 상념을 방사한 개인에게 올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마스터들과 그 제자들이 인류를 돋는데 사용하도록 널마나카야가 호지하고 있는 영적 힘의 저장소를 채우는 데 도움을 준다.

만일 상대적으로 훨씬 제한된 물질계에서 사랑과 헌신의 방사가 그토록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면 천계에서 천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랑의 방사는 영적 힘의 저장소에 매우 큰 공헌을 하리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지 않다. 또한 그것은 세계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특별한 의식의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급계에 체류하는 동안 상당한 양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천계에 오래 머물고 있는 동안 그는 그의 친구들을 이익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해 선한 카르마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사후에 천계의 삶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 현재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사랑과 헌신의 미덕을 계발해야만 하겠다.

제 7장 아스트랄 활동

신지학 대의 59. 안보이는 조력자들 1

안 보이는 조력자들 1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편지로 ‘안 보이는 조력자’ 그룹에 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묻곤 한다. 이 그룹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안 보이는 조력자들>이라는 책을 자세히 읽고 거기에 묘사된 자격 요건을 스스로 주의 깊게 계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스트랄계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선 아스트랄계의 삶의 상태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워야 하다는 충고를 제외하고는 달리

거기에 씌어진 것에 부연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스트랄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곳 지상에서 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만 특정의 제한(육체적 제한)이 제거된 상태일 뿐이다. 아스트랄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심과 활동은 물질계에서의 그것과 유사하다. 학생은 여전히 공부하고, 게으른 사람은 여전히 게으르며 물질계에서 활동적으로 타인을 도왔던 사람은 여전히 거기서도 타인을 돋는다.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 악담이나 하고 다니면서 계속 나쁜 카르마를 만들고 있다. 사자들은 대부분 오래동안 생전에 익숙한 장소에 출몰한다. 많은 자들이 그의 옛 집 위를 떠돌거나 자기가 위안처를 삼던 사원의 아스트랄 대응체에 매일같이 방문한다. 또 어떤 자들은 아무 힘도 경비도 들이지 않고 생전에 찾아가 보고 싶었던 모든 위대한 사원들을 여기 저기 순례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대개 진정한 의미의 아스트랄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아스트랄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설령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아스트랄계에서 여기 저기 떠돌고, 여러 즐거운 감정을 경험하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

일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그러한 상태로부터 타인을 돋는데 시간을 활용하도록 일깨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티브가 필요하다. 우리는 일단 보통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지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 진화의 과정과 사물의 목적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자기 내면에서 그러한 진화의 촉진을 돋고 그 목적을 완성코자 하는 마음은 물론 타인들 또한 그러한 이해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진화의 길을 보다 용이케 하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미숙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통 수준의 교양과 진화를 이룬 사람이라면 모두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아스트랄체를 갖고 있다. 비유컨대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과 힘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물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기까지는 일정한 양의 연습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딪치는 어려움은 그들의 아스트랄체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수천년 동안 육체를 통한 인상의 수용에만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 의지로 아스트랄

체를 작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이미 익숙한 육체 진동이 아스트랄 활동을 일으키기를 기다리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스트랄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스트랄적으로 타인을 돋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친척이나 친구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수면을 취하는 동안 그에게 가서 도와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한 도움—그것이 무엇이 되었건—을 주리라는 결심을 하고 잠자기 전에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와 통신하기 위해 그를 찾으러 다닐 필요조차 없다.

밤에 육체를 떠나자마자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인이 된 친구의 바로 곁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이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고인에 대한 모든 슬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슬픔은 그에게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고인에 대한 비통함을 자제하지 못하면 그 비통한 감정은 그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감정은 아스트랄체를 통해 작용함으로, 아스트랄체로 살고 있는 자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보다 감정에 훨씬 더 쉽고 깊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자들은 우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아스트랄체이다. 따라서 그들은 단번에 우리의 감정을 알아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물질적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한지 비참한지는 알

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정은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감정을 일으킨 배후의 상념에 대해서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사자는 사랑과 증오심을 갖고 있다. 그는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알아보며 종종 아스트랄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한다.

아스트랄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슬픔뿐만 아니라 흥분감 또한 억제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안 보이는 조력자’는 완벽한 평정을 유지해야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훌륭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타인을 돋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찬 나머지 엄청난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이 흥분에 빠지면 아스트랄체가 확대되고 거친 진동을 일으키며 불과 같은 색깔이 방사된다.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스트랄 환경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겁먹은 상태에 있게 된다. 따라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돌진해 오고 있는 불타오르는 거대한 구체(球體)를 보고 그가 공포에 질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히 그는 그녀를 악마로 생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버렸다.

친구나 이웃 사람의 임종이 머지 않은 경우에는 초심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직접 육체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죽음과 사후의 상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

로 설명해 주면 임종을 앞둔 자는 마음의 큰 위로를 받고 심적 부담을 덜게 된다.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사후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대개 큰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면 수면 중에 아스트랄계에서 그(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작용해 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잠들기 전에 마음 속으로 특정인을 돋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한다. 그리고 가능한 전해 주고자 하는 말을 확고히 결정한다. 깨어 있을 때 그 결심이 정확하고 명확하면 할수록 잠자고 있는 동안 아스트랄체 속에 분명히 옮겨진다.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이다. 조력자는 항상 차분하게 고통받는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쉬운 과정이며 어떤 경우에도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환자가 죽음을 최대한 이용하길 바란다면 조력자는 그에게 아스트랄계의 본질, 그곳의 삶의 양식, 아스트랄계 너머 천계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차츰 설명해 주어야 한다.

조력자는 항상 자신의 태도와 마음 상태가 조언이나 충고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그 일에 절대적인 평정과 자신감을 갖고 매우 주의 깊게 접근해야만 한다. 만일 조력자 자신이 심적인 흥분 상태에 있으면 방금 언급했던 그 여성처럼 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이러한 도움은 사후에도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일정 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개는 일순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때로는 몇 일, 몇 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능숙한 조력자는 당연히 사자의 의식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맞추어 도움을 준다. 그러나 미숙한 조력자는 사람이 죽는 즉시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며칠 밤 동안 계속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무의식 상태의 지속 기간은 많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일반 법칙을 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돋기 위해 적어도 매일 밤을 할애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의 정확한 성질을 알아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여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고통받는 사람이 나약해지고 탈진 상태에 빠지면 조력자는 의지력으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반대로 그 사람이 히스테리칼 한 상태에 있으면 조력자는 평화와 온화의 오라를 방사해 그를 감싸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담요로 사람을 감싸주듯 강력한 평화와 조화의 상념체로 그를 안아 주는 것이다.

신지학 대의 60. 안보이는 조력자들 2

안보이는 조력자들 2

조력자가 아침에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일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알기 힘들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공은 언제나 보장된다. 조력자가 아스트랄 활동을 계속해 나감에 따라 종종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명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해 주는 기쁜 징표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많은 멤버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지만 오래동안 그 성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육체적으로 우연히 만나 그의 나아진 모습

을 보았을 때 그는 큰 기쁨을 얻는다.

때로는 친구가 어느 날 밤 유쾌하고 놀라운 꿈을 꾼 날로부터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조력자는 그 날 밤이 바로 자신이 그를 특별히 돋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조력자는 단지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우연이 계속 일어남에 따라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결과에 관해서는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하겠다.

초보자가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다. 그가 잘 아는 친구의 방에 아스트랄적으로 방문하여 그곳의 가구와 책들의 배치를 주의깊게 살피는 것이 그것이다. 또는 사전 계획 없이 수면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장소에 가게 되면 그곳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다. 만일 그 장소의 사물 배치에 어떤 명확한 변화가 있었음을 아침에 깨어 상기한다면 그곳에 직접(육체적으로) 찾아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밤의 환영이 정확한 것인 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스트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수시로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에 부딪친다. 우리가 베푸는 도움은 때로 외과적인 수술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것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에

매일 지속적으로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자주 있다. 때로는 지식을 조금씩 공급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안 보이는 조력자들에게는 각자 오래 전부터 전달해 온 사건, 사람, 환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가 정기 회진을 하듯 매일 밤 자기 환자들 사이를 돌아다닌다. 때로는 안 보이는 조력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 나머지 그를 따라다니며 돋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시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각 조력자는 대개 작은 그룹의 리더가 되어 어느 때건 그들을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죽으면 마치 어린애가 어둠에 공포를 느끼듯 두려운 상태에 있게 된다. 어둠에 갇힌 어린이에게 논리적이며 끈기 있는 대화를 통해 두려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보다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손을 잡아 주는 것이다.

아스트랄 사역자는 한 사람의 신경성 환자나 회의론자 곁에서 그를 위로하느라 온 밤을 소비할 수는 없다. 그에게는 즉각적인 집중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그 일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아이를 위로하는 데는 뛰어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아이가 원하는 건 따뜻한 손길과 사랑

이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에는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모두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다. 물론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지 위로를 하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슴가득 넘치는 사랑과 타인을 돋고자 하는 열망만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하던 안 보이는 조력자가 마침내 육체를 벗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환영하는 친구들의 무리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들은 그가 이제부터는 항상 자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됨을 무척 기뻐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생소함도 있을 수 없다.

그에게 생긴 변화라곤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여태껏 해 오던 일에 바칠 수 있다는 것뿐이다. 지상에서는 매일 밤마다 기쁘게 일을 하다가 아침이면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중지해야만 했었다. 그리고 낮 동안의 육체적 존재 상태란 오로지 무디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아스트랄계에는 안 보이는 조력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요점이 있다. 그들을 중 하나는 아스트랄계에서의 상념의 통신, 즉 대화의 방법이다. 아스트랄계에는 물질계의 언어에 대체되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그와 같은 언어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물질계의 순수 에텔 부분계에서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위로 상승하여 에텔계에 들어서는 순간 거기 소리란 것은 있지 않다. 그러나 지상을 넘어선 곳에는 상징적인 소리가 있다. 우리는 로고스가 말씀을 통해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을 항상 듣는다. 상징적인 소리란 바로 그와 같이 훨씬 고급한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밤에 있었던 꿈 속의 경험-친구를 만났다거나 강의를 들었다거나 하는 등을 기억할 때 그것은 언제나 일반적인 소리로 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육체 두뇌를 통해 기억을 회상해 낼 때 단순히 본능적으로 그것이 일상적인 감각의 용어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아스트랄계의 언어를 상념 전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특별한 방식으로 구체화된 상념 전달’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멘탈계에서는 상념을 구체화시켜 어떤 단어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도 즉각 타인의 마음에 전달된다. 따라서 멘탈계에서 언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스트랄계에서 일하고 있는 조력자들은,

멘탈체를 이용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스트랄계 자체의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멘탈계의 상념 전이와 물질계의 구체적 대화 사이의 중간적 방법이다.

따라서 상념을 말로 구체화할 필요가 여전히 있게 된다. 발송자가 상념의 구체화된 표현을 전달하고, 거의 동시에-완전 동시에 아니지만-수신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상념을 구체화하여 응답함으로써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사 교환을 위해서는 대화자는 서로 공통된 언어를 가져야만 한다. 따라서 아스트랄계의 조력자는 많은 언어를 알면 알수록 유용한 일을 보다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터의 제자들은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종류의 임시 매체를 만드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항시 육체에 아스트랄체를 두고 멘탈체로 여행한다. 그리고 아스트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변 질료로부터 임시로 아스트랄체를 형성시킨다.

이런 방법을 배우면 타인을 이해하는데 상념전이라는 멘탈계의 의사소통의 이점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상념을 전달하는 것은 수신자의 아스트랄체의 발전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고도로 훈련된 제자들을 제외하고 멘탈체를 통해 의식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의 명상과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천계에 있는 자는 자신의 상념 껍질에 둘러싸여 있다. 이 상념은 멘탈계의 생명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멘탈계상의 활동-자유로운 이동과 관찰을 할 수 있는—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다행히 멘탈 엘리멘탈은 사후에 멘탈체를 재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아스트랄계의 욕망 엘리멘탈에서와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사실상 멘탈계의 엘리멘탈 에센스는 아스트랄계의 엘리멘탈 에센스와 크게 다르다. 전자는 체인의 다른 생명 파동에 속하기 때문에 후자와 다른 힘을 갖는다.

멘탈계의 엘리멘탈 에센스는 우리의 방황하는 상념의 주원인으로, 끊임없이 하나에서 또 다른 것으로 화살처럼 날아간다. 따라서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어떤 종류의 껍질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록 멘탈체의 특정 부분에 경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멘탈체로 기능할 때 육체와 함께 아스트랄체를 가사(假死)상태로 두고 떠난다. 이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손쉽게 그 아스트랄체를 껍질로 둘러 쌀 수 있다. 이밖에 어떤 악영향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바이브레이션을 그 속에 만들 수 있다.

로고스나 마스터에 대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차츰 아스트랄 차원과 멘탈 차원으로 고양될 수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에 달려 있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후에 아스트랄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공부하고 습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나는 아스트랄계에서 처음으로 신지학을 배우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심지어 한 여성이 아스트랄계에서 음악을 배운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어떤 사자가 가르쳤거나 아니면 살아 있는 음악가가 그녀가 있는 아스트랄 부문계에서 가르쳤을지 모른다.

아스트랄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아스트랄 악기를 연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단지 상념을 통해 바이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향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스트랄계에는 음악에 반응하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특별한 부류의 데바들이 있다. 때로 그들은 음악에 깊이 심취한 사람들을 기꺼이 가르치기도 한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잠 같은 것은 없다. 물질계에서 수면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육체 센터들을 쉬게 하고, 화학적으로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스트랄체는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스트랄계에는 피곤이라는 것이 없다. 아스트랄 삶의 종국이 가까워 옴에 따라 에너지의 점진적인 퇴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굳이 표현하면 이 것을 유일한 아스트랄계의 피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스트랄계에서도 망각이 가능하다. 내가 망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두 계(界) 사이의 기억의 상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스트랄계에서 지난 날 했던 일의 세부 사항을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물질계에서보다는 아스트랄계에서가 망각하기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만큼 아스트랄계는 바쁘고,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이다.

신지학 대의 61. 아스트랄 경험을 기억하기

아스트랄 경험을 기억하기

아스트랄 삶은 완전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 아스트랄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며 적어도 실상에 더욱 가깝다. 물질계의 삶은 단지 아스트랄 삶에 있는 일련의 간극과 같아서 그(간극)동안 우리의 활동은 크게 제한되고 의식 또한 부

분적으로만 작용한다. 이 저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부분에게 있어서 밤은 공백에 불과하다. 아침에 우리는 어제 밤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아스트랄계에서도 똑같이 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스트랄계의 폭넓은 의식은 지상의 의식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밤 우리의 아스트랄 의식은 지난 밤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중간의 낮동안 했던 일들도 모두 생생히 기억한다. 막하고 둔감한 것은 우리의 육체 두뇌이다. 따라서 의식이 두뇌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버린다.

아스트랄 삶은 지상의 삶보다 훨씬 더 생생하다. 그곳에서의 감정은 지상에서의 그것보다 강렬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이라 부르는 것은 아스트랄적 감정의 단편에 불과하다. 즉, 아스트랄적 감정의 대부분이 소진된 후 조악한 물질 입자들을 작용시키며 남아 있는 잔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스트랄계의 삶이 얼마나 강렬하고 실제적인 것인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아스트랄 삶에 대한 기억을 육체 두뇌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자 사이에 특별한 연결이 있거나 최소한 어떤 장애 요소가 제거되어야만 한다. 느린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 두 계(界) 사이를 가리고 있던 베일이 걷히고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을 얻게 될 것

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종종 기억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아침에 깨어나 아스트랄 경험을 기억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그것을 두뇌에 각인시키는 특별한 노력을 함으로써 가능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 특별한 사건의 발생으로 그에 대한 생생한 인상이 아스트랄체에 새겨짐으로써 일종의 반향 현상에 의해 두뇌에 각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이 완벽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따라서 많은 불완전한 단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꿈의 원천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혼란되고 불완전하며 엉뚱한지 알고 있다.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하는 미숙한 조력자의 경우에 자주 발생되는 왜곡된 형태의 하나는 그가 자신을 피원조자와 혼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 한 가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한 번은 우리 멤버 중 한 사람이 폭발 사고의 희생자를 돋기 위해 대리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침에 내게 그 사건을 설명할 때 그는 자신이 폭발 사고의 희생자였던 것처럼 여겨진다고 말하였다. 자신을 피원조자와 너무도 밀접하게 동일시한 결과 희생자가 느꼈던 충격과 위로 치솟아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그대로 느꼈던 것이다.

이 멤버가 다시 다른 사건을 맡게 되었다. 탄약 수송차를 몰고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다가 차에서 퉁겨 나와 바퀴에 깔려 죽은

병사를 돋는 일이었다. 이때에도 그는 자신을 그 병사와 완전히 동일시하였다. 자신이 수송차를 몰다가 거기서 튕겨 나와 죽는 꿈을 꾼 것이 그 사건에 대한 그의 기억 형태였다.

때로는 아스트랄 체험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표현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종종 그 상징적 표현은 매우 정교하며 시적이기 까지 하다. 이것은 분명히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을 하는 자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종종 사건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지 않고 상징만이 기억되는 일도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기억되는 것이다.

이때 만일 당사자에게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동료가 없다면 그는 자기가 실제로 한 일에 대한 모호한 관념만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실례가 오래 전에 있었다. 너무나 오래 된 일이고 당시에 기록을 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어느 날 한 조력자가 내게 찾아와 자신이 꾼 아주 생생한 꿈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어떤 젊은 여성의 바다에 빠진 장면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바다에 던져진 것이라는 인상을 받

은 듯 했다. 그러나 그 용의자의 모습을 보지는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도와줄 수 없었다. 당시 아스트랄체로 있었고 그것을 물질화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황의 급박함으로 인해 감각이 날카로워진 그는 그 여자의 애인에게 현장의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그러자 애인은 당장에 물에 뛰어들어 그녀를 해안가로 구해 왔다. 이후 그녀의 아버지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아스트랄 조력자는 위에서 말한 세 명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했다. 나중에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기억이 분명한 것인지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그 사건을 검토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상징일 뿐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내가 그 사건을 조사한 내용이다.

그 젊은 여성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하고만 살아왔다. 집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녀 주위에는 당연히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스토리는 그들 중 두 명의 남자하고만 관련되어 있다. 한 명은 이웃의 아주 훌륭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럼을 많이 탔다. 그는 그녀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고 성장하면서 친구 사이를 유지해 왔지만 사실상 남 모르게 연정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의 남자는 확실한 사기꾼 타입의 사람이었다. 잘 생긴

얼굴에 저돌적인 성격, 매혹적인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는 밑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황홀한 외모에 놔울 잊었다. 그리고 자기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쉽게 단정지었다. 물론 앞서의 남자 친구와의 우정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기꾼이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아버지는 냉담한 태도로 대했다.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도 단번에 거절한 것은 물론이었다. 딸은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남자는 그녀를 은밀히 만나 피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매우 독선적이고 진부한 사람이며 딸을 오해하고 학대하고 있으니 자기와 함께 도망치자고 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인생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고 미래는 장밋빛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어리석은 여자는 그를 믿었다. 차츰 그녀는 감정이 동요되었고 결국 그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우리의 멤버인 조력자가 그녀와 조우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도망치려고 마음먹은 날이었다. 멜로 드라마에서처럼 그 사기꾼은 사륜 마차와 함께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기 방에서 서둘러 빠져 나와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마음은 매우 혼란돼 있었다. 그리고 끝내 정말로 그렇게 하기가 무척 난감했다. 우연히 지나가던 조력자의 주의를 끈 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의 동요, 도움을 바라는 강렬한 소망이었다.

그녀의 상념을 읽고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즉시 그녀가 경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가 바라는대로 움직이도록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주의를 둘러보며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서재에서 어떤 집필 작업에 너무 깊이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력자가 주의를 끌어오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거의 잊혀진 그녀의 젊은 애인이 인식권 안에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다.

사랑에 빠진 세상의 모든 남자들처럼 그는 별빛 아래서 배회하며 그녀의 창문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조력자는 그에게 달려들어 감정 상태를 살펴보았다. 반갑게도 그의 마음은 민감한 편이었다. 깊은 사랑으로 열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력자의 은밀한 인도에 따라 그는 쉽게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차와 사기꾼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간파했다. 마음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떨렸다. 그녀를 잃는 것도 잃는 것이지만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파탄나기 직전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그는 흥분감에 모든 예의 따위는 잊은 채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급히 계단을 뛰어오는 그는 방문 앞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거친 열정으로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이런 식으로 보답하여서는 안 되며 허심탄회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의 돌연한 출현과 호된 질책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비로소 꿈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붙잡고 아버지에게 끌고 가는 동안에도 저항하지 않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지는 상상이 충분히 갈 것이다. 그는 자기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도 마법에서 풀려난 듯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이 충직한 젊은이에게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쳤다. 그리고 그날 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오랜 어린 시절의 사랑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고 그의 신부가 될 것을 맹세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전모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력자의 자아에 의해 취해진 상징이 비록 실제의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부적절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때로는 아스트랄 경험에 대한 실제적인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단지 그 효과만을 느낄 때도 있다. 즉,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정확히 무슨 일 때문인지는 기억하지 못 하지만 어떤 강한 고양감 또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충만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는 대개 일이 잘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경우, 우리는 때로 경외심 또는 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깨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대개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의 앞에 있었거나 위대한 힘에 대한 어떤 직접적 증거를 보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어떤 때는 끔찍한 공포심을 갖고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어떤 낯선 느낌에 대한 육체의 경고이거나 아스트랄계에서 끔찍한 존재와 맞닥뜨린 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또는 공포에 사로잡힌 어떤 아스트랄 존재와 교감함으로써 그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들 중 아스트랄체로 활동할 때 육체의 두뇌가 그것을 기억할 지의 여부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특별히 기억하는 습관을 갖기 원한다면 다음 내가 설명하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

우선 아스트랄계의 기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당신이 육체를 벗어나 있을 때 기억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스트랄체가 육체로 돌아올 때 그 과정을 서서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대개는 복귀의 과정에서 다소 급격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전에 움직이지 말고 스스로

에게 말하라.

‘여기 나의 몸이 있다. 이제 나는 그 속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몸 속에 들어간 순간 나는 일어나 앓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겠다’

그리고 나서 몸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고, 일어나 앓자마자 즉시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어라. 만일 몇 분이라도 지체한다면 거의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기억해 낸 단편들은 다른 기억을 회상해 낼 수 있는 연결 고리로서 역할 할 것이다. 그렇게 적은 메모들은 나중에 읽어보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다른 세계의 경험을 물질계의 단어로 애써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당신은 차츰 아스트랄 기억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과 끈질긴 인내심이 요구된다. 당신은 육체를 벗어 아스트랄계에 있을 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체계적으로 노력하라. 기억을 성공적으로 재생 시킬 때마다 다음 번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습관적, 자동적으로 회상해 낼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면과 깨어 있음 사이에 무의식적 순간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베일로 작용한다. 이는 촘촘히 짜여진 최고급 부분

계 질료의 거미줄을 통해 바이브레이션이 통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아스트랄계로부터 육체로 돌아올 때는 마치 두껍고 무거운 외투를 두르는 듯한 큰 압박감이 느껴진다.

아스트랄계에서의 삶의 기쁨은 매우 크다. 그에 비하면 물질계의 삶은 삶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육체의 수면 중에 아스트랄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질계로의 복귀를 마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들은 물질계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만일 가능하기만 하다면 돌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누군가 멘탈계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는 아스트랄계의 삶에 속박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축복이 본질인 봇디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의식이 봇디 차원에 이르면 항상 지복을 느끼게 된다. 지상에 육체로 묶여 있어 고차원의 기쁨을 밖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고급계의 실재를 찰나라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아스트랄계의 기쁨은 물질계의 그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육체에 구속된 자로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환희의 매력이 있다. 때로는 그 때문에 진리의 길을 걷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고차원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스트랄계의 기쁨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후에 가능한 빨리 아스트랄 차원을 통과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결코 그 정제된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영적인 삶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덧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스트랄계와 천계의 삶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물질적 욕망을 극복해야 할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이 두 세계마저도 초월해야 하는 것이다.

신지학 대의 62. 고차원

고차원

존재계에는 일곱 개의 수준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이 육체든 아스트랄체든 아트마체든 그 어떤 것을 통해 작용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육체나 아스트랄체를

사용할 경우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만일 아트마체를 작용시킬 수 있다면 전체 사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3차원적인 물체, 4차원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공간이 일곱 개의 차원을 갖고 있다면 모든 물체는 그 공간 안에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차이는 단지 인식력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단지 3개의 차원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물과 존재의 단편만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는 4차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 역시 사물의 일부분만을 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일곱 계(界)로 구성된 광대한 우주의 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중 오로지 3차원과 일정한 농도의 질료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고급 질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3차원을 넘어선 다른 모든 차원들은 존재하지 않는거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인식력이 현상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돌을 하나 집어들었다고 하자. 그때 우리는 오직 돌의 물질 입자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돌의

내부에 아스트랄, 멘탈 질료, 그밖의 고급계의 질료 입자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 일곱 수준의 질료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3차원에 국한된 인식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 상기한 사실에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돌을 조사하기 위해 눈이라는 육체 기관을 사용한다. 하지만 눈은 오로지 일정한 유형의 질료에 의해 방사되는 일정한 수준의 파동만을 감지할 수 있다. 소위 아스트랄 의식을 계발한다면 우리는 상이한 진동에 감응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돌의 보다 섬세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아스트랄 의식을 계발하다가 육체를 잃는다면(즉, 죽는다면) 우리는 오직 돌의 아스트랄 대응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돌 자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의 물질적 부분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만일 육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스트랄 의식을 다 계발하였다면 우리는 대상을 의 물질체는 물론 아스트랄 대응체까지 동시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두 부분을 동시에 동일한 투명도로 볼 수는 없다.

공간의 모든 차원들은 모든 사물에 서로 삼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차원의 수는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 한정된다. 물질계에서 우리는 보통 3차원만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우리의 두뇌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4차원 형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아스트랄 의식은 4차원에 대한 인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스트랄 의식을 열었다 해서 당장 모든 물체 속에서 연장된 4차원체를 알아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아스트랄계에 들어갔을 때조차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하며 그것을 단지 물체 속에 있는 어떤 얼룩이나 이물질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질료의 특질에 대해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 한 채 아스트랄계의 삶을 통과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일시적으로 아스트랄 환영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4차원을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수준에 오르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주의깊게 훈련을 쌓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아스트랄계에 속한 존재들은 본질상 모든 사물의 4차원적 측면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게 모든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아스트랄 질료만을 인식할 뿐 물질 질료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물질만을 인식하고 아스트랄 질료를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아는 한, 아스트랄 존재들은 물질계의 우리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들은 물질계의 질료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그것의 아스트랄 대응체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고차원은 3차원 질료처럼 우리의 물질 의식권에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특별한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서 가스의 밀도는 어느정도 4차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물체가 벽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의 크기만큼 벽의 일부가 분해되어야 한다. 아니면 물체 자체가 분해되던가. 이 말은 입자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과되도록 에텔 상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3차원적인 방법이다. 에텔 또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벽이나 물체를 분해하지 않고 그 물체를 벽이 존재하지 않는 4차원의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 의식 안에 그러한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유공성(有孔性) 진흙으로 만들어진 컵이 있고 그 안에 물을 채우려면 물을 증기로 변화시켜 컵 면을 얹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분해와 재결합의 과정과 비슷한 방법이다. 기체로 변형된 물이 컵의 미세 구멍을 통과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자연적인 물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훨씬 단순한 방법도 있다. 뚜껑을 열고 위에서 물을 부어 넣어 컵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물은 다른 상태로 전혀 변화될 필요가 없다. 상기한 두 예는 과정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상호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제 8장 멘탈체와 상념의 힘

신지학 대의 63. 멘탈체

멘탈체

나의 저서,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읽은 독자들은 종종 거기서 분류한 인간의 성질 항목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기, 존엄, 쾌활, 정직, 성실과 같은 부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한 성질들이 위 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여타

성질들처럼 즉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색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들의 존재 여부를, 투시를 통해 식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멘탈체의 구조적 차이, 표면의 변화 등으로 인식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로 그러한 성질들은 색깔에 의해서보다는 형상에 의해 표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상기 책에는 멘탈체의 삽화를 통해 인간의 주요 성질들을 나타내는 색깔과 그 배열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질을 나타내는 색깔들은 난형체의 상반부에 있으며 나쁜 성질을 나타내는 색깔들은 하반부에서 발견된다.

즉, 고급한 열망을 나타내는 자색, 헌신의 청색, 사랑의 장미색, 지성의 노란색, 자부심 또는 야망의 오렌지색 등은 난형체의 상반부에 있는 반면 분노, 이기심, 질투의 상념을 나타내는 색깔들은 하반부에 내려와 있다.

위 책에서 묘사된 삽화들은 멘탈체가 사실상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여 그린 것이다.(역주) 그러나 사람이 강하고 분명하게 사고 작용을 할 때는 그(멘탈체 변화)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멘탈 유닛(Mental Unit)은 멘탈체의 심장 또는 센타로 여겨진다. 멘탈체의 모습은 주로 이 유닛의 상이한 부분들의 상대적인 활동에 달려 있다. 인간의 마음의 다양한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일정한 구분, 분류를 이루는데 이 구분들은 멘탈 유닛의 상이한 부분들을 통해 표현된다. 멘탈 유닛은 결코 언제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람의 태입과 발전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만일 멘탈 유닛이 비활동 상태에 있다면 그로부터 방사되는 힘은 멘탈체 내부에 많은 터널을 만들 것이다. 마치 환등기의 슬라이드를 통하여 나오는 빛이 환등기와 시트판 사이에 큰 방사 터널을 만드는 것처럼.

이 경우 멘탈체의 외부 표면은 시트판에 비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외부로 가시화 되는 것은 멘탈체의 표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우리는 멘탈체의 표면에 나타난 수많은 칼라 그림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보편적인 여러 유형의 상념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멘탈 유닛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 그 효과로 멘탈체에는 일련의 밴드들이 생긴다. 이 밴드들은 언제나 윤곽이 뚜렷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넓이 또한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 눈에 구분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구도심이 있으면 그 마음은 항상 멘탈체의 정점에 작지만 아름다운 자색 원으로 나타난다. 구도자가 구도의 문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그 원의 크기와 광도는 증가한다. 비전가 안에서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색깔의 광휘를 발하는 모자와 같이 된다.

그 밑에는 종종 헌신의 상념을 나타내는 청색 링이 있는데 대개는 다소 그 크기가 작다. 그러나 종교적인 진실성과 깊이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크다.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넓은 애정의 상념존(zone)이 있다. 그것은 진홍색 또는 장미색을 띠고 있다. 사랑의 존(zone) 다음에는 자부심과 야망의 상념을 나타내는 오렌지색 벨트가 있다.

이것과 밀접되어 지성의 노란색 벨트가 있다. 여기에는 대개 두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기 철학적, 과학적 유형의 상념을 나타낸다. 이 노란색 칼라가 있는 위치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종종 난형체의 상부 전체를 채우면서 헌신과 사랑의 벨트 위에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자부심이 극단적인 형태이다.

난형체의 중간 부분에는 구체적인 형상들이 발산되어 나오는 넓은 벨트가 있다. 멘탈체의 이 부분을 통해 모든 일상적인 상념체가 나온다. 이 곳의 주요 색깔은 녹색인데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갈색 또는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다. 멘탈체 중에서 이곳보다 더

다양한 부분은 없다. 어떤 사람의 멘탈체에는 이 곳에 수많은 구체적 이미지들로 꽉 차 있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도 하다. 또한 그 이미지들의 윤곽이 뚜렷하여 분명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흐리고 안개 같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질서정연한 배열을 이룬 사람,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인 사람도 있다.

난형체의 하부에는 온갖 종류의 저급한 상념들을 표현하고 있는 벨트가 있다. 종종 비천한 이기성의 찌꺼기들이 쌓여 멘탈체의 1/3 또는 심지어 절반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다. 그 위에는 종종 증오, 교활, 공포 등을 나타내는 링이 있다. 사람의 의식이 발달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저급한 부분은 사라지고 상부가 점차 확장하여 멘탈체 전체를 꽉 채우게 된다.

상념을 자극하는 감정의 강도는 색깔의 휘도를 통해 나타난다. 헌신의 감정을 예로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존경, 경외, 숭배의 세 단계로 말할 수 있다. 애정의 경우에는 선의, 우정, 사랑의 세 단계가 있다. 상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바이브레이션이 더 커지고, 영적이고 비이기적인 상념일수록 바이브레이션이 높아 간다. 전자는 칼라의 휘도로, 후자는 칼라의 명도로 나타난다.

멘탈체의 다양한 구역들은 대개 다소 뚜렷한 줄무늬 형태를 띠는데 그것을 조사하면 그 사람의 많은 성질들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의지의 소유자는 멘탈체 전체가 매우 분명한 선들로 나타난다. 모든 줄무늬 방사선들은 안정되어 있고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반면, 마음이 흔들리고 나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의 명료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즉, 상이한 성질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선들은 희미하고 줄무늬와 방사선들은 작고 약하며 불안정하다.

멘탈체에서 용기는 특히 자부심과 관련된 오렌지 밴드 안에서 매우 확고하고 명료한 선으로 나타난다. 위엄 역시 멘탈체의 동일한 부분에서 주로 표현되는데 고요한 안정성과 확실성 면에서 용기의 선들과는 매우 다르다. 정직과 정확함은 구체적 형상을 만들어 내는 멘탈체의 중간 부분 줄무늬의 규칙성과 거기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의 정확성, 명확성을 통해 분명히 표현된다.

충성은 사랑과 헌신이 강화된 성질이다. 따라서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는 멘탈체의 해당 부분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의 모습이 언제나 형상화된다. 충성, 사랑, 헌신의 경우 그 느낌을 통해 멘탈체에 매우 강한 영구적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오라 속에 남아 있다가 헌신의 대상에 대한 상념이 일 때마다 그 힘으로 인해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킨다. 이때 보통의 경우처럼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멘탈체와 아스트랄체에 독특한 파문으로 표현된다. 쾌활함은 이것이 변형되어 안정되고 고요한 거품 모양으로 나타난다. 놀람은 멘탈체의 급격한 위축으로 나타난다. 만일 놀람이 기쁜 형태의 것이라면 위축과 함께 애정의 밴드 안에 홍조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나쁜 형태의 것이라면 난형체의 하부에 갈색과 회색이 폭증하는 색깔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수축은 대개 아스트랄체와 육체에 전달되어 매우 불유쾌한 느낌을 야기시키고 태양신경총과 심장 센타에 영향을 미친다. 태양신경총에 영향을 미치면 의기소침이나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 센타에 영향을 미치면 마비나 급사의 원인이 된다.

공포는 놀란다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멘탈체의 혼신 파트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대개는 그 영향으로 팽창 현상이 일어나며 줄무늬들은 더욱 뚜렷해진다.

사람의 상념이 강하게 작용하면 그 상념에 상응하는 멘탈체 부분

은 대개 팽창 현상을 일으키고 칼라 또한 밝아지면서 잠시 동안 난형체의 조화를 깨뜨린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팽창 현상이 상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특정한 형태의 상념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가 학문을 연구하는데 갑작스럽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상념을 쏟아 부으면 앞서 말했던 팽창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언제나 일정한 양의 상념만을 지속적으로 학문 연구에 쏟는다면 팽창된 부분은 차츰 본래의 모습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 칼라의 밴드는 전보다 더 넓어질 것이다. 한편 학문적 주제에 대한 그 학자의 관심의 정도가 부단히 증가한다면 밴드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그 팽창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으로 발전이 덜 된 사람은 난형체의 하부가 상부보다 더 크다. 따라서 멘탈체와 아스트랄체는 위 끝이 뾰족한 달걀모양이 된다. 그러나 진화가 많이 된 사람은 고급한 성질들을 부단히 중대시키기 때문에 위는 넓고 아래는 뾰족한 달걀모양이 된다. 하지만 난형체는 항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모습은 일시적일 뿐 영구적이지는 않다.

멘탈체와 아스트랄체의 질료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멘탈체가 어떤 갑작스런 감정에 의해 혼란 될 때 그것의 모든

질료는 마치 난폭한 태풍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휩쓸리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색깔들이 뒤죽박죽 된다. 그러나 잠시 후 다양한 색깔을 방사하는 상이한 유형 질료들의 특별한 인력에 의해 전체 배열이 다시 정리되고 평상의 존(zone)들이 회복된다.

그러나 평상시의 존(zone)으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질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며 입자들이 항상 그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때 혼한 일은 아니지만 입자들이 자신의 구역을 떠나 다른 벨트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존(zone)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어떤 특별한 존 내부 질료의 활동량은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상념 양에 비례한다. 만일 어떤 부류의 상념이 침체되면 해당 질료에 그대로 반영된다. 더 나아가 거기에 편견이 자리잡으면 그에 대한 사고(思考)가 멈추고, 작은 와동이 생겨나 그 안에서 멘탈 질료가 계속 맴돌다가 마침내 응결되어 일종의 종양이 생겨난다.

만일 이 종양이 제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멘탈체의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고 결국 그러한 주제에 대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종양은 내부와 외부에서 모든 자유로운 운동을 방해한다. 그것은 어떤 문제를 정확히 보거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어떤 분명한 상념을 발송하는 것도 방해한다.

불행하게도 이 환부는 멘탈체 내에서 전이되어 우리의 인식 능력

을 점점 더 심각하게 무력화시킨다. 만일 우리가 어느 하나의 주제에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곧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멘탈 질료의 건강한 흐름이 막혀 못된 습관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편견은 가장 일반적인 것임과 동시에 가장 심각한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이성적 사고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멘탈체의 기능이 정체되어 있다.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종양들로 덮여 있다.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는 헌신적 타입과 과학적 타입의 사람의 아스트랄체 삽화가 게재되어 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대하게 되는 유형에는 직관적인 타입과 실제적인 타입이 있다.

후자는 일반적으로 멘탈체의 색깔이 노란 주종을 이루고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다양한 칼라 군(群)이 배열되어 있다. 그는 직관적인 타입보다 훨씬 덜 감상적이며 상상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힘과 열정이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실수가 적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

직관적인 사람의 멘탈체 속에서는 청색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그밖의 여러 색깔들은 대개 모호하고 매체의 전체 모양 또한 비정형적이다. 그는 과학적인 타입의 사람보다 매사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종종 그러한 고통을 통해 빠른 진보를 이루어 낸다.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한 사람에게는 정열, 열정, 침착함, 규칙성 등이 구족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지 어떤 성질을 먼저 습득하였는가의 문제일 뿐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오컬트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영능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멘탈체의 색깔을 통해 알 수 있다. 누군가 오컬트 방면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의 멘탈체 전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화되고 질서 있게 작용하게 된다. 오컬트 수련이 멘탈체 전체에 필요한 작용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진정한 진보를 이루고자 결심했을 때 그의 멘탈체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는 강하고 분명한 상념체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념체들을 분명히 심상화할 수 있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상념체를 만든다는 것과 그것을 심상화 한다는 것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분명한 상념체를 만들

기는 해도 그것을 잘 심상화하지는 못한다. 상념체의 형성은 멘탈체를 통한 의지의 직접적 작용이다. 이에 비해 심상화는 상념체를 멘탈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강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심상화 시킬 수 있든 없든 그 이미지는 멘탈체 속에 있다. 당신은,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멘탈 활동은 반드시 육체적 두뇌를 통해 행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컬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멘탈체를 계발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멘탈체가 즉각 작용할 수 있도록 두뇌 역시 질서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뇌의 특정 부위는 인간의 특정 성질과 연결되어 있고 일정한 유형의 생각하는 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두뇌의 그 모든 기능은 체계화되어야 하며 멘탈체 내의 존(zone)들과 조직적이며 적절한 상관관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자아와 멘탈체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아는 이 모든 성질과 에너지들을 만들고 이용하는 힘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아가 매체들 속으로 내려와 살피게 되는 것이다. 섬세한 멘탈체와 좋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대개는 삶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자아는 자신의 작은 단편만을 저급계에 내려보낸 채 그 매체들(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이 제멋대로 혼란되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나는 어디선가 이런 상태를 고치는 법에 대해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말해 보겠다. 무엇보다도 자아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하라. 그러면 자아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즉시 하강해 올 것이다.

만일 자아가 바라는 것이 사랑의 계발이라면 이 저급계에서 사랑을 최대한 발현시켜라. 그러면 그는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 즉시 응답할 것이다. 만일 자아가 지혜를 바란다면 현명해지도록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자아는 당신의 노력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협조할 것이다. 자아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 그것을 주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자아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역주

아래 그림은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 나오는 멘탈체 삽화이다.

야만인의 멘탈체

일반인의 멘탈체

진보된 인간의 멘탈체

신지학 대의 64. 상념의 힘 * 직관과 충동

상념의 힘

상념에 대해 특별히 연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속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기력이나 수력은 실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상념의 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상념의 힘이 증기나

물의 힘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직접적인 면과 간접적인 면 모두에서 말이다.

우리는 상념이 일어날 때 그 간접 작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상념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념은 행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물이 방앗간의 원동력인 것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념의 직접적 작용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상념 자체만으로 이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질을 넘어선 보다 섬세한 질료들이 많이 있고 상념의 힘이 그것들 위에 직접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상념은 멘탈체 내에서 바이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바이브레이션은 외부 질료와 교통하여 어떤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상념은 자체로 실제적이고 명백한 힘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들 모두가 그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몇몇의 부자들만이 증기력이나 전기력을 소유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젊은이나 노인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상념의 힘이다.

우리는 그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사실상 우리들 모두는 지금도 그 힘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무지로 인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

<상념체>에서는 인간의 상념이 두 가지 주요한 외적 효과, 즉 방사 진동과 부유하는 상념체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되어 있다. 지금부터는 이 효과들이 어떻게 상념의 주인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습관의 힘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멘탈체를 어떤 특정한 유형의 진동에 길들이면 멘탈체는 그것을 즉각적이고 용이하게 재생시켜 낸다. 오늘 우리가 특정한 생각을 가지면 내일은 그와 동일한 상념을 생각하는 것이 분명 쉬워질 것이다.

만일 누군가 타인에 대해 악념을 갖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 쉽게 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해 어떤 선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결국 엉뚱한 편견이 생겨 타인에 대해 선이 아닌 악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는 타인에게서 악만을 보기 때문에 상대를 증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념은 자신의 감정을 혼란시키게 된다.

멘탈 질료의 진동은 마치 폭풍이 바다 표면을 요동치게 만들듯 농밀한 아스트랄 질료의 진동을 흥분시킨다. 악에 대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분노를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게 된다.

상념이 그 주인에게 미치는 또 하나의 반작용은 상념체에 의해 생긴다. 상념이 타인에게 향해진 것이라면 그 상념체는 미사일처럼 그 타인에게 날아간다. 그러나 만일 상념이 발출자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상념체는 발출자의 근처를 떠돌며 언제든 반작용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된다.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더 동일한 상념이 일어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그는 마치 그러한 상념이 마치 외부로부터 자기 마음 속에 주입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과거의 상념이 만든 기계적 결과일 뿐이다.

확실히 모든 상념이나 감정은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며 우리의 성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발출자 자신에게 끊임없이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내면에서 솟아나는 상념, 감정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왕국에 대한 지배자로서의 특권을 주장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악한 상념에 물들 수 있다면 꼭 마찬가지로 선한 상념의 습관을 길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습관을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면 놀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미움이 아닌 사랑을 베풀게 되며, 적어도 그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항상 선하고 친절한 생각을 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머지 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의심과 멸시가 아닌 칭찬과 감사의 궤도를 따라 쉽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떠오르는 상념들조차 선한 것들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애써 우리를 둘러쌌던 고상한 상념체들의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므로 상념의 힘을 체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훨씬 더 쉽고 기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상념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자연의 다른 진동들처럼 상념파는 재생되는 성질이 있다. 불 앞

에 물건을 갖다대면 얼마 없어 그것은 뜨거워진다. 왜냐하면 벽 난로의 백열 물질로부터 나오는 빠른 진동파가 그 물건의 분자를 자극하여 역시 빠르게 진동시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한 상념파를 지속적으로 방사하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타인 안에도 유사한 파장의 상념이 깨어나게 된다. 우리가 보낸 상념체들은 그의 주위를 떠돌다가 기회가 오면 그에게 선한 작용을 미치게 된다.

악념은 발송자나 그것을 받는 자에게 모두 유혹하는 악마가 되며 선한 상념은 미덕을 고무하고 악을 구축하는 참된 수호 천사가 된다.

오늘날 불행히도 타인에 대해 불평하고 헐뜯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의 해악성을 깨닫지 모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배운다면 우리는 악의에 찬 가십이 매우 사악한 행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십의 근거가 있고 없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타인 안에 어떤 악을 상정하고 그것에 집중한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람들이 질투심으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가정해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가엾은 사람에게 질투의 상념을 쏟

아 부을 때 만일 그 희생자에게 그런 나쁜 성향이 내재해 있다면 그를 향해 폭포처럼 떨어지는 비난으로 인해 그 성향이 더욱 크게 강화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만일 가십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면(-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 그것을 열심히 퍼트린 자들은 타인 안에 자신이 마음속으로 거듭 상상하고 야만스럽게 웃으며 즐기는 바로 그 악덕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당신은 타인의 장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그것은 당신이 취해야 할 건전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장점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타인 안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악한 성질을 인식하게 될 때는 특히 주의하여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그가 계발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반대의 미덕을 생각하라.

만일 그가 인색하거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의하여 그 결점에 대해 혐담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의 상념을 그 결점에 집중시키지 않도록 하라. 당신이 그에게 발송하는 진동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의 온 힘을 다해 그에게 필요로 한 성질을 생각하고 관용과 사랑의 파동이 넘치게 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당신의 염력을 사용하라. 그러면 당신은 진실로 축복의 센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당신이 상념의 힘을 무한정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대의 효용을 바란다면 그것을 낭비해서

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단지 산란한 진동의 센타에 불과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해 근심 걱정하는 상태에 있거나 깊은 실망에 빠져 있으며 때로는 뭔가를 볼 들기 위한 노력으로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다. 아무튼 그들은 대개 매우 하찮은 일로 언제나 불필요한 동요 상태에 있다. 그것은 마땅히 자신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써야 할 유용한 힘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또 다른 형태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사람들은 항상 타인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도록 만들려고 애쓴다. 정치, 종교, 기타 어떤 문제이든 거기에는 항상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것과 타인 또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견해의 차이는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사실은 사실대로 그냥 남아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논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다. 대개의 경우 큰소리로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상념의 힘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에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고요하고 사려깊어야 한다. 그는 말하거나 행동하기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상념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 각자의 큰 진보는 물론 세계에 큰 이익을 베풀 수 있게 된다.

당신은 먼저 이 상념의 힘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악하고 불친절하고 이기적인 상념을 억제해야 할 의무가 당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념은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의도한대로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상념은 콘트롤하면 할수록 차츰 그 통제가 쉬워진다.

타인에게 보내는 상념은 돈을 주는 것만큼이나 실제적인 일로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타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선 행위이다.

우울한 상념을 내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그것은 고급한 상념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 우울증은 민감한 성향의 타인들에게도 큰 고통을 야기한다.

아이들이 밤에 느끼는 공포심의 주원인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로

부터 방사된 우울의 파장이다. 나쁘고 불쾌한 상념으로 어린 생명에 어두운 구름을 드리우는 것은 옳지 않다. 우울을 떨쳐 버려라. 그리고 힘을 북돋워 주는 상념을 아픈 자들에게 보내 주어라. 당신의 상념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바이브레이션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악한 상념은 악한 말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친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상념일지라도 그러한 성질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주욕의 상념은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은 그의 아스트랄체에 부딪치기는 하겠지만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그 상념의 발송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의지를 직접 물질에 작용시킬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예로서 명상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림에서 종종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목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실제로 물질 입자들은 강하고 지속적인 상념의 힘에 의해 영향받는다. 블라바츠키 여사는 제자들에게 바늘을 명주 실로 매달아 의지력으로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수련법을 가르쳤다.

어떤 조각가는 염력을 전혀 다른 방편을 이용했다. 그는 대리석

재를 볼 때마다 상념으로 조각상의 형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대리석재 내부에 형체를 심은 뒤 그 상념체의 외부에 있는 대리석은 깎아 내고 애초에 자신이 투사시켜 놓은 부분만을 남김으로써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매일 약간의 시간을 따로 빼어 규칙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상념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라.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훌륭한 수련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분명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직관과 충동

사람들은 종종 직관과 충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묻곤 한다. 나는 그들의 딜레마를 충분히 이해한다. 처음에는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은 단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마음을 편히 가지라. 의식이 성장해감에 따라 당신은 ‘이것이 바로 직관이구나’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직관과 충동 사이의 구분은 너무도 명확하여 거기에 실수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두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들은 거의 똑같아 보인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데 깊은 주의가 필요하며 판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두 번 분별 있게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베산트 여사는 결정에 혼란이 올 때는 잠시 기다리는 편이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충동이라면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점차 약해질 것이고 반대로 직관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동은 대개 언제나 흥분을 수반하며 어떤 개인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 따라서 상황이 즉각 따라 주지 않으면, 달리 말해 어떤 것이 그것을 방해하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 반면 진정한 직관에는 결정과 함께 고요한 힘이 수반된다.

충동은 아스트랄체의 큰 요동이며 직관은 자아로부터 인성에 각인되는 지식의 단편이다. 때로는 갑자기 어떤 인상이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오기도 한다. 그것은 위의 세계에 있는 누군가 (- 대개는 사자, 또는 고인이 된 혈연)로부터 오는 메시지나 암시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살아 생전 우리에게 해주던 충고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암시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 버려라. 어떤 사람이 단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꼭 우리보다 현명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강하고 견고한 상식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상상이나 꿈만 믿고 선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단계에서 나는 당신이 확실한 판단의 근거로서 언제나 이성에 따르기를 권하는 바이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직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단순한 충동은 아스터랄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직관은 고급 멘탈계(때로는 봇디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마음속에 떠오른 느낌이 진정한 직관임을 확신한다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도기 단계에 있는 당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모험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이성에만 매달린 나머지 고급한 진리의 섬광을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한 충동을 직관으로 착각하여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나의 경우, 후자의 가능성을 무척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거듭 거듭 직관이 아닌 이성을 따랐었다. 그러다 수 차례의 경험을 통해 어떤 유형의 직관은 항상 정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것에 충실히 따르기 시작했다. 당신 또한 분명히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신지학 대의 65. 상념체 * 상념과 엘리멘탈 에센스

상념체

멘탈계의 고급 차원에서 우리의 상념은 훨씬 더 큰 힘과 연결되어 작용한다. 우리는 일정한 구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다른 상념들이 거의 없다. 동일한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서로간에 교감을 이루는 법이다. 따라서 세계 어딘가에 어떤 강한 상념이 있으면 당신은 그것에 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념의 발송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강한 상념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작용하는데,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과 관련하여 작용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바이브레이션이 보다 명백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다가온 어떤 갑작스런 영감이나 환시는 단지 동일한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상념체일 수 있다. 이 때 그 사람이 당신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지리적인 근접이 통신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은 사실이지만.

상념체와 관련하여 일종의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상념 덩어리들은 아주 명백한 실체로서 공간 내에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동일한 주제, 동일한 성질의 상념들은 함께 모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특정한 공간에는 각각의 주제에 상응하는 상념 센타가 존재하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한 상념은 해당 센타가 잡아당기는 인력의 작용을 받는다. 상념 센타는 일치와 불일치, 옳고 그름을 불문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흡수한다.

우리는 이 상념 센타 안에서 일정한 주제에 대한 모든 상념들이 그 초점에 모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념체들과의 정신 감응을 통해 상념의 발송자들을 추적하여 그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해 온 다른 사람의 상념을 끌어올 수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아스트랄계에 있다 해도 그와 접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

다. 육신을 벗은 상태에 있든 수면 상태에 있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 따라 타인을 돋고자 노력한다. 그들의 눈에 타인 이 어떤 개념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전해주려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일 당신이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사상이 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통해 타인을 도울 것이다. 그러한 연민은 당신이 이승을 떠났어도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사상이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이다.

종종 그러한 상념은 상징적 형태로 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뱀과 코끼리는 종종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많은 상징 세트들이 있다. 자아는 각기 자기 나름의 상징 세트를 갖고 있지만 꿈속에 나타나는 일부 유형들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흔히 물에 대한 꿈은 어떤 고난을 상징한다고 일컬어진다. 비록 나의 경우 그런 연관성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다 할지라도 자아(또는 통신을 원하는 다른 존재)가 판단하기에 인성이 이해하리라고 여기면 그 심볼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물이 어떤 불행과 절대적인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길이 없는 자아는 인성이 물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고 두뇌를 통해 물 꿈을 꾸게 함으로써 임박한 불행을 경고해 주는 것이다.

꿈 이외에도 무심코 지나가는 상념 또한 암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상념의 힘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고 상념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중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상념체를 눈으로 보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추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스트랄 시각과 멘탈 시각을 계발해야 한다. 상념체는 그 진동에 의해 발출자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사색을 통해 어떤 특별한 주제에 무의식적으로 암시를 주게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념체에 의해 영향받는다. 어떤 주제에 대한 상념체를 만들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입하면 그 반작용을 받게 된다. 즉, 다음에는 그 상념체가 마치 외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암시들을 주는 것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새로 비전에 입문한 자는 이곳 아디야르에 상념체들이 여기 저기 떠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때 그들은 대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상념체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 중에서 택하게 된다.

우리가 상념체와 접촉할 때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나는 매우 잘못된 상념체를 취하는 바람에 올바른 지견을 갖던 사람이 아주 딴 사람으로 변해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공부의 초

기 과정에서 상념체와 접촉하는 노력이 도움을 줄 때도 있다.

아스트랄계에는 성질상 거의 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무수한 상념체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집적된 작업의 결과이다. 그중 많은 상념체들은 종교적인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고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예를 들어 앤 캐서린 에머리치 같은 미숙한 영능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녀는 환시를 통해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꼭 같은 예수의 수난 사건들을 상세히 보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기록이 거짓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환각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이 본 비전(Vision)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을 뿐이다.

아카식 레코드(akashic records)를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믿음이나 선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이다. 그녀가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단서는 전혀 없다. 아마도 그녀가 아카식 레코드를 우연히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종류의 환영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본 것들은 십중팔구 앞서 말한 일련의 집적된 상념체들이었을 것이다.

어떤 큰 역사적 사건에 대해 후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생하게 심상화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헌장 승인, 미국의 독립 선언 등.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생생하게 심상화된 것들은 실제로 하는 실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숙한 영능자일지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 형상들은 멘탈계 상에 존재하다가 그와 관련된 어떤 강한 감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아스트랄계로 내려와 거기서 아스트랄 질료로 구체화된다. 또한 그 상념체들은 재차 가해지는 새로운 상념들에 의해 끊임없이 강화된다. 당연히 사람들마다 그 장면들을 다르게 상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합성 사진 같이 된다. 이러한 상념의 산물은 진정한 기록보다 훨씬 보기 쉽다.

아카식 레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상념체는 단지 멘탈계를 한번 헐끗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대개 순수하고 고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황홀경 상태에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경우 그러한 조건 조차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상념체들은 아스트랄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진정으로 발생한 사실이라면 하위계에 상념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 서민들의

마음에 진정한 역사적 상황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나 번연의 천로역정, 동화 알라딘의 요술램프, 신데렐라 등에 나오는 장면 만큼 강하게 인상 지워지지 않는다. 이 집단 상념체를 본 투시가는 이야기의 진정한 원천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이야기들이 꾹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할 확률이 더 높다.

기독교는 예수의 삶 속에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켜 일련의 사건으로 표상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 영향 하에 세계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허구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심상화해왔다. 그 결과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상념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상념체의 지배를 받기 쉬운 저급한 투시가들이 그것에 주의를 뺏기지 않을 리 만무한 것이다.

앤 캐서린 에머리치나 다른 사람들이 환영 속에 본 것은 분명 위와 같은 상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저급한 투시가들도 언젠가는 진화하여 존재의 실재를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의 마스터들의 인도를 받는 선택된 자들처럼 그들 역시 단순한 상념의 결과들과 우주의 진정한 기록(아카식 레코드)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독실한 신자의 눈으로 보았던 그 장면들이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진리의 상징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이다.

상념과 엘리멘탈 에센스

엘리멘탈 에센스는 상념에 의해 조형될 때 그 상념이나 감정의 성질을 표현해 주는 일정한 색깔을 띠게 된다. 즉, 상념체를 구성하는 에센스가 상념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진동한다는 말이다. 엘리멘탈 에센스에게 있어서 진화란 모든 파동에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엘리멘탈 에센스가 어떤 상념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진동할 때 그것(엘리멘탈 에센스)은 그 특정 진동 수준에 길들여지게 된다. 그만큼 상념이 엘리멘탈 에센스의 발전을 돋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번에 앞서와 유사한 진동 영역에 들어가면 엘리멘탈 에센스는 전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바이브레이션에 반응하게 된다.

위의 과정을 거친 엘리멘탈 에센스의 원자들은 본체로 복귀한 뒤 다시 어떤 다른 상념에 포착되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이한 유형의 파동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해 감으로써 엘리멘탈 에센스는 진화해 가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물론, 자연령, 데바, 심지어 동물의 상념까지도 엘리멘탈 에센스를 차츰 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컬티스트들은 되도록 아무리 악한 인공 엘리멘탈일지라도 파괴

시키지 않는다. 대신 자기가 타인의 주위에 막을 두르는 보호책을 방어 수단으로 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상기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인공 엘리멘탈을 분해시켜 버릴 수도 있다.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독사를 죽여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러한 행위를 썩 내켜 하지 않는다. 엘리멘탈 에센스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불어넣어지는 상념이 선하든 악하든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단지 상념에 의해 이용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엘리멘탈 에센스가 선으로 표출될지 악으로 표출될지는, 영향받는 상념의 성질에 의해 좌우된다. 악한 상념이나 욕망은 그 표현을 위해 조악하고 거친 질료를 외피로 필요하며 고급한 상념은 그에 상응하는 섬세하고 빠른 진동의 질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세상에는 저급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거칠고 저급한 상념들을 방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와 천박함조차 우주 법칙에 의해 특정 존재의 진화를 돋기 위한 힘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차원의 영역에서 진화를 도울 일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보다 섬세한 엘리멘탈 질료의 진화를 고무시키기 위해 항상 신성하고 고급한 상념들을 방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저급한 자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우리들 뜻의 일인 것이다.

제 9장 영능(靈能)

신지학 대의 66. 영능 1

영능 1

영능의 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도덕적으로 고결한 것은 아니다. 신성의 길에 들어선 자는 곧 내면에서 영적 힘이 발전된다. 그러나 신성 없이도 영능을 획득할 수 있음 또한 사실이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누구나 영능을 계발할 수 있다. 계발에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마음만 있으면 마치 피아노를 배우듯 영능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도(道)에 합당하도록 인격을 닦고 수양하는데 전념하고, 영능은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어떤 사람들은 영능 계발을 조급하게 서두르곤 한다. 물론 그들이 타인을 돋기 위한 목적에서 영능을 바라고 그것을 올바로 이

용할 충분한 지혜가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자칫 정도(正道)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는 날에는 파멸을 피할 길이 없다.

영능을 얻길 꼭 원한다면 거기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육체 감각을 죽이고 아스트랄 감각을 현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약을 복용할 수도, 쇠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영구적인 방법은 자아를 발전시킴으로써 영혼이 하위 매체들을 원하는대로 콘트롤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영능의 계발은 마치 거친 말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에게 약을 먹여 둔하게 만들고 그 위에 올라 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들을 일일이 콘트롤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육체 감각을 마비시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아스트랄 감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생의 육체를 통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식으로 말을 타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어떤 말이든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자아를 계발하여 모든 매체들을 다룰 수 있게 된 사람은 미래의 어느 때 어떤 육체에 화신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진화이며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편법들은 진화와는 전혀 상관없다.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능이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어느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능 말고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주문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내가 만났던 어떤 영매는 주문을 계속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트랜스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주문을 통해 자연령들과 접촉하여 바라는 정보를 얻어내고는 질문자에게 필요한 답을 말해 주는 것이다.

테니슨 경은 자기 이름을 계속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의식을 내부 깊숙이 침잠시켜 자신의 자아와 접촉하였다. 그러한 접촉이 있고 난 후 그에게 있어서 이 삶은 한낱 어린 아이의 장난처럼 보였다. 심지어 죽음조차 단지 보다 더 큰 삶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우리는 종종 트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아를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기껏해야 한 생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진정한 영적 발전의 결과로 오는 영능은 다음 생에도 계속 유지된다. 주문을 반복함으로써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음 생에 아마 영매 차원으로 화신할 것이다. 그러나 영매

현상은 파워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에 불과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주문 암송은 교령술에 자주 이용된다. 여기서 교령술이란 온갖 종류의 센세이션을 위한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심령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나는 단순한 영언(靈言) 행위가 구체적으로 육체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지는 모른다. 하지만 대체로 통신 재료로 사용되는 나약한 상투 용어들을 놓고 볼 때 사람의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령술에는 어떤 것이 쓰일까? 아스트랄 존재(사자이든 자연령이든)가 물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고자 하면-예를 들어 피아노를 친다거나 물건 두드리는 소리를 낸다거나 뭔가 쓰기 위해 연필을 쥐고자 할 때-그 작용을 위해 에텔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아스트랄체는 직접 물질에 작용할 수 없고 양자 사이에 전동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 에텔 질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종이와 연탄만으로는 불을 지킬 수 없고 솟이라는 매개물이 필요한 것과 같다. 만일 솟이 없다면 종이는 연탄에 불을 옮기기도 전에 다 타버릴 것이다.

영매는 육체와 에텔체 사이의 결합이 부실하다. 따라서 아스트랄 존재는 쉽게 그의 에텔을 흡인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목적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물현(物顯)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

게 사용된 에텔은 다시 영매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주 영매의 몸으로부터 에텔이 흡인되는 한 그의 건강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수 없다.

에텔체는 생명력의 매체이며 그런 생명의 에센스가 우리 몸을 끌 없이 순환하고 있다. 따라서 에텔체의 한 부분이 빠져나가면 생명 순환이 막히고 흐름이 깨지게 된다. 그리고 생명력의 유출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매들이 교령회가 끝나고 녹초가 돼버리는 이유이다. 그리고 영매들 중 많은 수가 결국 술꾼이 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생명력의 갑작스런 고갈을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 자극적인 술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생명력의 유출을 계속 허용한다는 것은 결코 건강에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때로 지성적이고 사려 깊은 아스트랄 존재들은 교령회가 끝난 뒤 영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고갈된 생명력을 보충시켜 주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건강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 단지 영매로서 이용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다.

물현의 경우 거기에 사용되는 물질(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은 영매의 몸으로부터 빌려온다. 따라서 실제로 영매의 몸 크기와 무게가 일시적으로 감소된다. 이때 자연히 신체의 모든 기능에 심각한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30여년 전 내가 알던 영매들 중에서 한 사람은 지금 장님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졸중과 증 풍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나마도 교령 행위를 완전히 포기함으로 써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형태의 물현으로는 아스트랄체가 일시적으로 고형화되는 것이다. 보통 아스트랄 존재들이 물질화 되어 나타날 때 그 원료(에텔)를 영매로부터 취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상을 조형하기 쉽고 빨리 고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마술 학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치고 물현을 위해 타인의 에텔체를 손상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없다. 그리고 텔레포테이션(teleportation)을 할 때 자신이 에텔체를 흘러 놓지도 않는다. 그는 간단히 자신의 아스트랄체 주위에 풍부한 대기의 에텔 질료를 응축, 조형하여 물질화 시킨다. 그리고 의지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만큼 오래동안 그 형상을 유지한다.

보통의 물현에서 에텔체의 일부분이 육체로부터 나가는 경우, 투 시가라면 그 연결된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스트랄체와 연결되는 방법인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아스트랄 질료의 속성상 두 형체 사이의 연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자간에는 지상의 용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도의 친밀한 교감이 존재한다. 굳이 비유하자면 완전히 같은 음고로 조율된 두 악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악기는 어떤 음조로 연주되더라도 서로 항상 조화로운 소리를 발하게 된다.

신지학 대의 67. 영능2

영능 2

타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영능을 사용하는 것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대가로 돈이나 기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말이다. 치유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간단한 것은 생명력을 방사해 넣어 주는 것이다. 환자에게 활력과 기운이 보충, 강화되면 자연(Nature)이 알아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준다. 특히 오늘날 심한 신경성 질병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병이 났을 때 다른 여러 좋은 처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 환자에게 생명력이 불어넣어 질 경우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의지력으로 특정인에게 생명력을 방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의 생명력은 항상 주변 사방으로 흘어져 나간다. 주로 손을 통해. 만일 어떤 사람이 원기부족으로 비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그 부분에 생명력을 방사해 넣어 줄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그가 다시

자기 힘으로 신체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사소한 질병들은 단지 생명력의 순환을 증진시키는 것 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통은 대개 경증의 울혈이나 생명 흐름의 정체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투시가는 그것을 보고 머리 속에 강한 파동을 보냄으로써 울혈된 부분을 풀어 준다. 투시가가 아니어도 이런 치료가 가능하긴 하지만 기(氣)를 정확히 어느 부분에 보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낭비가 있게 된다.

이렇게 종종 행해지는 기 치료는 모든 질병이 일종의 부조화에 기인한 것이고 다시 완벽한 조화 상태를 회복시킨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때 타인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자는 우선 자신의 바이브레이션을 가능한 최대로 끌어올리고 사랑과 건강과 조화의 상념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나서 그 강력한 바이브레이션이 환자한테 쇄도해 차츰 조화와 건강 상태로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자신의 오라(aura)로 감싼다.

이 방법은 종종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자의 자화된 인성이 환자에게 모두 쏟아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아스트랄 차원에서 우리는 미덕이든 악덕이든 타인의 감정에 불잡히거나 교착되는 일이 없도록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상념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힘에 매우 쉽게 지배당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강제로 사람들을 나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오직 대화와 설득의 방법을 써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당신은 그런 힘으로 친구가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의 마음에 강제된 효과가 약해지면 전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음주벽 또한 그런 최면적 방법을 통해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차츰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어차피 언젠가는 그가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끔찍한 버릇(음주벽)에 완전히 종속당

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환자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최면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늪에 빠진 자를 구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최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극도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충고해 두고 싶다.

사람은 육체로부터 이탈하지 않아도 아스트랄체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스트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도의 발전 단계에 속한다. 육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관찰하거나 그곳에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트랄체가 육체를 이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하늘을 걷는 자’라는 힌두 용어는 일반적으로 아스트랄 비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일컫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 육체가 공중을 떠서 나는 공중 부양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도의 어떤 수행자들은 공중 부양을 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몇몇 위대한 성자들도 깊은 명상 상태에서 공중을 떠다녔다. 그러나 공중 부양을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제자에게 인류를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역을 부여할 때 아데프트들은 초상적인 힘을 더해 준다. 필요할 경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제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것을 쓸데 없이 낭비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제자는 스스로 즐기거나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오직 진정한 사역을 위해서만 힘을 행사 할 뿐이다.

어떤 제자는 공중을 날아 멀리 떨어진 장소로 육체를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이 없는 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초능력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쓸 데 없는 고통으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언젠가 한번은 어떤 청년이 중요 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그에게는 악의가 전혀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우 어리석게도 백지에 자기 사인을 해서 누군가에게 주었다. 마침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입수하게 되었고 그 서명 위에 교묘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주 문서처럼 꾸몄다.

이 청년은 그 사인은 자기가 쓴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그 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자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가 누명을 벗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우리 마스터들 중의 한 분이 필적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문제의 서류가 질문과 함께 그에게 전해졌다.

‘당신은 그 필적이 피고의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마스터가 서류를 훨씬 쳐다보더니 갑자기 검사한테 돌려주며 말했다.

‘이게 그 서류 맞습니까?’

그 순간 서류가 완전히 백지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검사는 문제의 서류를 분실한 것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취하되었고 그 청년은 풀려나게 되었다.

투 시 1

투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자 이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투시력을 가진 자가 그 능력을 적절히 분별있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과 축복이 되겠지만 반대로 오용될 경우 장해와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한 능력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자만과 무지와 순수하지 못함이다. 만일 이것들만 피할 수 있다면 투시력을 갖는다고 해서 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위험은 자만심이다. 영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는 자신이 남들보다 잘 났다는 우월감을 갖기 쉽다. 때로는 세상을 위한 위대한 미션을 위해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거나 천사의 인도로 새로운 천명(天命)의 수립자로 택함을 입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장막 저편에 수많은 짓궂은 존재들이 있어서 그러한 미망과 상념들을 부추기고 대천사나 수호령의 인도를 가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보통 사람은 이런 현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 그는 자기가 본질적으로 썩 괜찮은 사람이

고 특별한 계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지와 편견에 빠져 있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긴다.

두 번째 위험은 무지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위험의 원천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투시가가 자신의 전생들을 모두 알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존재계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결코 자신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자만심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이력과 상태에 무지하다면 다른 많은 투시가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다.

첫째로 그의 투시는 실수 투성이가 될 것이다. 둘째로 아스트랄 계로부터 오는 온갖 교활하고 기만적인 엔터티들의 먹이가 되기 십상일 것이다. 그는 자신의 환영과 통신 내용을 식별, 판단, 적용, 증명할 아무런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그는 사물의 상대적 조화와 합목적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진부한 격언을 신성한 지혜로 과장하고 지극히 평범한 말을 천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문적 상식의 부족으로 자기가 본 것을 완전히 오해하기 일쑤이며 그 결과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것들을 발표한다.

세 번째 위험은 불순함이다. 생각과 생활과 목적이 순수하고 이 타적인 사람은 그런 사실 자체만으로 타계(他界)의 네거티브한 존재들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그의 내면에는 부정적 존재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어떤 것도 없다. 따라서 그들의 채널로 이용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역으로, 그의 주위에는 온갖 선한 세력들이 둘러싸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를 통로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부정적 존재들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쳐주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순한 동기를 지니고 불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가시의 세계에서 매우 저급한 존재들을 끌어오게 된다. 그는 저급한 세력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한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요컨대, 상기한 모든 위험들을 각별히 명심하고 그것들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투시가, 투시 현상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투시가,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갖고자 다짐하는 투시가, 이런 투시기는 분명 자신의 영능을 통해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투시기는 먼저 성품을 닦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 자기가 본 비전(Vision)들을 신중히 관찰,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안에 필시 섞여 있을 침착(沈着)된 이물(異物)들을 진리의 핵으로부터 털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시험, 검토하여 진정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머지 않아 그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과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직접적인 투시에 의하든 단순한 느낌에 의하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상대에 대한 어떤 인상을 받는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모두 주의 깊게 기록해 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편견 없이 검토, 시험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비전(Vision) 또는 느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알게 된다. 마침내 그것이 옳고 신뢰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발전을 이룬 것이다. 그때 우리는 평범한 눈이 아닌 열려진 영안(靈眼)으로 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인의 오라를 볼 수 있다면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잠재된 좋은 성질을 끌어내고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시력을 통해 자연의 작용 과정을 관찰하거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거

나, 기타 온갖 심오한 주제들에 대한 귀중한 사실들을 알게 된다.

만일 초심자가 정규 훈련 과정을 받고 있는 다른 투시가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어려움 없이 자신이 투시로 본 것들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심의 투시가에게는 주의 깊은 관찰력과 엄청난 인내의 과정이 요구된다. 만일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주어진 능력을 확실히 사용한다면 그의 진실된 태도는 마스터들의 호의에 찬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마스터들은 항상 진화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통로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는 그토록 소망하던 마스터로부터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분명 세계를 돋는 자들의 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투시에 남다른 소질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의 교육은 모두 영능의 발현을 억압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업에 지나치게 혹사당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어린이 영능자들을 베스타 버진 (Vestal virgins)이나 예비 사제로서 외부와 분리시켜 특별한 훈

련을 받도록 했다. 오늘날은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모든 분야에서 영능의 계발을 경시하는 경향이 짙다.

어린 영능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최선책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수도자들이 있는 사원에 보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족 생활은 영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학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영능자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투시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주어야 한다. 어려서 시작한 자들은 훨씬 쉽게 그것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영능을 가진 자들은 대체로 에텔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에텔 시력. 아스트랄 질료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고도로 섬세한 상태의 물질(즉 에텔)을 볼 수 있는 능력 - 을 가진 사람들은 얼굴이나 팔 등 신체의 노출 부위를 깊이 주시하면 어떤 작은 형상(주사위, 별, 이중 피라밋 등)들의 군집을 자주 보게 된다. 이것들은 멘탈이나 아스트랄 차원이 아니라 물질의 에텔 부분에 속한 것으로, 육체로부터 발산되는 극도로 미세한 불용(不用) 물질이다.

이 물질의 성분은 주로 미분화된 염(鹽)으로 구성되어 있고 육체

로부터 끊임없이 방사되고 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성질을 띤다.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자연 그 입자의 성질이 크게 변화되며 감정의 파동 역시 종류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상념파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게이트 교수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생체로부터 방사되는 물질은 육체의 건강 상태는 물론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 ② 이 물질은 셀레늄 염분의 화학 반응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 ③ 이 화학 반응들은 심리적 인상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 ④ 40개의 상이한 감정 산물(emotion-products)들을 이미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은 종종 활력 있는 입자들이 허공의 여기저기로 쏟살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곤 한다. 이는 그가 고도의 에텔 시력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안타깝게도 처음 아스트랄 질료와 에텔 질료를 보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니르바나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멘탈 차원에 있으며, 태양계의 모든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었다고 속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적절한 때가 되면 찾아올 것이다.

그 위대한 꿈은 언젠가 분명 그 앞에 열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은 아니다. 그가 소망하는 그런 완성의 경지가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는 각 단계를 확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에 앞서 이미 가진 것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사람들 중에서 니르바나의 비젼(Vision)을 체험한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화는 분명 서서히 그리고 부단히 진행되는 과정이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모토는 이것이다. ‘천천히 서둘러라.’

나는 투시의 체험을 위해 죄면에 몰입하는 것을 결코 권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의지를 내맡기는 방법을 통해 진정한 인식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시술자의 의지는 더욱 약해지고 타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려는 성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현상계 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강제할 수 없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행위의 결과를 받음으로써 배우는 법이다. 따라서 투시력을 갖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자연적인 진화 과정 속에서 점차 현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신지학 대의 69. 투시 2

투시 2

우리에게 우연히 투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투시 능력이 발현되는 전조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이다.

예를 들어 유령을 보았을 때 그것이 분명 투시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착시 현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자(死者)의 유령은 ① 목격자의 상상에 의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이 만든 상념체인 경우 ③ 사자 자신의 상념체인 경우 ④ 위장된 경우 ⑤ 사자의 에텔체 ⑥ 거기 실제로 있던 진짜 사람인 경우 등일 수 있다.

앞의 사례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것일 확률이 높다.

① 사자가 자신을 물질화시켜 잠시 동안 육체를 입은 상태에 있게 되고, 평범한 물질 시력으로 그것을 본 경우.

② 사자가 아스트랄체를 입은 경우.

이 경우는 아스트랄 시력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를 인식할 수 있다. 사자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 특정인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열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눈에만 그 모습이 보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 한다.

③ 사자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죄면을 거는 경우.

이때 그에게 실존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 어떤 형체를 본다는 생각이 심어지게 된다.

만일 그 유령이 에텔체라면 자기 시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배회하지 않는다. 에텔체는 육체에 속해 있기(또는 속해 있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에 갓 들어온 존재(즉 미숙한 초보 유령)는 물질계에서의 생활 습관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는 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 하고 문을 통해 출입하려 한다. 나는 실제로 어떤 유령이 닫혀진 문틈으로 빠져나가려 하거나 심지어 열쇠 구멍에 매달리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그는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공중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유령도 종종 있다.

당신이 어떤 환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의 의식이 민감해진 순간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모두 드러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커튼이 드리워진 방 안 창문에 앉아 있다고 하면 당신은 바깥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커튼을 날린다면 그 순간 바깥의 광경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때 빨간 외투를 입은 소녀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자. 그 소녀는 아마 자기 일 또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분명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장면이 자신에게 보여진 것이라고 공상하거나 빨간 옷과 바구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심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순간적인 투시는 대개의 경우 우연히 커튼이 바람에 들려지는 것과 같아서 그때 보이는 장면은 투시자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가 평소에 흥미 있어 하던 어떤 것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친구가 의도적으로 커튼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투시 장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영능이란 점진적이고 주의 깊게 이루어지는 자아 발전에 의해 얻어진다. 이러한 영능 가운데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멘탈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

반적인 독서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기술로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책을 공부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읽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학습한 자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다. 양자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 방법은 책의 오라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물의 감추어진 면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다소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고대의 필사본과 현대의 책에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다. 고대의 서적 중 오리지널 원작이 아니라면 그 책은 당해 주제에 정통한 사람에 의해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써어진 것이다. 필사(-대개 철필로 행해진다)는 거의 조각만큼이나 느리고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필사자는 그 수공품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상념을 강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결국 어떤 필사본에도 상념 오라가 항상 남아 있게 되고 그것의 대체적인 의미나 그 의미에 대한 필사자의 생각 또는 평가 등을 전달해 준다. 필사본에는 필사자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상념 오라가 더해진다. 따라서 그 필사본을 가지고 누군가 깊이 공부했다면 거기서 발견되는 상념 오라는 자연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는 인쇄된 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

쳐온 책은 새 책보다 균형 잡힌 오라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의해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책에 정신 감응을 해보면 대개 그 속에 들어 있지 않은 많은 주변 지식(즉, 다양한 독자들의 견해)과 함께 내용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 도서관에서 대중들에 의해 이용되는 책은 물질적으로 불결한 것만큼 정신 감응적으로도 불쾌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책에는 온갖 종류의 불유쾌한 마그네틱스들이 혼합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피치 못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걸 손으로 쥐기보다는 테이블 위에 놓고 보아라. 될 수 있는 한, 덜 접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책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씌어진 책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 읽히는 경향이 있고, 이 독자들은 그 책의 오라에 그들의 인상을 남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종파의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은 그에 공감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읽힌다. 따라서 곧 그 책으로부터 매우 불유쾌한 오라가 발산된다. 마찬가지로 외설적이고 추

잡한 책 또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오라를 발산한다. 마술 제문(祭文)이 써어진 고서적들 역시 가까이 하기에 매우 기분 나쁘다. 심지어는 책에 인쇄된 언어조차 그 오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사람들만을 독자로 한정시킨 관계로 점차 그 언어 사용 국가의 국민성이 거기 투사되기 때문이다.

인쇄된 책의 경우에는 본래의 필사자가 없다. 따라서 책이 새로 출판된 초기에는 대개 제본자와 판매자들의 상념 단편들만이 수반된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옛날 사람들만큼 책을 그렇게 깊고 자세히 읽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의 책들과 연결된 상념체들은 고대 필사본을 둘러싼 상념체들만큼 분명하고 정밀한 경우가 드물다.

세 번째 독서법은 완전히 책(또는 필사본)의 이면으로 가서 저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보다 고급한 능력이 요구된다. 만일 책이 외국어로 되어 있고 그 주제에 대해 전혀 모르며 도움 받을 만한 오라의 암시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유일한 방법은 그 책의 내력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즉 오리지널 저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계통선을 죽 소급, 추적하는 것이다.

만일 책의 테마라도 알고 있다면 그것의 상념 파동 속으로 직접

들어가 저자를 찾아내 그의 생각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제에 대해 정신 감응하는 지루한 과정을 덜 수 있다. 일정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상들은 공간의 특정 지점에 함께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지점에 멘탈적으로 찾아감으로써 해당 주제에 관련된 상념파의 합류 지점과 접촉할 수 있다. 물론 이 상념파들은 다른 무수한 주제들과도 연결되어 있다.

여러 영능 중 흥미를 끄는 또 다른 것으로 확대의 능력을 들 수 있다. 투시 능력과 관련해 사용 가능한 확대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 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눈으로 사물들을 본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망막에 빛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발생되는 효과(즉 바이브레이션)는 미묘한 과정을 거쳐 시신경을 통해 두뇌의 회색 물질로 전달된다. 우리가 본 장면을 의식하기까지 두뇌에 새겨진 인상은 에텔체, 아스트랄체, 멘탈체의 차례로 전달된다. 이 상이한 단계의 질료들은 말하자면 전선 줄 상의 정류소인 셈이다.

확대의 한 가지 방법은 중간 정류소에서 이 전선줄에 지관(枝管)을 연결한 후 망막의 에텔체에 각인된 인상을 받아 두뇌의 에텔체로 직접 전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지력을 통해 극미의 에텔 입자들에(심지어 하나의 에텔 입자에조차)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는 기관과 관찰의 대상인 미세 물체에 맞게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미간 센타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록 앞의 경우보다 더 높은 영적 발전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미간의 중심 부분으로부터 에텔 차원의 미니 현미경(굳이 표현하자면)을 투사하는 것이다. 이 현미경의 렌즈는 단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 관찰 대상인 미세 물체에 알맞는 크기로 기관을 조절할 수 있다. 사용되는 원자는 물질 원자일 수도 아스트랄 원자일 수도 멘탈 원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 그것에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원자는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하며 완전한 순서에 따라 작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 체인(Chain)의 제7 라운드에 해당하는 발전 정도를 이룬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힘은 코잘체에 속해 있다. 따라서 만일 하위 차원의 원자가 접안 렌즈로 이용된다면 반사 대응체 시스템이 삽입되어야만 한다. 이 원자는 어떤 부분계에도 맞게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물을 관찰하는 데 필요한 만큼 확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원리를 응용하면 우리는 의식을 렌즈에 초점 맞춘 뒤 그것을 멀리 떨어진 지점에 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관찰하기 너무 큰 대상물을 축소하여 보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신지학 대의 70. 신비의 코드

신비의 코드(Chord)

나는 종종 전문 투시가들이 어떻게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즉각 찾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확실히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비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비록 명확히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투시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초상 현상에 대한 것을 물질계의 용어로 분명하게 설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자로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거기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오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다양한 힘과 성질들은 그의 매체들 안에서 바이브레이션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매체에 따른 바 주음(主音)이라는 것이 발산된다.

아스트랄체를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의 아스트랄체는 항상 상이한 진동수들로 진동하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평균 음색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아스트랄 주음(主音)이라 부른다. 보통 사람들 중에는 사실상 아스트랄 주음이 비슷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특정인을 확실히 구별하기가 충분치 않다.

그러나 아스트랄체만이 아니라 에텔체, 멘탈체, 코잘체에도 유사한 평균 음색이 있어서, 그 모든 차원 상에서 주음이 일치하여 정확히 동일한 코드가 형성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독특한 코드는 타인과 구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진화되지 않은 무수한 영혼들 중에서 발전이 아직 너무 미미하여 코드 상호 간에 차별성을 관찰하기 힘든 경우도 간혹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 더 발전된 영혼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나 혼동의 위험은 전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든 깨어 있든, 살아 있든 죽어 있든 그의 코드는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언제든지 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이 천계에서 휴식하고 있어서 에텔체나 아스트랄체를

통해 고유 음(音)을 발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코드는 각각의 계(界)에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그 사람의 코잘체가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각 계(界)에 속한 영구 원자들이 항상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가 어디에 가든 코드를 동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고유 음색은 하나의 원자만으로도 충분히 발출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드를 감지할 수 있는 능숙한 투시가는 자기 매체들을 그 코드의 음조의 파장에 정확히 맞추고 의지력으로 그 음(音)을 발출한다. 찾는 사람이 물질계, 아스트랄계, 멘탈계 중 어디에 있든 이것은 그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온다. 만일 그가 물질계에 살고 있다면 정확한 원인은 모를 지라도 육체에 어떤 작은 충격을 의식할 수 있다. 육체의 작은 반응에 비해 그의 코잘체는 즉각 빛을 발하며 거대한 화염처럼 증폭된다.

투시기는 그러한 반응을 단번에 감지해 그를 찾아내게 되고 둘 사이에는 통신 자기선(磁氣線)이 가설되게 된다. 투시기는 그 선을 일종의 망원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 선의 저쪽 끝 부분으로부터 보는 것이다. 또 원한다면 그 선을 따라 빛의 속도로 자신의 의식을 발송할 수도 있다.

각인의 코드를 낳는 음들의 조합은 우리의 진정한 오컬트 이름이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이 진정한 이름으로 불리울 때 즉각 대답한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인 것이다. 원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관념에는 이에 대한 희미한 전통

이 그 배후에 있는 것 같다. 그 관념이란, 사람의 진정한 이름은 그의 일부분으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를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면 그에게 어떤 마법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주의 깊게 비밀로 해야만 한다는 사상이다.

이 인간의 진정한 이름은 각 비전(秘傳) 단계마다 바뀌게 된다고 한다. 각각의 비전 의식(儀式)은 일정한 진화의 성취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이다. 말하자면 그는 보다 높은 키로 악기의 현에 새로운 화음을 추가함으로써 훨씬 조화롭고 뛰어난 음악을 표현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의 코드는 전과 다른 음을 발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이름과 아우고에이데스의 숨겨진 이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자아의 세 원리인 아트마, 붓디, 마나스 원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모나드의 진동들에 의해 생성된 코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상이한 차원 상에 있는 인간의 두 현현의 개념을 분명히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두 현현 사이의 대응은 매우 밀접하여 하위의 것은 고위의 것의 재현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자아는 아트마, 붓디, 마나스의 삼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구성 요소는 각각 자신의 계에 존재하고 있다. 즉 아트마는 니르바나계(아트마계)에, 붓디

는 븋디계에, 마나스는 고급 멘탈계에 존재한다. 자아는 상기한 세 차원계의 질료로 만들어진 코잘체에 살고 있다. 이어서, 자아는 세 개의 하위체(멘탈체, 아스트랄체, 육체)를 입어 현현하였다. 이 하위 현현 안에 있는 자아의 코드는 상술한 바대로 자아 자신의 음조와 세 하위체의 음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가 삼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모나드 역시 삼중이다. 모나드의 세 구성 요소 또한 각각 자신의 계에 존재하고 있다. 이때 세 차원계는 제1 계(아디계), 제2 계(모나드계), 제3 계(니르바나계)이다. 이들 중 니르바나계가 가장 낮은 계(界)이다. 모나드는 이 니르바나 차원 상에 현현(구체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트마체 안의 모나드라고 부른다. 종종 그것은 삼중 아트마, 삼중 영(triple spirit)이라고도 불린다.

모나드와 삼중영의 관계는 자아와 코잘체의 관계와 같다. 자아가 세 개의 하위체(멘탈체, 아스트랄체, 육체)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나드는 세 개의 하위 현현(아트마, 븋디, 마나스)을 입고 있다. 따라서 모나드와 코잘체와의 관계는 자아와 육체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아가 육체의 혼이라면, 차례로 모나드는 자아의 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우고에이데스(코잘체 안에서 영광을 입은 자아)의 코드는 모나드의 음조와 모나드의 세 현현(아트마, 븋디, 마나스)의 음조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란 일반적인 의미의 화음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 스펙트럼 광선들의 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비유일 것이다. 어떤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간에 그 광선들이 보이기만 한다면 그 각각의 성분들은 스펙트럼에 의해 즉각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드를 실제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는 코질체와 기타 모든 하위체들 안에서 의식을 실제로 동시에 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그러한 복합적 지각력에 의해서만 코드를 감지할 수 있다. 심지어는 평범한 아스트랄 인식에 대해서조차 ‘듣는다’,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분화된 인상을 수용하는 특정의 감각 기관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본다’라는 것은 ‘눈’, ‘듣는다’라는 것은 ‘귀’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 기관들은 아스트랄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아스트랄체는 육체의 대응체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눈, 귀, 코, 입, 손, 발 등이 있다. 그러나 아스트랄체로 활동할 때 아스트랄 발로 걷는 것이 아니며 아스트랄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다.

아스트랄체의 각 입자는 자기가 속한 아스트랄 차원의 진동들만을 수용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아스트랄 진동을 음악의 옥타브처럼 일곱 단계로 나눈다면 각 옥타브는 하나의 부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부분계의 질료로 이루어진 아스트랄체의 입자는

그것에 해당하는 옥타브의 진동에만 반응할 수 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아스트랄계의 특정 부분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부분계에 속하는 아스트랄체의 입자들에 대한 감수성을 길들여 왔다는 것으로, 그는 해당 부분계의 질료와 그곳에 존재하는 사물만을 인식할 수 있다.

아스트랄계 상에서 완전한 시력을 가졌다는 것은 아스트랄계의 모든 입자들에 대한 감수성을 계발시켜 모든 부분계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어떤 사람이 한 부분계의 입자들만을 계발시켰다 해도 그것들이 충분히 계발되었다면 그는 해당 부분계에서 모든 물질 감각에 상당하는 인식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면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이 물질 감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인상을 받게 된다. 즉, 그는 그 대상을 동시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다. 이렇듯 고급계에 속한 순간적인 인식력은, 조악하고 부분적인 육체의 감각 작용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투시가가 특정인을 찾는 데 있어 코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코드의 원천이 되는 바이브레이션은 당사자가 접촉한 어떤 물건에 전달되고 그의 자기(磁氣)가 스며들게 된다. 그의 머리카락 한 올, 그가 입던 한 벌의 옷, 그가 쓴 편지 한 장 등을 통해 투시가는 그

의 코드를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사진으로부터도 매우 쉽게 포착된다. 이 경우 신기한 것은 사진(당사자의 사진)을 당사자가 직접 만지지도 않았지만 코드의 포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떤 물체의 매개를 통해 찾고 있는 사람과 파장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된 학문적 지식이 없는 미숙한 투시가들조차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투시가가 한 번 편지(예를 들어)를 만지고 코드를 감지한 이상 계속 편지를 들고 다니거나 가까이 둘 필요가 없다. 그것을 기억하고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기억력 좋은 사람이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나중에 다시 기억해 낼 수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결은 전혀 생소한 사람을 찾는 데는 항상 필요하다.

최근에 콩고 어디에선가 죽은 사람의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 온 사람(사망자의 친구)이 사망자의 사진을 보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친구의 코드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망자의 코드와 접촉했다.

이 밖에도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찾는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까지 말한 것보다 더 발전된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을 봇디계의 원자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신과 타인과의 완전한 일체성을 느낀

다. 그가 찾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일체성을 느낌은 물론이다. 먼저 그는 자신의 라인을 따라 이러한 일체성 속으로 의식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인의 라인을 따라 의식을 투사하기만 하면 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투시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종종 자신의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식이 더 넓어지면 곧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신지학 대의 71. 전생을 보는 원리 1

전생을 보는 원리 1

최근 무척 흥미로운 일련의 전생들을 다룬 <알키오네의 생애들> (역주)이 출판되자 어떻게 하면 전생의 기록을 읽을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묻는 질문들이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다. 투시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그 주제를 만족스럽게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를 통해 배우는 자들이 적

어도 이해의 가닥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선 아카식 레코드(akashic record)의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해의 편의상 한 쪽에 큰 거울이 달린 방을 상상해 보자. 그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거울에 비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울이 일종의 영사기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비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후에 일정한 상황 하에서 그걸 다시 재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아카식 레코드의 이해에 한 단계 더 가까워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거울에 장면뿐만 아니라 축음기처럼 모든 소리를 재생하고 상념과 느낌까지 재생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시켜야 한다.

이제, 거울 속의 반영의 본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만일 두 사람이 거울 앞에, 그것도 자기가 아닌 상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 같은 거울 안에 두 이미지가 비치고 있다. 자신은 상대방의 모습만 볼 수 있지만 상대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거울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다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에 비춰진 모든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거울은 동시에 두 이미지(두 사람의 모습)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거울 앞에서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거울 속의 이미지도 그

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입자는 거기에 비춰진 모든 대상물의 입자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울 안에 비쳐지는 장면은 우리의 눈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동일한 순간에 동일한 반영을 거울 속에서 보기란 불가능하다. 두 사람의 육체적 시각이 동시에 동일 공간을 점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에서 거울의 입자에 일어난다고 가정한 것은 사실상 모든 물질 입자에 대해 발생하고 있다. 길가의 모든 돌들조차 자기를 스쳐간 모든 것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담고 있다. 그 기록은 보통의 물질 감각에 가시화 되도록 재생되지는 않지만 발전된 감각을 지닌 영능자라면 어려움 없이 그것을 감지해 낸다.

기록(아카식 레코드)은 어떤 종류의 질료 안에 본래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것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기록을 읽기 위해서 어떤 특정 물체와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한 번 연결되고 나면 거리와는 상관없이 기록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원자가 기록을 간직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또는 아마 원자 자체 내에 투시가로 하여금 기록(원자의 시야 안에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과 동조시키는 힘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코메트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사이코메트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정신 감응한 물체가 있는 공간 내에서 발생한 장면만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곡에 오랜 세월동안 놓여 있던 조약돌을 정신감응 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이제까지 그 계곡에서 발생한 일들만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시야는 주변 언덕에 그칠 뿐이다. 마치 그가 수 세기 동안 그 돌이 놓여 있던 장소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발생한 일들을 지켜보았던 것과 같다.

그러나 사이코메트리의 힘은 더욱 고급화될 수 있다. 그런 고급한 사이코메트리의 방법을 사용하면 그는 주변의 언덕 너머로 펼쳐진 광경까지 보게 되며 그 돌이 옮겨져 온 이래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조차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돌 없이도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코잘체의 감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응체를 보면 우리는 모든 사물이 과거의 영상들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무생물 입자가 인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대답은, 입자에도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신의 생명의 일부라는 데 있다. 따라서 사실상 아카식 레코드에 대

해서는 다른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아카식 레코드를 로고스 자신의 기억이라고 보는 것이다.

로고스는 각 입자와 관련된 사건들, 그 입자의 가시권 내에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며 입자는 그러한 로고스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자신의 기억이라 부르는 것도 단지 로고스의 기억(-우리를 통해 발생했던 모든 일에 대한 기억)과 접촉하는 힘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지상에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두 가지 형태의 기억을 갖고 있다. 첫째는 두뇌의 기억. 그러나 이것은 때로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둘째는 어떤 입자들(-예를 들어 몸이나 옷, 기타 사물) 안에 새겨진 기억으로, 이것은 언제나 완전하고 정확하다. 하지만 그걸 읽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만 활용된다.

두뇌의 기억이 부정확한 데는 두뇌 자체의 불완전뿐만 아니라 본래의 관찰이 불완전한 것에 기인함도 명심해야 한다. 때로는 편견에 의한 채색의 가능성도 크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상적인 부분만을 기억한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때로는 그나마 틀리게. 그러나 아카식 레코드는 이 모든 불완전성을 완전히 넘어서 있다.

앞서 나는 모든 입자에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에 전생의 기억이나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스트랄체, 멘탈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체들(육체, 아스트랄체, 멘탈체)은 각 화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생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코잘체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하의 체들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생들을 통하여 자아는 코잘체 안에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자아는 실제의 목격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멘탈체, 아스트랄체, 육체는 목격자가 아니고 오직 자아로부터 받은 것만을 보고할 수 있을 뿐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 자아와 인성 사이의 통신은 매우 불완전하다. 이 점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제2, 제3의 부차적, 간접적 증언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지 못한가를 즉각 알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아스트랄체나 멘탈체로부터 전생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연속성도 없으며 내용의 일관성도 없다. 그 장면들은 코잘체로부터의 반영, 그것도 매우 흐리고 얼룩진 반영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생을 정확히 읽기 위해 무엇보다 코잘체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들을 타인(조사 대상자)의 코잘체에 적용시킬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전생에 대한 자아 자신의 기억을 직접 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아를 정신 감응하여 조사자의 힘으로 그가 거쳐 온 경험들을 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가 더 안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심지어 자아 조차 과거의 인성을 통해 그 경험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불완전하고 편견에 치우친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자의 코잘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의 코잘체를 정신 감응하는 것은 전생조사법의 평범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전생조사는 코잘체 이하의 차원에서도 영구 원자들을 정신 감응함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코잘체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붓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고도의 영적 발전이 요구된다. 이것은 완전히 조사 대상자의 자아와 하나가 되어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그의 경험들을 마치 자기의 것인양 읽는 것이다.

<알키오네의 생애들>에 나온 일련의 전생들은 이 두 가지 고난도 방법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사자들은 조사 대상자의 지성적 협력을 얻는 편의를 누렸다.

조사 대상자가 육체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매체들을 완벽하게 고요히 유지시킬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흥분 상태에 있다면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필수 요건이다. 인상들이 분명하게 전달되려면 두뇌가 고요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코잘체로부터 물질 차원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모두 반드시 멘탈체와 아스트랄체를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들 중 어느 하나가 혼란되어 있다면 반영이 불완전해진다. 이는 아주 작은 파문에도 호수 표면에 비친 나무나 집의 이미지가 깨지거나 왜곡되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편견들을 완전히 뿌리뽑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에 얼룩이 진 것과 같이 되어 그것을 통해 보이는 모든 것에 얼룩 묻은 잘못된 인상을 줄 것이다.

전생을 조사할 때는 언제나 완전한 현재 의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의식이 육체를 떠나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히 기억을 재생해 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사자가, 오직 육체가 잠들어 있을 때만 코잘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면 전생을 조사하는 동안 육체를 이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을 확인하는 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따른다. 수 만년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아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행히 약간만 훈련하면 기록을 원하는 만큼 빠르게 또는 천천히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어떤 의심이 있으면 언제나 관찰 대상 자아의 일련의 생들을 따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빨리 추적해 본다.

어떤 조사자들은 아주 먼 옛날 어떤 인생 속에서 특정인의 자아를 보고 단번에 직관적으로 현재의 누구임을 알아본다. 그러나 한 찰나의 직관이 옳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의 경우처럼 신중을 기하는 것뿐이다.

때로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자에 의해 자아의 동일성이 금방 인식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그 사람이 거의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2만년 전 모습을 보고 현재의 그를 파악하려 하는 것은 마치 오래 전 어린 아기

때 보았던 사람을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혜의 마스터들이 조사의 대상이 될 경우는 수천 년이 경과할 지라도 순간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와는 매우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저급 매체들이 이미 자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그것들은 아우고에이데스와 유사한 모습이다. 따라서 생에서 생으로 거의 조금밖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아가 모나드의 완벽한 반영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는 거의 변화되지 않고 미세하게 성장한다. 따라서 그를 즉각적으로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전생을 조사하는데 있어 가장 쉬운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앞에 기록을 자연적인 속도로 훌러가게끔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루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하루가, 한 생을 조사하는데 한 생이 소요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록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수천 년의 시간도 빨리 지나도록 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특별한 장면을 원하는 만큼 오래 동안 붙잡아 둔 채 상세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완급은 영상 운동 속도의 완급과 같은 것으로 약간의 수련을 통해 의지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의지에 의한 기록의 완급은 실제에 있어서는 기록이 아니라 조사자의 의식이 완급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록들은 서로 층을 이루며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것일수록 위에 있고 오래된 것일수록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비유조차 올바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대로라면 두께의 개념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3차원적인 공간 점유성이 없다.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이 3차원이 아니듯이.

의식이 기록들을 통과해 지나갈 때 그것은 사실 공간 속을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기록의 한 층 한 층을 외투처럼 입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은 스토리의 전개 과정 한 가운데 있으면서 지켜보게 된다.

신지학 대의 72. 전생을 보는 원리 2

전생을 보는 원리 2

전생 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지루한 작업 중 하나는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연대 확인 작업은 솔직히 그렇게 애쓸 만한 가치가 없고 대략적인 시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충분하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지루하지만 상세히 숫자 계산을 함으로써 가능한 정확하게 세부 사항까지 알아냈다고 하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특별한 시점들을 확인, 설정하고 그것들을 보다 세부적인 계산을 위한 기초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한 특정 시점의 하나가 기원전 9,564년인데, 이 해에 아틀란티스의 최후의 섬 포세이도니스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또 다른 기준시는 기원전 75,025년이다. 이 해에는 아틀란티스 대륙의 잔존인 거대한 루타섬, 데이티아섬이 가라앉음으로써 대재앙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알키오네의 생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2,662년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기준시들을 간격을 두고 하나하나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이 생각만큼 못 견딜 정도로 지루한 것은 아니었다. 기준시 설정에는 때로 천문학적인 수단 또한 활용된다. 이를 상이한 여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의 책 <투시>에 나와 있다.

어떤 사람의 생애들을 조사할 때는 대체로 앞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뒤로 거슬러 올라가며 읽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빠르게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달려간 뒤 거기서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이다.

한 생의 사소한 사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한 눈에 정확히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 생을 대충 훑어보고 무수한 행위와 사건들로부터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그 후 뒤로 돌아가서 보다 상세하게 그것들을 살핀다.

때로는 조사자 자신이 상대의 인생 속 등장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조사자는 실제로 그 옛날 자신의 인성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당시의 느낌을 느껴 보는 흥미로운 경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신이 보았던 것과 꼭 같이 사물을 볼 수 있을 뿐 당시에 알았던 것 이상을 알지는 못한다.

라이프 리딩(Life Reading)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생의 대략적인 윤곽만이 아니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완벽히 이해하여 가능한 사실에 가까운 리딩이 되게끔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최소한 우리의 라이프 리더(Life Reader)들은 정확성

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볼 때, 다른 별 세계처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양태의 상념을 지닌 사람의 라이프 리딩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조사자들이 거의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과거 시대에 사용되던 언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사자는 말의 이면에 있는 상념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라이프 리더들이 작업 도중 이해할 수 없는 명각(銘刻)을 베껴 고대 언어에 정통한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하기도 한다. 최근 출판된 <알키오네의 생애들>은 이러한 방대한 작업의 전형이다. 이 힘든 작업의 결실로 사람들은 고대의 강대한 문명들에 대해 보다 생생한 인상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르마와 윤회의 작용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알키오네가 살아온 일련의 인생들은 그가 현생에서 대백색형제단의 비전(秘傳)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따라서 그 책은 지혜의 마스터들의 제자가 되고자 열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 귀중한 공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그가 어떻게 그의 목표를 성취했는가를 배움으로써 학인들의 발전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의 목표는 곧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알키오네의 저서 <스승의 발밑에서> 또한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알키오네가 자신을 비전(秘傳)으로 까지 이끌어 준 마스터의 가르침을 기록한 소책자이다.

<알키오네의 생애들>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 중에는 현재의 신지학회 멤버가 150여명 가량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과거 혈연관계였던 그들이 현생에서 서로 다른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지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에 의해 다시 모이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그들이 단순한 세속적 인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스터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카식 레코드를 읽는 데는 두 가지 근본적인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편견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근원적인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세계에서 본 것들에 나름대로 윤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데프트는 인생에 대해 완벽한 인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보다 낮은 차원에서 사는 우리들은 확실히 어떠한 편견들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중요치 않은 사소한 것들은 부풀리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빼뜨린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오르

는 구도심을 지닌 채 길(道)에 들어선 자는 한 순간 일상적인 삶을 초월하는 체험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결국 현상의 내면을 보는 사람들은 오직 외부만을 보는 사람들보다 진리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대개 투시가들의 진술은 스웨덴보르그의 경우처럼 기존 관념에 의해 채색되어 있다. 스웨덴보르그는 아스트랄계의 현상을 묘사하는데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는 전부터 이미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강한 상념체들을 통하여 환영을 본 것이 틀림없다. 그는 어떤 명백한 선입관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가 본 모든 것은 그 선입관에 맞게 맞추어진 것이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조차 누군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면 그의 정직한 말과 행위조차 왜곡되어 보인다. 우리의 편견을 투영해 그를 보게 되는 것이다. 주의하지 않으면 이와 꼭 같은 일이 아스트랄계에서도 일어난다. 신지학회의 투시가들은 항상 이러한 개인적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검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터들은 근본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서로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한정된 시야이다. 즉, 전체 중 어느 한 부분만을 보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아틀란티스 말기(포세이도니스가 가라앉기

전)에 그곳에는 부패와 흑마술이 횡행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거기(포세이도니스)에는 매우 순수하고 고급한 이상을 지닌 한 신비 단체가 있었다. 만일 우리가 그 단체만을 보았다면 쉽게 포세이도니스를 가장 영적인 나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한정된 시야 탓에 자칫 그 지역 전체에 특수한 예를 적용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일반화, 보편화시키기에 앞서 그것을 검토,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 시대 또는 한 국가에는 그것만의 총체적 오라(aura)가 있어서 이런 유의 실수를 방지해 준다. 따라서 이 총체적 오라를 감지하지 못하는 영능자는 종종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사실 오랜 기간을 두고 관찰해 보면 미숙한 영능자들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 또한 언제든 오도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의식과 능력을 계발해 감에 따라 생은 연속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아의 의식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아득한 옛날 동물이었던 때까지 소급하여 여행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의 눈을 통해 그 당시 살았던 인간들과 번영했던 딴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전혀 생소한 장면들이기에 어떤 표

현으로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에서 생으로 이어지는 의식의 계속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전생의 상세한 기억(-심지어 중요한 개념들)조차 가져오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생애에서 윤회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반드시 그 관념을 다음 생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내 자신의 경우를 볼 때도 윤회의 법칙에 대한 관념을 잊어버렸었고 베산트 여사 또한 그랬다. 나는 이번 생에서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듣기 전까지는 윤회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해 듣는 순간 나는 그것이 진리임을 즉각 인식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전생에 알고 있던 것은 다시 우리 앞에 제시되는 순간 즉시 마음속에 확신이 솟아오른다.

어릴 때 나는 어떤 집에 대한 꿈을 계속 꾸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내가 전생에 살던 집이었다. 그 집은 완전히 생소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분수와 조각상과 판목이 있는 정원이 있고 그 둘레로 원형의 집이 지어져 있었고 모든 방들은 정원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일주일이면 세 번 정도 그 집에 대한 꿈을 꾸곤 했다. 나는 그 집의 모든 방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알았고 엄마에게 그 모습을 끊임없이 설명해댔다. 심지어 건물의 평면도까지 그려 주었다.

가족들은 그것을 나의 ‘드림 하우스(꿈의 집)’라 불렀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집에 대한 꿈을 차츰 덜 꾸게 되었고 마침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문제를 설명해 주기 위해 마스터께서 내게 전생의 그 집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나는 그 즉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 윤회의 당위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코잘체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식과 지성적 이해를 통한 방법이다. 맹목적 믿음은 진보의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지성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지학회에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권위적 도그마는 없다. 오로지 연구 결과들에 대한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것들이 제공되는 것이다.

신지학 대의 73. 미래를 보는 원리

미래를 보는 원리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간혹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명백히 우연한 장면들과 순간적인 직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래를 분명히 예지할 수 있는 고급 투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매우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반대이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조차 예언이란 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본다면 우리는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얼마 안가 건강과 재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예언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예언할 수 없는 것은 그의 태도가 변화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코잘체의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점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탕아가 갖고 있는 예비된 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탕아의 자아가 방탕한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탕아의 자아가 그것에 간섭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가의 여부도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단순한 추측은 정확도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물질계에서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무수한 원인들을 다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식이 고급계로 끌어 올려졌을 때 우리는 보다 많은 원인들을 볼 수 있고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는 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일 모든 원인들을 완전히 보고 알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들을 쉽게 예언할 수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마 로고스를 제외하고는 우주에서 모든 원인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로고스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아데프트라면 분명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원인 정도는 모두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데프트가 사람의 인생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 보아진다.

보통 사람에게는 약간의 의지력만이 있다. 그리고 카르마는 그에게 일정한 환경을 부여한다. 결국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그것을 개척해 간다. 그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여 과거의 카르마를 중화시키며 자기가 의지한대로 미래를 만들어 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데프트는 그의 잠재된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예언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미래를 예지하는 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달리 이 방법을 설명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을 매우 높은 계(界)에까지 고양시켜 시간이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진 책처럼 펼쳐지는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유의지의 법칙과 조화시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튼 이런 시력이 사용될 때 미래는 단지 거기에 있다. 그것도 세부 사항까지. 나는, 비록 한정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한 어떤 힘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개가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개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이 인간을 훨씬 초월한 어떤 힘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는 단지 하나의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로고스는 우리에게 약간의 자유의지를 맡겨 놓고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다. 이것이 그의 뜻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로고스의 위대한 진화 의지와 조화롭게 계속 사용하는 한 우리에게는 더 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로고스의 계획까지 방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장차 우리의 행위가 크게 구속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는 걸어다닐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넘어질 위험 또 한 도사리고 있다. 그런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는 결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다. 하지만 누구도 어린 아이한테 절벽 끝에서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 아이는 우리 자신이며 어른은 로고스이다. 로고스는 우리가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약간 다치는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게 한다. 달리 말해 우리에게 그 정도의 자유의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매번 다가온다. 그러나 그 선택권의 폭은 넓지 않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운명은 철도망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이 열차에 올라타 출발했다면 그는 그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반드

시 그 레일을 따라 달려나가야 한다. 그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에게는 다음 선택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자유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상기한 방법들 중 어떤 것으로든 미래를 예언할 완벽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식의 발전이 요구된다. 미래에 대해 유리된 장면들만 보인다면 아직도 수준 미달이라 할 수 있다.

미래 예지의 한 예로 스코틀랜드에서 제2 투시안이라 부르는 것이 있다. 그 힘을 통해 미래 사건들의 상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어떤 투시가가 어느 회의론자에게 친구가 모월 모일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게다가 그는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장례식 모습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회의론자는 그 예언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이 다가오자 그 친구는 투시가의 예언대로 죽었다. 그 회의론자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더욱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방해해서라도 나머지 예언 내용이 맞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 보이려 했던 것이다.

궁리 끝에 그는 관을 멜 사람에 끼이길 자청했다. 그러나 장례식 날 사람들이 관을 지고 막 떠나려는 순간 누군가 부르는 바람에 그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이미 일행은 떠나고 없었고 관을 지고 간 사람들은 예언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 역시 미래에 대한 유사한 장면들을 본 경험이 있다. 그것들은 내게 별 흥미도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보았던대로 정확히 실현되었다. 나는 모든 경우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로고스는 상념으로 우주의 모든 생명을 탄생시켰다. 그것은 현재의 매 순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 왔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로고스의 상념은 그 생각한 바대로의 것을 실재화시킨다. 그의 상념들은 우주 멘탈계(우주 물질계, 우주 아스트랄계의 위에 있는 우주계)에 있다. 그는 상념으로 각 혹성 체인의 활동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 레무리아인, 아틀란티스인, 아리안인 등 태초로부터의 모든 근본 인종, 아인종의 타입.에 대해서까지 관념한다.

사실상 하나의 특별한 창조 행위라 할 수 있는 그 상념에 의해 우리 체계 전체가 동시 발생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로고스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지금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강대한 의식은 훨씬 아래의 하위 차원에 어느 정도 반사됨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희미한 반영들을 캐취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미래 예지인 것이다.

제 10장 데바와 자연령

신지학 대의 74. 데바와 자연령

데바의 오라

데바계는 정령들의 거대한 왕국이다. 사람들은 데바들을 위대한 영광의 천사들로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매우 많은 상이한 종류, 상이한 진화 단계가 있다. 데바는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저급한 유형의 데바는 카마 데바라 불리는데 그들은 아스트랄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다음 윗 단계의 데바는 하위 멘탈 질료로 이루어진 영체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

그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과거에 인간이었던 존재들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는 일곱 가지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 중 하나가 이 아름다운 데바의 진화 노선에 합류하는 것이다.

데바와 인간은 다른 외형의 오라(aura)를 갖고 있다. 첫째로 데바의 외형은 유동적이어서 확장과 수축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 둘째로 데바는 어떤 불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데바와 보통 인간을 분명히 구분시켜 준다.

데바들과 혼동될 수 있는 인간은 오로지 의식이 고도로 진화된 인간뿐이다. 예를 들어 아라한(제4 비전을 통과한 자)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오라는 그 크기가 크고 잘 배열되어 있다. 그러나 데바와 아라한을 모두 보았던 자라면 그 둘을 구분하지 못 하지는 않는다.

보통 사람의 오라(aura)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만 확장이 가능하다. 그의 오라는 코잘체와 동일한 크기이다. 따라서 코잘체가 성장해감에 따라 오라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은 오직 점진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삽화 VIII은 보통 사람의 경우 코잘체가 전혀 계발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삽화XXI 발전된 인간의 코잘체를 보면 그것이 칼라풀 (colorful)함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발전의 첫 단계는 코잘체의 확장이 아니라 그것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는 우선 난형체를 다양한 색깔로 채워야 하며 그리고 나서 비로소 확장이 시작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어떤 감정이 갑작스럽게 쇄도해 보면 삽화 XI (애욕의 갑작스런 쇄도), XII(헌신의 갑작스런 쇄도)처럼 나타난다. (역주) 표현되는 성질의 칼라. 애정은 장미색, 헌신은 청색. 가 오라 안에서 섬광처럼 밖으로 나타나며 그 칼라 구역이 맥동 치며 그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매우 강렬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면 오라는 장밋빛으로 충만하고 같은 색깔의 상념체가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발출된다. 그러나 오라의 크기는 대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발전된 인간은 이미 코잘체가 칼라로 충만해 있다. 따라서 그의 경우에 애정, 헌신, 자비와 같은 감정이 쇄도하면 오라가 해당하는 감정의 색깔로 가득 차고 상념체들이 발출될 뿐만 아니라 그(오라) 크기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확장된다. 물론 나중에 정상적인 크기로 다시 수축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감정의 분출은 오라를

아주 조금씩 전보다 더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라가 확장될수록 인간의 느끼는 힘 또한 커진다. 지성적 발전 또한 오라를 확대시킨다.(지성은 노란 색이 지배 칼라이다)

전적으로 비이기적인 사랑, 헌신은 아스트랄계가 아니라 봇디계에 속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감정의 파동이 넘쳐 날 때 우리의 오라가 일시적으로 크게 확장되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데바의 경우만큼 엄청난 크기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데바의 오라의 파동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것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이다.

우리에게 제6 근본 인종의 창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최근 이곳 아디야르를 방문한 데바의 오라는 표준 직경이 135미터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오라는 여기서 1마일 정도 떨어진 바다에까지 가닿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어떤 인간도 이만큼 오라의 확장을 만들어 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심지어 마스터의 경우에도 오라의 일시적 확장율이 이처럼 크지는 않다. 마스터의 오라는 안정되어 있고 평상시의 크기는 데바의 오라만큼 거대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확장율은 데바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쉽게 말해서 데바의 오라 구조는 비교적 헐겁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오라에 보다 많은 질료가 내포되어 있다. 아라한의 오라는 대략 상기한 데바의 오라에 비해 $\frac{1}{3}$ 정도밖에 확장되지 않지만 그 데바보다 진화 단계가 높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투시가는 자신이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다고만 생각할 뿐 그 차이를 알지 못 할 것이다.

확장과 성장은 코잘체뿐만 아니라 멘탈체와 아스트랄체에서도 일어난다. 이 세 영체는 모두 동일한 크기이다.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보통 사람의 코잘체는 땅콩 정도 크기에서 점차 성장한 것이라는 이론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발전되지 않은 코잘체는 확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스트랄체나 멘탈체와 같은 크기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바의 오라는 불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눈으로 보면 즉각 알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데바의 오라는 모든 색깔들이 한층 유동적이며 구름이라기보다는 불의 특성을 갖고 있다.

사람의 오라는 눈부시지만 부드럽게 빛나는 가스 구름처럼 보이는데 비해 데바의 오라는 불덩어리처럼 보인다. 인간 오라의 질료 중 99%는 몸 주변에 있다. 그러나 데바의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낮다.

데바는 대개 거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데바들이 이 깃털 달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생각에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묘사하려고 애쓰는 데바의 외관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는 쉬운 일 이 아니다.

아일랜드에서 내가 본 거대한 녹색 데바들은 매우 특이한 외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컼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묘사하기란 불가능하며 오직 말로써 근접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화가들은 종종 날개 달린 천사들을 그린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선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문구가 그렇듯 그것은 상징일 뿐이다. 진짜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인간으로 보았던 점으로 미루어 그들에게 날개가 없었음이 분명하다.

많은 경우, 데바는 그의 난형체 안에 있는 형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령들처럼 데바도 대개 인간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비록 인간과는 약간 색다른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을 괴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대로 그들은 대단한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있다.

데바들 또한 우리처럼 상념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고급 차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인간의 상념체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 상념체들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성질을 띠며, 그것들을 통해 부단히 멋진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들은 칼려 언어를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만큼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보다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의 오라는 몸의 각 방향으로부터 약 46cm 정도 뻗어 나간다. 신지학도들은 대개 완전한 문외한들보다 오라의 크기가 좀 더 크다. 물론 신지학도가 아니더라도 크고 섬세한 오라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오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강렬한 감각을 소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사람들의 오라는 대개 약간 찌그러져 있다. 전에 설명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형체의 상부 끝 폭이 작다. 그러나 신비학도들은 상부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성품이 질료 안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라의 상부에 있는 질료의 특별한 인력에 기인한 것이다.

오라의 확장은 비전(秘傳)의 선행 조건이다. 오라 안에 비전의 자격 조건들이 가시화되어 나타난다. 책에 보면 부처의 오라는 반경 3마일이었다고 써어 있다. 나는, 부처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

지만 어떤 사람의 오라가 2마일 가량 뻗어 있는 것을 직접 본 일이 있다. 오라의 크기는 각각의 비전 단계를 밟을 때마다 자연 커지게 된다.

데바들은 우리와 같은 진화 노선 상에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밟는 그런 비전들을 거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데바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아데프트보다 높은 한 지점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보다 하위의 단계에서도 인간이 데바의 진화 노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도 있다.

나는 데바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인간들을 가르쳐 주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데바들은 자기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한다. 많은 가르침들이 그런 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데바들의 활동에 어떤 규율이나 제한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 아디야르에는 미스터들도 자주 방문하시지만 데바들도 매우 많이 있다.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매우 큰 이익을 누리고 있다. 약간의 투시 능력만 있으

며 데바들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이 위대한 존재들로부터는 강한 자극이 오는데 사람들마다 그것을 느끼는 방식은 다르다. 예를 들어 불은 영적인 발전의 상징이다.

우리는, 선정상태에서 부처의 오라로부터 화염이 치솟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를 데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상념체조차 그런 것들에 익숙지 않은 사람에게는 종종 불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그리스도의 휘황찬란한 산상 변모가 있다.

이곳 아디야르에는 빛나는 힘의 존재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로지 각자의 수용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곳의 강렬한 마그네티즘 속에서 일년 동안 목욕한다 해도 한 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이 강력한 바이브레이션은 사람의 성품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한 성향 또한 강화된다. 어쩌면 그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균형을 상실해 히스테리칼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아디야르의 강력한 진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머물 때 그에게 있어서 이곳에서의 체류는 매우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인 것이다.

나무의 정령

반얀 나무와 같은 거대한 나무의 정령이 자신을 형상화시켜 나타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때 그것은 대개 거대한 인간의 형상을 취한다. 예를 들어, 지난 번 나는 이곳 근처에서 한 나무의 정령을 본 적이 있는데 그의 형상은 키가 4미터 남짓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 윤곽은 매우 분명했지만 몸은 흐렸다.

나무 주위에는 자연령들도 있다. 그들은 방해받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인간이 목재로 쓰기 위해 자를 나무에는 자연령들이 매달려 있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은 없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나무를 자르고 싶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말로 보인다.

자연령들은 매우 훌륭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개체화의 단계

까지 발전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급한 동물보다는 훨씬 더 고급한 단계에 있다. 자연령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오라에 나타난다. 비록 동물의 경우보다는 그 색깔이나 선명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상 교미욕으로 이글거릴 때 동물의 오라 색깔은 현저히 강해진다. 때로는 인간의 오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집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 종류의 나무나 동물에 강한 끌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자신이 거쳐온 식물이나 동물의 계통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제 11장 윤회

신지학 대의 75. 환생의 세 가지 법칙

환생의 세 가지 법칙

평범한 자아는 아직 자기 힘으로 육체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가 태어날 장소는 대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 세 가지 힘의 조합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첫째는 진화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의해 자아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들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힘의 작용은 두 번째 요소인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제한된다.

어쩌면 자아는 최선의 기회를 맞이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는 차선 또는 차차선의 기회를 맞아야 한다. 심지어는 어떤 큰 기회를 가질 자격이 전혀 없고 오직 작은 진보만 이루는 혼란된 삶이 그의 운명일 수 있다.

세 번째 작용 요소는 자아가 전생에 형성시킨 어떤 개인적인 측면의 힘이다. 사랑과 증오의 끈 같은 힘 말이다. 이것은 첫 번째 힘과 두 번째 힘의 작용을 중재한다.

때로 어떤 사람은 마스터나 아데프트에 대한 강한 사랑 때문에

카르마와 관계없이 특별한 환경 속에 태어나게 된다.

이미 도(道)에 들어서서 아데포트의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나라와 가족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진보를 이룬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바람을 제쳐 두고 자신을 오직 위대한 영원 법칙의 손에 완전히 맡겨 놓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자기 앞에 무엇이 주어 지든 스스로 선택한 것보다 자신을 위해 훨씬 더 나을 것이 틀림 없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의 혼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가 발달된 영혼을 자식으로 갖길 원한다면 그러한 고급한 혼이 올 수 있도록 질 높은 삶을 영위해야 한다. 그 발달된 영혼이 계속 진화할 수 있는 훌륭한 여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고급한 자아가 자식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신지학 대의 76. 환생 1

환 생 1

우리 태양계 전체는 태양 로고스의 현현이며 그 안의 모든 입자들은 태양 로고스의 매체들의 일부분이다. 태양계의 모든 물질은 태양 로고스의 물질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안의 모든 아스트랄 질료는 그의 아스트랄체를, 멘탈 질료는 멘탈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른 매체들도 이와 같다. 아득히 높은 곳에서 그는 훨씬 더 넓고 위대한 존재 양태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기한 진술의 진실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 태양 로고스는 내부에 일곱 혹성 로고스를 포함하고 있다. 일곱 혹성 로고스는 말하자면 태양 로고스 안에 있는 힘 센타들로, 그의 힘이 분출하는 통로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 태양 로고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방금 태양 로고스의 매체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 질료들은 일곱 혹성 로고스의 매체들을 구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시스템의 어느 곳에도 그들 중 어느 하나의 부분이 아닌 질료 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계(界)에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이해의 편의상 아스트랄계를 예로 틀어 설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스트랄 질료는 우리의 탐구 목적에 걸맞는 유동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물질계와 가까이 있어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태양계의 모든 아스트랄 질료 입자는 태양 로고스의 아스트랄체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곱 혹성 로고스들의 아스트랄체에 속한 것이기도 한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아스트랄체를 구성하고 있는 아스트랄 질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입자란 없다.

모든 아스트랄체 속에는 일곱 혹성 로고스들 각각에 속하는 입자들이 있다. 그러나 일곱 혹성 로고스 입자들이 아스트랄체를 구성하는 비율은 무한하다고 할 만큼 다양하다.

본래 어떤 하나의 혹성 로고스를 통해 발출되어 나온 모나드의 체(體)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보다 그 혹성 로고스의 입자들을 보다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들 일곱의 위대한 파워들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되고 서로 구분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일곱 혹성 로고스 안에는 일정한 영적 변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마치 사람의 흡식과 호식, 심장의 박동과 같이.

아무튼 그 입자들을 상호 변화, 조합시킬 수 있는 수는 무한에 가깝다. 우리의 아스트랄체는 그들의 아스트랄체의 질료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혹성 로고스의 아스트랄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아스트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자신이 속한 혹성 로고스의 변화에 특별히 민감하게 된다. 이것은 비

단 아스트랄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혹성 로고스들의 운동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블라바츠키 여사는 리피카(Lipika) 즉 ‘카르마의 주님들’이라 불리는 지고한 존재들에 대해 쓰고 있다. 카르마를 관장하는 리피카의 대리자들은 4명(실제로는 7명)의 위대한 지배자로 ‘데바라자’ 또는 ‘지구의 섭정자’로 불린다. 그들 각자는 특정의 광대한 데바들의 그룹, 자연령들의 그룹, 엘리멘탈 에센스의 그룹을 통할, 주재한다.

편의상 다시 아스트랄계에 국한하여 설명해 보겠다. 물론 이것은 다른 모든 계(界)에도 적용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체 아스트랄 질료는 특별히 이 위대한 존재들 중의 한 분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나 모든 계의 부분계(하부계) 또한 간접적으로 그의 조정을 받는다. 아스트랄계와 그 부분계(하부계) 사이의 관계는 전체 계(界)와 아스트랄계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모든 부분계에는 두 가지 영향이 있게 된다. 전체 계 지배자의 영향과 부분계 지배자의 영향이 그것이다. 아스트랄 질료의 모든 입자는 일곱 혹성 로고스 중 어느 한 분의 외피에 속해 있음과 동시에 데바라자의 영향 하에 있고, 해당 부분계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데바라자의 부차적 영향 하에

놓여 있다. 우리의 아스트랄체는 그러한 질료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아스트랄계의 부분계들을 수평선으로, 일곱 혹성 로고스에 속한 질료의 유형을 수직선으로 그려 교차시키면 우리는 49종의 아스트랄 질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부분계(일곱 부분계)에 일곱 혹성 각각의 질료가 속해 있기 때문에 $7 \times 7 = 49$ 인 것이다. 더 세분한다면 우리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의 조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성질의 자아이든 그에게 맞는 질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막 화신해 내려오려는 자아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고급 멘탈계의 코잘체 속에 머물고 있다. 그는 아직 하위체들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의 죽음을 맞은 뒤 계속 내면의 고급 차원으로 이끌려 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스트랄체 속에, 그 뒤 멘탈체 속에, 천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멘탈체마저 벗어 던지고 일정 기간 동안 고급 멘탈계에서 쉬고 있다.

휴식 기간은 자아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2,3일간 무의식 상태로 있게 되고 고도로 진보된 사람의 경우에는 수년 동안 의식적인 상태로 영광스런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밑으로, 외부로 돌리기 시작 한다.

육체의 죽음을 맞은 뒤 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관심을 물질계와 아스트랄계로부터 차츰 철수시킨다. 그때 영구 원자들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 그 활발한 진동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계의 삶의 마지막에는 멘탈 유닛의 진동이 멈추게 된다. 결국 자아가 고급 멘탈계에서 휴식하고 있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세 가지 부속들은 휴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자아가 주의를 멘탈계에 돌리면 멘탈 유닛은 즉시 그 활동을 재개한다. 그리고 그 주위에 활동을 위해 한 순간에 필요한 질료들을 끌어 모은다. 그가 주의를 아스트랄 원자에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한다. 그가 의지를 투사하면 아스트랄 원자는 아스트랄 삶의 마지막 기간에 갖추었던 것과 똑같은 타입의 아스트랄 질료를 원자 주위에 끌어당긴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아스트랄체가 아니라 앞으로 자아가 입게 될 아스트랄체의 질료일 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한 아스트랄체를 소유한 저급한 모나드들은 매우 짧은 휴지 기간을 거친 후 환생하는데 이때 종종 전생의 아스트랄 껍질이 여전히 존속하여 새로운 인성에 달라붙으려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는 옛날의 습관과 생각의 패턴, 심지어는 전생의 실제적 기억까지 인성에 수반되게 된다.

처음에 아스트랄 질료는 난형체 전체에 균등하게 펴져 있다. 그러나 난형체의 중간에 작은 육체 형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아스트랄 질료와 멘탈 질료가 끌려 들어가 그 육체에 맞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리고 육체가 성장해감에 따라 같이 계속 커 가게 된다.

이러한 배열의 변화와 동시에 멘탈 질료와 아스트랄 질료가 활동하게 되고 감정과 생각이 나타나게 된다. 아기의 오라는 거의 색깔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성품이 발달하면서부터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스트랄체를 구성하는 질료는 전생의 감정과 욕망에 의해 습득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생에서 그 질료를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영구 원자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질료로부터 전생에 가졌던 것과 거의 유사한 아스트랄체를 만드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료를 다 사용해야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따라서 만일 아이를 지혜롭게 다루고 이성적으로 인도한다면,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선한 씨앗은 십분 계발하고 나쁜 씨앗은 활동하지 않도록 고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쁜 씨앗은 차츰 위축되다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자아는 내면의 미덕을 발전시켜 마침내 전생의 악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가 이런 바람직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격려와 친절한 보살핌 그리고 무엇보다 도 넘치는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아스트랄체나 멘탈체 등의 상위 영체들은 인간의 진화 수준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육체 또한 외부로부터 그에게 부과된 하나의 매체이자 훌륭한 카르마의 통로이다. 진화의 힘은 물질의 선택에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과거의 카르마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부모는 자아의 발전에 적절한 육체를 마련해 주는 자들로 선택되어진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다양한 잠재성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긴 혈통의 조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로는 부모가 현재 갖고 있는 성질 때문에 아니라 그 조상들 중 누군가의 특성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조상 전래로 육체에 잠재해 있지만 표면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힘 때문에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조상과 부모에게 완전히 잠자고 있는 표현 능력일지라도 해당하는 특성을 소유한 자아가 그 가계(家系)로 들어오면 그 능력이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나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바 격세유전이라는 것이다.

육체의 형성에는 세 가지 주요한 힘이 작용한다. 첫째 자아의 영향, 둘째 카르마의 주님에 의해 형성된 조형 엘리멘탈의 작용, 셋째 어머니의 상념이 그것이다.

이제 한 자아가 화신해 내려와 에텔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하자. 자아에게는 일정한 타입이 있어서 그 특성은 그의 물질 영구 원자에 각인된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수직 구분 상의 에텔 질료 중 어떤 질료가, 어떤 비율로 에텔체를 구성하게 될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아의 특성은 수평 구분 상의 에텔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 한다.

수평 구분의 에텔 질료 중 어떤 질료를 어떤 비율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4명의 데바라자의 관할 하에 있고 그 사람의 전생의 카르마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데바라자들은 각자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무수한 보좌들을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지상에 누가 언제 태어나든 그것이 간과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데바라자들은 하나의 상념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조형 엘리멘탈이다. 그것은 환생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육체를 만드는 일에 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진화를 위해 자아는 내부에 특별한 잠재력을 지닌 육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속성을 직접 지니고 있

거나 조상 중에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미처 각성되지 않은 속성이 유전적으로 그 자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

신지학 대의 77. 환생 2

환생 2

이 조형 엘리멘탈은 네 데바라자들의 연대 상념체로서 그 임무는 신생아의 에텔체를 조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육체가 만들어지도 록 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에텔체를 만드는 데는 4종류의 에텔 질료가 이용되는데 각각은 데바라자들이 주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지는 에텔체의 타입은 4종 에TEL 질료의 구성 비율에 달려 있다. 이때 조형 엘리멘탈에게는 수직 구분 상의 에TEL 질료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으나 수평 구분 상의 에TEL 질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현재 수준에서는 데바라자와 같은 강대한 의식의 활동을 이해하기란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무리하게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조형 엘리멘탈이 활동할 때 그것은 데바라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여전히 어느 정도 데바라자의 의식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발달된 자아가 실제로 그의 육체를 점유하기 시작할 때(심지어 어린 나이일 때도) 직접 데바라자들과 접촉하여 본래 자기에게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카르마를 내려주십시오는 허락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무척 드물기는 하지만.

조형 엘리멘탈이 활동하는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후 삶의 과정에서도 카르마의 신들과 계속 접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간청에 따라 카르마는 더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카르마의 조정은 증가시킬 수 있을 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의식의 각성을 통해 자아는 데바라자들과 접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과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형 엘리멘탈이 육체를 만드는 동안 데바라자들과 접촉 할 수 없던 자아라 할지라도 자신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관심과 반응을 끌어올 수 있다.

인간의 탄생에는 난자와 정자의 두 구성 요소가 있으며 각각의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다. 난자에는 모계 조상의 모든 가능성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자에는 부계 조상의 모든 가능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천년 전까지만 소급하더라도, 조상들의 수를 감안해 볼 때 두 세트가 조합되어 만드는 가능성은 광범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고 자체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곳 아디야르의 우리 정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이 른 바 쿨리(하급 노동자 계층)이다.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조상들은 수백만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카스트로 인해 그들 역시 쿨리였음에 틀림없다. 그들의 성격은 다양했을 것이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똑똑한 사람, 우둔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잔인한 사람 등등.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모두 쿨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조형 엘리멘탈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성질과 형상이 그것이다. 이 둘 중에서 성질은 형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후자는 주로 하위 부분계들의 질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육체의 고급한 부분의 조형을 위해 채택된 에텔 질료의 성질은 한 생 동안 그 육체의 능력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그 사

람이 영리한지 우둔한지, 침착한지 성마른지, 활력이 넘치는지 무기력한지, 민감한지 둔감한지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데바라자의 상념체(즉 조형 엘리멘탈)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이 가능성들 중에서 새로운 육체의 형성에. 특히 두뇌의 형성에. 어떤 것을 주요 요소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순한 외부 형상은 중요하긴 해도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물론 그것 또한 조형 엘리멘탈이 하는 일의 일부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적 불구나 심장, 폐, 위 등 육체 기관의 일부에 병약성의 제한을 받아야 할 운명이라면 조형 엘리멘탈에 의해 그 카르마가 조정되게 된다.

엘리멘탈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일정한 유형, 힘, 개성을 지닌 육체를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멘탈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의 생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다 완수되면 소멸되게 된다. 왜냐하면 조형 엘리멘탈의 애초 창조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생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배(胚)의 초기 단계에서는 물고기나 개나 사람의 것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분화한다. 차이점이라면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 중 특정 단계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 보다 먼저 멈춘다는 사실이다. 물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는 사람

들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 한다.

진화력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고 특정 발전 단계에 알맞는 형상을 만든다. 어떤 존재가 개체화되어지는 순간 개별적인 카르마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카르마의 신들이 만드는 조형 상념체라는 추가적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가 점유하기 전부터 배(胚)의 성장을 관장하게 된다.

조형 엘리멘탈의 형태나 색깔은 각각의 경우마다 다양하다. 처음에 그것은 자기가 만들 태아 몸의 형상과 크기가 정확히 표현된 주형을 만든다. 모체 속을 떠도는 이 인형같이 작은 형체를 본 투시가들은 종종 그것을 태어날 아기의 영혼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태아가 주형의 크기로 성장하면 엘리멘탈의 첫 주요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외부 껍질(주형)을 떨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목표한 몸의 크기, 형태, 상태 등을 전개시켜 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멘탈이 철수했을 때 그 후의 모든 육체적 성장은 자아 자신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상기한 과정에서 조형 엘리멘탈은 일종의 거푸집 역할을 한다. 그것의 색깔과 형태는 거의 그 육체에 예정되어진 성질과 모습대

로 표현된다. 엘리멘탈은 자신의 임무가 끝나면 사라진다. 애초 그 엘리멘탈 안에 주어진 에너지가 고갈되면 입자 상호간의 결속력이 사라지고 간단히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엘리멘탈은 처음부터 육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의 어떤 시점에서 자아 역시 미래의 자신의 거주처와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양자의 힘이 나란히 작용하게 된다.

때로 조형 엘리멘탈이 작용해야 할 임무가 매우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엘리멘탈은 아기가 비교적 어릴 때 떠나가고 몸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자아에게 이양되게 된다. 또 때로는 육체에 목적된 특성의 발전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조형 엘리멘탈은 그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남아 있게 된다.

자아들이 육체에 대해 갖는 관심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자아는 일찌감치 자신이 들어갈 육체 위를 떠돌며 염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반면 어떤 자아는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임신했다가 유산되는 경우 대개 그 태아의 뒤에는 자아가 없다. 결국 엘리멘탈도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환생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평범한 환경이면 그들의 조건에 부합된다. 그들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레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중요치 않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환경이 마련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해진 시간에 그 기회를 이용할 자아가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 어머니의 상념에 의해 어느 정도 몸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소유할 자아가 없기 때문에 태아는 사실상 살아 있는 것 이 아니다.

조형 엘리멘탈은 형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텔 질료를 어머니의 몸 안에서 손쉽게 구한다. 아기의 육체가 형성되고 있는 동안 임산부가 극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일 그녀가 가장 순수한 원료만을 공급한다면 엘리멘탈은 당연히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임신 기간 중 그녀가 갖는 상념이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몸 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에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기에 임산부의 상념은 특히 순수하고 고급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모든 거칠고 불안한 영향

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오직 아주 아름다운 환경 속에 거함으로써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주변에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엘리멘탈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특별히 잘 생기게 하거나 특별히 못나게 만드는 어떤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임산부의 상념과 그녀 주위에 부단히 떠도는 상념체들에 의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만일 그녀가 헌신적인 사랑으로 남편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면 아기는 아버지를 닮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만일 그녀가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며 거기에 비친 자기 모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아기는 어머니를 빼 닮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그녀가 어떤 제3 자에 대해 헌신적인 사랑과 존경심을 갖고 계속 생각한다면 아기는 그 사람을 닮을 것이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엘리멘탈이 그 부분에 대해 명백한 사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성장 해감에 따라 얼굴은 주로 자기 자신의 상념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들의 상념은 어머니의 상념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자식들의 외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아이는 자랄수록 점점 더 예뻐지고 어떤 아이는 못생겨진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격언은 다른 계(界)뿐만 아니라 물질계에서도 진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념이 항상 고요하면 그것은 확실히 얼굴에 반영되게 된다.

진보된 자아에게 있어서 유아기는 유달리 지루한 법이다. 나는 수바 라오 씨가 유아기의 일에 대해 매우 심하게 불평해대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무리 애써도 그 아기 몸(자신을 말함)을 하루에 20시간 이상 잠들게 할 수 없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상 그 곁에서 기다려야만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구슬픈 울음 소리를 들어야 했고 맛도 없고 구역질 나는 죽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참아야 했다고 한다.

때로 매우 진보된 인간은 다른 성년의 육체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피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 그의 제자들은 언제나 기쁘게 그러한 희생을 자처한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다. 이때 상대방은 그(육체를 사용하려는 자)가 최대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육체를 성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소한 특성들과 맞게 조율시켜야 한다.

그러나 성년의 몸은 이미 당사자의 특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 아니라 쉽게 바꿀 수 없는 깊은 습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양자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기란 불가능하고 결국 서로의 바이브레이션을 동조시키는 데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생한 자아는 언제나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만 한다.

그가 보통의 방식대로 태어났다면 그 적응 과정은 성장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성인(成人)의 몸을 직접 취한 자아는 자신을 갑자기 이 모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 한다. 이것은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이전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계속 갖고 있다. 그것들은 당연히 그의 이전 육체의 대응체들이다. 그러므로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새로운 육체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이 때 상당히 유쾌하지 못한 긴장이 따르게 될은 물론이다.

신지학 대의 78. 개성 * 전생의 지식을 가져오기

개 성

많은 사례들을 조사해 본 결과 나는, 보통 사람의 경우 생에서 생으로 외모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강한 이질성뿐만 아니라 큰 유사성을 보이는 사례들도 있다. 육체는 어느 정도 자아의 표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육체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경우 인종적, 가족적 특성, 기타 다른 특성들이 그런 성향을 압도해 버린다.

어떤 사람이 진보하여 인성과 자아의 합일을 이루게 되면 코잘체 안에 있는 영광체의 특성이 인성에 각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아데프트가 되고 모든 카르마가 소진될 때 그의 육체는 영광체에 가장 가깝게 표현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스터들은 아무리 여러 번 환생해도 그를 알아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아데프트의 위계에 오른 어떤 마스터는 다른 마스터들과는 달리 다소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스터도 다음 화신에서는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 나는 마스터들이 환생을 통해 다른 육체를 입게 되거나 심지어 다른 인종의 몸을 선택한다 해도 그들의 육체에 큰 차이가 생기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나타날 제7 인종의 육체들의 전형을 본 적이 있다. 그것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코잘체 안에 있는 영광체는 원형(原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들이 진화 해감에 따라 그것에 점차 가까워질 것이다.

인간의 형체는 이 태양계 안에서 가장 높은 진화의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태양계에는 아마도 인간과 전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전생의 지식을 가져오기

우리는 아직 전생의 세부 지식을 다음 생의 육체 두뇌에 각인시키는 힘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전생의 세부 사항들은 대개 망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생에 알았던 큰 원리들은 차생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다시 말해 그 원리들이 낯설지 않고 자명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서 처음 신지학 책을 접했을 때 이렇게 환성을 질렀다.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항상 느껴 왔던 것이 바로 이거야!’

때로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신지학의 가르침이 주어지자마자 즉각 그것이 진리임을 인식하게 된다. 베산트 여사의 경우 이번 생

에서 신지학에 입문하기 전, 자유 사상가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머리 속에 확실히 체계 잡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철학(신지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을 돋기 위한 서원을 가지고 고급계로부터 내려온 부처 자신도 새로운 육체 속으로 들어온 후에는 그 서원을 완전히 잊었다고 한다. 그가 완전한 지식을 회복한 것은 수년간의 탐구 끝에 이르러서였다. 물론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른 바 운명이라는 것에 자신을 내맡겼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애초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싯달타의 몸에 부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말이다. 부처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때가 될 때까지 자기 대신 육체를 돌보도록 하고 진리를 찾아 나선 6년간의 고행 후 그 육체가 쓰러졌을 때 비로소 그 속으로 들어갔을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싯달타 왕자가 전생에 부처가 알았던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 한 이유는 그들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인 셈이 된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우리의 진아(眞我)인 자아는 한 번 배웠던 것을 언제나 알고 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새로 환생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암시적 도움 없이 새로운 두뇌에 그것들을 항상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한 생에서 오컬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외 없이 다음 생에서도 그것을 접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잠자던 기억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전생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고자 열심히 노력한 카르마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생에 우리가 다시 물질계에 왔을 때 오늘날 소위 신지학이라고 불리는 것 중 많은 부분이 보편적인 지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전생에서 신지학을 공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는 차이가 생긴다. 전자의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빠른 진보를 이룰 것이고 후자의 사람은 오늘날 비과학적인 사람이 과학을 대하듯 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대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신지학 대의 79. 균형의 법칙 1

균형의 법칙 1

인간의 삶을 고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주요한 힘을 고려해야 한다. 부단한 진화의 압력, 원인과 결과의 법칙(카르마의 법칙),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이다. 이 힘들은 서로 간에 작용을 가하거나 제한한다.

우리가 아는 한, 진화의 힘은 인간의 기쁨과 고통에 관계치 않는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진화와 발전에만 관계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 힘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은 정확한 계산에 따라 특별한 성품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들을 그때그때 행불행(幸不辛)의 상태로 몰아 넣는다.

카르마는 인간이 과거에 자유의지를 발휘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축적한 에너지에 따라 진화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막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유의지 행사는 세 번째 요소에 속한다. 카르마의 교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발전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오해를 없애야 된다.

신지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존재계의 목적은 진화이다. 그러

므로 이런 견지에서 최상의 행위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진화를 도와주는 것이다. 일생 동안 자신의 힘과 기회를 그런 행위에 헌신적으로 바친 사람은 반드시 다음 생에서 보다 큰 힘과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에게 세속적인 부와 힘이 주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그것들을 소유함으로써 선행의 적절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와 권력이 선한 카르마의 필수적인 부분은 결코 아니다. 올바른 행위의 결과는 항상 보다 더 큰 행위의 기회를 낳음을 명심하라. 그러한 기회는 전생의 행위의 보답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떨어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보상이나 별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데는 꺼림칙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은 배후에 누군가가 있어 마음대로 상과 별을 주는 관념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어들을, 인간의 행위에 의해 무너진 균형을 다시 잡는데 필요한 재조정,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면 카르마의 작용 방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폭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집행자의 입장에서 카르마의 법칙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사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법칙대로 당

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원의 카운셀러(신)--신의 제1 목표는 인간의 진화이다--에게는 언제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 타인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는 자는 진화를 촉진시키는 적극적이고 유용한 통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자에게는 언제나 보답으로서 진화를 도울 수 있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그 행위의 동기가 자기 발전을 꾀하는데 있었다면 그 자기 본위적 생각으로 인해 행위의 가치가 손상됨은 물론 결과 또한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잊고 오직 위대한 사역을 돋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장차 미치게 될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고행이 영적인 진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관념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운동은 육체적 건강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꼭 고통스런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면 매일 산보를 하면 되지 굳이 트레드밀(treadmill : 발로 밟아 돌리는 바퀴로 옛날 감옥에서 형벌로 죄수에게 밟게 했다)로 고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위해 우리의 미덕, 이타성, 봉사 정신 등

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대우주 법칙과 조화롭게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기꺼이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타인에 대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고통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법칙에 역행한다면 고통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사악함과 이기성의 길이 어리석은 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 고통이 사람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통 없이는 진보를 이룰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대 우주 법칙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우리에게는 분명 그럴 권리가 없다. 사실, 의지만 있다면 고통을 전혀 겪지 않고도 훨씬 더 빨리 진보할 수 있다.

물론 자기 앞에 놓인 영광스러운 목표를 일단 깨달은 사람도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완전히 행복할 수만은 없다. 그에게는 자신의 결점이나 실패에 따르는 불만족이 항상 뿌리 깊이 남아 있다. 심지어 불만족조차 고통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누구도 완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자유를 희망할 수 없다고 하겠다.

‘신이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고통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안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은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종교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다. 참으로 비철학적이고 유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비지성적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카르마에 대한 신지학의 가르침은 죄 사함이라는 기독교 관념보다 편하지 않다.’

‘신지학에서 말하는 천계는 기독교의 천국만큼 그렇게 실제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믿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들의 좋고 싫음이 우주 법칙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엾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리라 믿는다. 지금 우리는 사실적인 존재에 대해 공부하

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몇몇 사람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길 원치 않을지 모른다. 만일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 죄를 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인과 결과의 대법칙은 우주 안에서 언제건 빼걱거리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무구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업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르마의 법칙은 화가 난 신의 보복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원인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일 뿐이다. 그것이 우주 법칙의 작용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인은 자신이 지은 모든 빚을 남김없이 갚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매번 태어날 때마다 항상 만나야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진보를 크게 촉진시키거나 심각한 방해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영구적이고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면 두 사람은 부채의 청산을 위해 분명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청산의 방식이야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다른 생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다음 생에서 그 살인자의 희생으로 전생의 피살자의 목숨을 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살생의 카르마를 상쇄시킬 수 있다. 때로는 현생의 전부를 바쳐 전생의 피살자에게 봉사함으로써 카르마가 상쇄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카르마 말고 소위 일반 자산(부채 또한 자산에 포함된다)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사소한 카르마들이 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짓궂게 한 급우를 괴롭혔다면 천 년 후에 다른 하늘 아래서 반드시 그 친구를 만나 꼭 같이 괴롭힘 당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 자신에게 가져온다. 따라서 그런 사소한 행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카르마의 대리 집행자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상대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베풀어주고자 해도 상황이 허락지 않는다. 부주의로 그를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깜박 잊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정산을 필요로 하는 카르마와 일반 자산으로 돌아가는 카르마 사이에 일정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전자의 범주에, 일상적인 사소한 행위의 경우는 후자의 범주에 속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쳐야 전자에 속하는 행위가 될지는 우리로서도 아직 알 수 없다.

신지학 대의 80. 균형의 법칙 2

균형의 법칙 2

상기한 두 가지 말고 카르마에는 너무도 숭고하여 개별적인 보답이 불가능한 것들도 있다. 일례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생 역정을 통틀어 마스터들이 우리에게 신지학의 가르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갚을 길이란 없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받을 필요가 있는 단계를 이미 훨씬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빛과 마

찬가지로 이 큰 빛도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카르마를 볼 수 있다. 일반 자산에 포함된다고 말해야 하면서도 앞서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카르마 말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만일 누군가가 성홍열에 걸릴 카르마가 있다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되는가?’

질문의 의미에 들어 있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 사람이 꼭 성홍열에 걸려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전생의 행위의 결과로서 일정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받는 것이 현생에서의 그의 카르마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때 가까이 성홍열 균이 있다면 그것에 감염되어 고통을 당함으로써 부채가 청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순간 거기에 마침 성홍열 균이 없다면 콜레라균이나 결핵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는 질병 대신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거나 차 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

나는 어떤 행위를 하면 정확히 어떤 카르마를 받는다고 유형별로 상세히 기술한 책들을 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생에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굴면 다음 생에 우측 다리 불구로 태어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면 좌측 다리 불구로 태어난다는 식이다. 그러나 카르마의 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수많은 전생들을 조사한 결과 우리는 그러한 엄격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카르마의 정확성 못지 않게 놀라운 유동성이 있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은 자신에게 운명 지워진 고통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다. 설령 한 형태의 카르마를 요령껏 피한다 해도 결국 예기치 못한 곳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카르마가 가차없이 그에게 내려오게 된다.

카르마는 무시무시한 일격으로도 올 수 있고 강도가 덜한 연속적 타격으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비교적 사소한 걱정 근심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형태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양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은 만원의 빛을 만원 권 한 장으로도, 오천원 권 두 장으로도, 천원 권 10장으로도, 심지어 십원짜리 한 자루로도 갚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 빛은 다 갚아야만 한다.

만일 조건이 매우 비슷한 두 사람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면 결과적으로 동일한 양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고통의 종류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위인 이기성을 예로 들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생각해보자.

이기성이란 기본적으로 심적인 태도 또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 직접적인 결과를 멘탈계에서 찾아야만 한다. 이기성은 분명 자아를 희생양으로 하여 저급한 인성이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저급한 인성은 이기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강하게 만든다. 저급한 것과 얹힐수록 매번의 삶에서 고급한 것들을 계속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런 악 성향의 지속은 진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최상의 보답은 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최악의 형벌은 진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기성이 자동적으로 나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과정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 어떤 좋은 영향에도 무감각해진다. 그는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런 성향으로 인해 지상에서 많은 부당하고 불친절한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물질계 상의 카르마가 존재한다. 비록 자신의 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그것들은 작고 일시적인 것들이라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업보의 하나로 그는 삶 속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그렇게 타인들의 이기성으로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카르마 법칙의 수단은 무한하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집행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사람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신네트가 말하는 ‘현금 카르마’이다. 그것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전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보여지는 가르침들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어리석고 완고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고통에 얹어매 놓고 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너무도 뚜렷하여 즉각 피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 9/10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먼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이 생에서의 잘못된 행위, 어리석은 태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다른 아니라 사람들은 사량으로 선과(善果)와 악과(惡果)를 구분 짓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가장 큰 악과의 형태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카르마는 죽음을 포상으로 내린다.

사실 죽음은 결코 악과나 형벌이 아닌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것은 체스에서 말들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불가피하게 말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작전상의 죽음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무수한 업들이 쌓여 있다. 그것은 너무도 다양하여 어떤 사고로 표현되든 관계 없다고 여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배의 난파든 재정적 파탄이든 그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배후에 있는 카르마의 전체 질량 중 위의 방식들로 소진시켜야 할 카르마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구조돼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베푸는 자신의 행위가 카르마의 작용을 방해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학대받는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분명 그 아이가 저지른 전생의 카르마에 기인한 것이다. 이때 누군가 나서서 그 아이를 구원하는 손길을 뻔친다면 그 또한 그 아이의 카르마에 따른 것이다. 만일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카르마가 없다면 선한 의도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해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모든 방면에서 가능한 모든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행여 위대한 카르마의 신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의 일을 정확히, 그리고 완전히 해 나간다.

카르마의 법칙이 무자비해 보이는가? 그러나 그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만일 한 아이가 벼랑에서 미끄러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무리 슬퍼해도 그 아이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뿐 아니라 노인도, 어른도 마찬가지 결과를 맞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붉게 달아오른 쇠막대기를 쥐었다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든, 그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쥐었던 모르고

쥐었던 상관없이 불에 데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쇠막대기나 절벽이 무자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중력의 법칙이나 열전도의 법칙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카르마 법칙의 경우도 그것들과 꼭 마찬가지이다.

신지학 대의 81. 카르마의 메커니즘

카르마의 메커니즘

카르마의 작용이 고급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굳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행위가 상호 작용하여 에너지 세포(또는 채널)들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힘들이 그의 주변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힘들은 당사자가 작동시킨 에너지들을 통해서만 작용하고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 에너지 세포(채널)들의 수를 늘려 감에 따라 그에게 미치는 가능성 또한 계속 조정된다. 그리고 이 모든 무쌍한 변화를 다루고 대처해 가는 과정에서 카르마의 믿기지 않을 정도

의 놀라운 적응성과 융통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카르마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자기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

또 다른 측면에서 카르마 작용의 이해를 돋기 위해 편의상 사람이 겹겹으로 된 등근 우주 한 가운데 홀로 있다고 상상하자.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구면(球面)을 향해 에너지 파를 송출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무수한 구체들 중 어느 하나의 내부 표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반사되어 본래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때 어떤 구(球)로부터 반사될지는 발출된 에너지의 성질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도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된다.

어떤 행위들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비교적 가까운 구(球)를 치고 빨리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면 다른 에너지들은 아득히 먼 곳으로 송출돼 몇 생 후에나 돌아오게 될 것도 있다. 그러나 언제가 되었든 본래의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구(球)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옆 사람이 발출한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그것들은 마치 두 개의 등불에서 나온 빛처럼 간섭 없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진공 상태의 매질 속을 운동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양은 발출된 양과 꼭 같다.

카르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인도인들은 그것을 산치타(Sanchita), 프라라브다(Prarabdha), 크리야마나(Kriyamana)라 부른다.

첫 번째 산치타는 아직 소진되지 않은 카르마의 전체 총량이다. 좋은 것이 되었던 나쁜 것이 되었던 소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카르마이다. 우리는 그것을 ‘총 카르마’라 부른다.

두 번째 프라라브다는 총 카르마의 일부분으로 이번 생에서 소진될 카르마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생의 ‘운명’이라 부른다.

세 번째 크리야마나는 현재의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카르마이다.

이것들 중에서 점성가들이 읽으려고 애쓰는 것은 두 번째 유형의 카르마이다. 하지만 점성가의 예측은 종종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카르마의 개입으로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분명한 것은 총 카르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

나 본래 현생의 운명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는 있다.

한 개인의 프라라브다 카르마(즉, 권능자에 의해 현생에서 소진 시키도록 선택된 카르마)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육체에 시현돼야 하는 카르마로 데바라자들에 의해 조형 엘리멘탈(데바라자가 만든 상념체)에 주입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인생을 통하여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요소는 개인에 닥칠 행운과 불운의 카르마이다. 이 카르마는 또 다른 상념체에 주입되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계에 내려오지 않고 멘탈계 상에 남아 있다.

그 상념체는 멘탈 차원으로부터 사람을 내리 덮으며 조금씩 나누어 발출될 기회를 잡는다. 그것은 섬광(또는 손가락)같은 한 줄기 광선을 송출하여 아래에 닿게 한다. 때로는 물질계까지 깊이 내려오고 때로는 아스트랄계까지만 도달한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멘탈계의 직사광선’ 또는 ‘멘탈계의 손가락’이라 부른다.

하계로의 그러한 발출 행위는 그 엘리멘탈(상념체)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조형 엘리멘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사라간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멘탈계의 질료로 분해, 환원되는 것이다.

카르마의 작용은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원인(즉 새로운 카르마)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금 말한 그 엘리멘탈은 본래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내용물을 방출하게 된다.

이때 편리한 점성학적 시기와 주변 상황이 이용된다. 왜냐하면 그 작용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천궁도가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충분히 진화하여 강한 의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엘리멘탈의 작용은 많이 변경될 수 있고 결코 천궁도에 예정된 대로 운명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때로 변경 요소들이 개입됨으로 인해 우리가 죽는 시점까지 엘리멘탈이 다 소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남겨진 것은 다시 총 카르마 속에 흡수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음 생을 위한 또 다른(그러나 다소 유사한) 엘리멘탈이 준비된다.

투시가는 축적된 카르마 덩어리가 자아 위에 떠도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그것은 대개 유쾌한 광경이 아니다. 흔히 그렇듯 선과(善果)보다는 악과(惡果)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득한 옛날 인류의 발전 초기 단계에 대부분의 인간들은 결코 해서는 안될 많은 일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 가장 저급한 계(界)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오늘날 문명인들은 최소한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관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행악의 카르마를 만들 가능성 또한 적어졌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짓도 하고 실수도 저지른다. 그러나 대체로 평균적인 문명인은 될 수 있는 한 악행보다는 선행을 하고자 노력한다. 결국 악업보다는 선업을 더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모든 선업이 그 동안 축적된 거대한 카르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악 카르마의 양이 훨씬 더 우세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장 선한 생각, 선한 행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킨다. 그것들은 우리의 매체들(육체와 영체)을 고급한 힘에 맞춰 조화롭게 진동할 수 있게 만들며 우리의 내부에서 용기, 결단, 사랑, 헌신과 같은 고급한 성품을 발현해 낼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효과는 우리 자신 속에, 우리의 매체들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적된 카르마 속에서가 아니다.

한편,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명백히 보답을 바라고 어떤 선행을 한다면 그에 대한 선과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선과는 물질화되어 나타날 때까지 저장된 상태로 있다. 결국 이것은 악

카르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상에 묶어 놓게 된다. 선과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보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선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자기라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 일상적인 선행의 결과가 그를 묶어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악행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의 결과 또한 피할 수 없다. 만일 돌아올 보답을 생각한다면 바란대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잊고 온 마음을 다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한다면, 결과로 돌아올 모든 에너지가 성품을 발전시키는데 쓰여진다. 따라서 저급계에 묶어 둘 수 있는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처럼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좋은 보답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완전히 잊고 오직 로고스의 힘의 통로가 되기만을 생각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얻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보다 나은 로고스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행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타인을 행위에 대한 결과의 동참자로 만든다. 여기서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카르마의 작용에 개입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지학도라면 마스터의 이름으로) 선행을 한다. 그런 경우 정의의 법칙 상 그 결과 중 일부는 그리스도(또는 마스터)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것은 그리스도(또는 마스터)에 대한 상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위대한 성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원조의 마그네티즘이 그 성자들에게 계속 공급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결코 어떤 식으로도 그 위대한 성자들을 묶지 못한다. 단지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영적인 힘에 추가적인 힘만을 공급할 뿐이다.

신지학 대의 82. 죽음의 카르마

죽음의 카르마

대부분의 경우 죽음의 시간은 카르마의 주님들만에 의해 꼭 언제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조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며 융통성 있다.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카르마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

예를 들어 이제 막 난파될 배나 충돌할 기차에 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람에게는 이 생의 그 시간쯤에 죽어야 할 운명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분명 죽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구조될 것이다. 그의 생존이 보편적 우주 법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말이다.

만일 삶을 더 사는 것이 그의 진화를 돋는다면 그는 아마 죽음을 모면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특별한 레슨과 계발시켜야 할 성품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생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나, 반대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생에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는 당연히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연장된 육체적 삶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그 때 그 순간에 죽어야 할 운명이 본래의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그의 전생의 총 카르마 안에 그 죽음과 관련해 육체적 심적 고통을 받음으로써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빚이 있다면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카르마는 분명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공된 상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 카르마 안에 그런 죽음과 연계된 어떤 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기적적으로라도, 구조될 것이다. 파괴된

잔해물에 깔리지 않도록 어떤 거대한 광선이 내려와 구해주었다
든가 바다 한 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지만 새장에 매달린 채 해변
에 표류해 왔다든가 하는 등의 사례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듣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 번째 종류의 카르마(우리가 매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카르마)가 우리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잊
어서 안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와 같은 사고로 죽었을
때 그것이 현생에서의 선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 즉, 그가 이 삶
에서 선행을 쌓아 옴으로써 그때 그 순간 물질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나 방법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
향이 있다. 만일 잠깐이라도 인류의 진화를 돌보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본다면 훨씬 더 객관적인 가치 판단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존재들에게 있어 인류의 진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은
인간들이 어떤 레슨을 배우고, 어떤 성품들을 계발시켜야 할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학교 선생님과 같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공부로 그것들을 생각한다.

교사는 자기에게 배당된 시간에 따라 학습량을 나누고 매해 그
진도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한 해의 교수량은 다시 학기별, 날

짜별로 세분된다. 이때 그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업 일수를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늘려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목표가 확실히 달성되었다면 본래 계획보다 빨리 수업을 마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은 정확히 학교에서의 하루하루 생활과 같다. 따라서 수업은 교사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도 단축될 수도 있다. 죽음은 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것과 꼭 같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결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카르마가 죽음을 허용할 때마다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오직 계획된 레슨을 배우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수업 진도, 수업량, 수업 시간 등등의 세부 사항들은 당연히 위대한 법칙의 대행자들에게 일임되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때 이른 죽음'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

우리의 일은 각각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한 오래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만일 부주의나 그릇된 삶의 태도로 스스로 인생을 단축시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분명 불이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어떤 것에 의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어떤 신지학 서적들에 써어진 것처럼 다른 관점에서의 ‘때 이른 죽음’이 있음을 분명 사실이다. 인간은 고령이 되면 욕구들이 사라져가는데 이는 물질계를 떠나기 전에 이미 아스트랄 차원의 작업이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효과는 장기간의 질병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아스트랄 삶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며 심각한 고통도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의 정상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때 이른 죽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로 죽으며 욕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앞에는 더 강렬하고 힘든 아스트랄계의 삶이 기다리게 된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배후의 힘이 젊은 나이에 그를 데려가기로 결정했다면 거기에는 아스트랄 기간의 연장이 갖는 단점을 매우 기에 충분한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대체로 한 인간에게 죽음이 닥쳐올 시간과 그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점성학자들은 사실상 많은 경우에 천궁도를 통해 죽음을 예언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불길한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면 그때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그때 죽지 않는다면 다음 번 불길한 영향력이 미칠 때까지 계속 생존하게 된다. 이런 식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수상가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어떤 중요 지점에서 손금이 끊어져 있거나 생명선 상에 결흔이 있으면 그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지 치명적인 질병일 수도 있다 고 한다.

이렇게 불확실한 부분들은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또는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등에 따라 유보 사항으로 남겨진다. 그러나 죽음이나 삶, 어느쪽 방향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일 것임에 틀림없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훈육자로서의 카르마

모든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여기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작동시킨 원인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다. 원인은 결과를 낳는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한 면만 있는 동전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들은 원인(처음 행위)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것은 좋은 나쁘든 우리 자신의 행위들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채무자의 발전을 위해 부채 청산의 상황이 활용되는 것이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역경에 맞서 인내, 용기, 끈기 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투덜거린다.

‘지금 형편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걱정거리도 너무 많고 일도 너무 많고 부양할 가족도 너무 많다. 이런 것만 없다면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장애들이야말로 연단의 일부분이며 그것들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분명 내면의 잠재된 힘들을 끌어내고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고된 노력과 고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겠지만 대신 빠른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형벌이나 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행위에 대한 결과—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만이 있을 뿐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면 자연은 필연코 우리를 볼모로 하여 다시 균형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의 혼은 종종 이번 생에서 어떤 카르마를 받겠다고 스스로 선택한다. 비록 지금 우리의 머리는 그 선택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불평해대고 있는 역경은 우리의 진화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선택한 바로 그 환경인 것이다.

우리가 평범한 진화 수준을 벗어나 제자의 단계로 들어설 때쯤 되면 자신의 카르마를 지배하고 상당 부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뜻을 피할 수는 없다. 단지 자신이 얻은 많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 새로운 힘들을 다각도로 작동시킴으로써 과거의 업을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법칙에 상대하여 다른 법칙을 작용시킨다. 그래서 자신의

진화에 방해가 되는 힘들을 중화시킨다.

종종 제자는 진화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신성한 사랑의 채널, 보다 완벽한 살아 있는 채널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그는 자신의 진화를 지배하여 가능한 빠른 속도로 잠재된 선(善)을 발전시키고, 악을 제거하고자 노력한다.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위대한 카르마의 주님들에 의해 간과되는 법은 없다. 따라서 그에게 보다 큰 진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응답을 보내 준다. 하지만 이때 그에게는 어떤 식이 되었던 필연적으로 상당한 양의 고통이 더 부과되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크든 작든 악 카르마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고차원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앞에 장애물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고급한 진화의 도정에서 우리가 맑아야 할 첫걸음은 악 카르마를 소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향을 위한 우리의 분투에 대해 위대한 존재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우리에게 빚을 청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도 보다 많이 지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단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 사역의 길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부채를 청산시키는 방식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닌)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산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또 다른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그들이 조종해 주리라 확신할 수 있다. 물론 타인에게 그런 식으로 풀어야 할 어떤 현저한 카르마의 빚이 없을 경우에 말이다. 아무튼 위대한 카르마의 신들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당사자 모두에게 절대적인 정의가 실현되도록 역사한다.

신지학 대의 84. 카르마의 다양성

카르마의 다양성

봉사 행위에 대한 카르마는 언제나 더 큰 봉사의 기회를 낳는다. 이것은 수많은 전생 조사를 통해 카르마의 작용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확신하게 된 법칙의 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남달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음 생에 반드시

시 부자나 권력자가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더 큰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로고스는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 의해 행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진화의 기회를 바란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하고자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식은 우리에게 기회와 함께 책임을 부여한다. 당신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에 항복하거나 더 큰 도약력을 얻는답시고 뒤로 한 발 물러선다면 당신에게 찾아 온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같은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쩌면 수많은 생이 소요될지 모른다.

만일 당신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지식이나 비전(Vision)을 무시한다면 분명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것들을 얻지 못 할 것이다. 지식은 항상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실천을 유보한 채 지식을 간직하기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카르마에는 유달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떤 잔인한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오는 카르마는 매우 끔찍하다. 그것은 종종 심한 격통을 동반한 만성 질병이나 정신 이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후자의 경우는 특히 그 잔악한 행위가 치밀하게 의도적인 경우일 때 자주 나타

난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파티아(Hypatia)를 박해했던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르메니아에 태어나 터키인들에게 온갖 잔인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오늘날 사고로 끔찍한 고통 속에 불에 타 죽는 자들은 중세 시대에 사람들을 화형시킨 자들이거나 무시무시한 순교 장면들을 허죽거리며 지켜보았던 자들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영성이 매우 높은 사람에게 가해진 악행의 경우 그 가해자에게 돌아오는 반작용은 실로 두려운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앞에 올지 모를 위대한 존재에 대해 주의 깊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존재는 우리보다 까마득히 앞서 있다. 그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오해할 수 있다. 위대한 존재들이 사람들 사이에 자주 나타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박해의 카르마가 가공할 만한 것임과 우매한 인류가 그런 결과를 자초할 게 뻔함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한 위대한 영혼이 이해 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잔인하고 무능한 어떤 교사의 손에 모욕당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 나는 그 잔인한 행위에 따르게 될 악 카르마를 보도록 허락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음 말씀이 사실 그대로이다.

‘누구든지 이들 중 하나를 해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은혜를 저버린 카르마 또한 그와 같이 항상 과중하다. 특히 오컬트 스승에 대한 배은망덕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마스터들과 만나기 위해 계속 몰려들며 그들의 관심을 얻길 바란다. 사람들은 종종 마스터들에게 다가가려는 자신들의 노력을 제자들이 애써 저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스터의 제자는 오직 타인을 돋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마스터의 발 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위대한 존재들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행여 마스터에 대해 불손하고 거만하며 트집잡길 일삼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자는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나쁜 카르마를 만들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자칫 악 카르마를 백 배나 증폭시킬지 모를 그런 자리에 그를 앉혀 놓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양의 악 카르마를 지고 있는 자는 사실상 그것을 소진시킬 때까지 오컬트적으로 진보할 수 없다. 누구도 악 카르마를 지고 서는 아데프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데프트란 윤회의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코잘체를 벗어 던지고 붓

디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코잘체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연히 저급계들에서의 모든 카르마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마스터는 자신의 모든 힘들을 개곡선(開曲線)으로 발출시킨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폐곡선(閉曲線)으로 발출시킨다. 이는 일반인들의 저급한 상념에 기인한 것이다. 결국 좋은 나쁘든 처음 발출된 힘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받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사람은 저급계들에서 완전히 무자기(無自己)가 될 때까지 결과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 한다. 타인을 도울 때 그와 완전한 일체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멘탈계 상에서만 받을 뿐 그 이하의 계(界)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아스트랄계에서도 카르마를 지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사람은 의식이 계발되는 곳, 행위를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카르마를 지을 수 있다. 나는 아스트랄계에서 이루 어진 행위들이 다음 생(물질계에서의 삶)에 카르마적인 열매를 맺는 예들을 직접 보아 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떤 사회나 국가에든,

거기에 속한 일반 카르마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그 구성원 각자에게는 어느 정도 전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명의 사제는 전체 성직자들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때 비록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신지학 대의 85. 동물 카르마

동물 카르마

학인들은 종종 동물계와 관련된 카르마의 작용에 대해 묻는다.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은 동물들이 제각각 처하게 되는 극단적인 환경의 차이성에 대해서이다. 속성상 많은 카르마를 만들 수 없는 동물들이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조건하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은 인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어떤 것은 온갖 잔인한 취급을 당한다. 또 어떤 것은 인간들의 보호하에 배불리 먹는데 어떤 것은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한 적나라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로, 때에 따라 어떤 동물은 상당한 양의 카르마를 짓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애완 동물이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동물들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 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냥개는 주인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보다 훨씬 더 포악해지도록 훈련받고 있다. 야생 동물인 경우는 오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만 다른 동물을 죽인다. 인간만이 동물에게 파괴욕을 위해 살생하는 잔인성을 가르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사냥개의 지성이 계발된다 해도 차라리 인간과 만나지 않는 쪽이 그 불쌍한 존재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냥개를 통해 개의 그룹 소울(Group Soul)은 계속 나쁜 카르마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장 악질의 카르마를. 그 결과 그룹 소울로부터 태어난 다른 개들은 그 포악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일부 생각 없는 여자들이 애지중지하는 애완용 작은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개들은 점차 개의 본성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제멋대로 굴고 편안함만 찾는 성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상기한 두 경우에 있어 인간은 자기에게 맡겨진 피조물들의 고급한 본능이 아닌 저급한 본능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의무를 잘못 행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그룹 소울 또한 나쁜 카르마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개에 대한 인간의 진정한 의무는 그 피조물 안에 헌신, 사랑, 지성, 유용성 등을 발전시켜 주고 오랜 세월 동안 야만적인 인간들에 의해 길들여져 온 포악하고 잔인한 본능을 없애 주는 것이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가 공과(功過)에 따라 몸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분리된 개체성이 없다. 따라서 일상적 의미의 개별적 카르마가 생겨날 수 있는, 즉 상벌을 받을 수 있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생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개는 전생에 선한 행동을 했고 힘든 삶을 사는 개는 악한 행동을 한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외형의 환영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로서의 최종적 화신의 후반에 그룹 소울로부터 새로운 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 신지학회 멤버들 중에는 전혀 새로운 단편의 카르마가 시작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때렸다면, 그들은 항상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을이 갑한테 맞았다면 틀림없이 어느 전생에선가 을이 갑을 때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뿐만 대로 거둔 것이다.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분명히 어디에선가 시작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갑이 을을 때린 것은 갑의 무의식적인 행위였고 미래에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한 카르마를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을이 당한 고통은 갑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생의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응보였다.

만일 새로 형성된 두 자아가 나란히 있다고 하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였고 카르마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 둘 중 하나가 다른 자를 죽였다면(또는 어떤 행위를 가했다면) 엄격히 말해 그 결과는 아무런 정당한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개체화된 동물(즉 자아를 획득한 동물)의 어떤 카르마가 첫 인간으로의 탄생 화신으로 넘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동물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적어도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부

끄러움을 느낀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발휘할 수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카르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잔인한 동물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인간이 된다. 유순하고 부지런한 동물은 비록 초생이라 하더라도 신사적이고 친절한 인간이 된다. 이 현격한 차이는 분명 동물계에서 만들어진 카르마의 결과이다. 그러한 카르마는 그룹 소울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균등하게 분배되어진다.

따라서 한 부분이 개체로서 떨어져 나올 때 그 개체는 자기 안에 분배된 카르마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의 난점을 좀 더 과거로 멀리 미룬 것에 지나지 않는가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느 때가 되었든 카르마의 첫 걸음이 있을 것은 틀림없고, 기술적으로 그 첫 결과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카르마의 첫 시작이 두 동물 사이에서의 싸움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상대를 죽이거나 해치고자 하는 의지는 두 동물 모두에게 똑같이 존재했을 것이다. 싸움에 진 쪽의 경우 그 의지에 대한 카르마는 죽음에 의해 한 번에 소진되었다. 그러나 이긴 쪽은 카르마의 빚을 지게 되었고 나중에 유사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소진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그런 추론이 필요 없다. 어떤 개가 주인에

게 학대받을 때 그것은 그 개의 전생의 카르마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개별적인 카르마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 개가 개별적으로 카르마를 이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개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 카르마를 지은 것은 그 개가 아니라 그 개의 그룹 소울이다. 만일 그룹 소울이 그런 카르마를 짓지 않았다면 그 개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동물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서로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맹수가 배를 채우기 위해 먹 이를 죽이는 것은 큰 과보를 받지 않음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생존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불필요하며 고의적인 싸움은 해당 그룹 소울에게 악 카르마를 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카르마는 미래에 그 그룹 소울의 현현들(즉 각각의 동물들)을 통해 청산되게 된다.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끼리 싸움을 붙이는 인간의 경우는 그 악과에 한 치의 에누리도 있을 수 없다. 동물을 도와주어야 할 힘을 그렇게 오용하는 인간은 스스로 카르마를(그것도 아주 무거운 카르마) 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많은 생에서 잔인성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받음으로써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신지학의 저작들 속에서 카르마에 대한 주제를 찾아 공부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법칙의 작용 원리를 분명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많지 않고 원론적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카르마의 작용 방식에 있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가 가르치는 카르마 법칙이 우주 의 근본적인 진리의 하나로 절대적인 정의와 필연성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면 세월이 흘러 당신에게 전체적인 시스템의 작용을 볼 수 있는 고급 능력이 생겼을 때,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화해감에 따라 신성의 빛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구석 구석들을 비춰 줄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완벽한 앎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물론 신성한 진리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발전시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있다.

위대한 지혜의 마스터들의 도움과 인도하에 이런 주제들을 배우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점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으며 비록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 할지라도 아직 희미한 일별만이 허락된 그 위대한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신지학 대의 86. 리드비터와 그의 신지학 사상에 대하여 1

글 / 셜리 니콜슨

오늘날 오컬트에 대한 봄이 일면서, 리드비터와 같은 투시가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새롭게 일고 있다. 리드비터와 같은 타고난 투시가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조사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모두 포괄하여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견해는 초심리학적 사건, 예지, 치유 등과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리드비터는 생전에 이미 투시력의 진실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투시력의 존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하물며 오늘날에는 그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겠나.

초심리학자들은 초상현상에 대해 통제된 실험적 연구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 사례들까지 수집, 추적해 가고 있다. 의사들은 진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영능자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하며 심지어 경찰들까지 때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심령술사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초상현상의 실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고대와 현대의 심령술사, 투시가들의 기록이 서로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본질상 개인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동일한 초감각적 실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리드비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투시가는 단지 광대한 진동 영역 중에서 상이한 옥타브에 반응 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발전시킨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한정된 인식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주변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본서에 실린 얘기들은 리드비터와 앤 베산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리드비터는 그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폭넓은 세계관을 확실히 이해시켜 주고 있다. 이 새로운 판(版)에서는, 본서에 대한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존재계를 바

라보는 리드비터의 시각에 대한 주요 특징들을 대충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폭넓은 세계관은 리드비터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비록 그가 앞서 공백 상태로 남아 있던 부분에 많은 세부사항들을 채워 넣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의 체계는 고대 이래 인류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전통과 일치한다. 역사는 여러 시대를 거치며 출현하는 진리의 핵심을 보여준다. 때로 그것은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공개적으로 가르쳐지며 그 문화를 지배하였고 다른 시대에서는 비밀리에 그것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졌다.

그 원리는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 스타일을 띠었으며 각 시대 시대마다 여러 측면들이 특히 강조되어졌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도 그 핵심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 이 진리의 핵심은 '고대 지혜' '오컬트 철학' '비교(秘敎) 전통' '신지학'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오컬트(Occult)'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숨겨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오컬트의 어원은 라틴어로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이다)

오컬트는 자연의 과정과 법칙, 그리고 과학의 이면에 있는 것과 과학을 넘어서 있는 것들을 취급하며,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형 이상학적 원리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오컬트 철학의 자취는 조금만 언급해 보더라도 고대 그리스, 플라톤, 피타

고라스, 카발라, 조하르(Zohar), 기독교 영지주의, 노자, 힌두교와 불교 전통, 수피즘 등의 다양한 근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 속에 흐르는 일관된 맥락은 블라바츠키의 오컬트 대작인 ‘시크릿 독트린(Secret Doctrine)’과도 일치된다. 리드 비터의 연구는 블라바츠키의 가르침 속에 드러나고 있는 고대 세계관의 흐름과 통하고 있다.

이 철학은 하나의 불변하고 동질적이며 신성한 실체 원리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세계가 생겨났다는 사상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가시(可視)적 물질 세계는 그 비물질적 신성 근원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현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물리학적으로 보아도 매우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독립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것이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소립자를 다루는 핵물리학은 전반적으로 비물질적인 전기와 자기장의 개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물리학의 도(道)>에서 카프라는 소립자의 형성이 가능한 양자장(quantum field)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자장은 공간 내에 편재한 연속적 매개로서 물질의 근원적 존

재로 보인다. 소립자들은 유동하는 에너지의 집중에 의한 양자장의 국부적 응축일 뿐이며 이 에너지 유동에 의해 그들은 개별적인 특성을 상실하고 기초장 속에 융해된다”

이렇게 볼 때 비물질 영역과 물질은 하나로 보인다. 즉, 물질은 그 비물질적 근원으로부터 출현하고 다시 그곳으로 소멸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컬트 철학에 따르면 물질 세계는 전체 질료 스펙트럼 중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가장 섬세한 초월계로부터 딱딱한 물질계에 이르는 일련의 존재계들 중에서 물질계는 가장 농밀하고 구체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이집트 비의, 힌두교,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리스의 원소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드비터처럼 초상(超常)적 세계의 자극에 민감한 많은 투시가들은 이 정묘한 세계들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사상은 그렇게 심한 억지 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으로 인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초감각적 파동이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장치들을 통해 우리는 자외선 같은 불가시(不可視)의 광선이나 인간의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소리, X레이, 우주선(線), 극초단파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는 우

리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다양한 에너지들로 주변 공간이 채워져 있음을 알고 있다.

오컬트 철학에서는 물질계를 초월하여, 질서 정연하게 존재하는 여러 차원들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제시하는 리드비터의 방식에 의하면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진 물질계는 네 개의 보다 섬세한 질료 상태, 즉 에텔계로 확장되어 있고 이 섬세한 질료(즉 에테르)는 생물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에 삼투하여 있다. 특히 생물체에서의 에텔체의 역할은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물질계와 에텔계를 관통하여 이른 바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끊임없이 운동하여 빛을 발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리드비터는 1910년대에 쓴 저작 (<Inner Life>)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특별한 실험들을 통하여 과학자들은 틀림없이 실제로 물질을 분해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아스트랄계에까지 그것을 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머지않아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아스트랄 질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비록,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을 더 세분해 놓은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신지학 대의 87. 리드비터와 그의 신지학 사상에 대하여 2

오늘날은 리드비터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자가 세분되고 있다. 상술한 그의 말은 어쩌면 현대 물리학의 구름 낀 방에서 나타난 수많은 소립자들이 아스트랄계로부터 출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인간은 아스트랄 차원에서 오라(aura), 즉 에너지장(리드비터는 이를 아스트랄체라고 부른다)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감정과 욕망의 매체이다. 생명 또는 생명 에너지가 에델계의 특성인 것처럼, 느낌과 감정은 아스트랄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스트랄체는 에델체를 통하여 육체에 삼투하여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과 육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상위 차원은 구체적인 마음의 세계인데 이 또한 개인적 오라(멘탈체)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특징을 지닌 자연계, 즉 이른바 하위 멘탈계 또는 하위 마나스계에서 모두 아스트랄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차크라로 불리는 에너지 회전 센터는 이를 차원에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이 계들로부터 나오는 힘을 결집시키는 것을 돋고 있다.

차크라들은 에너지 초점일 뿐만 아니라 의식의 센타이기도 하다. 때문에 차크라는 영적인 자각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멘탈계의 상위 차원들은 보다 깊고 추상적이며 철학적인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리드비터는 이를 상위 멘탈계 또는 상위 마나스 계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을 넘어서면 많은 신지학 저서들 속에서 붓디계로 불리는 차원이 나오는데, 직관적 통찰의 세계이다. 지극히 섬세한 차원인 이 계는 인간에 내재한 자아, 가장 순수한 화신 속에 내재한 그의 영적 에센스 개념의 원천이다.

이들 각각의 차원들은 인간의 개별적 매체들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를 통해 정묘한 질료로 이루어진, 고유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리드비터는 아스트랄계와 멘탈계의 질료를 '엘리멘탈 에센스(elemental essence)'라 부른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각각의 계는 농밀한 차원에서 섬세한 차원에 이르는 7개의 부분계(하부계)로 세분된다고 한다.

이 존재의 차원들은 인도철학과 불교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의 각기 다른 차원의 신체들은 코샤(koshas), 즉 껍질들로 언급되어 있다.

오늘날 티벳 불교의 권위자인 라마 아나가리카 고빈다는 상이한 존재계들 사이의 삼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껍질들은 고체 핵 위에 차례로 굳어 있는 분리된 층들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전체의 방사자, 즉 모든 곳에 편재한 빛나는 의식으로부터 육체로 가시화되기 바로 이전에 나타나는 가장 농밀한 형태의 물질의식에 이르기까지 상호 삼투해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되어 있다. 각각의 순수하고 섬세한 껍질들은 보다 농밀한 껍질을 포함, 삼투하고 있다”

<티벳 신비주의의 기초>

각각의 차원은 악기의 각 현(弦)의 음색처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식의 확장>에서 아서 오스본은 이 존재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諸) 진동 영역은 다른 양식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식으로 하여금 일정하게 제한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다양한 옥타브와 매체들의 배후에 인간은 여전히 하나의 단일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레이너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을 궁극적 실재와 하나인 자신의 에센스에로 다가감에 따라 자라가고 커가는 의미와 힘들

의 원리(또는 매체)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감옥에 갇힌 영광>

오컬티즘에 따르면 인간의 내면에는 바울이 말했던 것과 유사하게 영과 혼과 육체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한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모든 현현된 것의 근원인 신성 속에 내재한 의식의 초점이다. 이 유일 실재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자로 영원히 남아 있다. 그러나 그는 빛을 발출하여 불멸의 아트만을 창조하였다. 이 빛은 섭리에 따라 질료적 표현의 제계(諸界) 속에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보다 놓밀한 질료와 연결되게 된다.

그것은 가장 섬세한 질료에 싸여 모나드(monad)가 되었고 상위 멘탈계의 질료에 다시 싸여서 리드비터가 말하는 자아(ego)가 되었다. 리드비터가 말하는 자아(에고)는 현대적 어법에서 쓰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가 자아라고 할 때 그것은 아트마-붓디-마나스의 영적 삼위일체, 즉 인간의 혼을 의미하며 이 인간의 혼은 상위 멘탈계에 고정된 거처를 갖고 있다. 자아는 화신(化身)하는 존재로, 다양한 인류의 문화들 속에 거듭거듭 인성(하위 자아)을 발출하여 그 힘을 표현한다.

오컬트 철학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은 위대한 계획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건들의 추이를 조종하는 목적된 결과가 존재한다는 목적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

다.

최근까지 이러한 사상은 지지를 받지 못해왔는데 그것은 주로 돌연변이와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이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날의 많은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이론이 진화를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즉, 진화가 맹목적인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 알리스터 하디 경과 L. L. 화이트는 생명 자체가 진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유기체의 내적 요인설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계 전반에 목적 유향성(有向性)이 존재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서 케슬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부분은 한 체계의 동위(同位) 행위를 낳는 방아쇠의 작용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진화가 맹목적 우연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통계의 법칙에 지배되는 방아쇠의 단순 작용을, 그것이 출발시킨 복잡한 목적과정과 혼동함을 의미한다. 일정한 유도과정은 미래와의 관련성을 함축하고 있다. 발전과정의 동일 궁극 목적성, 즉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포배(胞胚)에서 짹을 틔우는 투쟁을 편견없이 지켜 본 관찰자라면 미래의 유도력이 실재하며 때로 과거의 압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자연>

E. 레스터 스미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비물질적 모체(母体), 즉 에너지 장(場)이 있어서 성장과 발전과 진화를 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수이트이며 고생물학자인 테야르 드 샤르댕은, 진화의 목적이란 보다 더 정제된 형상 속에 의식을 표현함으로써 차츰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것은 오컬트 철학과 일치한다.

오늘날 인체의 진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줄리안 헉슬리는 진화의 추진력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업적을 전승해가는 진화의 주요한 대리자라고 한다.

오컬트 전통에 의하면, 인간은 보다 섬세하고 영적인 차원들에 존재하는 고급한 잠재력의 발현 능력이 아직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발전은 광대한 진화계획에 따라 부단하게 전진해가고 있다.

블라바츠키 여사는 그 진화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인류는 근본인종이라 불리는 일곱의 대 단계를 거치며 진화하게 된다. 인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늘날 흔히 쓰이는 인종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인종은 육체적 타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식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다섯 단계의 의식, 즉 근본 인종이 출현하였다. 일곱 근본 인종체계는 라운드라 불리는 대 싸이클 속에서 일곱 번 반복되며 대 싸이클의 일부가 이미 머나먼 과거에 초물질계상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제4라운드에 속해 있다.

오컬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류는 인류학적 자료가 제시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블라바츠키에 따르면 대체로 현재의 인류는 선사시대 인도에서 태동한 제5근본인종에 속한다고 한다. 각 근본인종에는 인간의 매체(영체)들 중 하나와 관련된 특성이 강조된다. 제5 근본 인종은 구체적 이성적 마음의 발전이 부각되어 있다.

근본인종은 다시 아(亞)인종으로 세분되며 이들 또한 나름대로 강조되는 부수적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제5 아인종은 아메리카와 서구 유럽에 퍼져 있는데 이들은 이성적 마음이 두 배나 강조된다. 서양에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 것이다.

제6 아인종은 현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인종은 직관과 유기적 통찰력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며 오늘날 일부 지도적 사상가들 사이에서 그 전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한 인종에 속한 아인종의 개개인들을 서로 동일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집단내의 차이가 집단 간의 차이보다 때로 더 클 수 있다. 각 인종과 아인종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동일 가치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유형이 이후의 유형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화에 대한 오컬트적 관점은 단순히 수평적 전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의식의 확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확장된 의식 속에서 개인의 의식적 통제하에 잠재된 능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컬트 철학에서는 자아, 즉 혼으로서의 인간은 각 인종에서 수 없이 환생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발전시킨다고 한다. 윤회는 동양 철학에서 나타나는 고대 사상으로,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상이 윤회사상을 믿고 있다. 서양에서는 오늘날 과학협회의 회원들조차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아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오로지 윤회의 개념을 통해서만 해명할 수 있는 사례들을 기록하여 <윤회를 증명하는 20가지 사례들>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오컬트 철학에서는 한 생애의 에센스적 의미가 윤회의 전환기에 혼 속에 흡수, 혼합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양의 전통에서는 한 삶 동안의 모든 사건과 행위의 영향은 후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오컬티즘에서는 우주가 분리할 수 없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현대 물리학과 생태학에 의해 그 타당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불교와 힌두교에 따르면 인생의 역동적 균형은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유지된다고 한다. 카프라는 카르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카르마는 연극의 활동적 원리이며 만물이 서로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적 우주작용이다. 기타(Gita)의 잠언에는 ‘카르마는 창조력이며 그것으로부터 만물이 그 생명을 갖는다’라고 씌어 있다”

<물리학의 도(道)>

카르마에 의해 만들어진 균형은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 영역에까지 뻗어있는 질서와 법칙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거두리라’는 격언은 이 법칙 작용의 핵심을 포착한 성경의 표현이다. 행위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격 속에서도 나타난다.

베단타의 가르침에 대해 말하면서 짐머(Zimmer)는 다음과 같이 썼다.

“카르마를 품고 있는 열매는 우리의 현생(現生)을 구성하는 사건들, 요소들이며 이것들을 만들고 견디어내는 인성의 특성과 기질이다”

<인도 철학>

라마 고빈다는 카르마가 작용하는 메카니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위에 의해 형성된 의지의 성향일 뿐이다. 걷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길이 만들어지듯이 모든 행위는 그렇게 자취를 만들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 습관적으로 같은 길을 답습하게 된다. 이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우리는 이것을 최소저항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의 법칙, 즉 카르마라고 부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습관의 힘’으로 알려져 있다. 한 삶을 마감하고 다른 삶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화신의 핵 또는 썩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여 형성된 의식인 것이다”

<티벳 신비주의의 기초>

리드비터의 용어로 말하면 이 핵은 윤회과정 속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영구원자’를 구성한다. 각각의 부분계(하부계)들로부터 나온 질료의 원자는 모나드에 부착되어 개인의 모든 윤회기간 동안 한 경험을 축적하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불교의 오온(Skandhas)의 개념은 이 사상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작가로서 머나먼 과거에 운명의 일부를 스스로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의 결과는 보복적, 징벌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인 경험이다. 또한 카르마는 고정된 숙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환경에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전의 행위의 결과를(비록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강할수록 자신의 인생 행로에 의식

적으로 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종교들은 영적인 진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요가, 명상, 기도, 만트라 등의 수련법들은 인간의 잠재력을 각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에서 리드비터는 영적인 성장과 관련된 내적 생명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얘기들은 영적인 진화의 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더 큰 봉사를 추구하는 신비학도들에게 행해진 강연이다.

리드비터는 자주 아데프트, 마스터 그리고 기타 다른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초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식을 가진 생명이 겪는 진화 법칙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동양에서는 영적인 완성에 도달한 자들의 존재를 당연시하며 승과 제자의 전통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서양 역시 비전가(秘傳家)와 아데프트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나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의 신비학파가 번성하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동양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오컬티즘에서도 진화된 존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하이어라키

(Hierarchy) 속에 두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역사상의 위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은 외부 세계와 떨어져 조용히 활동한다. 진화된 존재의 여러 유형은 아데프트, 초한, 드얀 초한, 데바 등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명백한 개별적 존재들이다. 하지만 내속적(內屬的)으로 이들은 하나의 신 성한 우주적 생명 안에서 중심 초점인 자들이다.

특히 리드비터는 인간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한 한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 존재를 ‘태양 로고스(Solar Logos)’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이 신적인 존재의 생명이 전체 태양계를 지배하고 유지하며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

리드비터는 자신의 초월적 비전(Vision)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이용했던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의 연구 내용 대부분은 그와 함께 활동했던 다른 투시가들에 의해 그 진실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의 설명 속에는 불가피하게 당시의 문화적特色이나 빅토리아풍의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경미한 왜곡이나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의 이면에 감추어진 세계에 대한 놀라운 관찰과 그의 사상의 위대성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남음이 있다.

